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연구보고 06-R12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김은정(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손승영(동덕여자대학교 · 교수)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박현주(함부르크대학 · 교수)
연구보조원 : 신정민(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최현주(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게이오대학교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아이오와 대학교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베를린 자유대학교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남스톡홀름 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부연구위원	손승영 (동덕여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 박현주 (함부르크 대학)
협력연구기관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홍승아 연구위원 김혜영 연구위원	정경자 (호주 사회정책연구원) 김보영 (영국 요크 사회정책학과)
	게이오 대학교	와타나베 히데키 교수	마츠다 시게키 (다이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무쿠오 아사코 (게이오 대학) 배지혜 (게이오 대학)
	아이오와 대학교	김재온 교수	김상학 (아이오와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교	서병문 교수	안드레아스 헤네커 (베를린 자유대학) 제스퍼 코글린 (베를린 자유대학)
	남스톡홀름 대학교	최연혁 교수	피터 스트랜브링크 (남스톡홀름 대학)

연구결과요약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내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동시에 사회변화에 따라 어떻게 사회화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있음.

- 2006년도에는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하였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동경, 독일은 베를린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영역은 크게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자녀관계, 청소년들의 생활·참여·의식 등 네 가지임.

2. 연구결과

- 가족구조 비교에서는 5개국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 비율도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한국의 모자 가정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가 사회이슈화되고 있으나, 서구의 가족구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핵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화의 비교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의식 결정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음. 그 결과 한국, 독일, 미국 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즉, 조사대상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역할 역할모

델로서 기능하고 있었음. 또한 각국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헌신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5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의 헌신성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 평가는 독일, 스웨덴, 미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

-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모자녀 갈등해결 방법 등을 위주로 비교하였음. 부모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웨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사대상국 모두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모의 관심 영역을 비교한 결과, 한국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영역에는 관심이 높은 반면, 자녀의 이성관계나 여가·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스웨덴의 아버지들은 학업 뿐 아니라 자녀의 여가·취미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음. 또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청소년들의 생활·참여·의식 부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 의식을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고민, 가사노동 참여, 독립·자립의식, 직업의식, 성역할의식, 자아개념을 통해 살펴 보았음. 한국 청소년들은 대다수는 방과 후 보충수업과 학원 등 학업관련 활동으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귀가시간이 늦었으며, 성역할 의식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스웨덴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음.

3. 정책제언

-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수요자가 찾아가는 형식이어서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따라서 수요자들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가 필요함.

- 재혼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조부모 양육 가정 등 가족의 다양화 흐름에 맞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조사결과 부모자녀관계에서 특히 문제로 드러난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아버지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시 유급휴가 부여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운영 지원정책이 필요함.

-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또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시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자녀교육관련 홍보 및 교육책자를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녀사회화 지원 및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수요자의 수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가족보호그룹(Family Advocacy Group) 조성 및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래에 부모가 될 청소년들에 대한 자녀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자녀교육' 교과 운영 및 자녀교육실습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1) 2006년 연구내용 ·····6
   2) 2006년 협동연구기관의 세부연구과제 ·····7
   3) 2007년 이후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설문조사 ·····10

Ⅱ. 개념분석 및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정의 ·····15
   1) 청소년 개념의 역사적 의미변화 ·····16
   2) 청소년개념의 문화적 차이 ·····18
   3)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청소년의 정의 ·····20
   4) 변화하는 청소년기와 사회화 과정의 문제 ·····23
2.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관련 주요이론 ·····24
   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25
   2)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25
   3) 하위문화론적 접근 ·····26
   4) 생애과정론의 관점 ·····28
   5) 해석적 관점 ·····29
   6) 청소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미시적 이론 ·····31
   7) 능동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하는 미시적 이론들에 대한 문화론적 해석 ·····36
3.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41
   1)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 ·····41
   2)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연구경향: 가족구조의 중요성 ··44

3)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46
4) 가족 내 사회화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 ·····52
5) 가족 내 사회화를 둘러싼 논쟁 ·····56
4. 한국의 가족주의와 자녀 사회화 ·····63
1) 한국의 도구적 가족주의와 자녀 사회화 ·····63
2) 한국 청소년 사회화의 특수성 ·····68
3) 종합적 논의 ·····77

III.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 현황과 사회환경 변화
1. 사회화과정의 사회적 배경 ·····83
1) 교육 · 복지 환경 ·····83
2) 청소년의 노동환경 ·····89
2. 사회화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98
1) 가족의 역사 ·····98
2) 가족의 구조와 특성 ·····108
3) 부모자녀관계 ·····124
4) 부모의 양육방식 ·····131
5) 가족과 청소년 정책 ·····144
3. 청소년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 ·····164
1) 청소년의 가치관 ·····164
2)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태도 ·····181

IV. 비교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개요 ·····203
1) 한국 ·····203
2) 일본 ·····210
3) 독일 ·····212
4) 스웨덴 ·····214
5) 미국 ·····216
2. 가족의 구조 및 가족문화 ·····217
1) 가족의 구조 ·····217

2)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220
3)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223
3. 부모자녀 관계 ·····229
1) 부모의 양육행동 ·····229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240
3) 부모자녀간 생활시간 공유 ·····259
4) 부모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262
5) 부모의 통제적 관여 ·····266
6) 부모의 관심과 기대 ·····267
7) 부모자녀간 갈등관계 ·····280
8) 부모의 영향력 ·····289
4. 청소년의 생활・의식・참여 ·····293
1) 생활・활동・참여 ·····293
2) 의식 ·····304
3) 자아개념 ·····317
5. 조사결과 요약 ·····326
1) 가족구조 비교 ·····326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화 ·····326
3) 부모자녀관계 ·····327
4) 청소년들의 생활 · 참여 · 의식 ·····329

Ⅴ.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333
1) 요약 ·····333
2) 결론 ·····336
2. 정책제언 ·····337
※ 참고문헌 ·····347

부록
1. 단순집계표 ·····375
2. 질문지 ·····418
3. 5개국 주요통계 ·····507

표 목 차

<표 Ⅲ-1> 주택보조금 수준과 최저 및 최고 수입 범위(스웨덴) ····· 88
<표 Ⅲ-2> 가족종류별 평균 가구원수(한국) ····· 99
<표 Ⅲ-3> 합계 출산율 변화추이(한국:1960~2006) ····· 100
<표 Ⅲ-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한국) ····· 101
<표 Ⅲ-5> 연도별 총 이혼건수 및 이혼율(한국) ····· 108
<표 Ⅲ-6>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수와 비율(한국) ····· 109
<표 Ⅲ-7> 세대 구성의 시계열 변화(일본) ····· 112
<표 Ⅲ-8> 연령별로 본 이혼율(일본:2000) ····· 113
<표 Ⅲ-9> 1세부터 21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관계(스웨덴:2002) ··· 122
<표 Ⅲ-10> 성인(18~89세)의 가족구성(스웨덴) ····· 123
<표 Ⅲ-11> 가구수와 평균 가족수의 변화(스웨덴:1960~2005) ····· 123
<표 Ⅲ-12>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및 비율(한국:2005) ····· 152
<표 Ⅲ-13> 보육시설 현황(한국:2005) ····· 152
<표 Ⅲ-14> 희망 직업유형(일본:15~24세) ····· 171
<표 Ⅲ-15> 청소년의 인생관(일본) ····· 173
<표 Ⅲ-16> 성별과 나이집단에 따른 가치성향(독일) ····· 175
<표 Ⅲ-17>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일본:15~24세) ····· 191
<표 Ⅲ-18> 진학희망(일본) ····· 194
<표 Ⅲ-19> 고교생의 학교생활 불만사항(일본) ····· 196
<표 Ⅲ-20> 청소년의 최초 출산연령 추이(스웨덴:1980~2004) ····· 198
<표 Ⅳ-1> 모집단 현황 : 중학교(한국) ····· 204
<표 Ⅳ-2> 중학교 대상 조사의 각 층별 표본크기 현황(한국) ····· 205
<표 Ⅳ-3> 모집단 현황 : 고등학교(한국) ····· 206
<표 Ⅳ-4> 고등학교 대상 조사의 각 층별 표본크기 현황(한국) ····· 208
<표 Ⅳ-5> 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09

<표 Ⅳ-6> 일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12
<표 Ⅳ-7> 독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13
<표 Ⅳ-8> 스웨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15
<표 Ⅳ-9> 미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17
<표 Ⅳ-10> 국가별 가족구조 ····· 218
<표 Ⅳ-11> 연도 별 총 이혼건수 및 이혼율 (한국) ····· 219
<표 Ⅳ-12> 혼인상태별 한 부모 가구수와 비율 (한국) ····· 220
<표 Ⅳ-13> 어머니의 가사노동분담 각국비교 ····· 222
<표 Ⅳ-14>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 의식 사이의 관계(한국) ··· 224
<표 Ⅳ-15>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일본) ···· 225
<표 Ⅳ-16>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독일) ···· 226
<표 Ⅳ-17>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스웨덴) ··· 227
<표 Ⅳ-18>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미국) ····· 228
<표 Ⅳ-19>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 232
<표 Ⅳ-20>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 238
<표 Ⅳ-21> '부모님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각국 비교 ····· 252
<표 Ⅳ-22>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 각국 비교 ···· 253
<표 Ⅳ-23> 상관분석: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 - 각국비교 ····· 254
<표 Ⅳ-24>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차이(한국) ····· 255
<표 Ⅳ-25>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일본) ····· 255
<표 Ⅳ-26>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독일) ····· 256
<표 Ⅳ-27>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스웨덴) ····· 257
<표 Ⅳ-2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미국) ····· 258
<표 Ⅳ-29>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1·2순위 기대 (복수응답) ·· 272
<표 Ⅳ-30>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1·2순위 기대(복수응답) ·· 273
<표 Ⅳ-31> 부모님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각국비교) ····· 279
<표 Ⅳ-32> 청소년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각국비교) ····· 279
<표 Ⅳ-33> 상관분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과
'자녀 자신의 교육기대수준' (각국비교) ····· 280
<표 Ⅳ-34>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한국) ····· 290
<표 Ⅳ-35>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일본) ····· 290
<표 Ⅳ-36>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독일) ····· 290
<표 Ⅳ-37>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스웨덴) ····· 291
<표 Ⅳ-3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미국) ····· 291
<표 Ⅳ-39> '아버지가 싫다', '어머니가 싫다' (각국 비교) ····· 292
<표 Ⅳ-40>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각국 비교) ····· 292
<표 Ⅳ-41> 청소년의 생활시간: 하루평균 기준 (미국제외) ····· 295
<표 Ⅳ-42> 방과후 귀가시간 (각국 비교) ····· 295
<표 Ⅳ-43> 방과후 취침 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상대 (각국 비교) ····· 297
<표 Ⅳ-44> 각국 청소년의 고민거리 (복수응답) ····· 298
<표 Ⅳ-45> 청소년의 가사활동 (청소/요리/세탁) ····· 299
<표 Ⅳ-46> 청소년의 문화 활동 (각국 비교) ····· 299
<표 Ⅳ-47> 청소년의 야외 활동 (각국 비교) ····· 300
<표 Ⅳ-48> 청소년의 여행 및 캠프 활동 (각국 비교) ····· 300
<표 Ⅳ-49>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한국) ····· 301
<표 Ⅳ-50>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일본) ····· 302
<표 Ⅳ-5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독일) ····· 302
<표 Ⅳ-52>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스웨덴) ····· 302
<표 Ⅳ-5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미국) ····· 303
<표 Ⅳ-54>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 (각국비교) ····· 303

＜표 Ⅳ-55＞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경제적 독립시기 결정 (각국 비교) …… 306
＜표 Ⅳ-56＞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각국비교) …… 307
＜표 Ⅳ-57＞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 (각국비교) …… 309
＜표 Ⅳ-58＞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각국 비교) …… 310
＜표 Ⅳ-59＞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견해 (각국비교) …… 311
＜표 Ⅳ-60＞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 …… 321
＜표 Ⅳ-61＞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일본) …… 322
＜표 Ⅳ-62＞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일) …… 323
＜표 Ⅳ-63＞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웨덴) ‥ 324
＜표 Ⅳ-64＞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미국) …… 325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영역 및 개념도 ····· 6
[그림 Ⅱ-1] 10대들의 평일 생활시간 이용 ····· 72
[그림 Ⅲ-1] 90년대 이후 OECD 11개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 90
[그림 Ⅲ-2] 프리터의 추이(일본) ····· 92
[그림 Ⅲ-3] 세대구성(일본:2000) ····· 111
[그림 Ⅲ-4] 18세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족비율(독일:1961~2003) ····· 120
[그림 Ⅲ-5] 집에서의 공부시간(중학생과 고등학생:일본) ····· 129
[그림 Ⅲ-6] 부모와의 관계(독일:12~25세) ····· 130
[그림 Ⅲ-7]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독일:12~15세) ····· 131
[그림 Ⅲ-8]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한국:1990-2004년) ····· 133
[그림 Ⅲ-9] 자녀관(한국, 일본, 타이, 미국, 프랑스, 스웨덴) ····· 136
[그림 Ⅲ-10]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한국, 일본, 타이,
미국, 프랑스, 스웨덴) ····· 137
[그림 Ⅲ-11] 자녀의 성장에 만족도(한국, 일본, 타이,
미국, 프랑스, 스웨덴) ····· 138
[그림 Ⅲ-12]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독일:12~15세, %) ····· 140
[그림 Ⅲ-13] 부모의 양육형태(독일: 12~25세, %) ····· 141
[그림 Ⅲ-14]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연관정책분야 ····· 162
[그림 Ⅲ-15] 청소년의 선호직장유형(일본:15~24세) ····· 171
[그림 Ⅲ-16] 청소년의 직업관(일본) ····· 172
[그림 Ⅲ-17] 성별과 나이에 따른 가치의 비교(독일) ····· 175
[그림 Ⅲ-18] 연령집단과 교육수준에 따른 쾌락주의 성향(독일) ····· 176
[그림 Ⅲ-19] 청소년의 가치변화(독일:16~29세, 1992~2003) ····· 177
[그림 Ⅲ-20] 친구관계(일본) ····· 190
[그림 Ⅲ-21] 학교생활 만족도(일본) ····· 193
[그림 Ⅲ-22] 학교 생활 불만사항(일본) ····· 193
[그림 Ⅲ-23] 고교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일본) ····· 195

[그림 Ⅳ-1] 어머니의 가사노동 분담 - 각국비교 ····· 222
[그림 Ⅳ-2] 가사노동 분담 - 각국비교 ····· 223
[그림 Ⅳ-3] 가정경제의 책임에 대한 성역할분담 의식 - 각국비교 ····· 224
[그림 Ⅳ-4]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 231
[그림 Ⅳ-5]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 231
[그림 Ⅳ-6]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 I ····· 234
[그림 Ⅳ-7]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I ····· 235
[그림 Ⅳ-8]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 II ····· 236
[그림 Ⅳ-9]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II ····· 237
[그림 Ⅳ-10] 아버지의 헌신성 ····· 239
[그림 Ⅳ-11] 어머니의 헌신성 ····· 240
[그림 Ⅳ-12]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방식 I ····· 243
[그림 Ⅳ-13]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방식 II ····· 243
[그림 Ⅳ-14]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방식 ····· 245
[그림 Ⅳ-15]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방식 ····· 246
[그림 Ⅳ-16] 아버지와의 대화내용 I ····· 248
[그림 Ⅳ-17] 어머니와의 대화내용 I ····· 248
[그림 Ⅳ-18] 아버지와의 대화내용 II ····· 250
[그림 Ⅳ-19] 어머니와의 대화내용 II ····· 250
[그림 Ⅳ-20] 부모-자녀간 생활시간 공유 ····· 259
[그림 Ⅳ-21] 아버지와의 문화활동 공유 ····· 261
[그림 Ⅳ-22] 어머니와의 문화활동 공유 ····· 262
[그림 Ⅳ-23] 아버지와 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 265
[그림 Ⅳ-24] 어머니와 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 265
[그림 Ⅳ-25] 부모의 통제적 관여 ····· 267
[그림 Ⅳ-26] 아버지의 관심 ····· 270
[그림 Ⅳ-27] 어머니의 관심 ····· 270
[그림 Ⅳ-28] 아버지의 기대 I ····· 275
[그림 Ⅳ-29] 어머니의 기대 I ····· 276

[그림 Ⅳ-30] 아버지의 기대 II ····· 278
[그림 Ⅳ-31] 어머니의 기대 II ····· 278
[그림 Ⅳ-32] 아버지의 간섭정도 ····· 282
[그림 Ⅳ-33] 어머니의 간섭정도 ····· 283
[그림 Ⅳ-34] 아버지와의 갈등 ····· 285
[그림 Ⅳ-35] 어머니와의 갈등 ····· 286
[그림 Ⅳ-36] 갈등시 부모자녀 태도-아버지 ····· 288
[그림 Ⅳ-37] 갈등시 부모자녀 태도-어머니 ····· 288
[그림 Ⅳ-38] 부모의 역할모델 인식 ····· 289
[그림 Ⅳ-39] 청소년의 고민거리 ····· 298
[그림 Ⅳ-40] 청소년의 활동내용 ····· 301
[그림 Ⅳ-41] 청소년의 독립/자립의식 ····· 305
[그림 Ⅳ-42] 직업선택의 기준 ····· 308
[그림 Ⅳ-43] 아르바이트 이유 ····· 310
[그림 Ⅳ-44] 성역할 의식 I ····· 312
[그림 Ⅳ-45] 성역할의식 II ····· 314
[그림 Ⅳ-46] 사회의식 I ····· 315
[그림 Ⅳ-47] 사회의식 II ····· 316
[그림 Ⅳ-48] 긍정적 자아개념 ····· 318
[그림 Ⅳ-49] 부정적 자아개념 ····· 32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협동연구의 경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치와 규범이 비교적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했던 과거에는 청소년기 사회화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각 사회화 기관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였다. 즉,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며, 가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학교가 어떤 곳이며,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사회화란 그리 어렵지 않은 사회적 프로젝트였으며, 논란거리도 적었다. 물론 과거의 '사회적 합의'에 이데올로기의 강제와 통제가 작용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로지 화급을 다투는 근대화만이 사회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고,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안에서 더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이 사회를 견인해 갔으며, 그 안에서 사회화는 단순히 어린 세대를 기성세대처럼 길들이고 성장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달리 말하면 '국민만들기'가 사회화의 요체였던 것이다. 개인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했다. 사회화는 개인화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고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가면서 개인의 권리와 가치가 부각되고 심지어 사회 곳곳에서 가치의 충돌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회화시켜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서 있다.

전통적인 사회화 기관 또는 장이라고 하면, 가족과 학교와 또래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와 미디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어느 영역 하나 분명한 가치지향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우려, 이혼률 상승과 저출산화 등 일련의 통계수치를 하루가 멀지 않게 접하게 되고,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늘 표류 중인 교육정책, 학교붕괴와 같은 학교교육 불량지수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뎌질

정도이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에 대한 애착보다는 부동산, 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이 사회는 그 애착이 교육열과 절묘하게 융화되면서 전국민을 유목민화시키고 심지어 국경을 초월해서 왜곡된 자식사랑을 세계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컴퓨터, 인터넷, 게임, 핸드폰 등 이른바 뉴미디어 때문에 생기는 부모와 자식간의 처절하기까지 한 갈등은 IT강국이라는 명예를 무색케 한다. 미디어는 가능성도 무한해서 맥루한 식으로 청소년들의 감각을 마냥 확장시켜 줄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을 또 다른 감각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한 따돌림의 문화는 또래집단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자면, 한국사회의 사회화기관, 사회화의 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하나 경고등이 켜지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한국인이 되며, 한 사람의 시민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린 아직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낼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진단 없이 처방을 낼 수 없듯이 청소년들을 둘러싼 이 혼돈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적실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 가는지 그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되돌아보고 진단하기를 늦출 수 없는 급변의 상황 위에 놓여 있다.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블랙박스처럼 내던져져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의 안을 일단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4년간 지속될 이 연구의 결과 끝에서 보다 가능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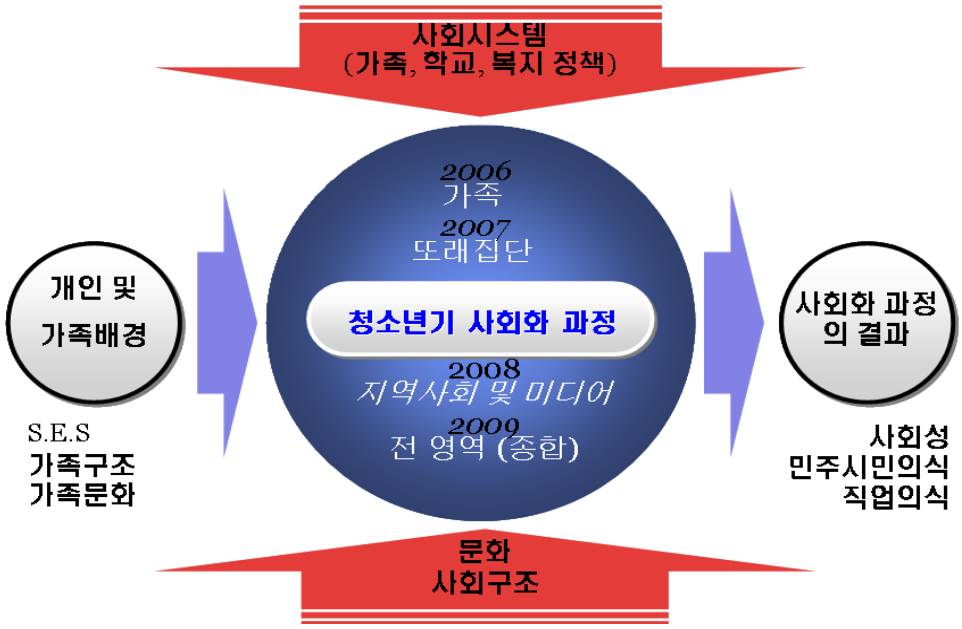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동시에 사회변화에 따라 어떻게 사회화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 이 연구가 앞으로 4년간 연구기간을 통해 달성할 목표

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청소년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 또는 장인 가족,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미디어를 중심으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2006년도에는 제1차 사회화기관인 「가족 및 가정」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을 비교하였다. 최근에는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또 가족내 부모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제비교에서 가족은 더욱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가족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 즉 제1차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족내 사회화과정의 비교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물론 2006년도 연구는 반드시 가족내 사회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의 문제는 2007년 이후의 연구에서도 다뤄질 것이다. 연차적으로 주제의 중심을 옮겨가되, 최종적으로 가족,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사회화과정을 종합할 것이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제2차 사회화 기관인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007년 연구는 2006년 연구주제인 가족내 사회화과정과 학교 및 또래집단을 통한 사회화과정을 연계하여 진행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agents) 또는 장을 크게 가족·가정,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미디어의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그림 I-1 참조). 2006년에는 그 중 가족·가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8년에는 각각 학교 및 또래집단, 지역사회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2009년에는 4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것이다.



[그림 I-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영역 및 개념도

1) 2006년 연구내용

2006년도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가족내 사회화과정을 비교연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념틀의 구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에 관련된 주요개념들의 관계를 정립하고, 사회화과정에 관련된 이론들간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입장과 방향을 정립하였다. 먼저 사회화 과정에 전반에 관련된 개념틀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2006년에 중점으로 연구할 가족 및 가정 내에서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관련된 개념틀을 도출해내었다.

(2) 가족 및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분석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청소년들의 가족내 사회화과정에 관련된 각국의 문헌분석과 이들 국가간 비교가능한 공식통계 및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국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및 사회제도·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가족 및 청소년에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된 사회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3) 각국의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 비교분석

가족내 청소년기 사회화의 배경요인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변수(부모의 직업, 부모의 소득원, 부모의 학력), 가족구조(가족수 및 가족의 유형), 가족문화에 대한 각국의 차이를 비교연구하였다.

(4) 각국의 부모자녀관계 비교분석

각국 부모들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 부모자녀간의 갈등관계, 부모의 역할모델 정도 또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부모의 권위의 유형,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방법, 부모자녀 간 갈등 및 신뢰관계 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5) 각국 청소년들의 생활·활동·참여/의식/자아개념 수준 비교 분석

각국 청소년들의 상황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생활 또는 활동 그리고 참여활동, 둘째, 독립의식 및 자립의식, 직업의식, 성역할의식, 사회의식,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비교분석하였다.

2) 2006년 협동연구기관의 세부연구과제

2006년 연구에는 주관기관(한국청소년개발원) 이외에 1개의 국내 협동연구기관과 4개의 국외협동연구기관이 참여하였다. 각 협동연구기관별 세부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협동연구기관의 세부연구과제는「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를 중심으로」이다. 국내 협동연구기관의 세부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비교대상국인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이외의 다양한 나라에서의 가족내 사회화과정을 다루었다. 2006년 이후에도 비교조사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국내협동연구기관의 세부연구과제인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를 중심으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구조 및 가족유형 비교(역사 및 사회문화적 배경 포함)
② 국가별 가족관련 현황 및 통계자료 비교분석
③ 가족(복지)정책의 비교 : 가족관련 주요이슈 분석
④ 국가별 자녀사회화에 대한 가정의 기능과 역할
⑤ 한국의 가족정책 및 자녀사회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둘째, 국외협동연구기관의 세부연구과제는 「각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과정 연구」이다. 각국의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문헌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 비교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에 관련된 기초문헌분석
②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변화 분석
③ 각국의 가족의 역사 및 가족의 문화·유형 연구
④ 각국의 청소년의 발달상황 분석
⑤ 각국 부모들의 가정교육 또는 양육방법의 분석
⑥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관련 주요이슈 분석
⑦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정책적 시사점

3) 2007년 이후 연구내용

2007년과 2008년에는 제2차 사회화 영역 또는 기관(agents)인 “학교/교육”,

“또래집단”, “지역사회”,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007년에는 “학교/교육”과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2008년에는 “지역사회”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2009년에는 4년간의 연구를 종합·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사회화 이론을 재정립하며 바람직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모델과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4년간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 사회화의 영역·기관(agents)인 “가족/가정”, “학교/교육”, “또래집단”, “지역사회/공동체”, “미디어” 영역을 연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각국의 사회환경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할 것이다.

각 연도별 세부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06년 : 가족/가정을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② 2007년 : 학교 및 또래집단을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③ 2008년 : 지역사회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④ 2009년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이론 정립과 사회화과정 모델 연구(4개년연구의 종합)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006년도에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배경요인인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의 상황을 고찰한 뒤, 각국의 부모자녀관계, 자녀교육방법 등 가족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 각국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 그리고 각국의 가족정책 및 청소년 정책의 현황 및 변화과정을 문헌분석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기존의 관련 국제비교조사 및 국제비교통계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서 각국의 가족내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5개국 조사결과의 해석에 대한 참조자료를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비교조사대상국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이다. 한국 이외의 4개국을 비교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사회환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학교교육시스템이나 학교문화, 그리고 가부장제의 역사적 과정 등 매우 유사한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의 비교를 통계적 의미에서의 「통제된 비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유사점 못지않게 차이도 크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한일간의 비교는 국제비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풍부한 해석의 이점이 있다.

둘째, 미국과의 비교는 국제비교연구에 있어서 의례적인 경향이 있지만, 미국은 국제 비교에서 난해한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지역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 전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한 비교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족의 다양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나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비교에 있어서 비교의 가치가 큰 나라이다.

셋째, 독일은 무엇보다도 학교시스템의 독특성 때문에 청소년 사회화과정 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근검을 강조하는 가정문화, 도제시스템 그리고 그에 따른 직업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PISA결과의 발표 이후 교육시스템의 큰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가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넷째, 스웨덴은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비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른바 「스웨덴 모델」이라 할 만한 가치를 지닌 나라이다.

조사대상의 선정과 표본의 추출, 조사방법은 각국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시간상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인하

여 각국 조사가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중학교 2년생에서 고등학교 2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상으로는 14~17세에 해당한다. 한국 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의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도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전형적인(typical) 한 지역의 중·고등학생 또는 14~17세에 해당하는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일본은 동경, 미국은 아이오와주 소재 대도시, 독일은 베를린, 스웨덴은 스톡홀름과 기타 대도시를 조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학교섭외에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인터넷조사에 의한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스웨덴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지 않아 전국의 코뮨을 표본추출 단위로 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추출방법 및 조사방법도 각각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은 층화2단계추출법에 의해 학교-학급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집단질문지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주민기본대장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방문유치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조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단위 패널 중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을 모집단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베를린 지역의 김나지움과 종합학교 1개교씩 편의표집한 뒤 집단질문지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웨덴 조사는 다단계층화군집표집방법에 의해 코뮨과 남녀군집을 추출단위로 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장에 기술해 놓았다).

(2) 주요조사내용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사항은 Ⅳ장 참조).

① 가족내 사회화과정의 배경요인 : 가족구조와 가족문화(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사노동분담구조와 의식 등)

② 가족내 사회화의 과정 :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교육)방법,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등

③ 가족내 사회화의 결과 : 성역할의식 및 자아정체감, 진로선택, 자립 및 독립, 시민의식 및 사회성 등

II. 개념분석 및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정의
2.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관련 주요이론
3.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4. 한국의 가족주의와 자녀 사회화

II. 개념분석 및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별다른 혼동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논쟁적인 말이다. 현대 사회과학은 학문적인 공통의 용어들을 생산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연령발달에 관한 용어 중, 특히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에 대한 용어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용어 중의 하나이다. G. S. Hall의 「청소년기(Adolescence)」(1904) 출간 이후 과학적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기’는 본질적인 것이거나 생물학적인 것으로 또는 발달론적 입장에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생각들은 청소년에 대한 근대인들의 일상과 상식을 지배하고 있지만, ‘청소년기’가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구축주의(constructionism)의 시각의 연구 또는 문화인류학, 역사학의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나라마다 용어상의 차이가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간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을 비교하는 이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 사회가 청소년기와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자체가 사회화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의 개념의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과 문화 속에서 또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며 또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청소년개념의 역사적인 의미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일본·미국·독일· 스웨덴 등 5개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개념의 차이를 비교·검토하여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변화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을 비교하는

데 이 연구가 취할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틀과 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 개념의 역사적 의미변화

문화권에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이나 연령적 정의가 다른 것과 같이 시대에 따라서도 청소년의 개념은 다르다. 만일 청소년의 개념이 이렇게 가변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들이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청소년들(엄격히 말해서는 젊은이 또는 아이들)이 근대 이후의 청소년들과 다른 발달과정을 겪었다면, 또 다른 사회변화가 청소년들의 삶과 발달상황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그런 변화에 맞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개념이 가변적이라면 그들에 대한 사회화 과정 역시 가변적일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여 성인이 되며 또한 늙어서 죽는 과정, 즉, 탄생-성숙 및 발달-죽음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사실이지만, 각 시대, 각 세대 그리고 각각의 사회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으로 생애과정을 이해한다.

사회변화는 인간의 삶의 과정,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각각의 생애과정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심성(망탈리테)'을 갖게 마련이다. 이 점은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청소년', '청소년기'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이나 생각은 철저히 우리 시대의 것이다. 통신시설과 컴퓨터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청소년을 보는 시각과 그 이전 시대에 청소년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Ariès는 『아동의 탄생』에서 이 점을 잘 보여주었다. Ariès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근대 이전의 사회에는 없었다. 근대이전에는 adolescence라는 말도,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없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가 없었다는 것이 Ariès의 생각이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Ariès의 생각은 주로 아동기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Ariès의 생각의 대부분

은 청소년기에도 유효하다(Kleijwegt, 1991:11). 중세의 아이들은 작은 어른들로 그려졌고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adolescent)'을 의미하는 말은 없었다. 근대사회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개념과 그들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어도 연령에 따른 발달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adolescence'란 말은 없었지만, 'youth'란 말은 고대사회로부터 있어 왔다(Kleijwegt, 1991). 물론 youth에 대한 생각도 오늘날과는 같지 않았다. 고대 유럽사회의 youth의 개념은 한자 문화권의 '老'와 대비되는 의미의 '少'와 같은 의미로 그 연령 폭은 오늘날의 '청소년', 'adolescence', 'youth' 보다 넓었다. 'youth'와는 다르게 '青年'이라는 한자어는 비교적 그 사용연대가 짧다. 근대 일본어에서 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백영서, 1994), 정확한 어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대략 G. S. Hall의 『Adolescence』(1904)가 『青年期』라는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약되었을 즈음, 이른바 『청년의 탄생』(木村,1998)기로 볼 법한 20세기를 전후로 '청년'이란 말이 동아시아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의 '청년'이라는 말은 진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대사회로부터 '젊은이', 'youth', '소년'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들에게 사회적 기대감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도시화와 학교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차 이들에 대한 '보호'의 관점이 득세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와 한국, 일본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참고 : Perrot, 1987; Platt, 1977 ; Kleijwegt, 1991 ; 陳寶良, 2001; 桜井, 1997).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한국 등에서 '청소년'이라는 말이 언론매체와 법조문에 등장하기 시작한다(김현철, 2002).

오늘날 역사가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시기를 「청소년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 위에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의 개념이 창조되었으며 청소년 관련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실행되다. 미국의 경우에도 모든 주에서 청소년을 고용에서 배제하고 중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이 이 때에 만들어졌다(Platt, 1987).

그렇지만 「청소년의 시대」는 「청소년 보호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동원의 시기」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청소년'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해방이후의 일이다. 특히 60,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들어서서 '청소년'이라는 말이 사회에 각인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는 물론이고 고도경제 성장기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력으로 또는 산업역군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시해서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나타났다(斎藤, 1998) 여기에는 국가 또는 민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고 점차 고학력화 되어가면서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이념이 강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는 더 다변화되고 사회가 고학력화되면서 십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곧바로 뛰어들기보다는 학교나 훈련 현장에 머물며 성인기 진입을 늦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은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기를 연장시키고 있다. 즉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른바 포스트 청(소)년기의 출현 또는 연장의 문제가 일부 나라에서는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직업으로 또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이행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가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Beck, 1996; Furlong & Cartmel, 1997; Jones & Wallace; 宮本, 2004). 이 점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실업과 청년노동시장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의존기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한국의 가족은 이 점에서는 독특하다.

2) 청소년개념의 문화적 차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어식 표현인 adolescence, 청소년기의 근원을 "성장한다" 또는 "성장하여 성숙기(성인기)로 진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동사 'adolescere'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adolescence는 '아동기'

와 '성인기' 사이의 성장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발달단계론에서 볼 때, 그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은 매우 느리고 불확실하며, 그 진행의 속도나 과정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 단계이고, 누구나 성숙한 사회인(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하나의 발달 과업기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발달단계론에서 보더라도 청소년기는 연령적으로 보다 복잡하다. 'adolescent'에 비해 'youth'는 좀 더 폭 넓은 외연을 가진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adolescent'와 'youth'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적 발달 순에 따라 'juvenile', 'adolescent', 'youth'이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youth'보다 높은 연령개념으로 'young adult'가 사용되기도 있다. 한국어에서도 '소년', '청소년', '청년', '젊은이'라는 말은 발달시기 중첩이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연령상의 위계를 갖고 있다.

독일어의 'Jugend'는 'youth'에 가까운 표현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와 비슷한 의미로 '少年', '青少年', '青年'의 개념이 사용된다. '젊은이'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若者(와까모노)'와 '若年(자쿠넨)'이란 용어가 있다. 연령적으로 가장 포괄적이면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는 '子ども(코도모)'이다.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청소년 관련된 법에 따라서 연령규정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년법은 해당 연령규정을 12세에서 24세로 정하고 있며,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미만,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진흥법은 19세미만,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기준법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13세에서 18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규정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복잡성은 더하다. 선거연령의 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선거연령 규정을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조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 쿠바,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거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근대 산업사회가 학교교육의 보편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유사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발달이론들의 청소년기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발전시켜 왔지만, 청소년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 · 스웨덴의 청소년의 정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정의나 연령은 문화적 맥락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각 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할까? 한국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따르자면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춘기에 해당하는 10대의 연령층에 있는 인구군을 가리키며,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손승영, 2006).

일본의 경우, 내각부의 「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정부의 기본 이념 및 중장기 시책을 제시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서 청소년을 0세에서 30세 미만의 아동과 젊은이(若者)에 대한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동은 의무교육연령에 도달하기까지의 유유아기 및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학동기에 속한 자, 젊은이(若者)는 중학생에서 대략 18세까지가 해당되는 사춘기, 그리고 대략 18세에서 30세 미만까지의 청년기에 속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내각부의 정의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경도가 제정한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지만, 청소년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정도는 한국과 비슷하다.

영어의 "Adolescence"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어원 "Adolescere"로부터 나온 것이다(Gumbiner, 2003:18). 이는 청소년기가 단순히 성인이 되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지속적인 성장의 시기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0대 초, 중반부터 10대 후반까지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규정하는 청소년기는 10세부터 19세까지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미국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Teenager”라는 용어에 적합한 12~14세부터 19~20세 까지를 청소년으로 간주하는데, 연령대에 기초한 이러한 규정은, 한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하고 졸업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제에 따른 시기구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Jugend)이란 용어는 독일에서는 19세기부터 유래했지만 부정적은 의미로 쓰여왔다. 주로 정부의 보호와 재정지원(Jugendhilfe)이 필요했던 노동자들 가족으로 14세부터 만18세이하의 남성을 의미했다.

지난 20세기에 와서는 히틀러(Adolf Hitler)가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여 ”청소년들은 역사의 엔진(Jugend als Motor der Geschichte)” 등 잘못 이용한 이유로 2차대전 이후에는 패전국으로 특히 청소년층을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못했고 정책에도 예민했었다.

독일의 현행 법상 청소년을 만14세부터 아직 만18세가 되지 못한 10대 즉 미성년자들을 말한다. 다만 노동법에서는 미성년자들의 노동착취를 방지하기위해 만 15세로부터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제한된 노동만을 허용한다.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단순히 14세부터 18세 까지의 청소년을 성숙기의 미성년자들로 인정하지만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만 25세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30세 까지도 청소년으로 취급하고 있다. 범죄법(Strafrecht)상 독일의 청소년은 24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만 12세이상부터는 종교를 선택할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 이분야에서는 부모가 결정할 권리가 없다.

독일에서는 만 14가 되면 자기 이름으로 은행구자를 가질수도 있고 은행거래도 직접 할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만14세가 되는 독일의 청소년들에게 대부분 편지나 전화로 고객으로 끌어드릴려고 노력한다.

청소년은 사춘기로 들어가는 시기로 성인이되기 직전의 예민한 과도기 시작으로 본다.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취급을 받고 선거권을 이용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성인으로서 부모의 동의없이 결정권이 인정되고 자기행동과 결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지게 된다.

독일에서 청소년 연구의 선구이고 가장 권위있는 셸(Shell)청소년 연구는

만 13세부터 2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1952년부터 해마다 청소년들의 상황과 제반문제들과 변화를 연구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처음 청소년이 정치적 수준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스웨덴에서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 특별히 할 것이 없어 배회하며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고, 정신, 육체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e, 2004/2005:02. Summary version. p. 3).

스웨덴에서 청소년의 개념은 1994년 법안에서는 16세에서 24세까지를 포함한 학생 및 청년층을 포함하고 있는데, 2005년 새롭게 입안된 법안에 따르면 스웨덴의 청소년층을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시켜 13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층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령의 기준은 2004년 정부가 제시한 청소년 정책 법안에 따라 설정되었다(Proposition, 2004/05:2.). 사민당 정권 하에서 입안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즉시 효력이 개시되었다. 이 연령층의 인구는 140만 명에 이르고 전체인구 8백9십만 명의 15.7%를 차지한다.

그러나 법안은 이 연령층과 함께 노 청년그룹인 26세에서 29세까지 포함한 연령층을 정책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즉 정부의 청소년 정책이 곧 바로 13세에서 25세까지만 포함하는 학생층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수 4-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가정을 구성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정의차원에서의 청소년이란 위에서 언급한 13세에서 25세까지를 포함하고, 청년실업, 청년주택난 해소 등의 정책입안과 집행에는 29세까지 20대를 망라하고 있다.

정의상 이 연령층은 스웨덴의 교육제도에서 초등 8학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는 나이인 25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의 특징으로 16세까지 부모의 보호 하에 있고 한 달에 1080 크루네 (1크루네 = 130원)를 국가

로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데, 수당은 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즉 16세까지는 부모의 보호 하에서 직접 부모의 통제를 받는 나이라 할 수 있다. 17세부터는 고등학교 1-2학년 나이로 학업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액수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직업학교의 경우 주로 3년제이나 4년제인 경우도 있어 18세나 19세에 대학에 진학을 한다. 성인이 되는 18세부터는 학업보조금이 개인구좌에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명실공히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셈이다.

4) 변화하는 청소년기와 사회화 과정의 문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지만, 그 만큼 자유로우며 문화적으로 성숙한 통찰을 시도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근대 이후의 일반적 경향처럼 연령적으로는 여전히 20대의 일부와 10대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문화와 정신의 개척자들이기도 하다. 이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억압적 구조에 맞서고 있으며, 점점 더 낮은 연령의 10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

1965년 유엔은 '청소년 진흥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을 통해 '참여, 발전, 평화'를 표어로 정하였다. 이로써 이제 청소년(youth)은 부정적 개념이나 연령상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평화 지향의 긍정으로 충만한 개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청소년'이란 개념은 참여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뉘앙스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젊음(이)'이란 뜻으로 어린 시절과 성인의 젊은 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을 20대까지 확장시키고 동시에 기존의 청소년(adolescent)은 물론 십대 이전의 젊은 사람이나 20대 이후에도 여전히 '젊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청소년' 개념의 진보적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이렇게 '청소년'의 의미가 해체되고 '청소년'의 긍정적 의미가 강화된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기존의 질서, 가치를 기초위에 가져왔던 사회화과정에 대한 의미도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관련 주요이론

사회화를 개인 탄생해서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의 생활을 통해 언어, 행동 양식, 가치 규범과 같은 문화를 습득해 가며 지위·역할을 습득해서 집단이나 사회 성원으로 되어가는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사회화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고전적 접근은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수동적 존재로 간주한다.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기술이 성인들로부터 청소년에게 전달된다는 일방향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구조기능주의 시각에 입각한 이러한 관점은 지속적인 이론적, 경험적 도전을 받게 되었고 청소년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하위문화론적 접근, 생애과정론의 관점, 해석적 관점 등은 비록 서로 다른 이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회화 과정을 개인 차원의 단순한 학습과정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청소년 사회화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들에 주목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생산, 재생산 해내는 청소년 문화에 초점을 맞추며, 또래 집단 혹은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부각되는 역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회학류 이론과는 거리가 있고, 또 「발달」이라는 개인의 입장으로부터 생물하적 측명을 포함한 인간생활의 변화를 다면적으로 그리는 입장의 이론들도 청소년들 사회화과정을 논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사회학적 관점,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사회문화재생산론적 관점, 하위문화론적 관점, 생애과정론적 관점, 해석학적 관점을 들어 설명하고, 심리학적 또는 발달론적 관점인 하비거스트의 발달과업론,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반두라의 사회인지론, 브론펜브루너의 생태심리,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청소년기 사회화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한 사회의 문화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회화과정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을 사회화기관(agent)이라고 한다. 그 주된 것이 가족과 학교와 또래집단 그리고 매스미디어이다. 특히 가족은 초기사회화를 독점으로 수행하는 사회화기관으로서 위치지어지며, 그 중에서도 모친은 핵가족화나 친족네트워크의 확산 또는 성역할분담형 가족이 일선화되어 가는 가운데, 사회화의 독점적 수행자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사회화 기능이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기관(agent)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근대사회에서는 사회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다.

학교는 중요한 사회화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사회화로 파악한 뒤르께임 이후의 오랜 전통이다. 사회구조, 시대, 문화적 상황 등에 따라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위치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의 모양이 결정된다. 흔히 유아기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의 사회화를 제1차 사회화 또는 초기 사회화라고 하며, 청소년기의 사회화를 제2차 사회화, 성인기 이후의 사회화를 재사회화라고 한다.

제 1차 사회화에 있어서는 모친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가치와 행동을 기저적 차원에서 학습시킨다.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 제2차 사회화에서는 개인이 참가하는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의 필요한 개별의 역할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2)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청소년 사회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정이나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발휘되는 계급, 성별, 인종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의 효과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Bowles와 Gintis(1976)의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한 계급적 분화의 사회적 재생산을 특히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체계가 학생들의 계급적 위치에 따른 상이한 사회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직업 위계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 걸맞게 학생들

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위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동조와 순응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고, 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기존 사회규범에 대한 내면화와 그들 상호관의 관계 유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진다. 특히 학업성적에 따른 서열화와 집단 구분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되어진다. 계급 차이에 따른 차별적 교육 효과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널리 응용되었다(예컨대 Kessler, Ashenden, Connell, and Dowsett, 1985; Macleod, 1995; Valenzuela, 1999).

문화적 재생산 또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개념 역시 교육을 통한 불평등 체계의 지속을 설명한다. Bourdieu와 Passeron(1977)에 따르면, 개개의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방식,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자산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 체계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문화적 자산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행위 유형을 갖게 되는데, 하위 계층의 행위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학업 성취를 평가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은 계급적 위치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삶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사회화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의 주체적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결정론적 설명 방식을 취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Mehan et al, 1994). 또한 구조적 불평등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여타 조건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사회적 제약과 개인의 주체적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하위문화론적 접근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 집단 나름의 문화적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는 하위문화론적 시각은 사회의 구조적 제약과 이에 대한 행위자들의 능동적 반

응을 함께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Parsons(1951)가 청소년 하위문화(youth subculture)라는 말을 처음 언급했을 때,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반문화로서의 신념, 가치, 상징체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의 미국 사회학자들에 의해 널리 공유되어 주로 하위 계층 청소년들의 비행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위문화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영국 버밍햄 대학 현대문화연구센터(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의 집단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지배문화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도전하는 저항문화로서의 하위문화가 갖는 특징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Hebdige, 1979). 그들이 정의하는 하위문화는 한 사회의 구조적 위계 체계에 있어서 종속적 위치에 놓인 집단에 의해서 생성, 유지되는 가치 체계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적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 문화로서의 성격을 띠며, 동시에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집단적 노력을 반영한다(Brake, 1985)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존 문화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된다. 즉, 지배계급의 문화와 부모 세대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문화는 물질적, 관념적 제약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로 하위문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Wills(1981)의 연구에서는 지배계급의 문화와 부모 세대의 문화가 구현되는 장으로서의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위문화의 성격을 갖는 반학교문화(counter-school culture)가 생겨나는지를 보여준다.

하위문화론적 접근은 사회화 과정이 단순히 기존 문화의 재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위문화론에 입각한 설명만으로는 주류 문화의 전승이라고 하는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함께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특정 집단의 문화로서 개념화되는 하위문화는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집단간 동질성과 집단내 다양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Wulff, 1988). 또 다른 문제점으로, McRobbie(1991)는 하위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편향성을 지적한다. 즉 하위문화를 다루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의 남자 청소년들의 집합적 행위양식 표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이 하위문화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생애과정론의 관점

생애과정론의 관점에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은 개인의 삶을 생애과정 중의 중요한 사건들에 의해 구분되는 여러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각각의 의미 있는 사건들은 개인사의 각 단계를 구분 짓고 동시에 개개인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은 입학, 졸업, 취업 등과 같은 청소년기의 주요 사건들에 의해 구분되기 때문에 생애과정론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과 각 사건의 시기에 관심을 갖는다. 예컨대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인 14세 무렵에 구직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지난 다음에 처음 직업을 갖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다(Elder, 1985).

생애과정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시간의 연속과 개인의 생애사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 즉 개인의 인생에서 특정 사건을 경험하는 나이, 그러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그리고 그 사건을 함께 경험한 동년배 집단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 나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Elder(1985)의 연구에서처럼 개인이 자신의 생애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몇 살 무렵에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사건의 지속으로 인한 영향 또한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개인 생애사의 중요 사건이 발생하는 역사적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비록 동일한 나이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른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 공황의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업과 2000년대에 고등학교 졸업생이 경험하는 취업은 개인의 생애사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같은 세대 내의 비슷한 연령 집단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동년배 집단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생애과정 중의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취업이라고 하는 특정 개인의 경험은 취업과 관련하여 동년배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하여 생애과정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한 전이 과정은 흔히,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며,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개별 연구주제들은 생애과정 중의 특정 사건들의 연속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는데, 예컨대, Modell(1989)의 연구에서는 졸업과 구직, 결혼으로의 진행과정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Sampson과 Laub(1993)는 청소년 비행으로의 진입과 이탈의 계기가 되는 생애 사건들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화에 대한 생애과정론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횡단적 연구들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사회화 과정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사회화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5) 해석적 관점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해석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가 규정되고 변형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동시에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상호작용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주체적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조율관계를 강조한다(Cicourel, 1974; Corsaro, 1985). 해석적 관점은 수동적인 사회화의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청소년을 주체적 해석 능력을 지닌 적극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 나름의 공유된 이해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들로 간주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사회체계 내의 역할과 규범에 그대로 동조하거나, 학교 교육을 통한 구조적 불평등의 지속에 쉽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제약들

에 도전하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생애과정론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해석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개인들이 각각의 생애과정에 있어서 상이한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생애과정론자들이 생애사의 여러 사건들의 연속과 그 안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해석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의미의 생산, 재생산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지식과 신념은 성인들의 그것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 나름의 고유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들의 문화체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소년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해석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기존의 문화적, 언어적 규범에 반응하고 이를 수용, 변화시켜 가는지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일상적 언어 규범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또 변형되는지 보여주는 실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Corsaro(1985), Corsaro와 Rizzo(1988) 등의 연구는 언어 규범이 예측가능성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 동료 집단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의미의 창조적 변형 가능성을 제공하는지 보여준다. Everhart(1983), Shuman(1986), Eder와 그의 동료(1995)들이 수행했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 성, 청소년 문화 등에 있어서 어떻게 기존 성인들의 의미 체계를 재생산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더해 가는지 보여준다.

사회화에 대한 해석적 관점의 특징은, 기존의 다른 시각들에서 간과되었던 사회화 과정의 집합적, 발현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즉 청소년들의 삶을 조건지우는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청소년 집단 나름의 집합적인 문화적 실천을 통해 구조의 영향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결과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사회화를 단순히 재생산의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 생겨나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물론 사회 구조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극복하려 한다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 하위문화론적 접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석적 접근은 단순히 반문화 혹은 대항문화로서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실천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하위문화론과 구별된다.

6) 청소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미시적 이론

심리학의 영역에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가들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주목하였다. 환경론자들은 인간은 환경에 예속된 존재이며, 환경이 바뀌면 개인의 행동 또한 달라지게 되므로, 인간이 주체적으로 환경을 바꿔나간다는 점에 주목하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하여 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도 청소년들이 사회, 가정, 학교의 메시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학습하여 환경의 성원으로 편입해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 이 이론의 특징이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가들은 하비거스트, 스키너, 반두라가 있다. 또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브론펜브로너도 환경에 보다 주목했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들의 입장은 굳이 말하자면, 사회학적 접근에 있어서는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구조기능주의의 미시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발달과업론

하비거스트는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학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걷고, 뛰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학습한다). 또한 자라서는 직장을 잡고, 아이를 기르고, 나중에는 은퇴하여 노후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배운다(학습한다). 이런 행동들 모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주목하여야 한다” (Havirgust, 1952).

하비거스트는 각 개인이 인생을 통해서 과업(task)을 수행해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과업’은 인간이 사회화되고 성숙됨에 따라 보다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아동기의 신체적 성숙은 그를 둘러싼 환경, 즉 가정에서의 부모가 갖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정 나이(3세)가 되면 용변을 혼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막 태어난 영아에게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3세 유아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용변을 혼자 볼 수 있기를 배우며, 그 연령대에 맞는 과업을 수행해나간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하비거스트는 사회적 기대를 이해하고 연령에 맞게 학습해가는 과정을 '발달 수행(developmental tasks)'이라고 명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이란 청소년기에 다다른 사회구성원에게는 그 사회와 학교, 가정이 갖는 사회적 기대가 있고, 그들은 이를 수용하고 그에 맞춰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므로써, 즉 '발달 수행'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비거스트의 발달과업개념은 1970년대 미국의 백인중산층의 가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발달과업의 완수하는 과정은 보편적인 문화가 아닌 특정문화의 반영일 수 있는 것이다.

(2) 행동주의 이론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을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반응행동, 즉 환경에 대한 조건반사로 보았다.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는 행위나 밥을 먹는다는 행위 모두 책이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거나 먹을 것이 식탁위에 차려 있는 것을 본 이후에 자극받아서 인간이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개인이 자극받아서 행동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을 '조건반사'라고 보았다.

스키너의 이론은 많은 이론가들에 영향을 준 동시에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스키너가 복잡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온 인간행동을 단순히 조건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기계적인 행위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간행위를 이해하는 방식, 즉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 생각하여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와는 상당히 달랐다.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은 외부자극, 외부의 환경 하에 조건지워지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정의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그의 이론은 급진적 행동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스키너는 동기와 의도는 측정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리적 내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기술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만약 선행조건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행동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를 봄으로써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과 결과를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

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는데, 인간은 단순히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유기체가 아니며, 인간의 행동은 동기와 의도, 사고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스키너의 '조건반사'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비판의 요지이다. 이에 대해 스키너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화(reinforcement)'개념을 도입하여 재반박하였으나, 그의 기본 개념인 '수동적 유기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생각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건반사 행위로 해석하였는데, 즉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 즉 가정과 학교, 사회가 청소년들의 행동반경을 이루며, 그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 행위 해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스키너는 어떤 10대 여학생이 보라색을 좋아한다면, 보라색 계통의 옷을 많이 살 것인데, 그 여학생이 보라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보라색 옷을 입었을 때 주위에서 '잘 어울린다''예쁘다'라는 칭찬을 받음으로써, 즉 주변사람들(환경)로부터 '강화'된 결과라고 보았다. 이러한 칭찬 때문에 그녀는 보라색을 좋아하게 되었고, 보라색 계통의 옷을 많이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녀가 보라색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지, 그녀가 원래 보라색을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수동적 주체로서 인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키너가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나 『월렌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수동성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이다. 행동주의 이론은 미시적 이론이기는 하지만, 어떤 환경이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조건은 단순히 개인을 둘러싼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조건 짓는 사회시스템이기도 하다. 스키너는 『월렌투』에서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사회인지론

반두라는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이란 스키너가 주장한대로 '조건반사'라기보다는 '관찰 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타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본 대로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행위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두라가 이야기한 행위의 모방은 '모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행동해보는 것만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 행위를 반복해 본다거나 그

행위의 순서를 재검토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반두라는 스키너와는 달리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해 주목하여 환경과의 접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스키너의 행위 해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두라를 비롯한 사회인지론자들은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강조한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고, 동기, 의도에 관심을 갖고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 사회화과정도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또래집단에서 관찰하는 행위를 관찰하며, 모방하여 행동양식을 구축해나가기는 하지만, 타인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판단 능력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여 자신 만의 고유한 행동과 사고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4) 생태론적 관점

브론펜브레너는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학자로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다른 환경론자들과는 구분된다. 그에 따르면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같은 학교에 가고, 또한 같은 가정환경(형제일 경우)에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의 삶의 반경과 맥락은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브론펜브레너는 환경이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란 몇 겹으로 포개지는 러시안 인형처럼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가장 내부의 밀접한 환경은 미시체계(micro system)이라고 일컬어지며,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숙하게 접하게 되는 공간(환경)을 일컫는데, 이는 가정, 친구, 학교 등을 포함한다. 미시체계에서는 청소년들이 매일 행하는 행동, 상호관계 그리고 역할 수행 등이 일어나는 곳이며, 청소년들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브론펜브레너는 청소년들이 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미시체계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들과 큰 관련이 없는 환경인 중간체계(meso system)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찾아가서 자녀의 학습이나 행동에 대해 교사와 상담을 하는 행위는 청소년 자신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 사

이의 상호작용에 청소년 자녀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교사와 갖는 상담은 청소년의 학습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간체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이외에,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외부체계(exo system)이라고 명명된다. 외부체계의 한 예는 '부모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받는 스트레스 등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집안 분위기를 좌우한다든지 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체계(macro system)는 사회, 문화, 정치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을 말한다. 의무교육관련 법안, 방과후 학교 관련 정책 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비록 청소년들이 법제정이나 정책 추진 등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그 수혜자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삶과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는 중요체계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환경체계는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서 청소년(개인)은 단순히 이러한 환경의 수동적인 객체라기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행동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은 환경의 변화를 꾀하기도 함으로써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10대 청소년의 네티즘 문화는 이의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과시하는 청소년들은 환경의 수용자라기 보다는 능동적인 행동가, 변혁을 이끄는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청소년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론자들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다음에서는 환경

보다는 인간의 상황해석능력, 인지능력 등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7) 능동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하는 미시적 이론들에 대한 문화론적 해석

(1)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하비거스트, 스키너, 반두라 또는 브론펜브레너와는 달리 개인이 자기 주변의 상황을 분석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미드(Mead, 1934)는 '사회화'란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가하는 자아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미드에 따르면 자아에는 자신을 주체로 하는 나(I)와 남들이 보는 나(me)라는 양면이 있는데, I는 능동적인 자아로서 사물을 평가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말하는 반면, me는 스스로가 남들에 비쳐지는 대상으로서의 '객체'로서의 자아를 일컫는다고 한다. I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상황의 중심이 되는 자아라면, 후자는 환경 속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정되는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로서의 자아인 I보다는 객체로서의 자아인 me인데,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 상호교류해가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재인식해가며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가는 과정 내에 있기 때문이다.

미드는 자아개념의 획득을 준비단계, 놀이단계, 게임단계의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부모, 형제, 교사 등의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행동규범과 해석능력을 익히는 모방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놀이단계인데,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비로소 자신을 남들과 구별할 수 있게 되며, 나의 입장과 남의 입장을 생각하여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 두 사람만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고할 뿐 방사형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게임단계로서 대인관계의 폭이 한 두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과 남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조직 내의 역할과 기대를 상정하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으며,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기초로 하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남들의 시선과 평가'는 미드에 따르면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로 정의되는데, 일반화된 타자가 확대되면 전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인되는 규범과 기대를 내면화 하여 그에 준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미드가 이야기한 'me'의 형성과정을 동양사상에서 강조한 '역지사지'의 개념을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me의 형성과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타인과의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하다 보면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 개념이 발달한다고 하는 동양사상의 역지사지의 개념도 이와 비슷한 개념 틀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정문·장상희, 2001).

I와 me에 대해 문화론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I와 me라는 것도 어떤 문화권에서 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me는 결국 사회화의 결과로서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화를 작동시키는 사회구조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집단이나 국가, 문화에 따라 다양한 me의 양태와 me의 형성과정이 있을 수 있다.

(2)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의 인지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서 상황을 자신의 인지활동을 통해서 해석해 나간다는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아제는 인간은 절대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며 능동적인 주체로서 행동한다고 하였다. 피아제는 인간 발달 과정을 각자가 경험한 사실을 재조직화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는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개인의 발

달 단계에 따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피아제는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각 개인이 가진 도식(schemata)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는데, 도식이란 몇 가지의 조직화된 관념으로 구성된 인지적 체계 또는 범주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수동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인지 능력은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것인데, 이 같은 인지능력의 틀이 도식이라고 일컬어진다. 인간의 '도식'은 주변 환경의 해석에 사용되며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도식에 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도식으로 정보를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식을 수정하기도 한다.

도식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외부의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도식을 수정하는 과정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정(accommodation)으로 정의된다. 동화의 과정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식을 그대로 지니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 현상들을 지노의 도식 내에 편입시키고 기존의 도식을 통해서 외부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현상이나 정보를 기존의 도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을 조정(accommodation)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동화와 조정의 과정을 청소년이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도식의 성숙과정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계속되는데, 이 성숙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동작기(sensory motor period)로서 0-2세 영아들의 인지능력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조작전기(pre-operational period)로서 2-6세 유아에 해당하며,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로서 6-11세 어린이들의 인지발달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청소년기의 인지발달과정은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11세 -성인)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도달한 청소년들은 고도의 추상적·상징적 추리가 가능하게 되어 가설을 세워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비로소 성숙한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청소년을 외부의 환경에 대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서 스스로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동기와 의도를 가진 개체라는 점을 강조하여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반두라나 스키너를 비롯한 환경론자들이 강조하는 모방 또는 보상/처벌만으로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며, 그 대신 청소년 각자의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과 동기부여가 인지발달과정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아제를 비롯한 인지발달론자들은 부모, 학교,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학습이나 인지 발달의 내용, 목적, 의미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그들이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아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 중 하나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인지발달론자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발달이론이라는 것이 모든 문화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응답하려는 네오-피아제론자(neo-piagetian)들은 각 문화권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결국 보편적인 발달의 특징들에 대한 피아제의 이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발달의 특징은 제1차 사회화과정에서는 설득력이 강해도 제2차 사회화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많아 보편적 발달단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차이는 이미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간의 오랜 논쟁 속에서 다루어져 왔다.

(3)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 이론에서 사회화의 중요한 과제는 건강한 자아(ego)와 초자아(superego)를 발달시켜, 리비도만으로 채워져 있는 이드(id)를 견제하고,통제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 가는 과정이다. 그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구순기, 항

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로 나누는데, 구순기에는 입을 통해 만족이 추구되며 쾌락추구 원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드에 이해서 지배되고 자아나 초자아는 인성체제 속에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측면에서 볼 때 프로이드는 특히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근기 단계에서 자녀들은 자신과 동성 부모와 동일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는 남아와 여아에서 각각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구순기와 항문기까지는 남아든 여아든 영아는 주로 어머니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적·성적 요구를 만족시키므로 동일시 과정에 남아, 여아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가 4세 이후에는 남근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때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며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노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 때부터 남아의 동일시 과정과 여아의 동일시 과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경험한다. 남아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성으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있는 경쟁자로 여겨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을 갖게 된다. 동시에 아버지가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또한 남성의 상징인 성기를 절단 할 것이라는 공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공포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철회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동일시의 대상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꾸게 된다. 동일시에 대한 대상을 바꾸는 동시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또한 남성의 역할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남아의 경우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 동일시의 대상을 바꾸는 방어적 동일시(defensive identification)과정을 경험한다.

여아는 남근기로 들어서면서 아버지를 성적대상으로 삼아 어머니를 경쟁자로 여기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를 경험하지만, 어머니와 여아의 의존적 관계는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보다 크기 때문에 남아가 겪는 방어적 동일시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여아는 남성 성기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되는데, 이를 아기를 갖고 싶은 욕망으로 대치시키게 되면서 어머니와 동일시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의존적 동일시라고 부른다.

청소년들이 성역할과 규범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남근 거세의 두려움, 또는 남근에 대한 열망 등으로 설명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그 영향력이 이후의 연구에 지대한 반면 동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비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인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니며, 각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이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말리노프스키는 트로비안드섬의 부족사회 연구를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반드시 부자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적대적 관계의 형성은 문화의 흔적이어서 모계사회의 경우는 부친이 아닌 외숙과 아들 간의 관계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부자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갈등은 가부장제적 질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갈등관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청소년기 사회화과정과 관련지어 본다면, 가부장제적 질서의 정도는 부모자녀의 갈등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사회화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차적인 이유는 기성세대의 태도나 가치, 행동 방식들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식에 근거한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 방식을 통해 부모의 영향력이 발휘되는지는 쉽게 규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떤 목적을 위한 부모의 의도적 영향력 행사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 세대의 특정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 되었는데, 그게 네 가지 쟁점들이 주요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Smith, 1983). 첫째,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교육 방법이 자녀의 특정 성격이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일차적인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Rollins와 Thomas(1979)는 논리적 설득에 기반한 부모의 교육 방식이 자녀들의 인지 능력 향상과 자긍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낳고 반대로 체벌 중심의 양육 방식은 공격적 성향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양육 방식을 긍, 부정적 형태로 구분하고, 자세 세대의 결과 지표를 그 결과로 간주하는 연구들은 사회화 연구의 초기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 결과들은 부모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 즉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따라 자녀 세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인과관계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부모의 양육 방식을 의도된 행위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파생된 영향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진로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의 순간에 부모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믿고 있었다. 예컨대 Sebald(196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의복이나 유행, 여가활동 등의 문제에 있어서 친구 집단의 의견을 중시하긴 하지만, 경제활동, 학업, 직업 선택과 같은 장기적인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부모의 견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보여주었다. 부모의 영향에 대한 믿음은 사회화에 대한 초창기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Hitlin, 2006).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직접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을 평가하는 자녀들의 응답과 부모 입장에서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자녀들의 응답이 부모의 태도나 양육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의 영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연구주제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태

도와 자녀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에 대한 연구들은 Swell과 그의 동료들(1968, 1969)에 의해 수행된 학업 성취 목표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Swell 등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학업 성취 정도가, 부모가 자신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학업 성취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원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 기대 수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가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부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의 기대에 대한 응답이 자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상관관계가 부모들의 기대에 대한 자녀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높은 상관관계가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동조를 표현하고자하는 자녀들의 단순한 동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했다. 조사규모의 확대와 기법의 정교화로 인해 첫 번째 비판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에 대한 동조 표현이 부모의 의도적 영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넷째, 위의 세 번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자녀의 태도와 부모의 실제 태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 부모들 자신의 태도가 자녀들의 그것과 얼마나 유사한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앞선 경우와는 달리, 부모와 자녀의 태도 일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양자 사이이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적, 종교적 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태도를 비교한 Acock와 Bengtson의 연구(1980)에서는 자녀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들의 예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연구주제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한편 부모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Jennings와 Niemi(1974)는 부모의 실제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태도의 어떤 측면이 측정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태도를 어떤 대상을 가정한 실질적 태도와 추상적 개념에 대한 태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보다 전자의 경우에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당 선호와 같은 구체적 태도에 있어서는 자녀의 태도가 부모의 실제 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연 부모, 자녀 사이 태도의 유사함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예컨대, 특정 사안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태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나, 오히려 자녀의 의견으로부터 부모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Troll and Bengtson, 1979). 이러한 주장은 부모, 자녀 사이의 일방적 영향 관계만을 가정하던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일견 대치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태도 형성에 있어서 쌍방향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뒷받침을 받았다(Glass et al, 1986). 또 다른 맥락에서 Bengtson(1989)는 태도의 유사함 속에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가 뒤섞여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예컨대, 동시대에 경제공황을 경험한 부모와 자녀들은 경제 관련 쟁점들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자녀의 태도에 대한 부모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2)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연구경향: 가족구조의 중요성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자녀의 학업성취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컨대, 민주적인 가정환경 속의 청소년들일수록,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부모의 기대를 더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던지(Elder, 1985),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이 청소년기 아들이나 딸과의 정서적 애착 정도를 달라지게 한다(Youniss and Smollar, 1985)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족내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 변수인 부모-자녀 관계

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의 백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의 연구자들은 미국 사회의 본질적 특징인 인종과 민족 배경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배경변인과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e.g. Sui-Chu and Willms, 1996; Phelan et. al., 1993).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민족 청소년 집단에 대한 사회화 연구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존의 소수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사회화 연구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흑인 이외의 다른 소수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Steinberg and Morris, 2001).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고려와 아울러, 최근 미국의 청소년 사회화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변동, 계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새로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 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가족구조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 사회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동과 그에 따른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오늘날 많은 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달라지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실질적 필요 때문이며,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즉 청소년 사회화를 가족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이를 둘러싼 구조와 규범의 변화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 또한 존재한다.

가족구조의 변동은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졌던, 청소년기자녀들 간의 상호관계,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이 청소년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Smetana et. al., 2006).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만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과거에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던 친척들의 영향이나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를 청소년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e.g. Rueter and Conger, 1995; Clingempeel et. al., 1992)

그러나 가족구조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민족 집단의 다양성이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가 미국 사회 전체의 일반적 특징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특정 인종/민족 집단에 따라 가족구조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비혼-한부모 가족의 형태는 흑인 인구 집단에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기에 존재하는 가족 규범은 다른 인종/민족 집단의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1) 청소년기의 일탈행동, 약물복용 및 가족구조의 영향

가족구조와 청소년 사회화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Austin, 1978; Rosen, 1985; Johnson, 1986; Wells and Rankin, 1986; Hagan and Sussman, 1988; Wells and Rankin, 1991). 특히 약물복용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는 약물복용이 청소년기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탈행위로의 진입을 알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Burnside et al, 1986; Flewelling and Bauman, 1990; Adlaf and Ivis, 1996; Suh et al, 1996; Amey and Albrecht, 1998; Gil et al, 1998).

위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구조의 차이, 특히 양친-친부모 가정

과 그 이외의 가족구조 형태 여부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약물복용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었다. 예컨대, 메타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결과를 계량적으로 종합한 Wells와 Rankin(1991)의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일관된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교적 일정한 크기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왔다. 둘째, 양친-친부모 가정과 비교했을 때, 기타의 가족구조가 청소년 비행 증가의 10~15% 정도를 설명한다. 셋째,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차이가 초래하는 영향은 중비행보다는 경비행의 경우에서 두드러진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약물 복용 문제와 관련해서, Adlaf와 Ivis(1996), Amey와 Albrecht(1998) 등의 연구에서는 편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약물 복용에 노출된 위험성이 적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탈행동이나 약물복용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청소년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관계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양친-친부모 가족 이외의 형태를 “정상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비정상적” 가족구조를 사회화 과정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족구조와 청소년 사회화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가족 관계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족 구조의 차이로부터 기인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Van Voorhis et al., 1988).

가족구조와 일탈행동, 약물중독 사이의 단순한 인과관계 설정을 지양하려는 시도들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특성 및 가족구조의 형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배경 변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 가족구조와 청소년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정교화 하려고 하였다 (Hoffmann, 1993; 2002; Hoffmann and Johnson, 1998). 예컨대, Hoffmann(1993)의 연구에서는 약물복용에 대한 가족구조의 직접효과만을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하고 가족관계 및 동년배 집단을 통한 가족구조의 간접효과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아울러 가족구조의 차이가 약물복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하고 복잡

한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Barrett와 Turner(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 동년배 집단의 변화에 따른 영향,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족구조의 차이와 약물복용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언급되었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변인들의 집합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덧붙여, 청소년 약물복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족구조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원인 변수로 간주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요인들의 불균등한 분포를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marker)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2) 부모-자녀 관계, 정신 건강 및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가족구조의 형태 변화와 청소년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이 비행과 일탈행동의 설명에 집중된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 자체를 일종의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가족 해체나 결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소년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 비혼-동거 가족의 꾸준한 증가는 상당수의 미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 역시 가족구조 변화의 다양한 영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변화와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신건강,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Falci, 2006), 미국 청소년의 약 50% 정도가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형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청소년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를 반영하듯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역시 기존의 양친-친부모 가족 및 그 이외 형태라는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들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재혼 이전의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과 정서적 유대, 상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확인된다(Hetherington, 1989; Acock and Demo, 1994; Simons and Johnson, 1996). 하지만, 이혼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대화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Acock and Demo, 1994 McLanahan and Sandefur, 1994), 이는 이혼 후 어머니의 청소년기 자녀들 사이의 감정적 지원이나 조언의 상호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아들보다는 딸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졌다(Arditti, 1999). 재혼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친부모 혹은 계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양친-친부모가정 청소년들보다 부족하였고, 그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혼-동거 가족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에서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라는 존재의 손실이나 교체를 경험하는 것이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Acock and Demo, 1994). 마찬가지로 Falci(2006)의 연구에서도 비혼-동거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가 편/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경우보다 긍정적이며 양친-친부모 가정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상이했는데,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alci 2006)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위축과 연관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Amato and Keith, 1991; Furstenberg and Teitler, 1994; McLanahan and Sandefur, 1994; Conger and Chao, 1996; Videon, 2002) 그러나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비혼-동거 가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구조의 형태와 그로 인한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DeLeire와 Kalil(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흡연과 음주 행태 등에 있어서 편/부모 가정내의 가족구조에 따라 그 결과에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전체적으로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적이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일탈행도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

이 사실이지만, 편부/모 가정의 형태 중, 친모-할아버지(또는 할머니)로 이루어진 가족 구조하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여러 사회화 결과 지표들에 있어서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3) 가족구조의 영향과 기타 배경 요인들

앞서 살펴본 약물중독과 관련해서도 가족 구조의 다양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Hoffmann(2002)은 편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의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경험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들에 비해 높다는 일반적인 결과와 함께, 특히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약물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편부 가정이나, 친부-계모 가정과 같이, 친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가 일차적인 양육 권한을 갖게 되는 가족구조 아래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편모, 혹은 계부-친모 가정의 경우보다 약물 중독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Hoffmann and Johnson, 1998).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항상 경험적 뒷받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종/민족 배경 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연구 결과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컨대, 성과 인종에 따른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Zullig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편모가정의 흑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편부 가정의 흑인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백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편모 가정 환경에서 오히려 더 낮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가 일차적인 자녀 양육권을 갖는 경우 기대되었던 긍정적 효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구조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일종의 일탈적 상황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높은 이혼율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의 변화

모습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여러 학문 분과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결론들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외에 고려해야할 인구학적, 문화적 배경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인종/민족 배경의 다양성과 아울러, 부모의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족 구조들 사이에서 다수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과정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통계적 분석과정 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결과의 해석 및 이론적 설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뜻한다. 실제로 인종/민족 변수와 가족구조의 형태 각각이 청소년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고, 동시에 여러 가족구조의 분포가 미국 사회내의 인종/민족 배경 변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연구의 관심이 되는 특정 가족구조와 인구 집단 몇몇을 설정한 뒤, 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배경 변인들이 충분히 고려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한 예로 Falci(2006)는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양친-친부모 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비혼 동거가정을 구분하고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구조 변수 단독으로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전체 변량 중 2% 정도만이 설명될 뿐이지만, 가족배경 및 가족관계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약 9.1%까지 그 양이 증가했다. 아울러, 가족구조의 분포가 인종/민족 변수를 포함한 가족 배경 요인 및 가족 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그 두 요인을 통제했을 때,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일정 부분 감소하였다.

(4) 기존 연구에 대한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정상”가정과 “결손” 가정이라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일탈행동이나 정신건강 등에 있어서 “결손” 가정 청소년들이 갖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는데, 첫째, 오늘날 가족구조의 다변화는 기존의 이분법만으로 그 현실이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 이혼율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재혼 가정의 증가는 편부/모 가정, 친부-계모 가정, 계부-친부 가정 혹은 비혼-동거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조로 나타나며 각각의 상황에서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가족구조 아래에서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둘째, “정상”,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들에 함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양친-친부모 가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가족 구조를 “정상” 상태에 벗어난 일종의 일탈적 형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 가족구조 자체를 청소년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상당수의 청소년이 실제로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비정상적 가족구조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의 실질적인 의의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특히 정신건강의 문제와 복지, 삶의 질 등의 주제를 포함하며,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 관계, 가족 규범의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기존의 전통적 시각은 가족구조의 영향이 인종/민족 집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가족구조의 영향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의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인종/민족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요구된다.

4) 가족 내 사회화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은 단순히 부모 세대의 유산을 학습하거나 모방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극복하려는 최근 연구자들은 계승과 학습이라는 단편적인 원리 대신에 부모, 자녀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설명 방식을 제공한다. 지위 계승의 메커니즘(Biblarz and Raftery, 1993), 부모의 영향에 대한 심리학적 귀인 이론의 적용(Benson et al, 1992) 및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한 설명(Starrels and Holm, 2000) 등은 가족 내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변화된 연구 경향을 보여준다.

(1) 지위 계승의 문제

가족내 사회화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자녀가 부모의 지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이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결부된 부모의 태도와 가치 체계를 함께 습득한다는 데에 초점이 모아진다. 지위 계승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같은 구조적 조건에 따라 사회화의 결과로 간주되는 자녀들의 심리적, 문화적 지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모들은 주거환경, 학교 등에 있어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걸맞은 사회적 환경에 자신의 자녀들을 위치지우기 때문에 자녀 세대의 구조적 기회와 제약은 부모의 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 무엇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달라지게 만든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성취 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의 태도, 가치, 심리 상태 등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Bengtson et al, 2002; Biblarz and Raftery, 1993).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화 결과 지표에 대해서도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된다.

사회화 메커니즘으로서의 지위 계승은 사회 구조와 인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Kohn(1969)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Kohn and Schooler, 1983)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계급적 위치에 따른 직업 특성과 자녀 양육 방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Kohn과 그의 동료들은 아버지 세대의 서로 다른 직업

환경이 결과적으로 자녀세대의 인성 구조를 달라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성과 독창성을 특징으로 하는 화이트칼라 직업의 경우, 이러한 직무 특성의 자녀 양육 과정에 있어서도 일반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마찬가지로 블루칼라 직업이 경우, 규율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자녀 양육의 일반 원칙이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작업 환경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들의 가치체계와 인성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2) 사회화를 설명하는 기본 메커니즘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경향은 사회화 과정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이끌어 내거나 사회화의 직접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은 경향을 넘어서서,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맥락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화를 단순히 전체 사회의 존속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역할 점유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바라보던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심리학, 사회학을 발전시켜 사회화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밝히려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①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s)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2)은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s)의 개념을 통해 사회화의 근본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한다. 이들의 연구는 부모, 자녀 관계나 혹은 가족 내 다른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간 영향의 결과가 유사한 행위 양식이나 태도를 발전시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사람들이 친밀한 인과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나 대해 행하는 귀인 방식은 그들이 어린 시절에 친밀한 인과관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반영한다. 또한 그들이 부모들의 관계를 보며 습득한 인과관계 설명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인과 스키마(causal schemas)는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과정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태도가 얼

마나 유사한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자녀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인지하고 판단한 부모의 태도였다(Acock and Bengtson 1980). 즉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귀인이 자녀 세대의 태도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더 강력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귀인 방식은 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인과 스키마가 형성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2)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인과 스키마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사회화 과정의 근본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바탕 위에서 사회화를 설명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더 효과적인 설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정의 효과(Defining Effect)

Benson 등의 이론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면, Starrels와 Holm(2000)은 사회학 이론에 근거해 부모, 자녀 사이의 영향을 설명한다. 이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상호작용에서의 정의 효과(defining influence)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사회화 메커니즘이 비교되는데, 하나는 부모의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가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델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기대가 반영된 정의가 실제 행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의 효과이다. 모델 효과와 정의 효과는 예컨대,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명 방식을 제공한다. 모델 효과에 따르면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에 있어서 부모 세대의 경우를 일종의 모델로 삼아 그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의 효과에서는 부모의 실제 모습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모의 기대나 정의가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한다.

Starrels와 Holm(2000)은 연구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모델 효과보다 정의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모방에 의한 단순 학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부모의 기대가 투영된 정의와 규정, 그리고 이를 인지하고 내재화하는 자녀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세대의 태도나 규범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의 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 학습 이론에 근거해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는 단순함을 극복하게 해 준다. 아울러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사회화 과정의 내면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5) 가족 내 사회화를 둘러싼 논쟁

새로운 사회 구성원 대한 사회화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현대 사회의 변화들은 이러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혼율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출현, 가족임금(family wage) 개념의 쇠퇴, 여성 고용의 증대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변화 등은 지배적 가족 형태로 여겨지던 핵가족이 더 이상 사회화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기도 한다.

① 결혼과 가족의 쇠퇴

높은 이혼율과 그로 인한 전형적 핵가족 구조의 해체는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특징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과 비혼 동거 가족의 꾸준한 증가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Popenoe(1993)는 19세기 이래로 미국 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정도가 70-8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 특히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해로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이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문화적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의 확산이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편부/모 가족 환경이 자녀들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Amato(1996)는 이혼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 경험이 자녀의 이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일반적인 사회화의 가설대로, 부모세대로부터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려나갈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자녀들이, 그들의 결혼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이나 태도를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Webster와 그의 동료들(1995)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부모세대 결혼 생활의 문제들이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 부모세대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는데, 첫째는 부모의 감독, 통제 소홀 및 역할 모델의 부재이고. 둘째는 부모의 갈등과 불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녀들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 관련해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경력 자체가 자녀들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한 주관적 인지와 평가는 부모세대의 이혼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현재 결혼 생활 역시 이혼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Feng과 그의 동료들(Feng eta al, 1999)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평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러한 관련성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 이혼 경력이 있는 부모를 둔 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에서는 그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생활의 질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의 영향력이 딸과 아들 모든 경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생활과 유사한 결혼생활을 영위할게 될 것이라는 모델효과의 예상과 완전히 일치하지

는 않는다. 다만 모델효과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오랜 동안 지켜보고 학습한 결과라는 점에서, 모델효과에 대한 검증이 비슷한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동거한 자녀들의 비교에 한해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 이외에도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뤄졌다. 이들이 지적하는 바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이혼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자녀 사회화의 단절을 초래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감소시키며, 청소년기 자녀들이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예컨대, Ross and Mirowsky, 1999; Ge et al, 1994). 아울러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예컨대, Wallerstein et al, 2000; Popenoe, 1993).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는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의 사회화 결과 지표들이 여타의 양친-친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Emery, 1999; Aseltine, 1996; Ahrons, 1994). 유사한 맥락에서 Bengtson(2001)은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가 부모의 결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회복 능력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주장한다. 즉 이혼이 자녀들에게 단기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의 성장 이후를 살펴보았을 때, 달라진 가족 구조와 기능을 경험한 자녀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자녀들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Bengtosn(2001)은 가족의 회복 능력과 적응 능력을 논함에 있어 확대가족(multi-generational family)의 강점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Anseltine(1996)은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감정적 충격을 다스리는 데 있어 오히려 더 능숙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바꿔 말하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감정 대응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더 능숙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이미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악영향이 과장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언급된다.

② 동료집단의 영향이 더 중요한가?

기본적인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집단의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대표적인 예로 Harris(1998)는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아울러, 어른이 되고 난 다음의 결과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화 과정 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과 또래 집단이다. 개개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데에도 유전적 요인과 가족 이외의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Harris(1998)가 생각하는 문화는 부모가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의 영향은 간접적인 경우가 많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중시하는 사회화 연구의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중에 취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자녀의 미래 행동에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Harris(1998)는 유전적 요인을 통해 자녀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영향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회화와 관련된 몇몇 영역들에서는 부모의 영향보다 또래 집단의 영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비행과 일탈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비행 친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또 다른 비행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반

해, 상대적으로 비행의 조장이나 통제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Aseltine(1995)은 다른 시각에서 부모와 친구집단의 영향을 살펴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화 과정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비행에 연루되는 과정에서도 부모와 친구집단의 영향은 각각의 작용이 상호 강화되는 방식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방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화의 다층적인 성격을 훼손하는 접근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 부모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던 Harris(1998)의 주장과 상반되는 연구도 있다. Barnes와 그의 동료들(2000)은 약물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과 통제 정도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들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음주 습관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부의 청소년 음주가 친구집단과의 상호 관계 맥락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양육방식과 양육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③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사회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초창기 사회화 연구자들은 가사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일종의 사회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여성의 직업적 위치, 여성 노동이 가족들 간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녀 양육 시기의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하였다(Acock et al 1982).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이 일반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전통적 성별 분업에 내재해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일방적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여성 노동의 확대와 자녀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자녀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 내 성별 분업 상황에서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어머니가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업 주부의 경우와 직업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은 충분한 경험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다. 또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만으로 사회화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Kalmijn, 1994).

어머니의 경제 활동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제 활동 참여 여부나 노동시간이 길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 Parcel과 Menaghan(1994)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자녀 양육의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어머니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직장에서의 경험이 자녀 사회화이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머니의 경제활동을 자녀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와 관련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Wolfer와 Moen(1996)의 연구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치는 자녀 사회화에 대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및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특별히 아들보다는 딸의 경우, 인종적으로는 흑인의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사회화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회화 결과 지표들 중 자녀의 학업 성취에 초점을 맞춘 Kalmijn(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직업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유지했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과 자녀의 학업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여성노동의 성격 변화함에 따라서 함께 변화는 경향이 있다. 즉 과거 대부분이 여성 노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자녀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여성이 사회 진출이 일반화된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일반화에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부모의 직업특성과 자녀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Kohn(1977)의 저작에서도 마찬가지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어머니의 경제 활동이 자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어머니고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둔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가 교육적 성취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치를 수용하고 내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여성이 수가 많아지면서 어머니의 직업성 성취는 자녀들에게 일종의 역할 모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한국의 가족주의와 자녀 사회화

한국 가족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서구의 가족에 비해 가족중심 가치관이 강하여,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 부모는 십대 자녀들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미성년 자녀는 아직 어리므로 부모가 잘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크게는 자녀가 진로를 설정하는 것을 지도해야 하며, 작게는 매일 매일의 스케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아이의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아이의 성공은 부모의 노력과 별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자녀의 성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믿는다. 특히 입시에서의 성

공 여부는 부모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업성취와 학교 성적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압력이 강하므로 부모나 자녀나 알게 모르게 경쟁을 내면화시키며, 이러한 구조 자체가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의 가족에서 자녀를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쟁적인 학업성취 분위기와 연결지어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가족주의가 자녀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학연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성취 위주의 가족가치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에게 어떠한 역할이 부과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사회화의 특수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한국의 도구적 가족주의와 자녀 사회화

(1) 도구적 가족주의 성향의 증가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는 매우 독특한 양상과 성격을 띠고 있다.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주체적 의견과 결정이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의 결정 못지않게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족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행위는 상당부분 가족의 유지와 확대 재생산이라는 목표에 의해 규제되는데, 이를 사회 규범으로 발전시켜 온 문화적 가치체계가 가족주의이다.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학연이나 지연을 중시하는 유사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방법으로서도 공공윤리에 기반을 둔 원칙보다는 친인척이나 유사 가족집단인 선후배의 힘에 기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정재영, 2002). 나아가 님비현상으로 지적되는 지역 이기주의와도 가족주의가 상관성이 있어서, 유사 가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지역 이기주의 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상업화와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족주의는 경쟁논리를 적극 수용하는 형태로 바뀌어 왔다. 한국사회가 급속히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사회 국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신분상승의 호기로 여겨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여 보다 높은 물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천민자본주의적 성격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전체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가족의 지위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표출되기도 했다.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강조하게 되면서 자녀에게도 부모가 바라는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가족의 압력이 강하게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도구적 가족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목적추구 의식이 강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

(2) 학연과 가족주의의 도구적 만남

한국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해서 과열된 경쟁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회화 과정에서 공부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율은 7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과 교육대학까지 합치면 82.1%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은 높다(통계청, 2006a).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싶다는 열망의 표출이자, 자녀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 예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강남의 8학군을 찾기도 하고 학원가가 즐비하다는 동네로 이사 가기도 한다. 학원가가 있다는 이유로 집값이 폭등하는 것 또한 한국사회의 특수현상이기도 하다. 학연이 개인의 지위 확보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믿음이 강한 결과,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지위 재생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현대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김신일, 1993).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으며,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자신이 원하는 안정된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성취

를 위한 도구이다. 유사가족주의 형태를 띠는 학연은 개인이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지그룹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자기보다 공부도 잘 하고 똑똑한 아이를 사귀라고 권유하고, 노는 친구를 만날까봐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자녀의 대학입학은 일종의 '가족사업'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과열경쟁으로 인해 자녀들은 학업성적에 대해 커다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세속적 성공에 기대를 거는 부모와의 갈등 또한 증폭되고 있다. 때로는 부모가 못 이룬 소망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대 목표치가 설정되어 자녀는 대리만족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과잉간섭의 문제가 대두된다. 성취 위주의 부모의 바람결과 발생한 과잉간섭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부재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으로 인해 부부간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이 증가하여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사례도 종종 보고 된다(유희정, 1992; 이동원, 1996).

교육사업이 가족사업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계층을 불문하고 자녀교육에 애를 쏟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는 교육비 부담으로 생활이 쪼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어머니가 부업을 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는 고 3 자녀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응답하는 차이를 보인다(손승영, 2003). 결국 교육문제는 계층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쟁사회에서의 '남다르게 키우기'와 구별 짓기

현대 한국사회에서 지위재생산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도모하는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와 결혼을 통한 지위 재생산이다. 교육은 가족의 주요 사업으로 등장하여 한국가족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높은 교육열을 과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이 자녀교육에 매달려서 성적 경

쟁 뿐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열의 과시에 있어서도 과잉경쟁체제에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구조와 신분상승을 꿈꾸는 욕망이 가족주의와 연결되어서 경쟁논리와 과시를 촉진시키는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적어도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키우기를 원하고 있으며, 여유가 있다면 남들보다 더 특별나게 키우기를 희망한다. 경쟁논리가 강화되면서 나의 자녀는 남달라야 한다거나 최고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자녀에 대한 과시적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직계가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아이의 돌잔치를 호텔이나 고급식당에서 뷔페 스타일로 꾸미고 많은 하객을 초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나의 가족은 특별나요' 신드롬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광고에서도 구별 짓기 형식은 손쉽게 발견된다. 분유, 이유식, 유아복 선전에서부터 학습지 선전에 이르기까지 특별난 아이로 키우는 비결을 광고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러한 남들과 다르다는 식의 구별 짓기(삐에르 부르디외, 1996)를 통한 과시욕구의 증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인 상업주의와 맞물려서 상업자본의 이윤추구에 의해 강화된다.

즉, 현대 한국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물적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물적 수단 확보가 부모의 중요한 역할로 여겨져 오고 있다. 자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할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큰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정도로 '사랑의 물상화' 과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젊은 엄마들이 만나면 자기 아이는 학습지를 몇 개하고 있으며, 학원을 몇 개 보내는지를 내세워 자랑하곤 한다. 아이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입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의해서도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좋은 학원은 어느 동네에 몰려있으며, 학년에 따라 어떤 학습을 받아야 하며, 족집게 과외 선생은 누구며 등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정보 소지 자체가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실천에 옮길 있는 경제력 또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학원을 쫓아 이사를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 걸맞게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둔 부모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주위에서 인정받고 기를 펴고

살게 된다.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학력 인플레로 늘어난 고등교육기간 동안의 값비싼 등록금 지불하기 등으로 한 자녀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재수를 시켜서라도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보니, 과외비나 학원비 비용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공부를 시켜도 교육비가 너무 비싸니 아이를 조기 유학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늘어나는 조기 유학으로 인해 '기러기 아빠'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개별가족에게는 아주 버거운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규범이 묘하게 결합하여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특히 기러기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에서의 전형적인 남녀 역할 수행이라는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돈을 버는 아빠의 도구적 역할과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정서적 역할이 해외라는 장소로 이동만 했을 뿐 그대로 전이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조은, 2004). 돈을 벌어서 송금하는 아빠는 자신의 경제력을 뽐낼 수 있음과 동시에 자녀를 위한 헌신적인 가장의 역할을 자랑하는 한편, 엄마는 아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돌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 유학을 결정할 때 부모들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덜 경쟁적인 선진국의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들먹이거나 아무리 못 배워도 영어는 하나 확실히 배워 올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산다. 조기유학 가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 실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못갈 것 같은 아이들이나 한국에서는 대학조차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아이들 등등 조기 유학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이 겉으로는 한국에서 공부하면 너무 경쟁적이므로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있으므로 한국사회에서 작동하는 과잉 교육열 경쟁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사교육이 문제라고 모두들 비판하면서도 한국에서 사교육이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에 안다니면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

각해서 비싸고 잘 가르친다는 학원에 보낸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학원은 아이들을 학년에 맞지 않게 진도를 앞서 나가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학원에 안다녀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학원에 다녀서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가게 할 목적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선행학습 대열에 끼어든다면, 오히려 교실에서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만 후행학습을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된 교실에서는 이미 아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아이들은 졸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열기는 학원을 다니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앞서가는데 우리 아이 혼자 뒤지고 있게 된다는 불안감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2) 한국 청소년 사회화의 특수성

한국사회에서는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 헌신적 부모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미화시켜왔다는 점이다. 이는 가부장적인 성 정형화된 역할과 맞물려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해왔다. 특히 어머니의 보살핌 노동과 자녀의 공부에 대한 감독역할이 강조되어서, 자녀의 의존성이 당연시되고 있다.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많이 해주는 부모가 미화되고, 자녀는 공부를 잘 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보답하는 길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 편향된 사회화 과정이 전개되고 있어서 자녀의 인성교육은 무시되고, 자녀의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에 치중한 부모의 바람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다. 또한 공부 압력으로 인해 자녀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녀들이 경험하는 또래문화와 가족의 사회화는 별개의 경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청소년 사회화의 전반적 특징

가족가치관의 세대간 차이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적이며, 장남 우선의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숙・김혜리, 2005:129). 또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물질주의적 성향이나 과시적 강해서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차를 사거나 레저를 즐기겠다는 생각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성남・윤옥경, 2000). 하지만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자아실현을 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집단주의적 가족문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박광배・김미숙, 1992).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높은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족주의적 성향이 낮으며 근대적인 경향을 보여서 성별 차이가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기도 하였다(조소연・오윤자, 2001; 정명숙・김혜리, 2005). 또한 딸이 아들보다 어머니와 정서적 측면에서 교류가 많아서 대화나 정보 교환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는 상호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비밀을 털어놓고 정보를 나눠서 의논 상대가 되고 있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지 않다(이선이 외, 2006).

김희진(1995)은 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을 비교한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한국 어머니들은 미국 어머니들보다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적인 동시에 독립적이기를 더 원했고, 미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자유롭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를 더 원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에 참여했던 30대 중반의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와 서구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오늘날의 부모세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결론짓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순종적이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말 잘 듣는 자녀로 자라면서도, 그 제한된 틀 속에서 자신이 알아서 잘 해줬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부모가 바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한된 범주 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를 의

미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독립적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맘껏 발휘하는 선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복종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는 부모의 과잉 통제나 직접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자녀 측에서 더 민감하게 반항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부 압력을 가하더라도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다른 친구의 예를 인용해가면서 경쟁 동기를 유발시키는 경우들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의 바람으로 인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통제는 강한 편이며, 자율성은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부모와는 달리 아이들은 공부보다도 스타에 대한 관심이 큰 경우도 많으며, 이성교제를 하고 있기도 하며,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어 하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서 공부를 잊는 경우들도 많다. 하지만 부모들의 기준이나 바람은 상당히 유사한 편이어서 학업 중심의 성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들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저항과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2) 성 정형화된 부모 역할과 어머니의 헌신 강조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세대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에서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에 비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고윤주, 1997). 이는 현대가정이 핵가족화로 인해 형제·자매의 수가 감소하고, 40대 중반인 아버지들이 직장일로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몫까지 엄마가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은 자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아버지의 가족가치관은 자녀 관련 변인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자녀양육이나 가사에 남편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남성들은 주 가계부양자로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어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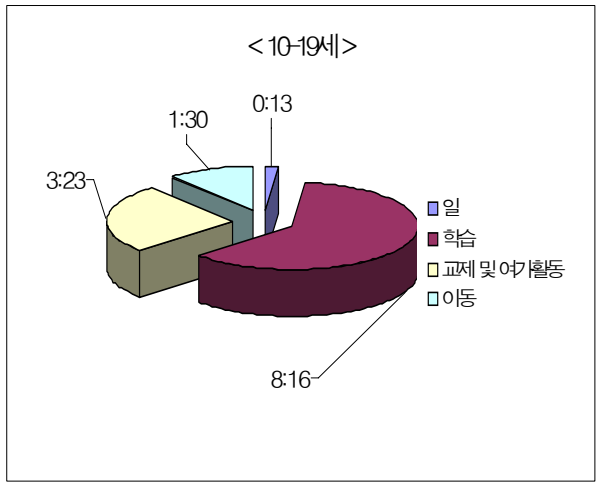
양육이나 가족돌보기 역할은 대부분 어머니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형적, 도구적, 상징적인 존재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자녀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는 것 또한 한국 가족관계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다(조소연・오윤자, 2001: 280).

이러한 전형적인 성역할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는 잘 버는 아버지를 둔 덕택에 얼마나 사교육비에 많은 투자를 해서 비싼 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은 교육비 제공자로서의 도구적 측면에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에서는 어머니까지도 나서서 파출부, 노래방 도우미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벌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중추적인 역할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심영희, 1996).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 결과들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책임자로 생각하며, 자녀교육 및 양육방법에 대해 남편에 비해 아내의 참여도와 의사반영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동원, 1996; 장혜경 외, 2000). 실제로 사회적 연결망을 잘 활용하여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어머니의 능력이 인정되며, 그 자체가 자녀교육을 위한 문화자본의 일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한 능력은 어머니들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교육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어머니와의 의도적 정보 모으기 모임이나 학교 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하기도 한다(안우환・김경식, 2005:39).

(3) 의존성을 전제로 한 편향된 사회화 과정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9세의 경우 평일 생활시간활용은 학습이 8시간 16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제 및 여가활동 3시간 22분, 이동 1시간 30분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 13분, 가정관리 8분, 가족보살피기 2분, 참여 및 봉사활동 1분으로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6b).



[그림 II-1] 10대들의 평일 생활시간 이용

[그림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가 차지하고 있다. 공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소년들의 생활문화와 부모의 과잉기대로 인해 자녀들은 학교 성적 높이기 또는 좋은 성적 유지하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은 대학에 입학하기까지는 유보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 결과, 한국의 자녀 사회화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부모'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있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의 공부를 이유로 부모는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자녀가 어릴 때는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용돈을 타가는 습관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일단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부모가 용돈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스스로 아껴 쓰고 저금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가정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미끼로 자녀의 기를 살리고 공부에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자녀가 원하는 물질적 욕구를 쉽게 충족시켜주기도 한다. 하지만 돈의 사용권한이나 액수를 부모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 지출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면, 맘대로 돈을 쓰지 못하게끔 통제권을 발휘하고 있다. 즉,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전적인 경제적 의존성은 금전을 통한 자녀의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시간 사용에 대한 통제이자 행동통제로 직결되기도 한다.

자녀의 의존적인 생활방식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이나 다른 친인척 관계에서 기대되는 서비스나 행사에의 참여 등에서 면제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까지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나 타인에 대한 서비스 의존도가 매우 높다. 자기 스스로 요리를 해서 밥을 챙겨먹거나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갈 정도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머니들 측에서도 자녀가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많은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를 위해 자녀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부모들은 자녀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잘 이해하므로 자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때로는 자녀가 하겠다고 나서도 말리는 부모들도 생겨날 지경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부모는 자녀가 조금만 도와주어도 고마워하며, “우리 애는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잘 일어난다.”는 점을 내세울 정도로 소극적인 자립심에 만족을 드러낼 정도이다(이선이 외, 2006).

(4)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부담인 경쟁사회

부모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가치 항목으로는 정직, 책임감, 예의, 성실, 사랑, 온정의 순으로 주로 내면적 가치로 나타났다(박성옥 · 양연숙, 2000).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이라면서 인성교육이라고 답하곤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겉으로는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안정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식의 모순적인 양상으로 해석된다(정재영, 2004).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가 예체능관련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취미활동이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가 많다. 제도교육에 대한 강조는 출세 도구로서의 지식습득에만 치중하여서 인성교육은 무시되고 아이들은 점점 황폐화되는 경향을 보인다(Ianni, 1989; Olwen, 1993). 자녀들은 자신의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세속적 성공에 기대를 거는 부모에 대해 세대간 격차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자녀들은 공부 부담으로 인해 부모와의 친밀성을 추구하기에는 함께 활동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부모와 대화를 하더라도 주로 공부에 관련된 것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다. 부모는 자녀가 말썽 없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성적을 높이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다보니, 자녀의 취미생활이나 교우관계나 고민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대화는 내용면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부모에게 속이거나 비밀이 늘어나고 오히려 또래집단에서 친구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자녀의 언행이 예의를 벗어나 야단을 쳐야할 때도 공부에 지쳐 있는 아이를 화나게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참는 경우들이 생긴다. 한 조사에서는 “자녀의 성격이 모가 나더라도 대학부터 들어가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 29.3%, 어머니 37.9%로 나타났다(이동원, 1992). 공부를 중시여기는 부모의 태도나 아이의 눈치를 보는 가족문화에 의한 자녀 사회화는 자녀로 하여금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않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 만큼 인식하지도 않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도 않고 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은 많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자녀가 부여하는 가치는 어머니가 부여하는 가치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는 자녀

로부터 받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이선이 외, 2006).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받는 것에 비해 자신이 모자라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서운해 하는 경향까지도 생기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자녀가 직면한 현실적인 삶과 공부에 보다 잘 훈련되도록 하는 자기중심적 사회화 결과, 자신이 받는 도움에는 익숙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매우 약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가치관 비교에서 한국 대학생에 비해 일본 대학생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기본적인 예의지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모든 항목의 타인 지향적 가치에 대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흥국 외, 1999).

성취나 결과를 중시하여 그 길로 가도록 요구하는 경쟁사회에서 한국의 자녀나 부모 모두 사회적 압력을 수용해서 살아가므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제한성을 크게 경험하게 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중요한 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개개인을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한국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차경호, 1999). 경쟁적 환경 자체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양한 형태로 제도교육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심한 경우에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위락시설을 들락거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부압력에 견디지 못해 가출이나 중퇴를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손승영 외, 2003). 입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서 매년 자살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수 십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배경에는 경쟁적인 공부 환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모와의 차단된 관계 또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 측의 부담 또한 만만하지가 않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어머니가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귀찮아하거나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

이 외, 2006). 자녀는 자신의 공간이나 시간을 침해당하기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 사소한 것까지 알려고 하는 태도, 이것저것 참견하려는 태도에 대해 부모에게 반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와 마음을 터놓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질문할 때에도 자신을 간섭하는 태도로 오해하여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

그렇지만 어머니 측에서는 자녀가 자신을 위해 조금만 일을 도와주거나 베풀면 자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게 된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잘 따라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는 참 착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관계에 있어서 발견된 '평등하지 못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모나 자녀 모두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공부나 경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강한 압력을 내면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적인 부모-자녀관계로 인해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측면에서 부담을 크게 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Steinberg and Silverberg, 1987).

구체적으로 수험생을 돌보는 역할과 책임은 어머니가 주로 또는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어머니가 겪는 부담은 실로 크다. 자녀의 눈치를 살핀다거나,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거나, 입시 뒷바라지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례들도 경험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손승영, 2002). 아내들은 남편의 자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어머니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입시로 인한 긴장과 가중한 부담의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증세가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한인숙・박춘호, 1996). 이와 같이 자녀의 존재로 인해 부정적인 경우에는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mbry, 1992).

결론적으로 경쟁의 사회적 압력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자녀사회화 특징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부모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불평하고,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고 투덜댄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는 최 일류대학에 들어가서 '사'자 직업까지 가지기 위해, 중간쯤 하는 아이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대학에는 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압력 구도가 작동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구제불능이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모두 공부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주는 꼴찌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사회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도구적 목적으로서의 경쟁에서는 누군가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 면에서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 면에 있어서는 모두 결과적으로는 지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 이 긴 시간의 경주 속에서 한국인들은 먼 앞도 내다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 사람만 살피면서 경쟁적으로 달음박질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종합적 논의

한국의 부모치고 자녀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이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 대부분의 부모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경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만큼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이에 한국 가족의 삶과 자녀 사회화에 대해 성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지금까지 도구적 가족주의로 인해 한국의 청소년 자녀가 목적 지향적으로 키워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아이들이나 부모의 목표는 매우 뚜렷해서, 목적을 향해 정진하도록 하는 주위의 뒷받침도 굉장하고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도 잘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감성적인 요구나 호기심 등 개인적 욕구는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정보화 사회니 감성시대에 사는 세대들이니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부모세대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자기표현을 하거나 자기만족을 추구할 기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까지의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가족의 체면이나 공동 이익을 형성한다는 명목 아래 강화되어온 가족주의는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 지향이나 바람으로 인해 갈등이나 불만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지위 재생산 목적과 자녀의 미래 지위안정에 치중하여 가해지는 요구나 압력에 대해 청소년의 저항이나 고충이 쉽게 발견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을 높이기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을 요구하는 부모의 압력에 저항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과다한 경쟁사회와 외연적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의 성공과 경직된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와 같이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

자신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해 온 배타적 가족관계와 경쟁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가족성원들 사이의 애정적인 통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나아가주기를 바라는 부모와 그 기준을 거부하는 자녀, 자녀가 앞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요구하는 부모와 돈은 못 벌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자녀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갈등 증가로 인한 정서적 이산가족의 전형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나 평등을 무시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과 권위주의에 기초한 비민주적 관계 설정과 이로 인한 부담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취향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사회적 성공이나 학교 성적 늘리기를 강조하는 부모세대와 부모세대와는 달리 물질적 경쟁 논리는 수용해서 소비문화는 급속히 받아들이면서도 가족을 위한 의무나 책임부분이나 강요는 받아들이기 힘든 젊은 세대들에게서 세대 갈등적 요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설정과 함께 청소년 자녀에게도 책임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방식의 가정교육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서비스 측면에서 과다하게 짐을 지우고 있는 의존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자신이 당연히 누려

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존성에서 탈피해서 자율적인 측면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자녀 인생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녀에게 가해지는 강한 기대치를 떨쳐버리고 자녀의 능력과 적성, 희망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 현황과 사회환경 변화

1. 사회화과정의 사회적 배경
2. 사회화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3. 청소년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

III.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 현황과 사회환경 변화

1. 사회화과정의 사회적 배경

이 절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환경 요인 중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복지·노동·정보화와 관련된 사회환경변화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 교육·복지 환경

근대 산업사회에서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복지환경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변화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 단지 국내적인 변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적인 교육환경 변화가 각국의 교육환경이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PISA와 같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국제비교평가의 결과는 각국의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PISA결과 발표 이후 핀란드가 주목의 대상이 된 반면, 본 연구의 비교대상국은 각각 다른 의미에서 고심하고 있다(표 부록-6 참조).

한국과 일본은 모든 영역에서 상위에 랭크되었지만, 학습동기 결여의 문제나 과잉의 교육열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일본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위를 차지하였지만, 2003년의 결과가 2000년의 결과에 미치지 못한 것을 두고 학력저하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여유 있는 교육:ゆとり教育」에 의한 학력저하의 문제가 사회이슈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동기 부문에 있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OECD평균을 밑도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 학습의욕 저하의 문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PISA의 충격파는 미국, 독일의 경우가 더 심하다. <표 부록-6>

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독일은 대부분의 영역이 중위 또는 중하위권에 걸쳐 있다. 스웨덴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독해력 이외에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인 학력평가결과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지만, 이른바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일수록 그 결과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PISA의 결과로부터 중·고교 교육에 대한 개혁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지만, 미국사회에서의 학력저하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돼오던 문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시 정권은 「NCLB:No Child Left Behind」를 슬로건으로 하여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2002년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업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pple, 2006).

교육정책의 변화는 가족내 사회화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독일의 전일제 학교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일제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연장하게 되고 이것은 반대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변호는 물론 교육정책이 가족내 생활시간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정책이 개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은 독일과 스웨덴의 교육과 복지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독일의 전일제 학교계획과 교육·복지 환경

전형적인 복선형 학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문과학교(김나지움)를 갈 것이냐, 직업학교(레알 슐레)를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독일 청소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직업교육이나 대학교 졸업 후 자신이 받은 교육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 일이다.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지만, 최근의

양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기폭제가 된 것은 PISA의 결과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PISA 성적(표 부록-6 참조)이 독일 사회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일의 교육은 나름대로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학업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되는가는 그들 부모의 학력과 높은 상관이 있다(Shell Jugendstudie, 2006). 2003년 PISA 분석에서도 소속계층과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유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03년 PISA의 결과를 보면, 하부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부진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Prenzel u.a., 2004a; Baumert/Schümer, 2001; 2002). 비록 지난 10년 동안 하부계층의 청소년들이 직업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학을 졸업하거나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에 진학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 학생들의 출신을 조사해 보면 고학력 부모의 자녀가 50%를 넘는 반면에 일용직 노무자의 자녀는 15%,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자녀는 10%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이주민 가정의 자녀도 적은 수에 불과했다(Baumert/Schümer, 2001:355).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을 진학하는 비율은 28%인 반면에, 양친이 모두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의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 진학율은 12%에서 16%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직업학교의 경우를 보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학교 진학률이 22%인 반면, 이민 2세대인 경우 44%였고 이민 1세대인 경우는 33%에 달했다. 독일 청소년인 경우는 33%가 인문계에 진학하는 반면에 19%만이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enzel u.a., 2004a). 독일 학교체제 안에서도 다른 유형의 학교로 이동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동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

2000년 PISA 분석결과에 따르면, 15세의 학생들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학년을 재입학한 경우가 25%나 되었다(Krohne u.a., 2004). 이렇게 재입학을 한 학생 중에 5%정도는 5일 이상을 결석을 한 경험이 있었고(Schreiber-Kittl/Schröpfer, 2002:31), 아예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도 9%에 달하였다. 졸

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이민세대가 18%, 독일인이 9%였다(Avenarius u.a., 2003: 171-2). 결국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이민세대이거나 노동자계층인 경우 고학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학교생활의 어려움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BFSFJ, 2005a: 441-2).

이러한 PISA의 결과는 이른바 '전일제 학교 계획'을 탄생시켰다. 즉, 반일제로 운영되어오던 학교를 전일제 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점점 더 많은 주가 전일제 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가 전일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하는 독일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즉,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점차 가족의 기능이 해체되고, 더욱이 이민자 가족이나 노동자 가족 등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는 방과 후에 청소년들을 대신 맡아줄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매우 강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일제 학교계획은 PISA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화답의 성격이 강하다. 어찌되었건,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지금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전일제 학교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 보호와 학습이 서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다양한 학습과정을 제공하고, 방과 후까지도 운영되는 학교를 개선하고 건립하여 아동과 청소년복지를 개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BFSFJ, 2005a: 35).

독일 학교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를 너무 어린 나이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기의 진로선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 그저 앉아만 있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시키고, 중학교(제쿤다 스투페 I)과정 낙제생과 중학교 과정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 '위험그룹'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과 이민 가족의 아이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문제의 학생수도 그 만큼 많아지게 된다. PISA결과가 말해주듯이 모든 학생이 수학적 과학적 잠재력과 독해력에 대한 기본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정치적인 잠재력과 미적 표현과 같은 개인적인 능력의 계발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

다. 전반적으로 수업 외 교육과 보호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BFSFJ, 2005a: 212-213).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개별적 또는 상업적 과외기관이나 개인 과외 등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폭 넓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외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4년 노드라인-베스트팔렌의 11~17세 학생의 20%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rrelmann/Klocke, 1995). 몇 년 후에 이 수치는 30%로 증가했다(Kramer/Werner, 1998). 중학교 3학년(9학년) 학생이 개인과외, 보충학습, 과외학원 등을 찾는 비율은 33%였다(Baumert u.a., 2001). 과외나 보충수업, 과외학원 등을 찾는 학생이 13%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개인과외나 개별적 보충수업 등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auschenbach u.a., 2004).

학교·학년별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인 경우 25%정도가 계속적으로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chneider, 2004), 직업학교(하우프트 슐레)나 전문학교(레알슐레)인 경우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외를 받는 비율이 집중되고 있다(Rudolph, 2002; Kramer/Werner, 1998; Hurrelmann/Klocke, 1995).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과정에서 약 5~10%정도가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agstedt, 1998).

(2) 스웨덴의 교육복지체계

스웨덴 청소년들의 교육여건은 어느 서구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인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9학년 (한국의 중학교 3학년)까지 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교육비는 무료이다. 부모의 수입 차이에 따라 생기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주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수당을 지급해 준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1~15세까지는 아동수당(Barnbidrag)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16~20세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수당(studiebidrag)을 지급한다. 성인이 되기 전 나이인 17세까지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18세부터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 준다. 액수

는 2006년 10월 현재 1인당 1,050 크로네(한화로 약 140,000원)를 부모의 수입여부나 수입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해 준다. 자녀가 둘 인 가정의 경우 각 한 명씩 1,050 크로네, 도합 2,100 크로네와 함께 추가수당 100크로네 포함 2,200 크로네를 지급한다. 자녀가 셋인 경우 기본수당 3,150 크로네와 함께 추가수당 454크로네를 합한 3,604 크로네를 지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가 다섯인 가정의 경우 부모가 수령하는 총 액수는 기본수당과 추가수당을 합해 7,613 크로네(한화 약 100만원)가 된다.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급여수준에 따른 결손분을 주택보조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18세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쉽게 단독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수입이 혼자 살 경우 연봉 80,000 크로네, 즉 한화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입 이하일 경우 정부에서 주택수당으로 매월 1,100 크로네를 지급해 준다. 다른 파트너와 동거일 경우 연봉 100,000 크로네의 수입까지 독거인 상태와 같이 1,100 크로네를 주택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해 준다. 29세 이상의 성인이 독거, 동거, 결혼 시 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낮아 주택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표 Ⅲ-1>에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금을 차등지급해 준다.

<표 Ⅲ−1> 주택보조금 수준과 최저 및 최고 수입 범위(스웨덴)

	최저수입	주택수당	최고수입
18-28세 청소년 독립가구			
독거	41,000	1,100	80,000
동거	58,000	1,100	100,000
부모가 함께 벌 때			
1자녀	117,000	2,500	265,000
2자녀	117,000	3,100	310,000
3자녀	117,000	3,900	355,000
부모 중 한 사람만 수입이 있을 때			
1자녀	58,500	2,500	203,000
2자녀	58,500	3,100	244,000
3자녀	58,500	3,900	287,000

자료: DS(200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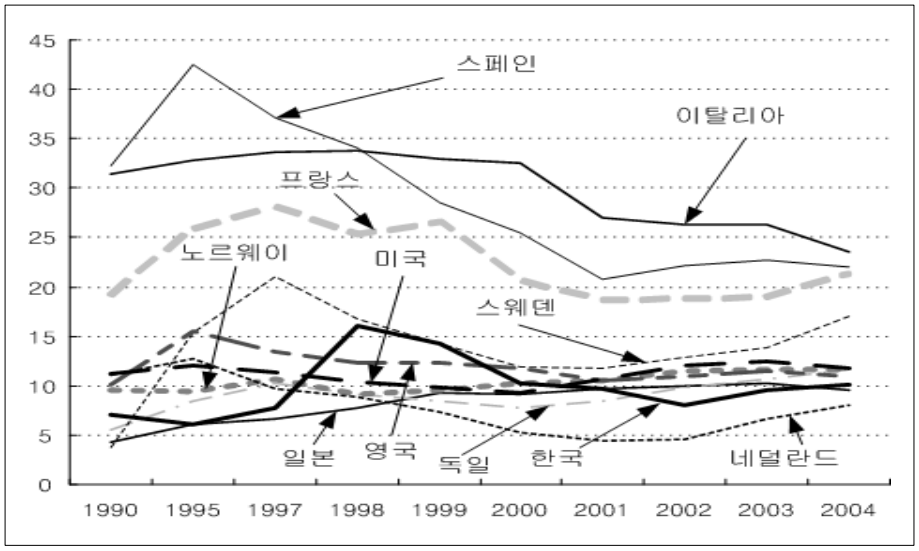
이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주택보조금제도를 통해 부모의 수입과 실직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국가가 지급해 주거나 주택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써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며, 진학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2) 청소년의 노동 환경변화

한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었다. 외환위기 전까지 청년실업의 문제는 사회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90년대 이후에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었으며, 전체 실업자 중 60% 이상을 청년층이 차지했다. 물론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을 상회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전체 실업률은 2.0%대에 머물렀지만 청년실업률은 7%에 이르렀다. 연령대를 더 세분해서 보면 15~19세의 실업률은 8~11%, 20~24세의 실업률은 6~8%, 25~29세의 실업률은 3~5%였다. 경기변동에 따른 청년실업률의 민감한 반응은 외환위기 이후의 수치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1998년 15~19세의 실업률은 전년도에 비해 11.0%가 상승하여 20.9%에 이르고, 20~24세의 실업률도 전년도의 2배를 넘어 14.8%, 25~29세의 실업률은 9.3%에 달했다. 2000년에 실업률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청년실업자는 37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수치는 이후에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청년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림 III-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낮은 군에 속해 있지만 2000년대 이후의 경향은 전반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추세 있다. 물론 이것은 일자리 부족과 전체실업률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각국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 : 1) 연령기준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이 16-24세, 기타 국가는 15-24세임.

주 : 2) 한국의 경우, 1995년의 수치는 1996년도 수치

자료 : OECD(2002:2005), Employment Outlook,

[그림 III-1] 90년대 이후 OECD 11개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1) 일본의 청소년 노동

2005년 현재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2,274만 명으로 이 중 약 60%에 달하는 1,355만 명이 노동력 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 실업자를 합한 인구)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노동력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15세에서 19세까지가 108만명(16.3%), 20세에서 24세까지가 526만명(69.3%), 25세에서 29세까지가 721만명(84.4%)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만명, 7만명, 24만명이 감소하였다.

① 청소년의 취업 현황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 취업자수는, 2005년 현재 1,255만 명으로 15세에서 19세까지가 약 97만명, 20세에서 24세까지가 약 482만명, 25세에서

29세까지가 약 676만명이다. 전체 청소년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약 25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총수(6,356만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4년의 20.2%에서 19.7%로 약간 낮아졌다.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은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이들 세 가지 산업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51.1%)을 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은 생산 공정/노무 작업과 사무 종사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② 청소년의 고용 현황

2005년 현재, 청소년 고용자수는 약 1,207만명이다. 연령별로는, 15세에서 19세까지가 약 94만명, 20세에서 24세까지가 약 467만명, 25세에서 29세까지가 약 646만명 등이다.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 고용자의 비율인 청소년 고용율은 약 53.1%로, 15세에서 19세까지가 약 14.2%, 20세에서 24세까지가 약 61.5%, 25세에서 29세까지가 약 75.6%로 전년(각각 약 52.5%, 13.9%, 60.5%, 75.1%)과 비교하여 조금씩 증가하였다.

한편 총 고용자(5,393만 명) 중 청소년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2.4%로 전년(22.4%) 보다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5세에서 19세까지가 1.7%, 20세에서 24세까지가 8.7%, 25세에서 29세까지가 12.0%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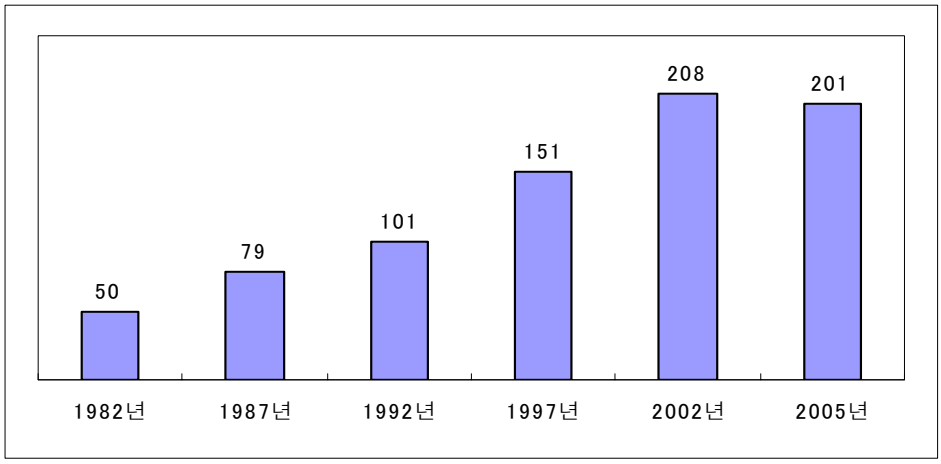
③ 청소년의 실업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 실업자는 2005년 현재 약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5세에서 19세까지가 약 11만명, 20세에서 24세까지가 약 44만명, 25세에서 29세까지 약 45만명에 이른다. 청소년 실업율을 살펴보면, 15세에서 19세까지가 약 10.2%, 20세에서 24세까지가 약 8.4%, 25세에서 29세까지가 약 6.2%로, 전년보다 조금씩 낮아졌다.

실업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정규직에 취직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로 생

계를 유지하는 프리타(フリーター ; 프리 아르바이터의 준말)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는 15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에 속하면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현재 취업 중인 경우에는 일하는 곳에서의 호칭이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임인 고용자 2)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家事)/통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파트타임 혹은 아르바이트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를 집계한 결과이다. 2005년 현재는 약 201만 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청년 고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니트」(ニート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무업자(若年無業者)」를 15세에서 34세까지로 연령을 한정하여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와 통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집계한 결과, 2005년 현재 약 64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1982년부터 1997년까지는 「노동경제의 분석」 2002년 이후는 총무청 「노동력조사」

[그림 III-2] 프리터의 추이(일본)

(2) 미국의 청소년 노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은 미국 사회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오랜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학업 이외의 경제활동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이 필요한 것인가? 일련의 연구 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성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 중의 하나는 미국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게으른 편일 것이라는 생각이다(Duffett et al, 1999).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비율은 다른 어는 나라보다도 높다.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의 경우 55%가 주당 3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캐나다 39%, 뉴질랜드 27%, 노르웨이 27%, 네덜란드 2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Bracey, 1998).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일정 시간 동안의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모든 성별, 연령, 인종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 직종에 따라 상대적인 분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도 상당 부분 취업 경험을 갖는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 이하 연령대에 비해 노동시간도 길고 취업 경험도 다양하다. 고등학교 재학생들만을 살펴보면, 10학년의 절반 이상, 11학년, 12학년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등학교 재학 중에 경제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학년 학생들 중 약 80%는 주당 15~20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chneider and Stevenson, 1999).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기대의 차이는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도, 직업의 종류와 보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렵고 위험하며, 육체노동에 기반하는 직업을 갖게 되기가 쉽고, 여자 청소년들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baby sitting)과 같은, 소극적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 노동의 성별 간 임금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 직업을 갖고 있는 16세 이상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들이 보고한 연간 소득은 4,624달러로, 같은 연령대의 여자 청소년들이 보고한 3,325

달러에 비해 40% 정도 높았다(Barling & Kelloway, 1999).

청소년 노동의 양상은 인종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보다 분명히 구별된다. 백인 청소년들이 흑인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지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 배경을 갖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방과 후 직업을 갖는 기회가 더 많다. 인종 변인과 관련된 1998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5세 백인 청소년의 22.2%가, 흑인 청소년의 16.4%가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17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인 청소년의 82.8%가, 흑인 청소년의 69.5%가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히스패닉계열 청소년들의 경우, 흑인 청소년의 평균 비율보다는 높지만, 인종적 소수자로서의 불리함은 마찬가지였다.

타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집단이 청소년 노동 시장의 진입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방과 후 직업을 갖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미국의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유익한 경제활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청소년기 노동이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 진학 이후의 본격적인 직업 세계로의 진출에 대비하는 예비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 시장 진입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조적인 유리한 집단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과 학업 성취 사이의 관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았다. 대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과 학업 성취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노동시간의 연장과 학교 성적 사이에 부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Warren et al, 2000). 그러나 Bracey(1998)의 국제 비교연구는, 청소년 노동시간의 연장과 학업성취 사이에 단순한 선형 관계를 보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들과는 달리,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는 양자 사이에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대학진학정석검사

(SAT)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14시간 이내로 일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었고,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주당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Mihalic과 Elliott(1997)도 노동시간과 성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를 지적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노동시간의 증가가 성적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노동과 학교생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학업 성적 이외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먼저 일단의 연구자들은 경제활동 참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 이외의 직업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친사회적 성격과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양할 수 있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과 학업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학생들일수록 성공적인 학교생활의 지표가 되는 자긍심, 학업성취 동기, 책임감 등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Mihalic and Elliott, 1997).

그러나 정반대의 입장에서 청소년 노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 즉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석이 잦아지고 태만한 학습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과도한 학업 외 노동이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으로부터 학생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Barling and Kelloway, 1999). 이러한 주장에 대해 McNeal(1997)은 노동시간과 학업의 중도포기를 사이의 관계를 청소년들의 일하고 있는 직종과 연관해 설명한다. 20,000명 이상의 전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학업을 중간에 그만 두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소매상점이나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구

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직종이 타직종의 청소년 노동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노동환경이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가 실제 생활에서 돈을 버는 일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Good, T. and J. Brophy, 2003).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노동이 학교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영향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증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준다.

이와 같은 미국 청소년들의 노동참여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경험의 차이가 사회화과정에 미칠 영향을 매우 클 것이다. 노동의 경험은 학업을 마친 후에나 해야 한다는 한국 부모들의 생각이나 실제 청소년기 노동의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근거자료를 미국의 사례로부터 찾을 수 있다.

(3) 독일 청소년 노동환경변화

2006년 쉘 청소년 설문 조사 (Shell Jugendstudie, 2006)는 현 독일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직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학교를 마친 뒤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거의 과반수가 넘는 기간학교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직업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다.

미래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젊은 남성보다 젊은 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하위층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더 회의적이었는데, 상위층 청소년의 1/4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확실 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비해, 하위층의 청소년은 거의 반정도가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 독일의 청소년들은 늘어나는 실업률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쉘 청소년 설문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특히 테러리즘, 경제적 불황, 환경오염 그리고 유럽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Shell Jugendstudie, 2006). 실직 또는 전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지난 4년 동안에 55%에서 69%로 상승하였다.

청소년 실업률은 2004년 전체 독일 실업률보다 훨씬 높으며, 아직까지도 구동독과 구서독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20세 이하 실업률은 구동독에서 6.9%로, 구서독이 3.5%인 것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높은 것이다. 2006년 20~25세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구동독에서 21% 그리고 구서독에서 10.7%를 보이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04c). 또한 실업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경제와 관련된 걱정은 하위층 청소년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의 독일 이주에 대한 걱정도 상위층 청소년(23%)보다 하위층 청소년(46%)이 더 많았다. 이 같은 경향은 하위층 청소년들이 외국인의 독일 이주가 자신의 직업을 찾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스웨덴 청소년의 노동환경변화

청소년의 노동인구는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다. 13-18세 청소년의 경우 1970년에는 6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30년 후인 2001년에는 30%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동참여율의 75%수준의 연령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1990년에 노동참여율이 75%에 이른 연령이 20세였던 반면, 10년 후인 2000년에는 26세가 되어서야 75%가 노동에 참여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며,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높은 학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청소년 실업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직자의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이다(Ungdomsstyrelsen, 2005: 10).

그 만큼 스웨덴 젊은이들이 독립적인 가정을 구성하는 연령도 높아졌다. 197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할 때 개인자립도가 크게 떨어졌고, 국가의존도

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산층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쉬어 일찍 독립하고, 노동자 가정일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아진다.

노동자 가정일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는 것과 전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시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은 유럽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한국사회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2. 사회화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1) 가족의 역사

(1) 한국 가족의 역사

① 산업시대 이전의 가족

Cherlin이 그의 저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화되기 이전 사회에서도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 형태였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전근대사회에서도 해당된다. 조선시대의 호적을 통해서 가구 및 가족 형태를 연구한 최재석(1983)은 조선조에 이미 소수의 가족과 직계가족, 즉 2세대 핵가족이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산업화가 핵가족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1).

조선시대에서 유교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확대가족을 이상으로 삼았고, 실제로 사대부 가족들은 이 이상을 준거로 삼아 실제 생활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지배계층인 농민, 상민, 천민은 비록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인식하여 확대가족을 이상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천하기에는 물적·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였다. 즉, 확대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가족 성원을 부양할 경제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피지배계층의 삶의 여건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사회 가족의 조직 원리는 비록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피지배계층의 삶의 방식은 핵가족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도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 형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수에서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었지만, 피지배층도 지배층과 마찬가지로 확대가족을 이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통사회에서의 핵가족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과는 그 이상과 성격이 다르다.

② 산업화 시대 이후 도래한 가족의 형태

한국가족의 평균가구원수는 1945년에서 1960년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60년에는 6.2명에 이르고 있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으로 가족계획정책이 실시된 이래 가구원수는 1970년 4.9명, 1980년 4.40명, 1990년 3.76명, 1995년 3.3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06년 현재 3.2명에 이르고 있다. 가구원 수의 감소는 1970년대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었는데,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출산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는 시기가 맞물린 덕택이다. 이로써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표 Ⅲ-2> 가족종류별 평균 가구원수(한국)

연 도	혈연가구 평균가구원수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70	5.2	2.1	5.3	3.6	5.1	7.3	5.1
1975	5.2	2.2	5.2	3.7	3.4	6.8	6.1
1980	4.8	2.1	4.8	3.5	3.4	6.3	5.6
1985	4.3	2.1	4.4	3.2	3.4	5.8	5.1
1990	4.0	2.0	4.1	3.0	3.3	5.4	4.6
1995	3.7	2.0	3.9	2.8	3.2	5.2	4.2
2000	3.5	2.0	3.8	2.6	3.2	5.1	3.9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9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의 저하가 급속히 진행되어 부부의 총출산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에서, 1987년에는 인구대체율 2.0을 밑도는 1.6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91년 1.74, 1995년 1.65, 2000년 1.47, 그리고 2005년 현재 1.08에 이르고 있다.

<표 Ⅲ-3> 합계 출산율 변화추이(한국:1960~2006)

연도	1960	1974	1984	1987	1991	1995	2000	2005
합계출산율	6.0	3.6	2.1	1.6	1.74	1.65	1.47	1.0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출산율의 저하로 자녀수가 줄고 자녀양육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증가하게 되는 등 기존의 한국가족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녀양육기간이 짧아진 결과,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독립하여 집을 떠나게 된 이후 부부끼리만 보내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부란 가문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기능적 존재로만 인식되어졌으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출가 이후 부부끼리 보내야 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제외한 대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압력 하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자녀양육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사회진출 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 36.3%,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 2000년 48.3%, 2006년 48.9%로 급속히 신장되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 볼 때 1960년에는 40%가까운 차이가 있었으나 2000년에는 25%내외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1960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현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기존의 성역할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혼 여성이 예전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는 일도 증가하여 한국가족의 모습은 매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한국)

연도	남성	여성
1960	76.4 %	36.3 %
1970	77.9 %	39.3 %
1980	76.4 %	42.8 %
1990	74.0 %	47.0 %
2000	74.0 %	48.3 %
2006	72.9%	48.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년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가족은 확대가족의 이상에 입각한 전통적 가족의 모습이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따라 핵가족화 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모습, 즉, 노인부부 가족, 무자녀 가족, 이혼가정, 재혼가족 등의 형태로 다양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가족의 역사

① 근대 가족이란?

현재, 일본 청소년의 대다수는, 아버지가 일을 하고, 어머니가 가사와 육아를 하는 핵가족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의 가족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널리 퍼진, 「근대가족」 (Modern Family) 라 불리우는 가족의 특징을 이어받고 있다.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간단히 말하자면, 핵가족으로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치아이(落合, 1997)에 의하면, 가내(家) 영

역과 공공 영역의 분리,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강한 정서적 관계, 자녀중심주의, 성별분업, 가족의 집단성 강화, 프라이버시의 성립, 비친족의 배제, 핵가족의 등장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② 근대 가족의 탄생

일본에 있어 근대 가족의 맹아는 1890년대 후반(메이지 20년대)에 싹텄다. 이 시기에, 주부라는 단어가 탄생하고,「남편은 일, 아내는 가정」이라는 성별역할분업이 규범화되기 시작했다(牟田, 1996).

남편이 일을 하여 수입을 얻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성별역할분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편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부에 거주하고 있던 회사원, 교사, 관리 등 이른바 「신중간층」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1910~1920년을 전후하여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진 후, 이러한 신중간층이 늘어났고, 그들 사이에서 「근대 가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落合, 1997).

자녀 양육의 담당자의 측면에서 보면, 1910~1920년을 전후로 이들 신중간층에서 전업주부가 육아를 하는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경까지는 자녀 양육에 아버지가 직접 관여하였다. 이 시기를 경계로 모성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고 어머니가 육아의 주된 담당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坂本, 1997). 다만, 이 계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었다. 전업주부 혼자서 자녀 육아를 담당하지 않고 가사 도우미들이 가사・자녀 육아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근대 가족의 확대

도시부의 신충간층에서 탄생한 근대 가족은, 그 후 다른 사회계층에까지 확대되어 갔다. 성별역할분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편 한 사람의 급료로 일가의 가계를 꾸려 나가야 한다는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메이지(明治) 기에는 관리나 상층의 회사원 등의 일부 계층만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다이쇼(大正) 중기에는 회사원이나 공장 노동자들도, 쇼와(昭和)초기에 이르러서는 관리, 교원, 회사원, 공장 노동자들까지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근대 가족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일본이 전쟁에 패함에 따라 서구형의 근대 가족이 전후의 새로운 법체계에 도입되고, 이것이 일본 가족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편 한 사람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이 많았으며, 당시의 서민층에는 근대 가족을 지탱하는 자녀중심주의 등의 이념이 아직 침투하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나 지주 등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은 유모나 가사 도우미가 함께 살면서 가사를 전담하는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후 초기 근대 가족을 수용한 것은 고학력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간 이상의 도시부의 화이트칼라층이었다.

④ 근대 가족의 대중화

전후 인구 전환에 의해 핵가족 세대수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근대 가족은 증가하였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의 1970년대이다. 출생 코호트별로 여성의 노동률을 보면, 전후의 베이비 부머인 「단괴세대(団塊世代)」의 에서, 노동력률이 가장 낮았고, 뉴 패밀리로 불리던 이 세대가 출산·양육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아버지는 일을 하고, 어머니는 가사・자녀 육아에 전념」하는 성별역할분업이 완성된 시기였다.

이 모델의 가족을 수용하는 층이 확대된 이유는, 첫째, 고도경제성장에 의해 노동 임금이 상승하여, 남편 한 사람의 급료로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계층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일본형 고용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생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인구 전환과 함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남성만으로도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근대 가족을 지지하는 의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2

년에 실시된 총리부의 의식 조사에 따르면,「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남녀 모두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근대 가족」을 지지하는 의식이 높았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1970년대에 널리 보급된 근대 가족은, 그 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여성의 노동률은, 1970년대 중반을 끝으로 상승 경향에 있다(総務庁,「노동력 조사」). 또한「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별역할분업의식을 지지하는 비율도 감소하여, 의식상으로도 근대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근대가족」은 전환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落合, 1997).

(3) 독일 가족의 역사

18, 19세기의 기존의 가족관계는 프랑스 혁명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 이혼율은 급증하였고 미혼의 젊은이들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세기 초의 이혼율과 미혼 청년들의 수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파른 사회변동은 기존의 가족체계를 위협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가족의 다양한 기능과 체계의 존재성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성장세대의 사회화, 재충전, 재생산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심각히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BFSFJ, 2005a).

20세기의 초 서유럽에서 남자의 결혼적령기는 28, 9세였고 여성의 경우는 25, 6세였다. 이는 동유럽에 비교해 보면 약 3년 정도가 늦은 나이였다(Tomka, 2001). 또한 평생미혼인 경우도 12~14%였다. 이와 함께 1900~1920년 사이의 출산율도 스웨덴, 네델란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프랑스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좀 더 일찍 그리고 더 빨리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1910년도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3.3명이었고, 독일은 2.6명 그리고 영국은 2.4명으로 감소되었다(BFSFJ, 2005b: 26).

반데카(1987)는 19세기말에 시작하여 20세기의 60년대까지 이어진 이러한 변화를 '첫번째 사회통계학적 과도기'라 명했다. 이러한 과도기 안에서 결혼은 증가하였고, 결혼연령은 낮아졌으며, 이혼율은 극히 적어졌고, 동시에 재혼율

또한 증가하였다.

출산율이 증가하고 결혼한 부부의 불임율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욕구가 증가하였다. 수입의 증가나 노동조건, 건강과 사회적인 안정성과 독립성, 사회적 응집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이 중요시 되었다. 당시에 국가와 교회로부터 부부와 가족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있었다. 국가와 교회는 이러한 규제의 일원으로 성별역할 분담의 분명한 경계와 부양자로서의 아빠와 육아전담의 엄마를 가족의 모델로 하는 제도로서의 가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BFSFJ, 2005b: 31).

2차 세계대전이후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였다가 1946년서부터 1970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런 인구증가였다(BFSFJ, 2005b: 32).

1970년 이후 유럽전역에 걸쳐 출생률은 완전해진 피임약이나 기구로 인해(Castles 2004) 급격히 감소하였다(Fagnani 2002).

독일에서 불임율의 증가로(Rürup/Gruescu, 2003)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 미국(2003b)에서는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3~4자녀의 가정의 수가 줄어들었다. 불임율의 증가는 20세기 초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그 비율이 20%이상에 이른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덴마크 그리고 네델란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4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미래의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1935년도에 출생한 엄마인 경우 3~4자녀 가정 출신이 130인 것에 비해 1960년에 출생한 엄마인 경우 78로 그 수가 반으로 줄었다. 프랑스의 경우 1935년 출생인 엄마의 3~4자녀가정 출신이 121인 것에 비해 1960년 출생인 엄마는 3~4자녀가정 출신이 46으로 반이상이 줄었다. 영국의 경우는 97에서 46으로, 네델란드는 107에서 36으로 독일이상으로 수치가 50%를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스웨덴에서만 아이의 수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1960~1990년 독일의 자녀수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000만 중 1961년도에는 1,900만명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1990년도에는 단지 1,700만명의 아이들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200만명의 감소는 결국 3~4자녀가족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BFSFJ, 2005b: 35-37).

(4) 스웨덴 가족의 역사

전통적으로 루터교 신교를 국교로 한 스웨덴에서 가족은 사회질서와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다. 1523년 스웨덴 왕조를 건설한 구스타브 바사(Gustav Vasa)는 교회를 통해 국가의 통치 기반을 닦았다. 즉 '국가-교회-가족'이라는 수직적 통치체제를 통해 국가는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는 교구를 통해 행정업무를 대행했으며 교구목사는 행정장의 역할과 함께 교구 내 가족들의 모든 삶 자체를 관여하는 실질적인 대민 업무의 창구가 되었다. 목사는 일요일마다 한 번씩 교구민을 만나서 믿음상태, 건강상태, 가족 내의 일상사를 모두 듣고 상담하는 사회상담원의 역할도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가족 들)간의 충실한 매개자 역할을 담당했다.

스웨덴에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은 남편과 부인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졌다(Darvishpour, 2004: 31). 가족 내에서 남편과 부인의 상호 보완성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편에의 내조와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의 책임이 강했던 반면 남편의 역할은 오로지 가족의 경제적 책임에 모아졌다.

가족은 가장 근본적인 사회단위로서 음식, 상품, 보건, 서비스, 출산, 육아, 규칙과 규범의 재생산 등과 같은 경제, 사회, 윤리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생산과 재생산의 단위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가족의 역할은 농경중심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예를 들어 남편은 들에 나가 경작을 하거나, 숲에서 사냥을 통해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이것으로 곡물과 육류를 생산했으며, 물물교환 등을 통해 다른 상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었다. 아내는 가족 내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고, 남편과 함께 재생산 작업에도 참여했으며, 출산 이후에는 육아와 자녀교육을 담당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부모와 같은 인간으로 재생산하는 가치의 세대적 재

생산 작업도 책임지게 되었다. 즉 가족은 완전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가치의 재생산, 사회규범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전통적 가정의 개념은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역할 분담이 진행되면서 가족이 지니고 있었던 책임영역들이 하나 둘씩 사회로 이전되었다.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경작을 통해 생산해 냈던 임금을 공장에 나가 일함으로써 창출해 냈고, 농경사회에서도 그랬듯이 가족이 아닌 밖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을 위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입이 필요했다. 가족 생계를 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역할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남편이 맡아 왔던 것처럼 산업사회에서도 그대로 남성의 전유물이 되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영역인 가사서비스, 양육, 규범과 가치를 전수하는 자녀 사회화 등은 아내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이 본격적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도 더욱 가시화 되었고, 사회적으로 남편과 아내 간에 암묵적으로 맺었던 역할분담의 영역이 깨지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의 진출은 서구 어느 나라보다 높은 75%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와 함께 진행된 복지제도의 구축은 여성이 가정을 떠나 직장생활을 영위할 때 야기되는 문제들, 즉 전통적으로 여성이 지니고 있었던 육아와 가정교육을 국가가 대신 떠안았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가족정책을 구현하였다. 여성이 출산을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날 수 있도록 유급 출산휴가, 출산전후 준비 및 조리기간 등, 출산 후 최고 1년 동안 육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을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는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급격한 해체현상이다. 스웨덴의 인구와 가족 통계를 보면 1960년 이후 0-17세의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65세 인구비율은 점차 늘고 있어 전형적인 노인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출산율 평균은 1921년에 2,7명 (Sorrentino, 1990: 42). 1960년에 2.13명에서 2005년 1.77명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가 최근 들어 점차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 한해 50,149의 커플이 결혼하고 9,563 커플이 이혼한 반면, 2005년에

는 44,381 커플이 결혼을 하고 거의 절반에 이르는 20,000쌍이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의 구조와 특성

(1) 한국의 가족구조

2006년 현재의 한국가족은 '정상가족(the family)'의 논리로는 더 이상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상가족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가족'으로 상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상황 하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들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는 이들의 성장과정, 사회화과정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다.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1980년 0.6이었으나 1990년 1.0, 2000년 2.5, 2005년 2.6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Ⅲ-5> 연도별 총 이혼건수 및 이혼율(한국)

연도	총이혼건수	조이혼율*(%)
1980	23,662	0.6
1990	45,694	1.1
2000	119,982	2.5
2005	128,468	2.6

주 :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표 Ⅲ-6>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수와 비율(한국)

(단위: 가구, %)

연 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90	226,731 (25.5)	497,867 (56.0)	78,861 (8.9)	85,394 (9.6)	888,853 (100.0)
1995	216,067 (22.5)	526,320 (54.8)	123,969 (12.9)	93,616 (9.8)	959,972 (100.0)
2000	252,917 (22.5)	502,284 (44.7)	245,987 (21.9)	122,666 (10.9)	1,123,854 (100.0)

주 : * 한부모 가구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는 배우자가 가출, 유기, 장기복역 등의 상태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양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인지·사회성 발달지표가 뒤떨어진다(구인회, 2003; 이정환, 2003). 한부모 가정은 양친부모 가정에 비해 자녀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데, 이는 가족구조의 해체에 의한 소득의 하락에서 연유된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물질적 자원의 부족은 자녀의 학업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구인회, 2003). 가족해체는 소득 수준의 감소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5). 이혼하여 별개의 가구에 사는 부 또는 모는 자녀와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어 부모자녀 관계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감이 감소한다. 또한 자녀양육을 맡은 부 또는 모는 가계를 이끄는 동시에 자녀를 키워야 하므로 부모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함으로써 과중한 역할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편부 또는 편모는 역할과다로 인하여 자녀의 학습발달을 감독하고 통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며, 그 결과 자녀들의 인지·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역할과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스트레스, 불안감, 외로움도 긍정적인 양육방식의 개발을 저해하게 된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5). 또한 한부모가족은 가족해체로 인한 기존의 친구, 친·인척 관계의 변화와 소멸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같은 가정 밖

의 연결망 손실도 자녀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구인회, 200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은 양친부모 가정에 비하여 경제적, 문화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청소년을 비롯한 자녀의 사회화에 부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긍정적인 인지, 심리, 인성 발달을 위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② 재혼가정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력 확보, 가부장적 사고의 약화, 또한 개인의 행복 추구 가치관의 확산 등의 이유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재혼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혼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적응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양육권을 대부분 아버지가 갖게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재혼 증가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서구에서와 같이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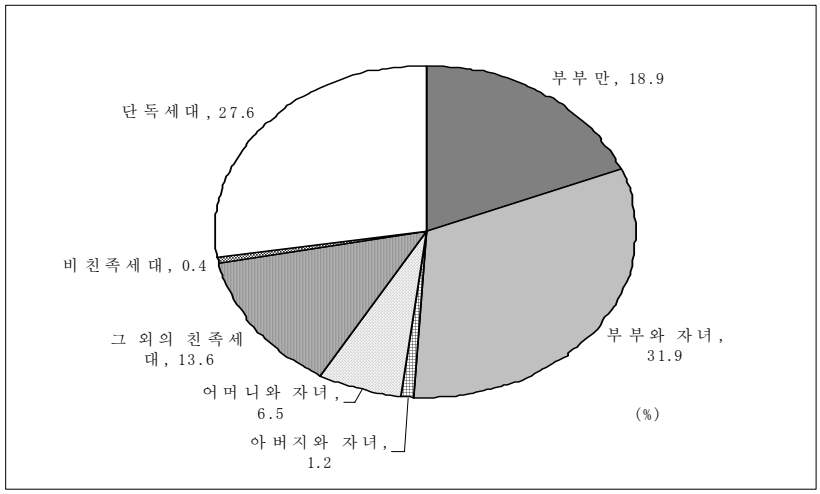
서구에 비해 재혼가정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첫째, 지금까지 살던 배경과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기대와 행동 양식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 둘째, 이혼 후의 재혼한 가족의 경우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생부모와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 셋째, 양친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효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존재하지만, 재혼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를 규정할만한 기존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족 구성원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1).

(2) 일본의 가족 구조

① 세대 구성

2000년 현재, 일본의 세대 구성은 [그림 III-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핵가족 세대(「부부만의 세대」「부부와 자녀」「아버지와 자녀」「어머니와 자녀」의 합계)는 58.5%, 삼세대 세대(三世代世)가 포함되는 「그 외의 친족 세대」13.6%, 비친족 세대 가 0.4%, 단독 세대가 27.6%이다. 전체적으로는 핵가족 세대가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부부만의 세대」가 18.9%, 「부부와 자녀」가 3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세대는 소수에 불과하다.

<표 Ⅲ-7>은 세대 구성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60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핵가족 세대의 비율은 1970년에 걸쳐서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후에는 아주 조금 감소하고 있다. 1960년의 시점에서는 30%를 점하고 있던 삼세대 세대가 포함된「그 외의 친족 세대」의 비율은 일관해서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00년 시점에서는 15%를 밑돌고 있다. 1960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단독 세대이다. 단독 세대는 젊은층과 고령자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자료 : 일본총무청 통계국(2000).「국세조사」

[그림 Ⅲ-3] 세대구성(일본:2000)

이러한 세대 구성의 상황에서는, 삼세대 세대에서 자라나는 아동은 감소하고, 대다수의 아동이 핵가족 세대에서 자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부모 세대는 여전히 소수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이 양친이 존재하는 세대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혼

<표 Ⅲ-8>은 연령별로 본 배우자 관계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30대 전반까지는 미혼자 비율이 높으나,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도 초혼의 연령이 낮아 20대 후반까지는 미혼자 비율이 높지만,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다. 남녀의 결혼연령과 평균 수명의 차이로부터, 남성은 70대, 여성은 60대 이후에 배우자와 사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배우자 관계를 살펴 볼 때 주목할 점은, 낮은 이혼률이다. 일본의 이혼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표 Ⅲ-7> 세대 구성의 시계열 변화(일본)

년차	총수	친족세대							비친족세대	단독세대
		총수	핵가족세대					그 외의 친족세대		
			총수	부부만	부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실수 (1,000세대)								
1960 [1)]	22,231	18,579	11,788	1,630	8,489	245	1,424	6,790	74	3,579
1970	30,297	24,059	17,186	2,972	12,471	253	1,491	6,874	100	6,137
1975	33,596	26,968	19,980	3,880	14,290	257	1,553	6,988	67	6,561
1980	35,824	28,657	21,594	4,460	15,081	297	1,756	7,063	62	7,105
1985	37,980	30,013	22,804	5,212	15,189	356	2,047	7,209	73	7,895
1990	40,670	31,204	24,218	6,294	15,172	425	2,328	6,986	77	9,390
1995	43,900	32,533	25,760	7,619	15,032	485	2,624	6,773	128	11,239
2000	46,782	33,679	27,332	8,835	14,919	545	3,032	6,347	192	12,911
		비율 (%)								
1960 [1)]	100.0	83.6	53.0	7.3	38.2	1.1	6.4	30.5	0.3	16.1
1970	100.0	79.4	56.7	9.8	41.2	0.8	4.9	22.7	0.3	20.3
1975	100.0	80.3	59.5	11.6	42.5	0.8	4.6	20.8	0.2	19.5
1980	100.0	80.0	60.3	12.5	42.1	0.8	4.9	19.7	0.2	19.8
1985	100.0	79.0	60.0	13.7	40.0	0.9	5.4	19.0	0.2	20.8
1990	100.0	76.7	59.5	15.5	37.3	1.0	5.7	17.2	0.2	23.1
1995	100.0	74.1	58.7	17.4	34.2	1.1	6.0	15.4	0.3	25.6
2000	100.0	72.0	58.4	18.9	31.9	1.2	6.5	13.6	0.4	27.6

자료 : 일본총무성 통계국,「국세조사」

특히 젊은 층의 이혼률이 낮다.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은 1%, 30대 전반은 2%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의 이혼률은 50대 전반에서 가장 높으나, 이 경우에도 5%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이혼률이 높다. 그렇지만, 이혼률이 가장 높은 50대 전반의 경우도 7.3%에 그치고 있다. 또한, 남녀 모두 50대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로는 자녀가 독립한 후에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비교적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의 이혼율이 낮다는 것은, 일본의 아동이 부모 모두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표 Ⅲ-8> 연령별로 본 이혼율(일본:2000)

(‰)

	夫	妻
전 체	3.79	3.56
19세 이 하	0.16	0.57
20 ~ 24	2.99	4.81
25 ~ 29	6.65	8.92
30 ~ 34	8.47	9.78
35 ~ 39	7.98	8.00
40 ~ 44	6.49	5.92
45 ~ 49	4.99	3.98
50 ~ 54	3.63	2.44
55 ~ 59	2.35	1.42
60세 이 상	0.71	0.33

자료 : 일본총무성 통계국(2003),「국세조사」

③ 출생

마지막으로, 출생수와 합계 특수 출생률의 변화를 살펴 보면, 194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출생수는 일관적으로 감소해 왔다. 제1차 베이비붐에 해당하는 1947~49년의 출생수는 1년 간 260만명을 넘었으나, 그 후 급격한 저출산(少子化)이 진행되어, 2005년에는 40%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합계특수출산률(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의 합계로, 한 명의 여성이 일생동안 출산을 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평균 자녀수)은 1947년

에는 4.54였으나, 2005년에는 1.25로 떨어졌다. 합계특수출산률이 약 2.1을 밑돌게 되면, 그 나라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인구 증가에서 인구 감소의 전환점에 있다.

합계 특수 출생률의 저하는,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결혼 지속 기간 15~19년의 부부의 완결출생아수도, 1940년 시점에서는 4명을 넘었지만, 2005년 시점에서는 2.09명으로 떨어졌다.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부부는 경제적 자원과 시간적 자원을 적은 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3) 미국의 가족구조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자녀의 학업성취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컨대, 민주적인 가정환경 속의 청소년들일수록,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부모의 기대를 더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던지(Elder, 1985),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이 청소년기 아들이나 딸과의 정서적 애착 정도를 달라지게 한다(Youniss and Smollar, 1985)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족 내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 변수인 부모-자녀 관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의 백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의 연구자들은 미국 사회의 본질적 특징인 인종과 민족 배경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배경변인과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e.g. Sui-Chu and Willms, 1996; Phelan et. al., 1993).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민족 청소년 집단에 대한 사회화 연구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존의 소수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사회화 연구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흑인 이외의 다른 소수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Steinberg and Morris, 2001).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고려와 아울러, 최근 미국의 청소년 사회화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변동, 계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새로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 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가족구조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 사회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동과 그에 따른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오늘날 많은 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달라지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실질적 필요 때문이며,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즉 청소년 사회화를 가족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이를 둘러싼 구조와 규범의 변화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 또한 존재한다.

가족구조의 변동은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졌던, 청소년기자녀들 간의 상호관계,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이 청소년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Smetana et. al., 2006).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만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과거에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던 친척들의 영향이나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를 청소년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e.g. Rueter and Conger, 1995; Clingempeel et. al., 1992)

그러나 가족구조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민족 집단의 다양성이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가 미국 사회 전체의 일반적 특징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특정 인종/민족 집단에

따라 가족구조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비혼-한부모 가족의 형태는 흑인 인구 집단에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기에 존재하는 가족 규범은 다른 인종/민족 집단의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구조의 형태 변화와 청소년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이 비행과 일탈행동의 설명에 집중된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 자체를 일종의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가족 해체나 결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소년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 비혼-동거 가족의 꾸준한 증가는 상당수의 미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 역시 가족구조 변화의 다양한 영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변화와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신건강,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Falci, 2006), 미국 청소년의 약 50% 정도가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형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청소년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를 반영하듯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역시 기존의 양친-친부모 가족 및 그 이외 형태라는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들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재혼 이전의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과 정서적 유대, 상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확인된다(Hetherington, 1989; Acock and Demo, 1994; Simons and Johnson, 1996). 하지만, 이혼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대화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Acock and Demo, 1994; McLanahan and Sandefur, 1994), 이는 이혼 후 어머니의 청소년기 자녀들 사이의 감정적 지원이나 조언의 상호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아들보다는 딸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졌다(Arditti, 1999). 재혼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친부모 혹은 계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양친-친부모가정 청소년들보다 부족하였고, 그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혼-동거 가족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에서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라는 존재의 손실이나 교체를 경험하는 것이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Acock and Demo, 1994). 마찬가지로 Falci(2006)의 연구에서도 비혼-동거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가 편/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경우보다 긍정적이며 양친-친부모 가정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상이했는데,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alci, 2006)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위축과 연관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Amato and Keith, 1991; Furstenberg and Teitler, 1994; McLanahan and Sandefur, 1994; Conger and Chao, 1996; Videon, 2002) 그러나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비혼-동거 가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구조의 형태와 그로 인한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DeLeire와 Kalil(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흡연과 음주 행태 등에 있어서 편/부모 가정 내의 가족구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전체적으로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적이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일탈행도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편부/모 가정의 형태 중, 친모-할아버지(또는 할머니)로 이루어진 가족 구조하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여러 사회화 결과 지표들에 있어서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약물중독과 관련해서도 가족 구조의 다양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Hoffmann(2002)은 편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의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경험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들에 비해 높다는 일반적인 결과와 함께, 특히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약물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편부 가정이나, 친부-계모 가정과 같이, 친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가 일차적인 양육 권한을 갖게 되는 가족구조 아래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편모, 혹은 계부-친모 가정의 경우보다 약물 중독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Hoffmann and Johnso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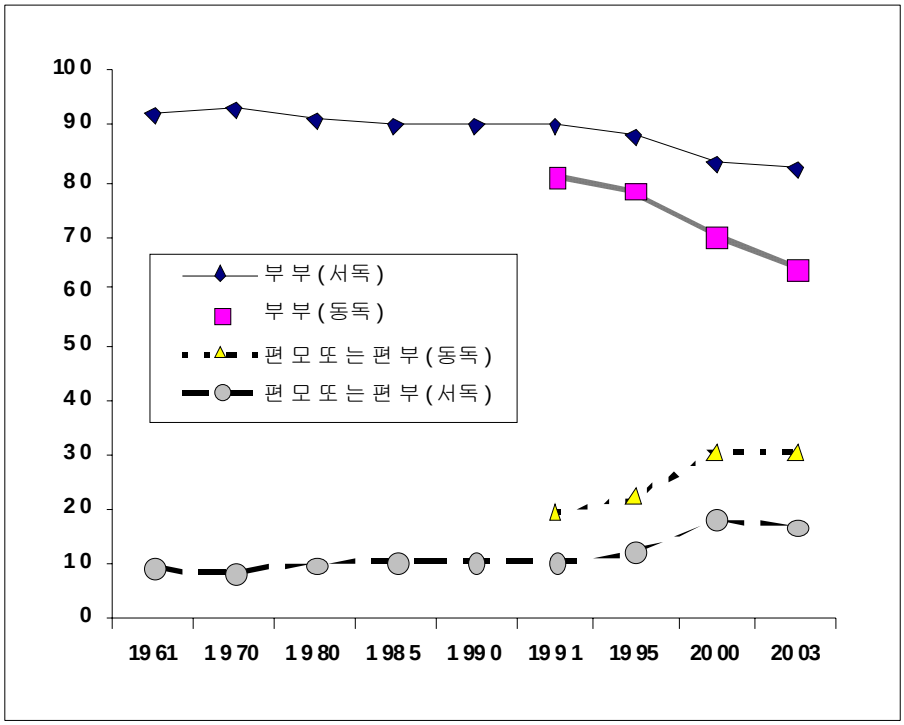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항상 경험적 뒷받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종/민족 배경 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연구 결과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컨대, 성과 인종에 따른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Zullig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편모가정의 흑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편부 가정의 흑인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백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편모 가정 환경에서 오히려 더 낮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가 일차적인 자녀 양육권을 갖는 경우 기대되었던 긍정적 효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구조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일종의 일탈적 상황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높은 이혼율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의 변화 모습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여러 학문 분과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결론들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외에 고려해야할 인구학적, 문화적 배경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인종/민족 배경의 다양성과 아울러, 부모의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족 구조들 사이에서 다수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과정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통계적 분석과정 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결과의 해석 및 이론적 설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뜻한다. 실제로 인종/민족 변수와 가족구조의 형태 각각이 청소년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고, 동시에 여러 가족구조의 분포가 미국 사회내의 인종/민족 배경 변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연구의 관심이 되는 특정 가족구조와 인구 집단 몇몇을 설정한 뒤, 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배경 변인들이 충분히 고려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독일의 가족구조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족상태의 불연속성(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많은 아이들은 독자로서 자라거나 아니면 단 한명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고, 편모나 편부를 가진 아동들과, 의모나 의부를 가진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의 가족형태는 구동독과 구서독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동독에서는 한 가구당 18세이하의 청소년의 할당이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구 서독에 비해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편모 또는 편부들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04b)

[그림 III-4] 18세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족비율(독일:1961~2003)

독일 청소년 연구소 (DJI) 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구 서독은 물론이고 구 동독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나, 계모 계부, 그리고 미혼모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며, 정식 결혼을 한 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비율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Gille et al., 2006).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은 요즘들어 더 빈번하게 부모의 결별이나 이혼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혼율은 1990년 이후 비교적 연속적으로 2.0에서 2003년에는 2.67까지 (1000 가구당) 증가하였고, 구 동독에서는 통독이후 급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지금은 약 2.2 정도에 머물고 있다.

구동독과 구서독의 아동과 청소년의 가족에 관련된 생활 환경의 차이점의 또 하나는 구동독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비교적 적은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명 또는 더 많은 형제자매를 가진 아동은 구동독에서 비교적 드문편이며(15%), 특히 41%의 아동이 독자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서독에서의 아동은 37%까지 두 명이나 혹은 더 많은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으며, 독자의 경우는 29%에 이르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04b).

독일에서 사는 아이를 가진 외국인 가족은 아이를 가진 독일인 가족에 비해 결혼율이 더 높다(2000년, 독일인 결혼율 78%; 외국인 86%). 반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독일인 15%에 비해 외국인 12%)와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독일인 6%에 비해 외국인 2%)의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체적으로 차츰 외국인 가족도 독일가족의 유형에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가족에 있어서 독일가족과 비교할때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Engstler & Menning, 2003).

이러한 외국인 가족유형은 물론 그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다. 사분의 삼을 넘는 많은 터어키인들은 결혼을 한 상태이고 단지 7%만이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상태에 있으나, 다른 유럽에서 온 이들에 있어서는 삼분의 이가 안되는 이가 결혼상태에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18% 내지 14%로 나타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04a).

요약해 보자면, 독일의 아동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가족적인 생활형태에서 자라고 있지만, 점점 이러한 가족유형에서 일탈한 유형의 가족상태(예를 들어, 의모 또는 의부와 함께)에서 자라고 있다.

(5) 스웨덴 가족구조의 변화

부모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둔 가족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결혼의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둔 가정이 63%, 동거 형태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둔 경우가 3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합한 가정의 경우, 혹은 동거상태에서 파트너와 헤어져 다시 다른 파트너를 만나 가정을 구성하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머니 쪽, 혹은 아버지 쪽인지, 혹은 함께 자녀를 두었더라도 이전의 가정에서 데리고 온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가족형태가 생긴다. <표 III-9>은 스웨덴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어머니 쪽만의 자녀를 둔 가정, 아버지 쪽만의 자녀만 둔 가정, 아버지 쪽만의 자녀만 둔 가정은 새로 만난 커플이 각각 데리고 들어온 아이에 대한 구분이고, 공동의 자녀와 엄마 쪽의 자녀를 둔 가정, 공동의 자녀와 아버지 쪽의 아이를 둔 가정, 공동의 자녀,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각각의 자녀를 둔 가정 등은 새로 가정을 이루고 공동의 아이를 낳고 각각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로 구분된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어머니가 이전의 결혼, 동거, 독거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다른 파트너와 살면서 공동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47,207 건수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헤어질 경우 자녀 양육권이 대개 엄마에게 주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9> 1세부터 21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관계(스웨덴:2002)

자녀 구성에 따른 가정의 형태 구분	가족형태별 비율		
	결혼가정	동거가정	합계
어머니 쪽만의 자녀를 둔 가정	97%	3%	100
아버지 쪽만의 자녀만 둔 가정	99%	1%	100
어머니, 아버지 쪽 각각의 자녀를 둔 가정	100%	0%	100
공동의 자녀와 어머니 쪽의 자녀를 둔 가정	49%	51%	100
공동의 자녀와 아버지 쪽의 아이를 둔 가정	57%	43%	100
공동의 자녀,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각각의 자녀를 둔 가정	51%	49%	100
합계	63%	37%	100

자료 : SCB(2003: 16)

스웨덴 가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구성 형태를 단독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독거가정과 동거든 결혼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함께 사

는 동거 및 결혼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자녀를 둔 경우와 두지 않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 III-10> 성인(18~89세)의 가족구성(스웨덴)

가족구성 형태	성인 (1000명)	비율
독거가정 (자녀 無)	1,915	28
동거/결혼가정 (자녀 無)	2,305	33
독거가정 (자녀 有*)	209	3
동거/결혼가정 (자녀 有*)	1,452	21
기타	1,035	15

주 : * 자녀를 가진 가정은 1-17세까지의 자녀 연령을 포함한다.
자료 : DS(2005:39).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거가정의 형태로 사는 가족의 비율은 31%에 이르고, 54%가 동거 혹은 결혼가정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동거나 결혼 등을 통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2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한편, 스웨덴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가구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음 <표 III-11>는 스웨덴의 가구수와 평균 가족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11> 가구수와 평균 가족수의 변화(스웨덴:1960~2005)

	2000	1996	1990	1985	1980	1975	1970	1960
총인구수	8,882,792	8,844,499	8,590,630	8,208,442	8,317,937	8,208,442	8,081,229	7,497,967
총 가구수	4,363,284	4,290,547	3,830,037	3,670,340	3,497,801	3,324,956	3,050,354	2,582,151
평균 가족수	2.01	2.06	2.14	2.23	2.32	2.41	2.59	2.84

자료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

1960년대의 가구수는 250만 가구였지만, 꾸준히 늘어 1970년에 3백만 가구, 1996년에는 4백만을 넘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가족 당 평균 가족수도 1960년의 2.84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최근 2000년에는 간신히 2

명을 넘기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된다.

첫째,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가족의 구성인원수는 계속 하락한 점이다. 스웨덴 가임 여성의 출산율은 1960년에 2.13%까지 이르렀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심화되면서 최근 1.77%까지 낮아졌다. 한 가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 최근 들어 10년 사이에 출산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휴가, 출산 후 유급 산후조리 및 육아를 위한 부모수당을 도입, 자녀병간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의 지속적으로 보장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가족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구당 가족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독신자 가정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통계상 단독 가정의 수는 늘고 있지만 가구당 가족수는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의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파트너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독신형태의 삶을 선호하고 있다. 동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파트너를 만나서 성은 즐기되 예속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독거적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복잡한 가족구조는 곧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단절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머니 혼자 아이를 기르거나 혹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머니, 아버지를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과 부모의 경제적 불안정 혹은 새 가정에서의 다른 이복형제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다소 역기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3) 부모자녀관계

(1)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부모는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주요한 의사소통자로 기능하게 된다. Reuter and Conger(1995)는 청소년의 인성발달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대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며,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수용자)의 행동을 변용시키기 위하여 자극(언어적 자극)을 보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Galvin & Brommel(1982)은 가족 의사소통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상징적 거래과정' 즉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만일 의미를 상호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힘들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조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특히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발달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 하에서 학업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뜻하지 않게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아개념, 특히 자아존중감의 발달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성을 평가,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생의 전 단계에서 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1차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Coopersmith(1967)는 부모가 수용적일 때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Thomas(1972)는 지

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 비판적인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경연(1987)은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고, 신인숙(1988)은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자기 긍정적 태도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한국가족에서도 부모들의 태도와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아의 인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가족 내 청소년 자녀의 인성발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성차에 따라 다른 수준의 심리발달 지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부모들의 의식 저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의식을 은연중에 지각하고 있으므로, 여학생의 경우는 자신감이 위축되어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은 남녀 차별의식이 사회화 되는 과정에 대한 개입을 하여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부모자녀관계

일본의 시계열조사결과에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즉 부모와의 대화, 가족의 영향, 가정에서의 공부시간 등을 살펴보면, 첫째, 내각부 시계열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붕괴 또는 해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적과는 달리 실제 부모와의 대화 빈도를 보면, 1970년대 이후 오히려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대화는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1970년 시점에서 「매우 자주 대화 한다」가 6.0%, 「대화하는 편이다」가 39.6%로 양자의 합계는 45.6%였던 것이, 2000년 시점에서는 각각18.5%, 46.4%, 64.9%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대화도 1970년 시점에서 「매우 자주 대화 한다」가 22.0%, 「대화하는 편이다」가 56.6%로 양자의 합계는 78.6%였던 것이 2000년 시점에서는 각각 41.2%, 47.4%, 88.6%로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대화 빈도와 어머니와

의 대화 빈도를 비교해 보면, 어머니와의 대화가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조사 결과를 청소년의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이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가 높으며, 성별로 살펴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부터 중학생까지는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에 큰 차이가 있으나, 고교생 이상이 되면 딸보다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가 적다. 아들과 어머니와의 대화 빈도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딸과 어머니와의 대화는 청소년의 연령에 관계없이 90% 이상이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매우 자주 대화 한다」 + 「대화하는 편이다」) 나타나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보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 이외에 장래에 대한 것과 공부 및 진학에 관한 것이 많았다(深谷, 1995). 한편,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은 아버지와는 달리 친구관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에서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 장래에 관한 일이 많았다. 부모와의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와는 공부나 장래에 관한 것, 어머니와는 친구나 일상의 학교생활에 관한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총무청 조사에서는 현실상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지 「자유」로운지, 또한 자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가 「엄격」한 것인지 「자유」로운지를 묻고 있다. 1970~90년의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유롭게」 한다는 가정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가정(예절)교육과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면, 엄격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동일 한 타입의 부모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자녀 역시 동일한 타입의 부모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역할 모델로서 긍적적으로 평가」(深谷 1995)하고 있다. 1970~90년의 기간 동안 엄격한 부모가 감소하지 않은 것, 또한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모델로서 사회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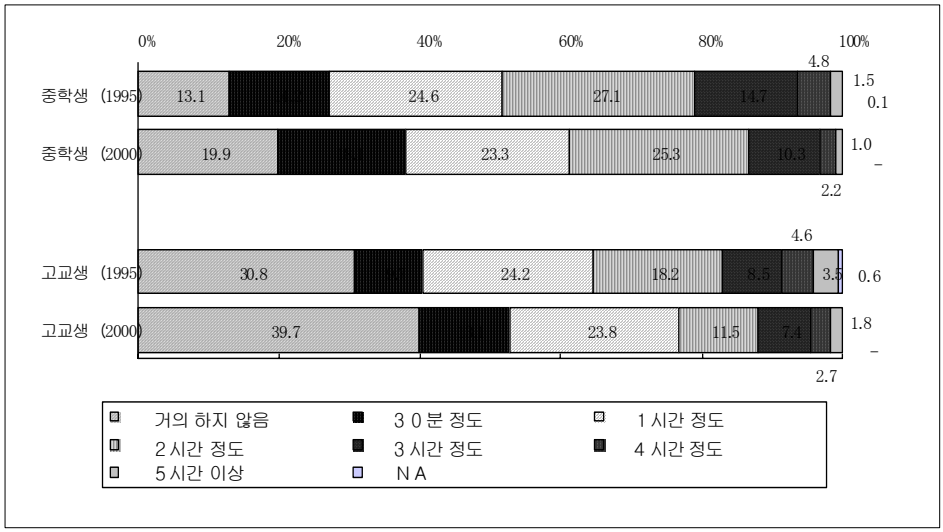
때, 적어도 1990년까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 모델로서의 영향력은 저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공부하는 시간(학원에서의 공부 포함)에 대해서는 1995년도와 2000년도에 조사가 이뤄졌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공부 시간을 비교하면, 어떤 경우에도 공부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1995년에는「거의 하지 않는다」가 13.1%, 「30분 정도」가 14.2% 정도이며, 평균 공부 시간은 약 1.6시간이었으나, 2000년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와 「30분 정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평균 공부 시간은 1.3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교생의 경우에도 1995년에는 1.3시간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청소년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족의 교육력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청소년의 공부 시간의 저하는 최근 청소년에 대한 가족 교육력이 저하 경향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청소년의 공부 시간의 저하 또는 학력 저하는 일본의 경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본 조사 결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현상은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카리야(苅谷, 2001)에 의하면, 부모의 계층이 높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투자를 하는 반면, 계층이 낮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관여가 저하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달성에 「인센티브 디바이드」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자녀의 학력이 양극화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또는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화에서의 부모모델의 영향은 최근에도 저하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들은(중략), 윗 세대의 삶의 방식을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려는 경향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武内, 1995 : 107)고 보여진다. 단, 청소년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에 따라 자녀가 공부하는 식의 교육적 측면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14세의 자녀를 둔 부모의 의식을 보면, 최근 자녀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것보다 자녀를 엄하게 가르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渡部, 2001).



자료 : 내각부(2001)를 기초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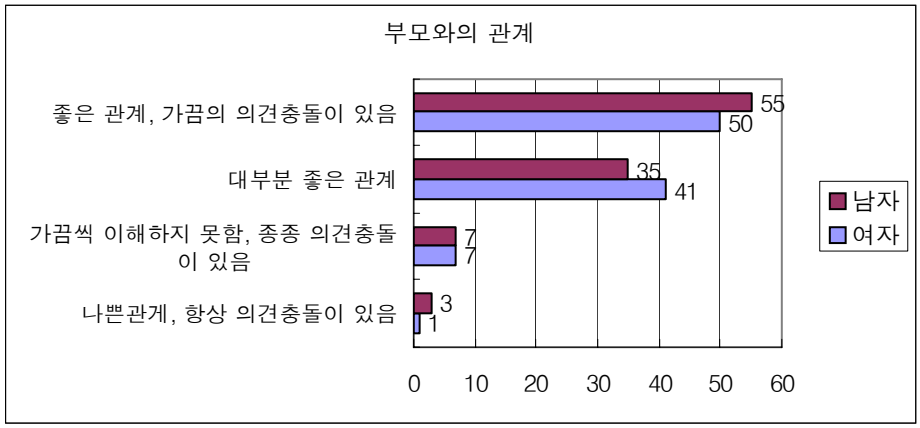
[그림 Ⅲ-5] 집에서의 공부시간(중학생과 고등학생:일본)

(3) 독일의 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2006년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 에서도 연구되었는데,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끔씩의 의견충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사이가 좋다라고 답하였다. 더욱이 38%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였고, 적은 수인 7%의 청소년들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했으며, 종종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다고 답하였다. 더 적은 수의 청소년이 부모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항상 일정한 의견충돌이 있다고 답하였다.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서 보여주듯이 동료적이고 좋은 부모자녀관계가 독일 청소년에게는 일반화 된 듯 하다.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부모와 조화로운 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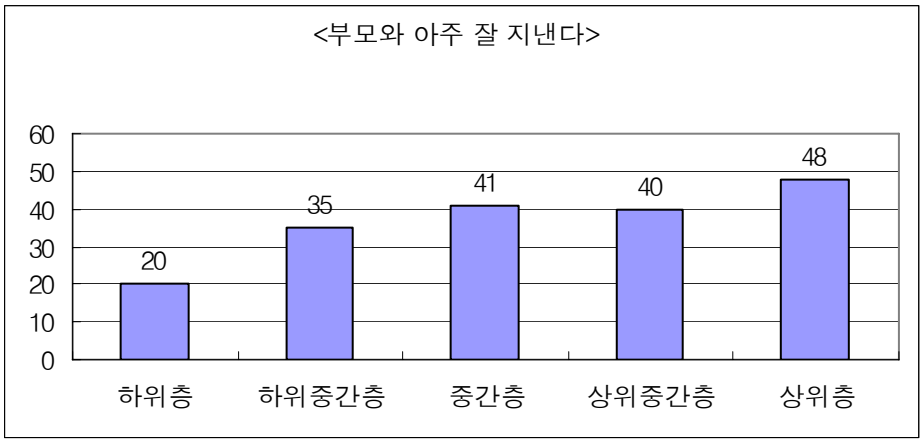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소녀들은 일상 생활에서 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칭찬과 위로를 부모로 부터 받고, 거기에 반해 소년들은 더 많은 처벌등을 받는 것이 그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Raithel, 2005).



자료: Shell Jugendstudie [쉘 청소년 설문조사], (2006)

[그림 III-6] 부모와의 관계(독일:12~25세, %)

또한 사회적 계층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III-6]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높을 수록, 그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더 좋다라고 답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하위층의 청소년들과 하위중간층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는 것인데, 단지 하위층의 20%만이 상위층의 40%에 비하여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분가한 청소년은 분가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견충돌이 적다고 답하였다.



자료: Shell Jugendstudie [쉘 청소년 설문조사] (2006)

[그림 III-7]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독일:12~15세, %)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형태에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결정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분가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부가 함께 사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은, 이혼이나 부모가 헤어진 이유로 한 쪽 부모와 사는 청소년보다 부모 자녀관계가 좋았다. 이혼이나 부모가 헤어지는 등 가족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부모나 자녀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종종 부모자녀관계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이는 부모 자녀관계에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항상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결별가족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대개 가끔 의견충돌이 있는 좋은 관계라고 답하였다.

4) 부모의 양육방식

(1)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

① 한국의 사회변화와 자녀양육/자녀사회화

전통사회에서 자녀양육/교육은 사대부 계층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서민층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생계유지와 의식주

해결이 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사대부 계층에서는 자녀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유교적 규범에 입각하여 자녀(특히 아들)를 통해 가통을 이어가고 가문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은 자녀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녀를 통해 가계를 잇고, 위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들을 통한 가계의 전승이라는 부계중심의 가치관은 여성에 대한 양육, 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은 결혼이후에는 출가외인이 되므로 부모는 딸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유교규범에 의한 아동관이라는 것은 자손을 개인 당사자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만 간주하여, 가계 전승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김미숙 외, 1995). 그러므로 자녀는 독립된 인간이라기보다는 가족의 결정을 따라야 할 존재,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기능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유교정신에 입각한 가족 집단주의적 사고는 산업사회의 도래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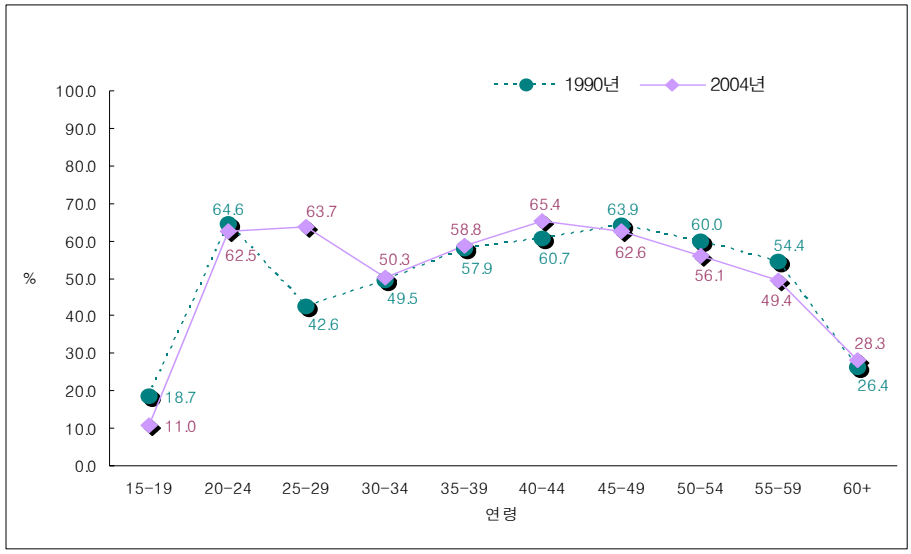
산업화로 인하여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짐에 따라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점차 사라지고,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이 나타나게 되었다.

②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사회화

전통사회에서는 일터와 가정의 분리가 모호하였고, 또한 확대가족인 경우가 많아 어머니 이외에 기타 가족구성원들이 자녀들을 대리 양육하고 사회화 시켰으므로 기혼 여성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자녀사회화에 어려움이 없었다(조정문, 장상희, 2001).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 이주민이 증가하고, 가족의 분리가 진행되어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확대가족의 와해로 어머니 이외 기타 가족구성원에 의한 대리양육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그대신 핵가족 내에서 공/사 영역의 분리가 뚜렷해짐에 따라 어머니=자녀양육자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어머니는 취업을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인식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이러한 인식이 점차 도전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여성의,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Ⅲ-8]을 보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1990년에는 20~24세 연령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64.6%로 가장 높았다가 25~29세 연령대에서 급격히 저하된 42.6%의 참가율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 참가율이 서서히 올라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20~24세 연령대의 참가율이 62.5%, 25~29세 참가율이 63.7%로서 1990년과 비교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34세에 50.3%로 낮아져 M자 커브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M자 커브의 하락폭이 1990년에는 9.9%포인트이던 것이 2004년에는 7.4%포인트로 감소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여성개발원, 2006). 이는 결혼시기 및 출산연령의 지연 및 다변화 경향과 더불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Ⅲ-8]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한국:1990-2004년)

이전에는 자녀양육 담당자로서 인식되었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모의 취업이 자녀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생각과 편견과는 달리,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머니의 취업이 반드시 자녀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 영향은 자녀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형태, 가정분위기 등 기타 요인들에 의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경희(1974)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아동의 활동성, 안정성 그리고 사회성 등과 같은 인성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태인·유홍준(2002)도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형태 등은 자녀의 인성(사회성, 자아존중감, 목표지향성, 자율성) 및 학업발달,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영화(1991)도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 어머니의 가족과 일에 대한 만족수준, 대리양육자의 존재와 질 등에 좀 더 주목하여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기타 변수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태인·유홍준(2002)도 그들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유무보다는 이것이 가정분위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자녀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의해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③ 자녀양육/사회화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아주 최근까지 한국가족 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도구적,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사회화에 감정적인 유대를 맺는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과는 다른 차원에서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발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대두되

면서 종래까지의 도구적 기능만을 담당하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최근까지 결혼한 남자는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여자는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생각이었으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구조가 재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부모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이와 함께 양성적 아버지, 자녀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권위적인 부의 모습에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한국가족의 변화를 보기 위해 송유진(2005)은 아버지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최근 10년간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아버지 상이 변화했으며, 젊은 세대의 경우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애기했다. 매스컴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과거의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에서 보다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 자녀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버지 상이 이상적인 아버지 상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물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가족 내에서의 직접적인 행위로 연결되기에는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가치관 변화는 궁극적으로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 행동(역할 수행)은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나 인성, 근원가족, 주변인들의 기대 등에 의해 달라진다고 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참여가 높고, 보다 양성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혀졌다(송순, 송희옥, 2005). 청소년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직업, 의사소통 시간, 의사소통의 욕구 등이 부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부-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및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유형은 자기 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기 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송순, 송희옥, 2005).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와 청소년은 상호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많으나 부정적 의사소통은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의 의사소통이 많고, 어머니가 주로 자녀의 훈육문제를 담당하므로 부정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한국가족에서 나타났던,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현부자모'의 상이 현대에는 변화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함인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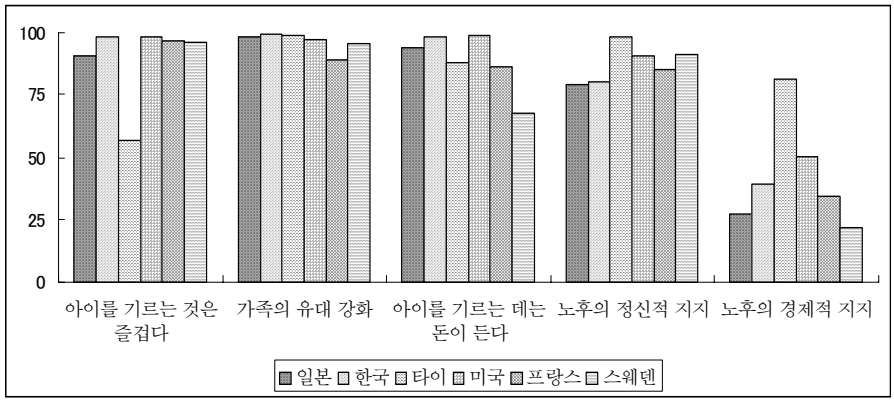
(2) 일본 부모들의 양육방식(5개국 비교)

① 자녀/자녀 양육이 지니는 의미

가. 자녀관

2004년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이 실시한「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는「아이를 기르는 것은 즐겁다」,「자녀는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한다」,「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돈이 든다」,「자녀는 노후의 정신적인 지지가 된다」,「자녀는 노후의 경제적 지지가 된다」의 5항목으로 자녀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III-9]은 각 질문항목에 대해「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와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로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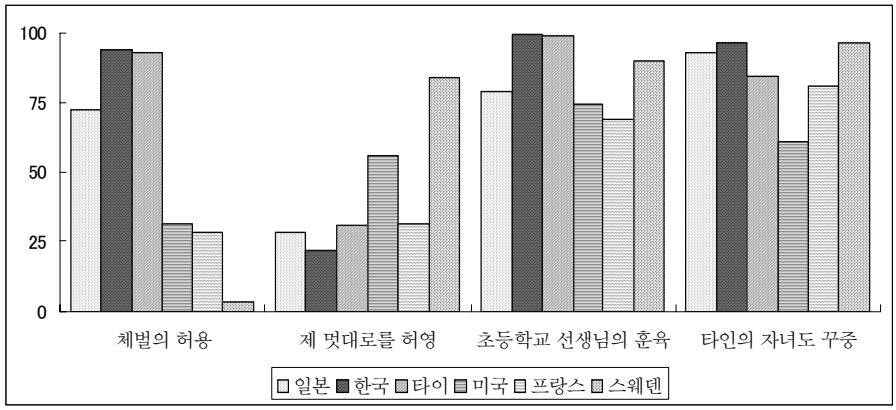
자료 : 국립여성교육회관(2006)을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9] 자녀관(한국, 일본, 타이, 미국, 프랑스, 스웨덴)

자녀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생각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타이를 제외하면, 그 외의 질문 항목에서도, 국가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타이의 경우에는 「아이를 기르는 것은 즐겁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자녀의 존재가 노후의 경제적 지지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은, 일본, 한국, 미국에서 높고, 스웨덴에서는 낮았다.

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해 국가별, 특히 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 간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본, 한국, 타이에서는 체벌을 허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미국,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일반적으로, 가정교육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 법률 상의 규제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예상했던 바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허용에 관해서도, 국가 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아시아의 3개국, 그리고 프랑스의 부모가 미국과 스웨덴의 부모보다 자녀에게 엄격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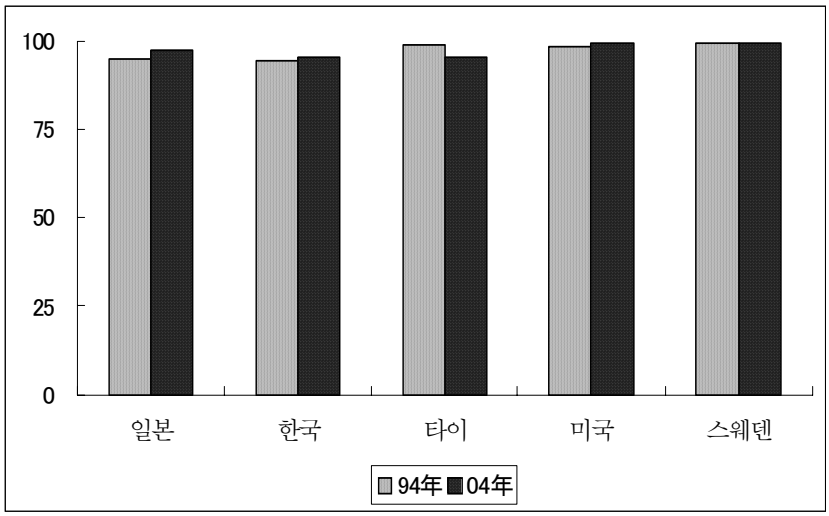


주: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
자료 : 국립여성교육회관(2006)을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10]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한국, 일본, 타이, 미국, 프랑스, 스웨덴)

다.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

[그림 Ⅲ-11]은 자녀의 성장에 대해서 「만족」「대체적으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국가 별로 나타낸 것이다. 6개국 모두 대부분의 부모가(95% 이상), 자녀의 성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 : 국립여성교육회관 (2006) 을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11] 자녀의 성장에 만족도(한국, 일본, 타이, 미국, 프랑스, 스웨덴)

②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고민과 지원

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고민

2004년의 같은 조사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민, 문제점을 경험하는지, 교육비, 육아 참가 시간, 진학 문제 등 10개의 항목을 들어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교육비」, 스웨덴에서는 「자녀와 접하는 시간의 부족」을 든 부모가 가장 많았으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의외로「집단따돌림문제」에 대한 응답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스웨덴에서는 자녀와의 접촉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스웨덴에

서는, 교육비의 문제를 자녀 양육 상의 고민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적은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과 한국에서 「자녀와 접하는 시간의 부족」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아버지들의 경우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함을 고민하는 비율이, 1994년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가가 저조하다는 점은, 일본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지적되어 왔다. 두 차례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상황이 일본과 한국의 아버지들 스스로에게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시간부족을 고민으로 든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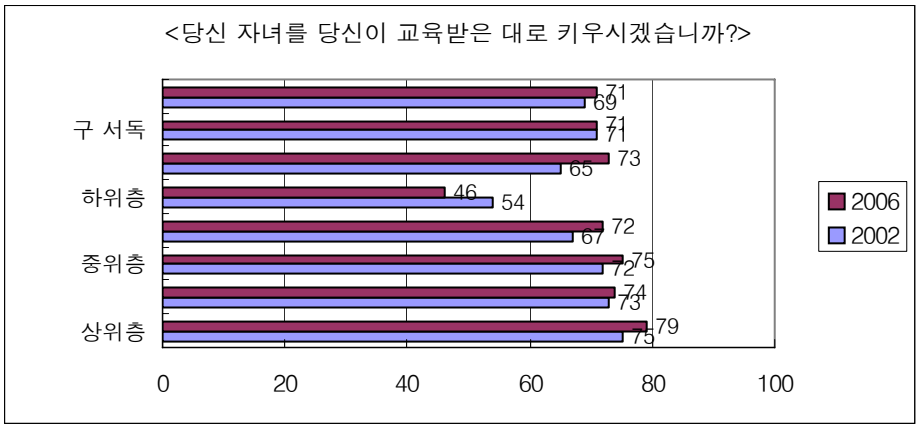
(3) 독일 부모들의 양육방식

90년대 이후 쉘 청소년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와 좋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 아이와의 갈등으로 인한 세대간의 의견충돌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집에서의 분가의 경우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때문이 아니라 부모와의 의논하에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60년대 이후 부모들은 순응과 복종에 대해 더 이상 높은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 보다는 타인에 대한 고려나 자녀들의 결정력의 강화 등을 양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Hurrelmann, 2005).

진보적인 양육방법은 또한 청소년의 인지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방법이 그리 엄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3 이상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양육된 방식대로, 자신의 아이를 기르겠다고 답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들 부모의 양육방식에 만족하고 있으며, 56%는 자기 아이를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키우겠다고 답하고 있으며, 15%는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꼭 같이 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답하였다. 그에 반해 20%의 청소년들은 자기 아이는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다르게 키우겠다고 했고, 7%는 아주 다르게 키우겠다고 했다. 이 같은 경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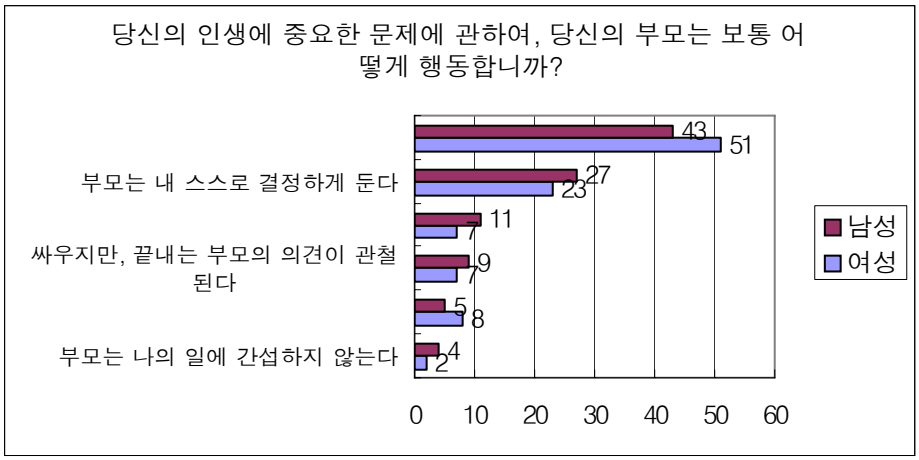
구동독과 구서독 그리고 여러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료: Shell Jugendstudie [쉘 청소년 설문조사], (2006)

[그림 III-12]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독일:12~15세, %)

부모가 긴장과 의견대립 갈등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와 함께 의논하고 같이 결정을 내린다고 답하였다. 1/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 청소년에 있어서 남성 청소년보다는 더 빈번하게 부모와 의논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지 적은 수의 청소년이 권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자세로 부모가 자기를 대한다고 보도했다.



자료: Shell Jugendstudie [쉘 청소년 설문조사], (2006)

[그림 III-13] 부모의 양육형태(독일: 12~25세, %)

나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들이 결정하는 데 간섭을 덜 하였다. 22~25세까지 청소년의 42%가, 그리고 12~14세까지 청소년의 8%가 혼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구동독의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을 구서독의 청소년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자주 부모와 의논을 하며 같이 해결책을 강구한다라고 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더 적다라고 답했다.

(4) 스웨덴의 양육방식

190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일반적 가정은 주로 3~4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끄는 대가족의 형태였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경작을 통한 생산활동에 대가족이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주위에는 일가친척들이 가까운 이웃으로 살고 있었으므로 자

녀의 인성형성에 부모뿐만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까운 친척 등도 적잖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늦게까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족의 경우 큰 딸이 동생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Henschen, 1987). 스웨덴 가족은 예외 없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기독교는 스웨덴 가족 일상생활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이후 3세대가 지난 현재 스웨덴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국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최소한 1달에 한 번씩 예배를 보는 국민은 겨우 8%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다. 가족당 평균 구성 인원수는 2명밖에 되지 않으며, 독거형태가 주요한 삶의 방법이 되고 있고, 결혼보다는 동거형태가 더 보편적인 가정을 이룬다.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 삶의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자유로운 삶의 방편으로 인식되어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경험한다. 스웨덴 사람의 19%는 외모, 언어, 문화에 있어서 이질적인 외국인 출신이다. 이들의 종교는 다양하지만 외국인 이민자 중 회교도가 가장 세력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스웨덴 부모의 육아방식과 가정교육의 방법은 스웨덴의 기독교적인 전통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계급적 인식,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스웨덴 아동 및 학생들의 양육방식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 직업, 임금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와 사회적 수준의 차이, 결혼, 이혼, 재혼, 독거 상황에 따른 차이,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등과 같은 도시환경의 차이, 아파트, 주택 등과 같은 주택형태의 차이, 종교적 문화적 차이 등을 들 수 있다(Brembeck, 1997: 7).

그러나 양육방식의 차이에 있어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사회적 지위 및 수준(혹은 계급), 그리고 문화적 차이라 할 수 있다(Brembeck, 1997: 33). 스웨덴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노동자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사회적으로 노동자 계급, 혹은 낮은 교육을 받고 육체노동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봉급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엄마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아이를 기를 때 주로 탁아소를 이용하고 부부파티에 참석하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 (외)할머니/(외)할아버지 혹은 다른 가족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여성이 함께 일을 하므로 가사를 반반씩 분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나이가 들수록 음식, 가사 등은 주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가시킬 때 남녀의 구분이 명확해서 남자아이는 활동적인 축구, 아이스하키, 격투 스포츠 등을 시키고 여자아이는 정적인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주로 다루게 한다. 아들은 대개 집단 스포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단체활동을 통하여 배움을 익히도록 한다.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가 주로 하고, 아들의 스포츠 활동에 직접 서포터즈 혹은 응원 등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자립심을 심어주기도 하며, 저축과 절약에 대한 근검정신을 가르친다.

둘째, 스웨덴 사회에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양육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성공을 위한 교육을 강조한다. 스웨덴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과 무력감으로 이들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스웨덴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스웨덴과 고유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이중적 인격, 정서를 심어 줄 수도 있어 아이들의 반감과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와 문화를 강조하고, 민족적 뿌리에 대한 교육과 예절을 전수하기도 한다. 가족의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스웨덴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정서적 일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 중하층의 방식으로 주로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신중산층을 구성한 계층의 양육방식이다. 주로 사무직이나, 세일즈, 혹은 개인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신문화의 접촉과 여행 등 문화자본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이다. 자녀에게는 특별한 계급적 의식이나 편견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교육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부장적인 요

소보다는 자유로운 가운데 친구처럼 편한 상대로 대해주는 경향이 있다. 학교공부는 중요하지만 성적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지는 않는다. 단 창의성과 능력은 성공의 중요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 주로 전통과 인습에 따라 교육하기 보다는 주관과 세계적 이슈를 중시하고 새로운 사상과 삶의 방식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중상층 혹은 엘리트방식이다. 주로 사회의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있다. 결혼 전에 가정 경제와 출산 계획 등을 꼼꼼히 준비하며, 역할 분담에 대한 대략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 아이는 탁아소보다는 개인적으로 보모를 쓰거나,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다. 수입에 따라 남성,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여, 남성의 수입이 많을 때는 과감히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남성의 수입에 의존한다. 아이를 키울 때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의 엘리트의 필요성,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이 있다.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다양한 여행을 경험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 또한 고독을 맛볼 수 있도록 개인 스포츠나 개인 악기 등을 다루게 해준다. 그러나 부모 모두 직장생활을 할 때 부모와의 소통의 단절 혹은 부재로 인해 쾌락적, 즉흥적, 퇴폐적 양식의 가치를 가지는 자녀를 배출하는 경향도 강하다.

양육법의 네 가지 구분법은 일반적 경향이지만,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거나, 위의 몇 가지 경우를 조합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5) 가족과 청소년 정책

(1) 한국의 가족정책 및 청소년 관련 정책 이슈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가족정책은 위급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가족보호에 대하여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성

격이 강하였고 변화하는 가족과는 무관하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편협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최소한의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여 오늘의 가족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시켰다. 이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정책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전 사회구성원을 정책대상으로 수용하는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가족에 부과된 재생산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방안 확보의 중요성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와 가족가치가 크게 변화되고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에서 이러한 변화의 근간을 이루는 젠더 및 세대질서는 이제까지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였다.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은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유연성과 형태의 변화에 상응하는 기능적 변화를 지원할 가족정책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적, 사적 삶의 방식에 대해 국가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자녀재생산 및 사회화에 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차세대 인적자원의 양성을 도모하고, 특정계층과 그들 자녀의 차별적인 사회화와 사회적 기회를 수직적·수평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서 가족정책이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족생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차원의 적응과 변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위해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큰 축으로 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보건복지부, 2006). 이는 가족기능변화에 따른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과 관련하여서도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실질적으로 가족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 가족문제 및 정책의제

현재 한국사회 및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자녀와 관련하여 양육 및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의 자녀보호기능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이든지, 구조적 결손이든지, 모성 혹은 부성상실의 영향이든지 기능적으로 가정이 잘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보호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정책의 필요

이혼의 증가 등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여성이 가구주로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자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이혼구성비가 1990년 15.0%에서 2003년 38.2%로 높아지면서 전체가구주 가운데 여성가구주 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2000년 현재 2,653천명으로 1980년에 비해 1,485천여 명이 늘어났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도 1980년 14.7%에서 2000년 18.5%로 증가하였다. 연령별 이혼 비율을 보면 30~34세 연령은 1975년 1.0%에서 2000년 1.5%로, 35~39세 연령층은 1975년 1.1%에서 2000년 3.0%로, 40~44세는 1975년 1.0%에서 2000년 4.3%로, 45~49세 연령층은 1975년 0.9%에서 2000년 4.4%로 늘어나 30대 이상의 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및 여성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 여성들은 사회경제학적 배경 특성의 열악함이나, 가족자원의 부족으로 대부분 혼자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떠맡아야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결혼 중 일어나는 생애사건으로 가구주가 되고 생계와 자녀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경제적 곤궁함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따라서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위험이 특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모자가족

에 대한 임시방편적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의 긴요함이 강조되고 있다(장혜경외, 2005). 더욱이 2002년 현재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27.7%)은 전체가정의 빈곤율(9.8%)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적 부담이 취약한 가족과 이들 가정의 아동빈곤의 심각성은 가족의 경제적 보호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 OECD 국가(25개국, 한국, 터키, 미국, 멕시코 4개국 제외) 등은 가족과 아동의 빈곤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분담을 표명하는 가족정책의 핵심내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

일·가정양립정책은 아동양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관련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휴가제도 등의 지원이 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휴가제도는 일·가정양립의 핵심정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실용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이후 2003년 3월까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이 기간 중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6.6%, 비사용자는 93.4%로, 육아휴직 사용율은 극히 저조하다(이규용 외, 2004). 또한 육아휴직 급여수급자는 98.3%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사용율은 1.7%로 나타났다(노동부, 고용평등국 자료).

현재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이용기간의 제한, 원직복직 보장에 대한 불안감, 승진이나 인사상의 불이익, 대체인력 확보의 문제, 낮은 휴직급여 수준의 문제, 사용에 있어서 여성편향성,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장지연, 2002). 따라서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현상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노동조건에 있는 현실에서 취업여성의 상당부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용확대 방안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 남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제도적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휴직기간의 일정부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부할당제, 부성휴가제도, 높은 임금대체율과 비양도성 권리의 부여 등의 제도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의 실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적극적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변화와 노력,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변화 등이 요구된다.

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족지원의 문제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로 개인에 대해서는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접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받는 때인 만큼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은 이들 청소년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결손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정에서 기본적인 자녀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 및 가족의 변화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별히 가족의 변화는 가정의 자녀보호기능의 약화를 초래한다. 특별히 청소년기 가족은 청소년의 발달단계특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며 청소년들은 이로 인해 부모와의 대화단절과 부모의 과잉기대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족내 분위기와 부모역할의 모습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해 준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학교 내외의 폭력, 성매매, 가출, 약물, 음주, 흡연경험율의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환경변화가 원인

이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갈등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도 주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정 내에서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사회변화와 더불어 수반되는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자질을 갖춤으로써 자녀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사회의 가족에서 부모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청소년 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심신이 여리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 방어하기 어렵고, 가족문제가 주는 장기적 압박에 의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부모 역시 인간으로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멋지게 늙어 가는, 합리적인 어른의 모습을 낳을 수 있는 부모교육 관련 가족지원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②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지원정책 유형 및 특성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비용지원, 육아휴직 등 휴가제도, 보육시설 서비스 등이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지금 양육 관련 비용 지원은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제도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 중 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며 여성의 경우 비정규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육아휴직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재정적 지원

아동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2004년 기준,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가구에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둘째, 만 5세 아동 가구(2004년 기준, 월평균소득 254만원 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셋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넷째,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318만원이하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자녀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종합하면 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시설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도 소득기준에 따라 제한된 대상에 한하여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양육비 현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가족이나 모부자복지법상 모부자가족에게 제공된다. 이들 가족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자녀학비가 전액 지원되며 학교 급식비가 무료이다. 또 6세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비로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급권자가족이나 모부자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의 의미로 보아야 하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성격은 아니다.

현재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득공제제도에서 양육비 및 교육비 공제이다. 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6세미만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 교육비가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로서 소득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현재까지는 가족의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휴가제도

휴가제도는 현재 육아휴직이 유일하다. 육아휴직은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로 월 4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실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2004년도 육아휴직

자 수는 9,303명에 불과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24.1% 수준이다(노동부 내부자료).

그러나 육아휴직은 이용기간 제한(1세 미만), 엄격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동료의 업무부담 과중 우려, 복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육아휴직 이용을 꺼리고 사업주도 생산차질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부여에 소극적이다. 아울러 현행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제도는 지원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2004년도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인원은 4,561명으로 육아휴직자 수 9,303명 대비 49.0% 수준이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현상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노동조건에 있는 기혼여성도 많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도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극히 소수만이 이용하고 있다. 가족단위에서 남성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이용이 매우 적은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가 매우 적은 액수인데다 소액의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휴직기간중의 임금대체 효과가 거의 없다.

최근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또는 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면제 및 연금크레딧 부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보육서비스 제공

현재까지 가장 가시적인 정책지원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민간보육 서비스 의존율, 보육에 대한 불신과 비용의 부담문제가 가장 중요한 보육정책의 개선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에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보육교사자격관리 등의 규제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6월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972,391명으로 0~5세 영유아 중 30.8%가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2세 영아는

19.6%, 3~5세 유아는 37.4%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

<표 Ⅲ-12>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및 비율(한국:2005.6)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800,991	858,345	930,252	972,391
(비율)	(21.5)	(23.9)	(28.1)	(30.8)
영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177,554	241,559	262,916	281,250
(비율)	(10.1)	(14.1)	(16.2)	(19.6)
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549,194	587,085	628,112	643,349
(비율)	(28.4)	(31.2)	(38.5)	(37.4)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보육시설은 2005년 6월말 현재 총 28,040개소이며 민간개인시설이 12,701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이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4.8%에 불과하며 직장보육시설은 이보다 더 적어 0.9%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수는 총 972,391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106,443명(10.9%), 민간법인 및 법인외 185,413명(19.1%), 민간개인 540,588명(55.6%), 직장보육 12,517명(1.3%), 부모협동 690명(0.1%), 가정보육 126,740명(13.0%)이다.

<표 Ⅲ-13> 보육시설 현황(한국:2005.6)

구 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	부모협동	가정
			소 계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수	28,040	1,352	15,228	1,559	968	12,701	251	31	11,178
(개소)	(100)	(4.8)	(54.4)	(5.6)	(3.5)	(45.3)	(0.9)	(0.1)	(39.9)
아동수	972,391	106,443	726,600	130,909	54,504	540,588	12,517	690	126,740
(명)	(100)	(10.9)	(74.7)	(13.5)	(5.6)	(55.6)	(1.3)	(0.1)	(13.0)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전체적으로 영유아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30.8%로 매우 낮다.「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 보육·교육이용 및 욕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육수요자가 응답한 것으로는 27.9%이다. 유치원이나 학원이 유아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보육의 기능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56.8%가 양육지원서비스에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일제로 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나 학원 등은 전일제 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서비스 제공 기능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아동돌봄 관련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대부분 가족 중에 어머니인 여성이 아이를 주로 돌보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는 0~2세 영아의 취원율이 3-5세 유아의 취원율보다 낮은데 기인한다. 기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이후 일을 그만두고 양육자가 되는 이유는 영아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질적으로 믿을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영아의 경우 개별 보육 선호 비율이 높은데 여성들의 임금수준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거나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지만 가정보육을 할 경우 이러한 혜택은 전혀 없다. 사회적 인식문제도 있는데 영아를 둔 기혼여성이 직장과 아동 양육을 양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가족내에서도 부부간에 가사나 육아 분담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 청소년 보호 관련 부모교육 정책

우리나라에 부모교육이 소개된 것은 1960년대이나 1980년대부터 유아교규기관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의 기본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건전한 가치관 등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판단하에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원,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전신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에 있어서 가

정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부터 '신가정교육운동'을 실시하였다. 즉 우리사회의 청소년문제의 상당부분은 가정교육의 실패에서 비롯한다고 진단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족지원사업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였다. 시행 초기 당시에는 '자애로운 부모, 효도하는 자녀'라는 케치프레이즈 하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부터 과거의 동양적 가정교육과 근대이후의 서양적 가정교육을 잘 조화한 새로운 유형의 가정교육운동을 전개하고자 했고, YWCA, YMCA, 흥사단 등 12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총 9개 단체에 대해 8천5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시행 단체의 자체부담금까지 고려하면 총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2001년에는 청소년보호부모교육, 부모청소년동참프로그램, 해체가족 청소년사회적응사업, 가출청소년 예방·선도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5개 단체에게 9천3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실시 기관의 자체부담금까지 합하면 약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청소년보호부모교실의 경우 여름방학 등에 올바른 자녀지도 및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체별로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부모·청소년동참프로그램은 부모와 청소년 동참을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 청소년인권 신장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해체가족 청소년 사회적응사업은 이혼자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장애청소년, 탈북가족청소년 등 해체가족 대상 사회적응 및 위기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가출청소년 예방·선도사업은 가출청소년 예방·선도프로그램,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현장 접근 및 보호시설 안내,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프로그램,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였다.

이러한 신가정교육운동 전개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이외에도 한국형 가정교육모델을 개발(1999, 2000), 국군장병아버지교육 교재개발(2000),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황 조사(2001) 등도 실시하였다. 국군장병아버지교육 교재는 예비부모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국군장병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육군 충·효·예교육과 연계하여 육

군 중대 및 대대급의 부사관급 이상 320여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8회 실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교육·홍보 및 캠페인작업도 실시하였는데. 19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동아일보에 가정교육 칼럼 연재, 신가정교육운동 교육 및 홍보전단 배포, 홍보탑 설치, 방송 및 잡지 등을 통한 홍보작업을 전개하였다.

마. 담당부서

저출산,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족구조 및 형태의 급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국가정책차원에서의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됨에 따라 가족정책전담부처로서 2005년 6월 여성가족부가 출범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제1차가족정책기본계획을 확정 중에 있다. 급격한 가족변화 속에서 가족의 청소년 보호기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는 가운데 현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여성가족부와의 통합문제가 이슈화 되는 등 부모와 자녀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정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자녀양육과 사회화 문제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육이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될 정도로 이에 대한 지원욕구는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담은 현재 우리사회가 치명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의 결과를 낳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들 욕구에 비하여 정책적 현실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료지원제도 등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들의 현실적 욕구에 크게 미흡한 상황으로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접근하는 정책개발과 노력이 시급하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부모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제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정책이 전무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청소

년기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고, 주요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이슈로 관심을 갖거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특성과 유해성, 청소년문제에 대한 가족의 이해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녀의 양육 및 사화화기능의 강화는 가족의 안정과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통해 자녀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함께가야하는 문제이다. 아버지 역할 찾기를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양성평등한 성역할 모델 정립,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범국가적·범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다각도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일본 청소년 정책 현황

일본의 청소년 정책은 내각부의 주도 하에 각 관계 부처가 관련 시책을 분담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즉, 2001년의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 종전에는 총무청의 청소년 대책 본부가 담당하고 있던 청소년 업무가 내각부로 이전됨에 따라, 내각부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련된 사항의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 관계 행정 기관의 사무를 연락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각 관계 부처가 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① 내각부 주도의 종합적/계획적인 정책 추진

내각부는 2003년 6월, 관계행정기관의 긴밀한 연대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청소년 육성 시책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로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전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내각부, 2006).

같은 해 12월, 청소년의 육성에 관련된 정부의 기본 이념과 중장기적 시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결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閣府特命大臣)을 두고, 그의 주재에

따라 본부의 부본부장들로 이루어진 회의를 개최, 시책의 실시 상황과 방침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 체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내각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 대신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청소년 정책을 개별적, 단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강영배, 2004:165).

② 연령별 시책

내각부의「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정부의 기본 이념 및 중장기 시책을 제시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서는 청소년을 0세에서 30세 미만의 아동과 젊은이(若者)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은 다시 의무 교육연령에 도달하기까지의 유유아기(乳幼児期)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학동기로 나뉘어지며, 젊은이(若者)는 중학생에서 대강 18세까지가 해당되는 사춘기, 그리고 대략 18세에서 30세 미만까지의 청년기로 나뉘어 진다.

일본 청소년 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연령구분에 기초하여 각 연령대별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중 청소년기 정책 과제 및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 확보 및 증진, 취업 능력 및 의욕의 습득, 사회 활동 능력의 습득 등의 과제와 관련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 시책 중에는 성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또래상담 및 교육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취업 능력 및 의욕의 습득이라는 과제를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서, 경제산업성은 2005년부터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부터 물건 만들기 체험 등 직업과 사회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통하여 사회 생활의 기본 및 직업 의식을 양성하는 「지역 자율:민간 활동형 캐리어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 고용의 문제, 프리타(フリ-タ- ; 프리 아르바이터의 준말로 정규직에 취직하지 않은 채 아르바

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킴), 니트(ニート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문제를 상기했을 때, 이 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 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다.

문부과학성은 정규 고용을 희망하고 있으면서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업계와 연대, 협력을 얻어 가면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직업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직업 의식의 계발 추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니트를 지원하고 있는 NPO단체 등과 연대하여 니트에 대한 직업교육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 등에서도 프리타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독일의 가족과 청소년 정책

① 전일제 학교의 목표

교육과 보호라는 측면 안에서 전일제학교는 한편으로는 3세 이하의 보호와 관리,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뒤따르는 영향력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 두 가지는 교육, 보호와 학습의 협동을 통해 해결되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해결안으로 전일제 학교가 제시되었다. 전일제 학교의 건립에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의 예산과 장소와 프로그램 선정 등의 과제가 놓여져 있다(BFSFJ, 2005:19-20).

a.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

교육상담과 학부모잡지를 위해서 연간 4천억 유로가 지출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상담을 더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고학력 부모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별적 교육에 대한 '교육잠재성의 증가'라는 모토 아래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BFSFJ, 2005b: .48).

b. 독일에서의 교육, 보호와 학습에 관한 문제

독일은 교육, 보호와 학습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현실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가족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30년 전이나 50년 전, 100년 전과 똑같이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정치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가족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교육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BFSFJ, 2005a: 49).

c. 14세까지의 공공교육, 보호와 양육/육성 제공의 증가

2002년부터 독일전역에 걸친 교육에 관한 제공은 날로 늘어났다. 3~6세 사이를 위한 유치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공은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공공교육의 제공은 가족과 공공교육의 학교와 학교 외 지역자치단체의 협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때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2003년 5월 12일 독일 국회에서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주의 동의를 얻어 '미래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투자설계-IZBB'을 위한 기구가 설치됐다. 이 기구는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 유아관리를 목적하는 기관의 질적이고 양적인 개선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과 보호의 제공을 주관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는 1992년 말 독일 국회에서 설립된 임산부를 위한 법률에 이어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관리소나 어린이집 등의 수요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족후원의 일환으로 실행될 것이다.

기구의 주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이 현대적인 삶의 변화된 조건 안에서 구조적인 손해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 한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간에 역할 분담이 새롭게 설정되도록 성별 정책을 선도한다.

특히 젊은 여성이 노동시장 안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가족과 직업의 균형, 즉 출산과 직업 간의 조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정책을 실행한다.

아동의 사회계층간의 차별을 줄이고 교육과 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

며 경제적 빈곤, 어린이빈곤, 교육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조력한다.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기존의 반일제 학교의 학습과 교육의 잠재성을 교육정책적으로 일깨우고 최대한 활용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육성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력한다(BFSFJ, 2005a: 50-51).

d. 국가와 사회 과제로서의 성장세대에 대한 포괄적인 진흥

교육과 보호, 그리고 학습은 성장세대의 재생산과 계속적인 발달을 통해 '사회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는 '성장세대에 대해 공적인 책임' 을 진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02b).

② 가족정책적 판단을 위한 지표

가족과 관련된 표준은 각 주의 가족정책상의 특수성과 독일사회의 관심사 등 다방면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이러한 표준은 유아를 포함한 가족에 대해 집중되어있다. 각 주의 사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유럽의 가족정책안에서 4개의 주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관련된 표준을 위한 공적인 과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개선된 주별 사례 중 그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한 경제정책이다. 예를 들면, 가족별 수입에 따른 세금특별법 등이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는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엄마와 아빠의 경제활동, 아이들의 빈곤비율 등.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의 제공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취학 전과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집밖의 보호시설에 중점을 두었다(BFSFJ, 2005b: 64-5).

(4) 스웨덴의 가족과 청소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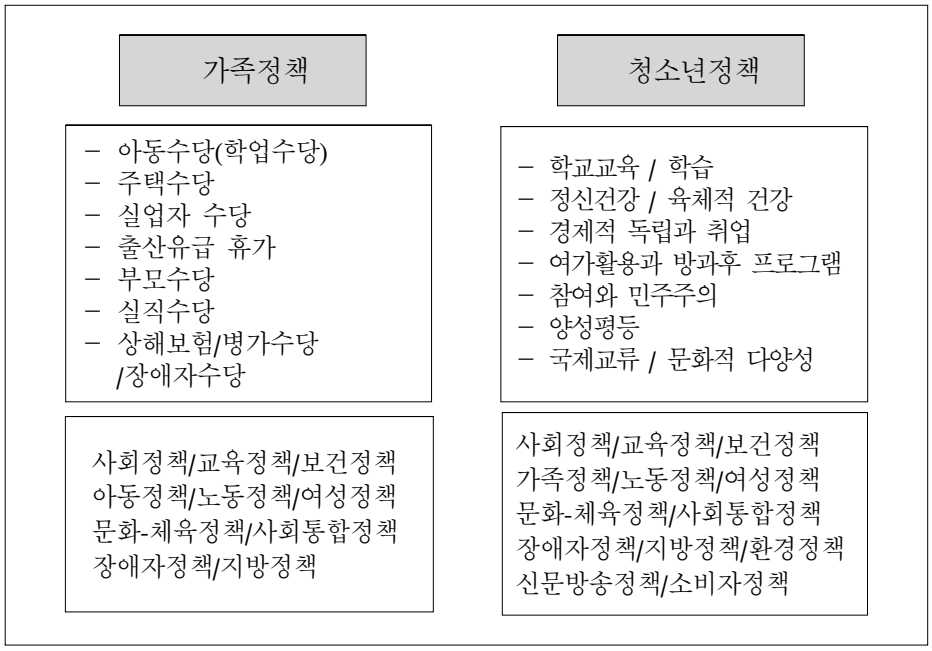
후기산업화의 진행,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제도의 성숙과 개인화의 진행,

가정구성요소의 다변화 등을 배경으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통적 부모의 역할이었던 육아, 보육, 유소년 및 청소년 방과 후 과정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복지제도의 틀 속에 편입되고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화 과정이 가정과 함께, 학교, 주위환경 등에 많이 영향을 받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소년, 청소년을 포함한 가정정책은 급속히 복지제도의 틀 속에 편입되었고, 가족관계 정책예산은 국가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로 부상되었다(Hinnfors, 1992: 6).

또한 대학원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 교육제도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학습동기와 진학에 대한 기대치는 그만큼 낮다. 왜냐하면 교육비 전액이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한 후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유로 해서 대학 진학률은 아직 4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25세에 이르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Ungdomsstyrelsen, 2005: 8).

스웨덴의 가족정책 및 청소년 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복지제도의 확대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195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파생되는 출산,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정책이 보다 세밀화, 전문화 되어 갔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즉 청소년 건강, 소외, 자살 등과 같은 청소년과 관계한 이슈들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청소년 정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청소년과 유관한 사안 중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모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건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즉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여분의 시간이 많음으로 해서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알코올 과다섭취, 마약복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보다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14]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연관정책분야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범위는 간단하지 않은데, 국가의 정책분야를 총 망라해야 그 정책범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두고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장애자정책, 사회정책, 교통정책(장애자 전용 자동차), 지방정책(장애자 서비스의 집행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년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 등의 대안을 제시할 때 학교에서의 대응(교육정책), 결손가정의 해소문제 (사회정책 및 가족정책),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활성화(지방정치와 체육, 문화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책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상호 보완성을 지니며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족의 삶의 질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복지제도의 큰 틀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복지국가라는 틀 속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복지국가의 한계란 결국 복지가 확대되면 될수록 전통적 가족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고 그 결과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포페노(Popenoe, 1988)는 미국과 스웨덴을 비교연구한 그의 저서 「Disturbing the Nest」에서 스웨덴 가족의 해체가 결국 잘 발달된 복지제도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즉 국가가 결혼한 가정을 이혼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갖춰줌으로써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부부가 쉽게 헤어지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탁아시설을 통해 완전히 엄마역할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는 더욱 메마르고 황폐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범죄의 증가, 마약, 알코올, 자살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는 갈수록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이 되 갈 것이라 본다. 포페노는 그러므로 앞으로 스웨덴 사회는 더욱 빠른 속도로 건강한 가족이 해체될 것이며, 가부장제도의 부활과 복지제도의 축소없이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르비쉬푸르(Darvishpour, 2004: 29-38)와 같은 스웨덴 학자는 포페노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본다. 즉 스웨덴에서 복지의 확대를 통한 국가역할의 증대가 가족의 해체와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회구성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혼이 하나의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면 사회는 완전히 파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다시 말해 가족의 해체와 이혼은 사회현상이고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계란과 닭의 논쟁과 같은 양측의 주장은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여 이혼을 통해 자유롭게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선택적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변해가는 사회가 되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를 통해 해체된 가족을 보살피고, 상처를 만져주면서도 가족이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

청소년들의 가치체계나 행동양식은 청소년기의 보편적 특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적, 문화적 성격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진다. 근대 사회는 청소년들을 일터와 성인사회로부터 격리시켜놓았으며 일정기간 동안 학생신분으로 또는 미성년 상태로 지내면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로서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 즉 모라토리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오늘 날의 청소년들이 갖는 보편적인 특성의 하나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치의 다원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후기 산업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 사이에 개인의 취향과 욕구를 반영하는 부분문화와 하위문화를 형성시키고, 점차 이질화되어 결국 청소년들의 삶의 공통적 기반과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다양한 가치를추구하는 경향은 새로운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Beck, 2000). 잉글하트(Inglerhart)의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조사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보다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경향이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조사결과(한겨레신문사, 2004)가 발표되기도 했다.

기성세대들의 가치체계의 전달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패턴이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화의 개념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청소년들의 특징적인 가치관을 비교해 보자.

1) 청소년의 가치관

(1)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관

한국의 청소년들은 비교적 주입식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획일적이고 주입식의 한국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한국청소년들의 행동패턴이 획일적이며, 상당히 순종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은 통제된 행동에 대해 순종적이면서도 때로는 저항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때문에, 강요된 순종에 동의할 수 없거나, 심한 좌절감을 느낄 때의 거부방식의 형태가 양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세대간 가치관을 비교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노인이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의 중요성, 화목한 가정, 가족주의 가치관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 세대와 노년세대, 그리고 중년세대 모두 유사하게 전통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김경신, 1988). 2004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부모부양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부모 부양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로한 부모님 부양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부양형이 60.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는 경제적 부양형이 36.3%로 그 뒤를 이어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부모님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거나 사회보장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해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나 책임감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원 외, 2004).

특히 청소년들은 결혼관과 자녀관, 성역할관 등 구체적인 가족관련 가치관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더 진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성역할과 결혼 관련 가치관은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크게 달라서 청소년 세대는 노년과 중년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태도를 보인다. 전통적인 가족가치는 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이 성인이었다. 대체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적이며, 장남 우선의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봉사와 가정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자아실현과 부귀영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숙·김혜리, 2005).

청소년세대로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부모역할보다 부부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가사분담이나 부부별산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진보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으며, 결혼경력자와의 혼인이나 연상·연하와의 결혼,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한 태도 등도 젊은 세대일수록 문제 삼지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비전통적인 가치관을 더 강하게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세대간 차이를 보인다. 20대에서는 결혼이나 육아문제에 관계없이 여성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30대 이후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여성이 육아에 전념하고 자녀들이 다 자란 후에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 태도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은 과반수가 결혼이나 육아에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데 반해, 남성은 삼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29.5%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10.7%가 '아이를 가지면 일을 않는 것이 좋다'는 태도인데 반해 여성은 1.1%만이 이러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연령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조성남·윤옥경, 2000).

자녀관에 있어서는 자녀를 꼭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률이 20대와 30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자녀관에서 많이 탈피하고 볼 수있다. 자녀의 성역할관이나 결혼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성별과 어머니 성역할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여자이며, 어머니의 성역할관이 근대적일수록 자녀의 성역할관 또한 비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조소연·오윤자, 200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 가족가치 지향에서는 세대별 성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자아실현을 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뀐다 해도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적 가족문화

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족주의적 가치, 특히 부모부양의식에 있어서는 전통주의적 가치가 여전히 강하지만, 결혼과, 부부관, 자녀관이나 성역할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양면적 가치관은 사회화 전략의 수정을 요구한다.

(2) 한국 청소년들의 소비관

소비에 대한 의미부여는 젊은 세대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소비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속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유행의 수용에 민감하지 않아서 개인 차이가 큰 부모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소비를 통한 개성추구를 중시여기는 경향이 있다(손승영, 2000). 또래압력이 강해서 겉모양을 중시여기는 아이들에게는 대중매체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해서 유명한 스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인기 있는 가수의 신곡을 빨리 입수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제품의 휴대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모델을 소지하고 있어야 세련된 10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학습 경쟁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관련된 정보와 좀 더 많은 상식 및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정보경쟁 상태에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대중매체나 정보화 공간에서 진행되는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더 빨리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매우 민감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빠르며,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갖고 싶어 하는 심리 등 서제품 구입을 통해 자신의 멋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물질주의는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또래와의 접촉이나 의사소통의 증가로 물질주의적 태도를 높게 보인다(김영신·최명자, 1996)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 청소년들은 스타에 열광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타따라 하기'

에 열심이다(김현주, 2001). 스타의 옷차림과 말투, 헤어스타일 등을 보망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팬클럽을 형성해서 스타의 스케줄에 대한 것까지 파악함으로써 또래집단과의 동류의식을 형성하려고 한다. 또한 스타와 관련된 상품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달성하기도 하며 이는. 대리만족과 동일시를 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만을 강요하는 환경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활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를 적극 수용하고 소비문화에 긍정적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듯이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차를 사거나 레저를 즐기겠다"는 생각은 젊은 층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연령대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비위주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일회적인 소비나 과시 소비에 집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50대 이상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조성남·윤옥경, 2000).

(3) 일본 청소년들의 직업관

흔히 일본인을 「회사인간」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 만큼 일본사회에서 직업적 가치, 직업의식의 내면화는 매우 중요하다. 경제 불황이 오랫동안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인 직업가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많이 변화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늘날 일본 청소년의 직업관은 실제로 어떠할까? 일본 내각부가 2000년에 15~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에 관해 물어 본 결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선택한 문항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다」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5-17세의 51.2%, 18~21세의 54.5%, 22~24세의 57.2%가 이와 같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학교를 졸업하면 가능한 한 빨리 취직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노력한만큼 만족할 수 있는 지위나 수입을 얻을 수 있다」순이다. 한편, 「수입이 적어도 일하는 시간이 짧은 직장이

좋다」「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놀면서 살고 싶다」 등에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 생각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항목은「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다」,「사생활을 희생해서까지 일에 전념할 생각은 없다」,「연령이나 근무년수보다는 능력이나 실적에 의해서 지위나 급여가 결정되는 편이 바람직하다」이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항목은「노력한만큼 만족할 수 있는 지위나 수입을 얻을 수 있다」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오늘날의 일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입이나 지위보다는 일의 보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면 무리해서 취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지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음을 볼 때, 대다수의 청소년이 반드시 보람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놀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서 가치를 찾고자 하는 직업관이 엿보인다. 셋째, 장시간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이 적어도 일하는 시간이 짧은 직장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지하는 비율은 어느 연령층에서도 5% 이하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보람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데 반해,「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전념할 생각은 없다」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했다.

이번에는 시계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본 청소년의 직업 의식의 변화를 알아보자.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든가 「신인류」 등 과거 청(소)년론에서 지적되던 청소년상에 대해서 「회사인간」이라 불릴 정도로 근로 의식이 높았던 윗 세대와 비교해서 근로의식이 낮고, 찰나적이며,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려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

「어떤 기분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를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1970년 시점에서는 일은 사회인으로서의 임무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가 33.2%,「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가 20.9%였다. 그 이후 「일은 사회인으로서의 임무이다」는 감소하고, 「돈벌기 위해 일한다」가 증가한 결과, 1990년 시점에서는 「돈벌기 위해 일한다」가 34.5%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직업관이 「실리지향」(武內, 1995)으로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1970년 이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직장」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으로 「맘에 맞는 사람이 많은 직장」을 중요시한 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크게 증가한 부분은「수입이 많은 일」을 희망하는 비율이었다. 또한 「휴가가 확실히 보장되고 잔업이 없는 직장」을 중시하는 비율도 증가 경향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청소년이 노동 조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 것은 아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 중「일이 편한 직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증가했지만, 1990년 시점에 있어서도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 비율은 극히 낮다. 노동 조건이 좋은 일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편한 직장(일)을 통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고교생에게만 한정지어 살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질문은 1990년까지만 시계열비교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2000년에 청소년에 대해 실시했던 내각부(2001)의 조사결과를 보면, 「보람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다」,「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를 넘어섰다(15~17세에서는 각각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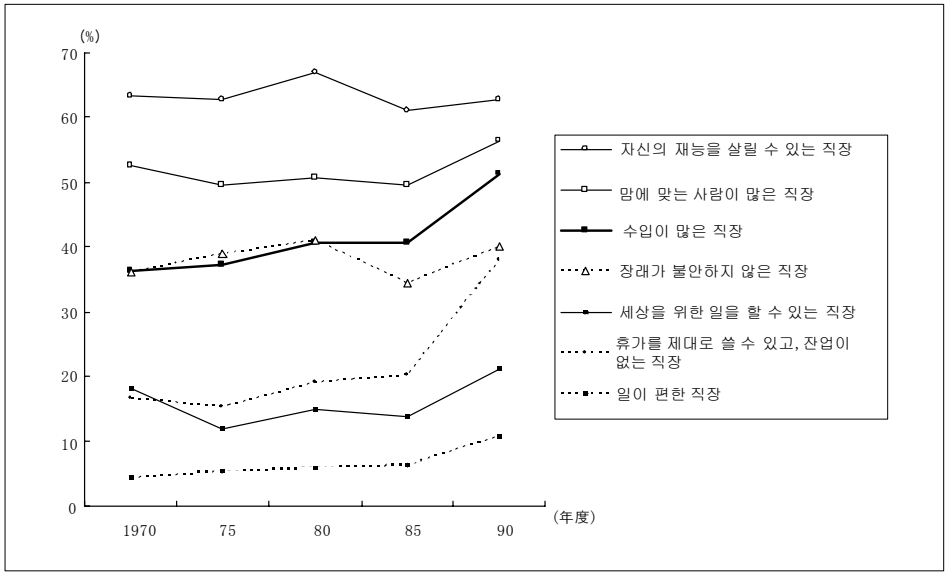
2%, 44.0%). 이에 비해 「사생활을 희생해서까지 일에 전념할 생각은 없다」(27.6%),「일하지 않고 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 놀면서 살고 싶다」(10.8%)등에 대한 지지율은 낮았다. 이들 결과로부터도 최근 청소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일본 청소년의 근로 의욕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14> 희망 직업유형(일본:15~24세)

(%)

	1970	75	80	85	90
돈 벌기 위해 일한다	20.9	26.5	28.1	31.7	34.5
일하는 것은 사회인으로서의 임무이다	45.1	37.5	38.4	35.6	32.4
자신의 재능을 키위기 위해 일한다	33.2	35.2	32.3	30.3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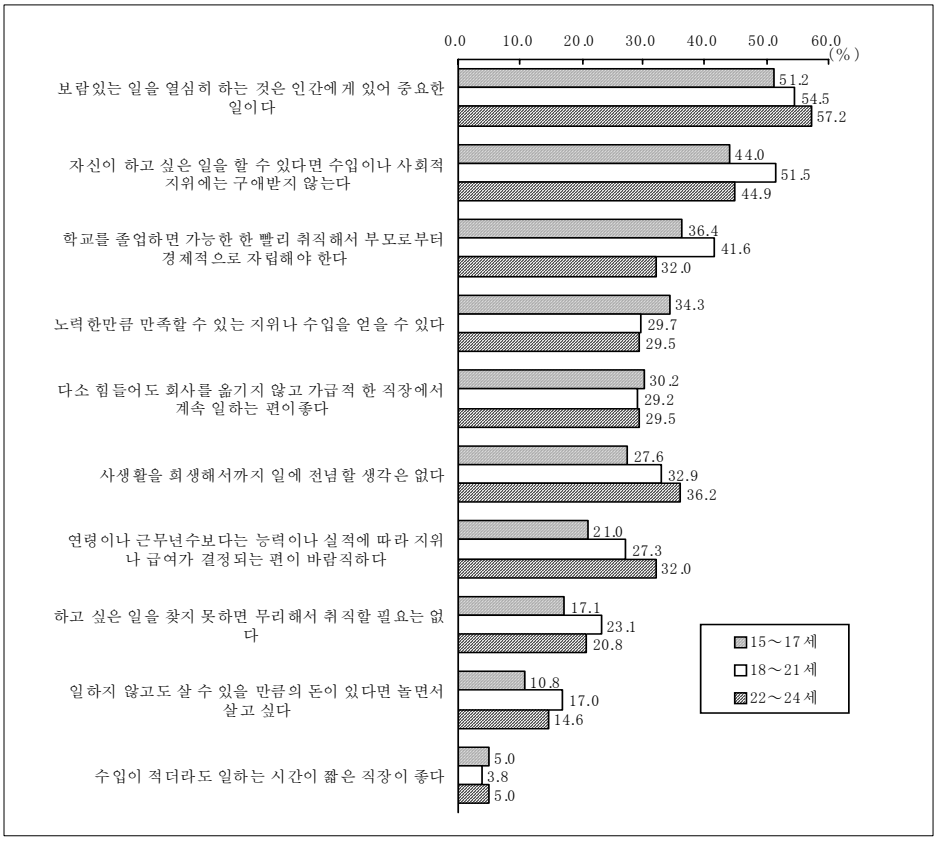
주 : 한개만 선택



주 : 복수응답
자료: 총무청(1995)

[그림 Ⅲ-15] 청소년의 선호직장유형(일본:15~24세)

일본의 청소년들은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만, 전통적인 직업관으로부터는 점차 상이한 의식차이를 보이면서 직업관에서 양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 : 복수응답
자료: 내각부(2001)을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16] 청소년의 직업관(일본)

(4) 일본 청소년들의 인생관

2000년 일본 내각부의 같은 조사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에 나타난 일본 청소년들의 인생관에 대한 조사는 다음의 <표 Ⅲ-1>에서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에게 생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예로 제시한

후, 그 중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가까운 사람과의 애정을 소중히 여긴다」였으며, 그 다음으로「그 날 그 날을 즐겁게 산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사회, 타인을 위해 헌신한다」「업적을 올려서 지위나 높은 평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한 청소년은 적었다. 성별로 보면,「가까운 사람과의 애정을 소중히 여긴다」를 선택한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다.

인생관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가까운 사람과의 애정을 소중히 여긴다」,「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를 선택한 비율은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졌다. 한편, 「그 날 그 날을 즐겁게 산다」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졌다. 22~24세에서는,「가까운 사람과의 애정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20.1%)「자신의 취미를 중시한다」(19.2%)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그 날 그 날을 즐겁게 산다」의 비율은 그 보다 낮았다.

<표 Ⅲ-15> 청소년의 인생관(일본)

(단위 : %)

	가까운 사람과의 애정을 소중히 여긴다	그 날 그 날을 즐기면서 산다	자신의 취미를 중시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	사회나 타인을 위해 헌신한다	업적을 올려 지위나 높은 평가를 얻는다
전체	26.9	23.3	20.7	18.6	5.8	3.6
〔성 별〕						
남학생	21.7	20.6	24.8	19.6	6.0	5.7
여학생	32.0	26.0	16.8	17.6	5.6	1.5
〔 연 령 별 〕						
15～17세	24.8	27.3	21.4	17.6	5.4	2.5
18～21세	26.3	23.3	21.1	18.4	5.4	4.6
22～24세	30.7	18.3	19.2	20.1	6.9	3.4

주 : 가장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것을 하나 선택.「그 외」「무응답」의 표기는 생략.
자료: 내각부(2001)을 기초로 필자 작성.

(5) 독일 청소년들의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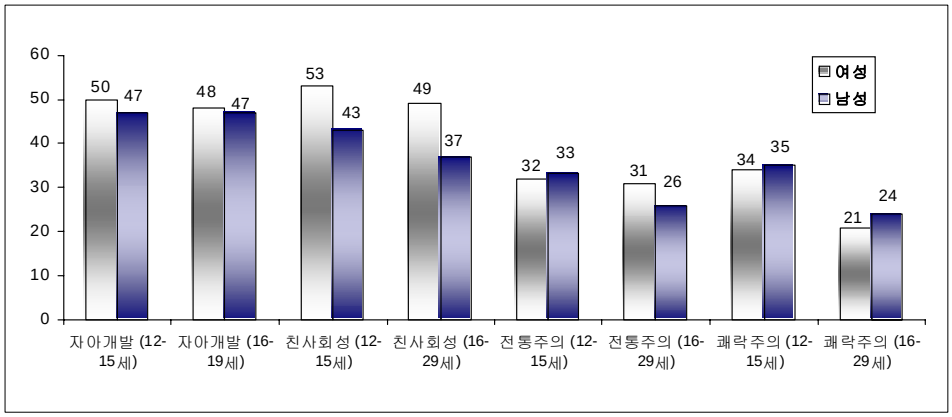
독일인들의 소비문화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절약정신에서 온다. 절약정신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작 실습과 바느질, 낡은 물건 바꿔쓰기, 고장난 물건 수리 등을 배우고 자연의 제한된 한계를 배운다. 독일 청소년들은 고급 브랜드나 유명 브랜드의 옷, 가방, 신발들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으며 그러한 소비문화 양식에 대한 관심이 적다. .

소비패턴에 있어서도 물건을 하나 구입할 경우에도 수차례 상점들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제일 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또 그것이 꼭 필요한가 수 차례 생각해보고 난 뒤에 산다. 대부분 중고를 사서 사용한다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남이 사용했던 것도 사서 쓴다. 계층에 관계없이 독일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키워준다.

독일 연방 정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MFSFJ)의 의뢰로 독일 청소년연구소 (DJI)가2003년 8월에서 2004년 1월 사이에 12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과 젊은 성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는 12세에서 15세까지의 2000명의 청소년과 16세에서 29세의 7000명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독일 청소년들의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오늘날의 독일 청소년과 젊은 성년은 자아개발이나 비판력과 같은 가치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사회적인 가치들, 즉 타인에 대한 고려나 책임감등이 아주 높은 의미를 지녔다. 그 다음으로 순행, 명예욕 그리고 안정지향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흥미롭게 이끌고 싶다는 쾌락주의적 가치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지향 성향은 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다음의 [그림 Ⅲ-17]은 성별과 나이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녀와 젊은 여성은 소년과 젊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친사회적 가치 지향의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남녀 역할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그림 Ⅲ-17] 성별과 나이에 따른 가치의 비교(독일)

그 외에도 소녀와 젊은 여성은 소년과 젊은 남성보다 책임감과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높은 수입은 그들에게 소년과 젊은 남성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표 Ⅲ-16> 성별과 나이집단에 따른 가치성향(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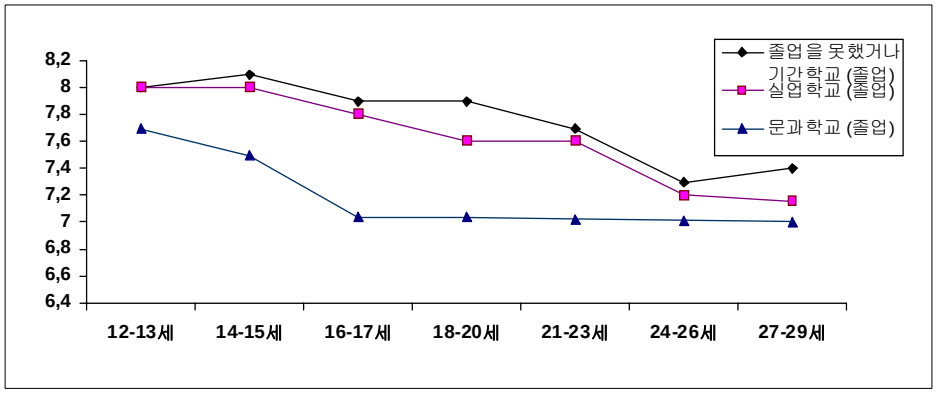
	12-15세		16-29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비판적인 성향	36	33	58	57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수입을 추구	63	76	52	63
명예추구	48	47	58	62

자료: 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위의 표에서 연령집단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의견과 행동 등이 나이가 어린 집단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를 더 해가는 반면, 쾌락주의적 가치는 그 반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도 가치지향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과 비판력은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그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 반면 전통

주의와 쾌락주의는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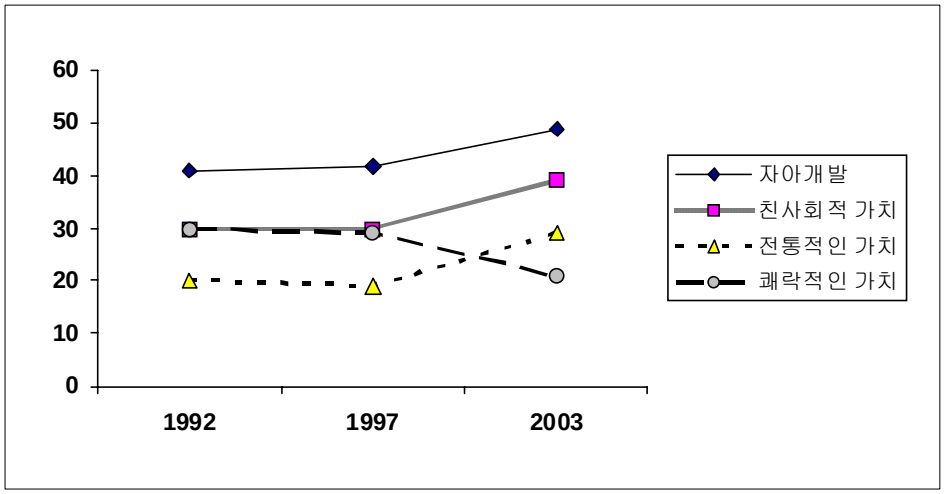
자료: 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그림 Ⅲ-18] 연령집단과 교육수준에 따른 쾌락주의 성향(독일)

독일 사회에서도 이주 경험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타국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은 적응이나 안정성 지향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물질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16세에서 20세의 이주민 청소년들은 독일 자국민 청소년들보다 쾌락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지역적 요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지향의 큰 요인으로, 구동독에서는 특히 자아개발이나,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선호되는 추세를 보였다.

독일 청소년들 16세에서 29세의 전반적인 가치지향의 추이를 살펴보면, 친사회적 가치가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며, 자아개발과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점점 선호되는 반면, 쾌락주의적인 가치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자료: 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그림 Ⅲ-19] 청소년의 가치변화(독일:16~29세, 1992~2003, %)

(6)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193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도성장이 구축되는 기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과정의 중심에서 가족의 재편성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1930년대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의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사회경제적 요구와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보육과 육아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민주의적 전통은 1970년대 중반까지 커다란 사회적 저항과 비판 없이 유지되었다(Strandbrink and Pestoff, 2006: 19-25; Bjornberg and Jurgen, 1997).

2차 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아동보육, 가내노동 등에서 벗어나 사회에 진출한 결혼여성의 비율이 50%를 넘기 시작했고 1980년에는 노동시장 진출 여성비율이 80% 정도에 이르면서 자녀들의 보육은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소로 전이되었다(Ds 2001: 57; SOU 2000: 48).[1)]

1) 1980년 임신이 가장 왕성한 25-35세 여성 중 81%가 사회에 진출했으며 1997년의 비율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함께 이루어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양해진 자녀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학교를 마친 후 주로 집으로 직접 귀가하는 학생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제도가 정착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늘어나자 자녀들을 사회제도적으로 맡아 양육 보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초등 및 중고등 학생들의 여가활동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국가와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분이 전통적 가정의 역할을 대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구축으로 자녀수당, 청소년 학업보조금 등의 각종 보조금제도 등은 자녀의 용돈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 내 부모의 영향과 역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부모의 전통적 역할의 감소와 함께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덜 간섭적인 관계로 발전되면서 부모의 자녀 장악력은 많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스웨덴가정의 높은 동거율,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청소년들이 다른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 자아개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스웨덴 청소년들의 특수한 고민거리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섬세한 연구 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부정적 자아개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긍정적 자아개념이 비교적 높다고 할만하다.

최근 높은 동거율, 이혼율 및 재혼율(동거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의 빈번한 교체 등을 포함)로 인해 가족의 구성원이 매우 복잡해 졌다. 동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진 경우 일정기간씩 아이들이 양쪽을 번갈아 가며 생활하는 가족형태 반쪽자리 핵가족이

은 거의 같은 수준인 82%에 머물고 있다. 전체 여성 중 사회참여율은 1960년 48%, 1970년 59% 그리고 1985년 80%로 상승했다. Hinnfors, 1992: 41-42.

늘어나고 있다. 또한 반복 재혼한 부부가정의 아이들이 복잡한 형제관계로 구성되는 등의 가정구성에 따른 부모 통제기능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현재 스웨덴 가족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2] 그 변화 속에서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 혼란 양상과 자아개념의 변화 추이에 대한 고찰은 향후 스웨덴 청소년의 대도 및 행동양상을 파악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한 커플의 경우 아이들을 공동양육하는 형태가 1992/93년에는 4%에 불과했으나 10년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8%로 증가했다(Demografiska rapporter, 2004: 53 참조). 또한 1916~25년 기간 동안의 이혼율은 0.9%, 1946-55년 5.5%, 1966-75년 8.8%에서 1999년에는 25.3%까지 증가했다(Demografiska rapporten, 2003).

1970~80년대까지 스웨덴 사회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서 국민의 90% 이상이 개신교에 속해 있었으며 기독교적인 규범과 행동양식이 스웨덴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의 진행과 개인화, 복지제도의 확산과 국가역할의 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곧바로 세속화로 진행되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삶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시각이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스웨덴은 거의 모든 경제 비표에서 서구의 다른 복지체계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오랫동안 복지국가의 원형으로 불려왔다(곽효문, 2001).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기독교적 교리와 전통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자녀들의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야기되었다. 즉 교회가 일정부분 책임지던 사회부조와 교육은 국가의 복지제도 속에 편입되고, 학교가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은 기독교적 전통 내에서의 행해지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양태로 발전되었다. 즉 부모의 탈교회화와 세속화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체계와 가족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으로 발

2) 예를 들어 이혼한 커플의 경우 아이들을 공동양육하는 형태가 1992/93년에는 전체아동 중 4%만을 차지했으나 10년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Demografiska rapporter, 2004: 53 참조. 또한 1916-25년 기간동안의 이혼율은 0.9%, 1946-55년 5.5%, 1966-75년 8.8%에서 1999년에는 25.3%까지 증가했다. Demografiska rapporten, 2003:1.2.

전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변혁기를 거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은 그 이전의 양태에 있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체계는 다른 산업국가 들의 경우와 다소 다른 면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의 확대로 인해 개인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유럽 및 미국 등의 서구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치성향에서 국가의존성이 매우 높은 반면 부모의 전통적 역할인 교육, 양육 등에서의 의존성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미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층은 복지제도의 최대팽창기인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 국가의 부조정책, 재분배정책 등으로 인한 지역간, 계급간 평준화의 영향으로 가치체계에 있어 평등의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강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술직에 대한 임금우대로 인해 3D와 같은 혐오직업을 특별히 기피하는 양상은 보이질 않는다.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오히려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인기가 높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진출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직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가족구성과 독립세대유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성년나이인 18세 이후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직장이 없는 경우 임시방편으로 부모와 잠시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18세 이후 자식의 경제적 부양 책임이 없어짐으로써 당연히 독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식이 18세가 되면 동거, 이성교제, 혹은 동성결혼 등의 개인생활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모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 같이 아이들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은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16세부터 자연스럽게 각 가정에서 나타난다.

취업과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대학교 3~4년 학업 후 취업한 노동자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노동자의 임금의 차이에 있어 전자의 경우가 더 높고, 직장경험과 실습을 대학에서 배운 학문과 동등한

지식적 가치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대학진학과 같은 동기유발이 되질 않는다. 또한 대학 입학 시 직장경력을 가산점으로 산정해 줌으로써 역으로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대학진학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정치적 성정향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 집안의 경우와 소득이 낮거나 실직수당 등에 의존적인 가족이거나 비기독교 집안일수록, 사회민주당 및 좌익계열 정당에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정당일치도 및 투표성향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가족 내에서의 대물림과 가족사회화는 청소년 가치체계 형성과 정치정향의 획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Westholm, 1991 참조).

2)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태도

(1)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태도

한국사회에서 정보사회 청소년 문화 환경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획일성이나 위계성, 형식주의와 이중성, 체벌과 시험의 일상화라는 일상적 억압과 획일적 통제를 경험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모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요즈음의 아이들은 대부분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발이나 가방의 상표뿐만 아니라 메이커, 디자인 같은 미묘한 부분도 식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에서 조금이라도 튀어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복을 수선해서 나름대로의 멋 내기를 통해 자기표현을 시도한다. 획일적인 교복문화의 이면에서도 유행에 대한 욕구와 개성창조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교실문화'와 급격히 변화해온 '대중문화' 사이에서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정용교, 1998). 이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다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포함되고자 하는 동류의식이 작용되는 한편, 남과의 다름을 확

인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가미되고 있다.

① 디지털 시대의 한국 청소년 문화

오늘날 청소년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자·영상매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영상 문화적 속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영상매체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어린 시기부터 만화영상물에 길들여져 온 세대인 청소년들은 도서를 접하기 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진 만화책을 읽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각적 이미지가 제공하는 즉시적 만족감과 순간적 몰입에 강력한 매력을 갖고 쉽게 빠져든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와 함께 지내는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2000년 현재 전국내 인터넷 이용인구가 1천 5백만 명을 웃돌고 있으며 7세 이상 청소년의 약 34%인 3백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안동근, 2000). 최근 들어 PC·인터넷 게임방의 보급과 함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인터넷 게임의 열풍으로 인하여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의 언어상의 중요한 특징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비어나 은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 비어는 비슷한 성향의 또래집단에서 만들어지고 그들끼리만 통용된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예의를 차린 말투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하기를 좋아한다. 형식이나 호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편리하게 언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 학년별 비교를 시도한 연구결과를 보면, 남녀 중·고등학생들은 한 달에 2편 내외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연극 관람 회수의 경우, 네 집단 모두 연 1회 미만이었다. 특히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관람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녀 중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영화는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4.9회로 가장 높은 회수를 나타냈으며, 그 외는 연 3회

미만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2003). 하지만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여자 고등학생이 172.3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자 중학생 (151.4분), 여자 중학생 (141.7분), 남자 고등학생(116.6분) 순이었다. 음란사이트 방문 경험은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남자 고등학생(86.5%)이 가장 높고 여자중학생(20.8%)이 가장 낮았다(도현심, 2003).

이들은 음란물 노출, 인터넷 중독, 자아정체성의 상실, 사회적 일탈행위 등 다양한 의식의 변화와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치관의 확립기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음란정보에의 노출은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PC 통신・인터넷 음란정보에의 노출 효과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서 남학생들은 음란정보에 노출되고 난 뒤, 여학생들에 비하여 성 충동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죄책감과 성폭행의 두려움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은 불법 프로그램 무단복제, 다른 사람 아이디 사용, 음란정보 받기/올리기 등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다(이소희・성윤숙, 2001).

②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인간관계

청소년들은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주요 대상으로 친구를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가장 친한 사람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남학생 18.9%와 여학생 25.7%에 불과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또래집단에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친한 사람이 친구라는 응답 비중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74.8%로 여학생의 7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의 매일 친구를 만난다는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학생이 75.4%로 남학생의 71.1%보다 높았다. 성별로 친한 친구수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친구 수는 평균 10.9명으로 여학생의 7.0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친구와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 수라는 양적 측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지만 질적 측면의 친밀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기헌, 2006).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소수의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가장 친한 사람이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응답이 남학생보다 높아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학생에 비해 질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에 대한 학년별 성별 비교 조사 결과에서는 여자고등학생이 남자고등학생이나 남녀 중학생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 중학생은 17명의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해서,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과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집단 크기에서의 성차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한 친구 수가 더 많았다(도현심, 2003:58).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반면, 친구관계나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및 우울감은 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남자중학생과 여자 중학생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고등학생은 가장 낮은 자아 존중감을 나타냈다. 외로움의 경우, 남자고등학생과 여자중학생간에는 차이가 적었다. 하지만 남자 중학생은 외로움을 가장 덜 느꼈으며, 여자 고등학생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네 집단 가운데 남자 중학생은 우울감을 가장 덜 느낀 반면, 여자 고등학생은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문항과 유사하게 남자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 간에는 우울감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도현심, 2003).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상담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자청소년들은 가족(35.9%), 대인관계(17.2%), 학업 및 학교부적응(14.7%), 정신건강(8.5%) 문제의 순으로 상담을 요청한 반면, 남자청소년들은 가족(23.4%), 기타상담(23.2%), 학업 및 학교부적응(16.9%), 정신건강(12.3%) 문제의 순으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랑이나 우정에 대한 욕망 좌절이나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한 고민 등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를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상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남자청소년은 보다 개인적인 문제인 학업 및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해왔다. 이러한 차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타자 지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며, 이러한 욕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보다는 관계의 깨어짐이나 주변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에 기인한다. 이에 반해, 남자청소년은 자기 지향적으로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즉 성격이나 성, 정신건강에 보다 더 많은 고민을 드러내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희우, 2005).

③ 한국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만족도

학교 공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개인 시간의 상당 부분을 공부와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평일 평균 8시간 16분을 학습에 할애하고 있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에 3시간 23분, 이동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소요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평균 시간사용 패턴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4). 일이나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모두 다 합쳐서 30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평일에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시간 활용 방법에서는 남녀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수업 및 개인적 학습시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긴 반면, 사교육시간은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길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 중 두드러지게 많이 하는 활동은 인터넷, PC통신,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게임 순이다.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게임, 컴퓨터 게임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여가를 주로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로부터 한국의 청소년들은 실내 공간 속에서 컴퓨터나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한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여가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매우 낮고 별

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친구만나기, 인터넷, PC통신, 집에서의 휴식, 각종 운동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바램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권유하는 활동은 독서, 개인 학습활동, 집안일 돕기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가라기보다는 학습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람으로써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중학생,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여학생, 고등학생,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어떤 형식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야외캠프 형식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공연관람, 동아리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현재의 여가 사이에서는 현저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조국남, 2005).

④ 한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부작용

상품시장이 과거에 비해 10대들을 겨냥해서 판촉을 전개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엄청나게 빠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인터넷, 핸드폰 등이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참여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50.1%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49.9%가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문계 남자 청소년의 33.8%, 인문계 여자 청소년의 33.9%, 실업계남자 청소년의 58.3%, 실업계 여자 청소년의 71.5%가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문성호, 2003).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보다 높아진 청소년들의 소비수준으로 소비 규모와 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도종수, 2001). 청소년의 가장 큰 지출항목인 것으로 거론되는 휴대폰이나 통신비는 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학생들은 옷이나 악세서리 군것질 등에 주로 돈을 쓰고 남학생들은 PC방 오락실에서 쓰는 돈이 많았다. 남녀 학생 모두 친구생일이 많은 달은 특히 돈이 모자라고 이성친구가 있으면 쓰는 돈이 늘어나며, 발렌타인데이나 기념일이 있는 달이면 소비지출이 늘어난다(한경혜, 2000).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부모가 주는 용돈이 청소년 아이들의 일상에서의 소비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해서 용돈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이다(이경상, 2005). 둘째, 용돈을 비교적 충분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경우이다(한경혜, 2000). 셋째, 여가시간의 활용이나 다른 친구들이 한다니까 친구권유로 경험 쌓기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다. 넷째,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이광호, 2001). 하지만 대다수는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반대였고 그 밖에 학교생활과 병행하기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점이었다(한경혜, 2000).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보람과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6.1%의 응답자는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계약시

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적이 있다',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경상, 2005).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일을 하면서 비행에 관여하고 있는 또래들을 만나거나 나이 많은 동료들로부터 음주와 흡연 등을 학습할 가능성이 커지며,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은 일을 같이하는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음주, 흡연, 문제행동, 그리고 폭력의 순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문성호, 2003).

⑤ 한국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소비행태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부분이 큰 항목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외식・간식비, 오락비, 교통비, 문화비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외식・간식비, 교통비, 의류・신발, 학용품값 순서로 나타났다(이재기, 2004).

소비행태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지출하는 금전에 대한 기록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등 계획적 구매를 하는 소비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모순되게도 여학생들은 충동구매 성향 또한 남학생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 사이에서의 소비성향 차이가 남학생들간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충동구매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외모지향적 사회화 과정이 반영된 결과, 여학생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계획적인 구매는 평소 여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지만, 알뜰소비에 있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비의 범위가 좁고 소비행태가 더 단순하기 때문

이다(이재기,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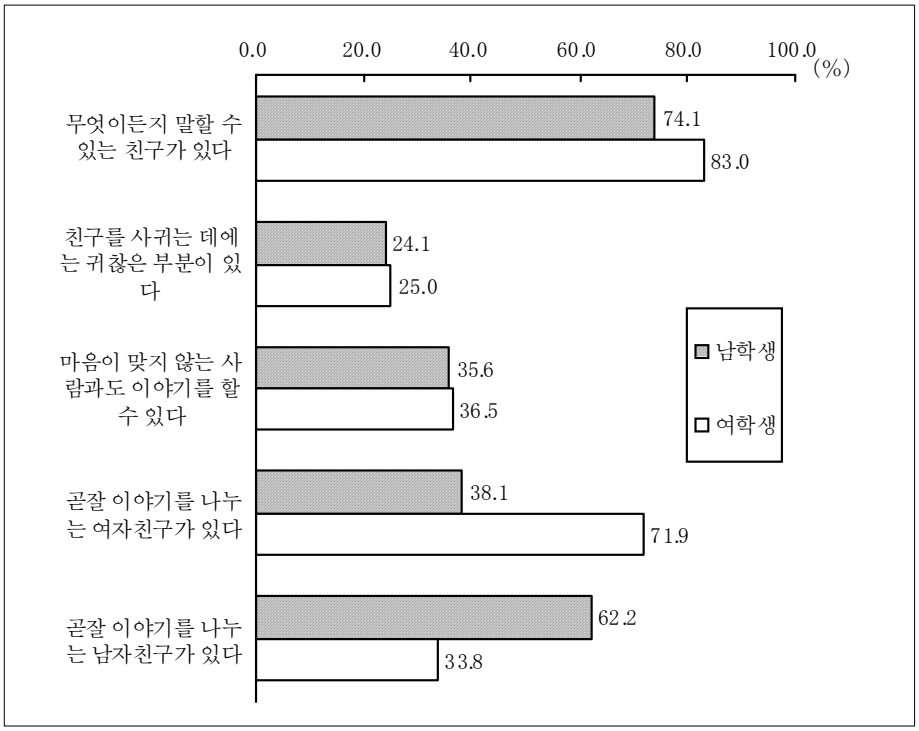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학생에게서 돈을 아껴서 사용하는 알뜰 소비행태와 실용적 소비행태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에게서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구매하는 계획적 구매 행태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때로는 충동구매적 소비행태도 남학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성별에 따라 추구하는 소비의 내용이나 행태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일본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태도

① 일본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일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계열조사결과를 통해서 일본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Ⅲ-20]은 2001년 내각부조사의 결과이다. 친구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74.1%, 여학생의83.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곧잘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의 경우 71.9%인데 비해 남학생은38.1%에 지나지 않았으며, 「곧잘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62.2%, 여학생 33.8%로, 남녀 모두 동성의 경우에는 곧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있지만, 이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친구와의 교제가 즐거운지 아닌지를 물어본 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95%이상의 남녀학생이「즐겁다」(「매우 즐겁다」+「즐겁다」)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일본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 : 복수응답
자료: 내각부(2001)를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20] 친구관계(일본)

최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서,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보다는 정보기기를 이용한 가상적 관계를 중시하여 인간관계가 희박해지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어떤 변화를 겪어 왔을까? 청소년에게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1970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친구가 있다 고 한 응답자가 약 75%였다(총무청, 1995). 1980년부터 1990년 조사에서는 친구의 수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조사와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이러한

친구가 「있다」고 한 응답자(해당하는 친구가 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0% 이상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각부(2001)의 조사 결과, 2000년 시점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세~17세에서 약 8%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최근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계열 비교가 <표 Ⅲ-17>에 제시되어 있다. 친구관계가 희박화하고 있다면 친구로부터의 영향도 저하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일관되게 「TV・라디오」인 것을 알 수 있다. TV・라디오의 영향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 중 「신문・잡지」의 영향력은 최근 저하하고 있다. 「TV・라디오」와 「신문・잡지」를 합한 비율은 1970년부터 90년까지 일관되게 55% 전후였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최근 높아졌다기 보다는 영향을 주는 매체가 신문・잡지에서 T・라디오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Ⅲ−17>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일본:15~24세)

(%)

	1970	75	80	85	90
TV·라디오내용	36.9	32.8	38.1	43.3	43.3
신문·잡지내용	19.7	18.2	18.7	14.1	12.8
단행본 내용	3.9	5.4	3.6	2.9	2.9
친구·동료의견	11.8	15.2	16.2	15.1	14.7
부모·형제 등의 의견	4.3	5.3	10.3	10.4	11.1
학교 선생님의 의견	5.0	5.9	5.3	5.1	6.7
직장 상사나 선배의 의견	6.6	5.2	3.9	3.7	4.3
문화인·학자의 의견	1.4	1.1	1.1	1.0	1.3
조직이나 단체의 의견	2.2	1.3	1.0	0.8	0.2
이 중에는 없음	7.9	9.2	1.8	3.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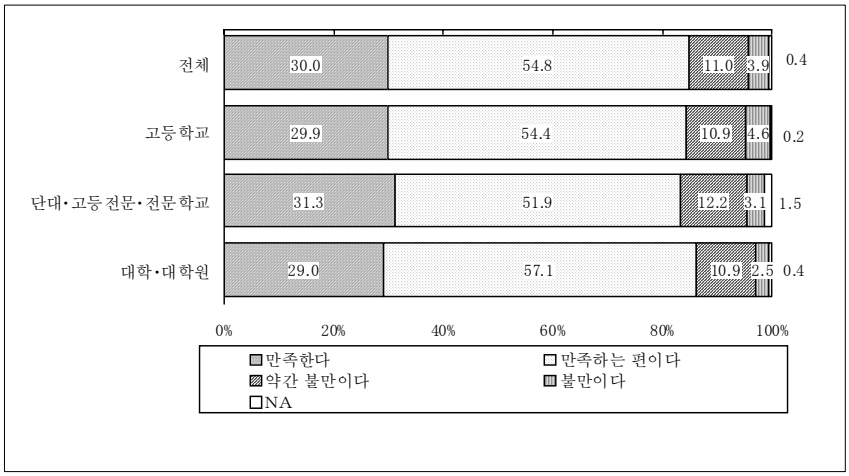
주: 한 개만 선택

이 질문에서 「친구・동료」를 선택한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1970년에는 11.8%였던 것이, 1990년에는 14.7%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영향이 저하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부모・형제」를 선택한 비율도 증가 경향을 보였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갖가지 미디어 등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러한 미디어 등을 매개로 하면서 인간 지향, 친구 지향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武內, 1995 : 109).

② 일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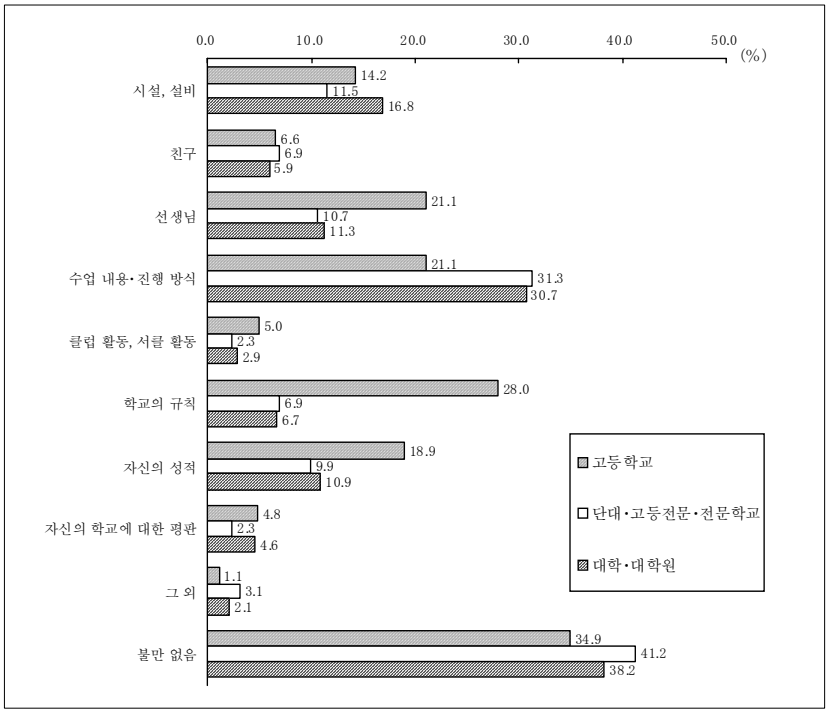
일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시계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본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는 만족도, 불만, 진학 희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001년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별로 본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Ⅲ-21]과 같다. 고등학교, 단기대학(한국의 전문대학) 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대학・대학원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와 「그럭저럭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성별・학교별로 살펴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들보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한다」+「그럭저럭 만족한다」)가 높으나, 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는 그와 반대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만족도의 남녀차는 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에서 크며,여학생의 경우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1%인데 비해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72.0%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Ⅲ-22] 과 같다. 학교 별로 불만의 내용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학교의 규칙」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으며 “교사”, “수업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에서는, 「수업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그 외의 불만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대학・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수업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내각부(2001)를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21] 학교생활 만족도(일본)



자료 : 내각부(2001)을 기초로 필자 작성(복수응답)

[그림 Ⅲ-22] 학교 생활 불만사항(일본)

<표 Ⅲ-18>는 청소년에게 진학에 대한 희망에 대해 물어 본 결과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남학생의 약 50%, 여학생의 약 40%가 대학・대학원까지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10%정도 높다.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까지만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우 적고, 대부분의 학생은 단대나 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단대・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교육기관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다.

<표 Ⅲ−18> 진학희망(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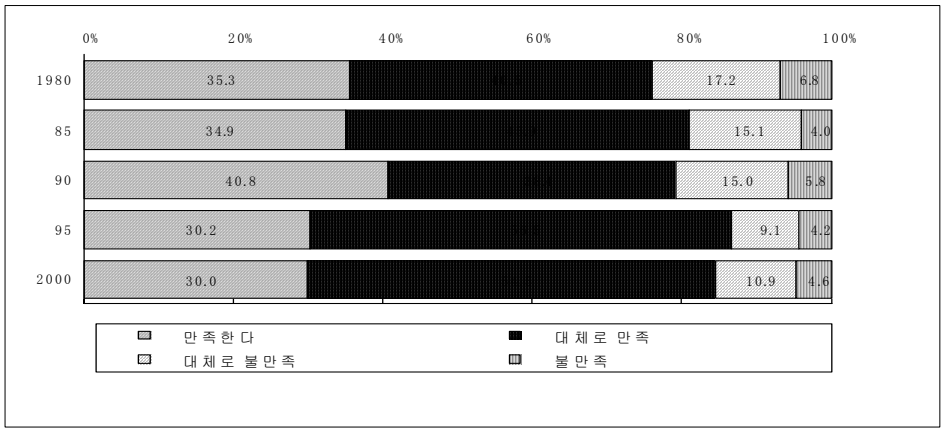
(단위:%)

	고등학교까지	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까지	전문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그 외의 학교	아직 모르겠음
남・고등학교	19.2	2.5	18.6	47.3	6.0	−	6.3
단대・고등전문・전문학교	−	18.0	60.0	8.0	2.0	−	12.0
대학・대학원	−	−	0.7	65.0	27.3	−	7.0
진학예비고, 그 외	−	−	−	25.0	37.5	12.5	25.0
여・고등학교	15.6	13.6	22.4	40.6	2.6	−	5.2
단대・고등전문・전문학교	−	45.7	46.9	2.5	1.2	−	3.7
대학・대학원	−	−	−	76.8	11.6	−	11.6
진학예비고, 그 외	−	−	−	50.0	50.0	−	−

자료) 내각부 (2001) 을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Ⅲ-23]는, 고교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시계열로 비교한 것이다. 처음 이 질문이 조사된 1980년의 시점에서는 「만족한다」가 35.3%, 「대체로 만족한다」가 40.5%, 양자를 합해서 약 75%의 고교생이 학교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후 만족(「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 경향에 있고, 2000년 시점에서는 80%이상의 고교생이 학교에 만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족한 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표 Ⅲ-19>이다. 1980년 시점에서는 「수업의 방법이나 수업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사」「시설」 등이었다. 1980년부터 1990년에 걸쳐 이러한 3가지 부분의 불만은 감소하였다. 2000년 조사에서는 선택지가 일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조사와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1980년 시점에서는 높았던 「수업방식과 수업과목」「교사」「시설」에 대한 불만은 저하하고 있다.



자료 : 총무청(1995); 내각부(2001)

[그림 Ⅲ-23] 고교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일본)

또한 내각부(2001) 조사 결과를 통해, 1995년과 2000년 시점에서 중학생이 학교에서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싫은 것은 없다」고 한 응답이 두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1995년49.6%, 2000년45.3%), 1995년보다도 2000년에 「공부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싫은 선생님이 있다」고 한 응답이 증가 경향에 있다. 고교생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집에서의 공부 시간 감소, 학력 저하의 경향을 고려할 때,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교생에 있어서도 「공부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 응답자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Ⅲ-19> 고교생의 학교생활 불만사항(일본)

(%)

	1980	85	90	2000
수업방법이나 수업과목	50.6	47.9	42.4	21.1
교사	42.8	40.8	42.4	21.1
시설	14.8	18.5	12.8	14.2
친구	11.9	14.2	16.0	6.6
동아리활동	11.5	10.9	12.0	5.0
학교규칙	-	-	-	28.0
자신의 성적	-	-	-	18.9
다니는 학교의 평판	-	-	-	4.8

주 : 「이 중에는 없다」의 응답 결과는 생략.
자료: 총무청(1995); 내각부(2001)

(3) 독일 청소년들의 생활양식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세대가 사회와 학습 장소에 깊이 관련되지만 이 시기에는 가족이 기본적 학습의 장이 된다. 즉 가족안에서 문화적, 물질적 그리고 사회적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형성된다. 가족은 성장세대에게 그 가족과의 적응과정과 함께 가족상호교환에 따른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경험의 세계를 여는 「게이트킵퍼(문지기)」가 된다. 가족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의 근원으로서 아동이 학교에서 갖는 교육기회와 학교 외 교육에 대한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BFSFJ, 2005a: 29). 독일에서는 가족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학교교육의 경우를 보자, 대부분의 성장세대가 초등학교나 그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동안에 1/5에서 1/2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외에서 학습을 받는다. 학교 외 학습장소를 유형별로 보면 학교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외 학습(공부방, 어학학원 등)의 장과 청소년연맹과 같은 것들이다 (BFSFJ, 2005a: 30).

또 다른 학교 외 학습장소로는 경제성과 책임성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용적

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아르바이트를 들 수 있다(BFSFJ, 2005a: 30).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성장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장소는 바로 또래집단과 미디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는 그 영향력 안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가져 올 수 있는데, 대표적 예로 학교 음성 서클이나 폭력 서클 또는 인터넷 중독 등을 들 수 있다(BFSFJ, 2005a: 30).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 안이나 학교외 학습 장소에 대한 영향력이 결정되어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가족의 경제지표가 사회적 경제 지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주민가족인 경우 자녀들의 학교 내 학습기회 뿐만 아니라 학교외 학습 기회가 현격히 떨어진다(BFSFJ, 2005a: 30). 다방면의 과외 학습이나 활동은 학교외의 경험과 발달의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런 활동에 계층간 격차가 발생한다(BFSFJ, 2005a: 66-67).

(4) 스웨덴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태도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성향은 복지국가의 발달과 산업주의와 후기물질주의(Post-materialism)의 영향으로 생활양식과 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 위원회(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에서 1994년, 1998년 그리고 2002년 청소년가치체계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 직장, 높은 봉급수준보다는 개인취미와 여가생활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의미라고 지적하는 청소년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가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스웨덴 청소년 중 60%가 시민 및 체육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있어 여가생활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이 젊을수록 학생단체, 체육단체 그리고 문화단체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어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의식을 드러냈다.

장래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1993년과 2002년 사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차 장래의 가족계획에 대해 1993년 연구에서는 80%가 출산이 매우 중요하

다고 답하고 있으나 2003년에는 70%수준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 첫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28세, 남성의 경우 31세로 출산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스웨덴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과 함께 여성 최초 출산연령이 높아져가고 있다. 1980년대에는 평균 최초 출산연령이 25.5세로 낮았으나 10년단위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년 후인 2000년 측정에서는 28.4세로 높아졌고, 최근 2004년에는 29세까지 높아졌다.

<표 III-20> 청소년의 최초 출산연령 추이(스웨덴:1980~2004)

	1980	1990	2000	2003	2004
최초 출산연령	25.5	26.3	28.2	28.8	29.0

자료 : Ungdomsstyrelsen(2005: 56).

직업과 교육에 대한 열의: 직업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원활한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직장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일에 대한 자기성취 및 만족보다는 재정적 수입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스웨덴 청소년들은 직업과 직장에 대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직종보다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에서의 중요한 요소로는 직장동료, 노동환경, 그리고 상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승진 및 진급과 경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유급 출산휴가, 부모수당 등을 통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젊은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의 연구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입양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비율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남성에게 있어서도 가사노동이 직장생활 이상으로 재미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가족이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답한 것같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좋

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80%의 청소년이 동의하고 있다.

1990년대 나타났던 경제위기와 연관된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이 최근 들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가두시위, 건물점거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10년 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하지만 16~19세 그룹에 있어서는 정치적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해 보고 싶은 욕구 표현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들 사이에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평등의식이 현저히 만연되어 있다는 점도 최근 변화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Ⅳ. 비교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개요
2. 가족의 구조 및 가족문화
3. 부모자녀 관계
4. 청소년의 생활・의식・참여
5. 조사결과 요약

Ⅳ. 비교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개요

조사대상국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이다. 조사대상은 학령기로 보면, 한국의 중2에서 고2까지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다. 엄밀한 국제비교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설정, 표집방법, 조사방법 등 모든 조사의 조건과 방법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지만, 2006년 조사는 이 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간과 조사비용의 제약 때문이었다. 한국은 전국의 중학교 2년에서 고등학교 2년생까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표집된 중고등학교로부터 집단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조사는 동경의 고등학생들을 주민표로부터 임의 추출하여 방문유치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스웨덴은 전국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일은 베를린 내 김나지움과 종합학교 각각 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당초 두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섭외에 실패하여 전국 중고생을 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한국

(1) 조사방법·표본설계·가중치작성

가. 중학교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가중치 작성

① 표본설계

중학교 조사는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Ⅳ-1>은 중학교 대상 조사의 모집단 현황이다. 중학교 조사대상은 전국의 2,93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010,704명이다.

<표 Ⅳ-1> 모집단 현황 : 중학교

구 분	학교수	학급수	재학생수	재학생(남)	재학생(여)	학급당 평균 학생수
전체	2,935	56,968	2,010,704	1,063,730	946,974	35.3
남녀공학	2,150	38,778	1,363,897	720,787	643,110	35.2
남학교	445	9,622	342,943	342,943	0	35.6
여학교	400	8,568	303,864	0	303,864	35.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분추출방법은 층화이단계추출법이다.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는 학교,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는 학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실제적으로 표본 학교 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추출은 복합표본설계인 층화2단계추출법에 따라서 추출되기 때문에 표본크기의 결정은 복합표본설계의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효과를 반영하여 표본크기를 산정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청소년발달지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2005년도에 실시된 청소년발달지표 예비조사는 비록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지만, 표본추출 과정이 본 연구의 경우와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에 대한 전국 통계의 오차의 한계를 3% 내외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결정되었다. 중학교 대상 조사의 표본크기는 55개교이다.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층화방법은 지역(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과 학교 유형(남, 여, 남녀공학)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12개 층을 구성하였다. 지역별 표본배분은 서울 지역에 20개교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비례배분하는 방안을 사용하였다. 사회화 과정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본 연구의 목적이고, 다른 국가에서 대부분 그 나라의 수도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지역에 대한 신뢰성 높은 통계작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선적으로 서울에 20개교를 배정하였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20개 학교는 모비율 추정에서 오차한계를 5%로 할 때 표본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Ⅳ-2>는 중학교 대상 조사의 각 층별 표본크기 현황이다.

<표 Ⅳ-2> 중학교 대상 조사의 각 층별 표본크기 현황

구 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
남녀공학	16	8	11	4	39
남학교	2	2	3	1	8
여학교	2	2	3	1	8
전체	20	12	17	6	55

각 지역 내 학교유형(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표본수를 배정하였다. 각 층에서 표본 학교는 학생수 확률비례추출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해서 추출하였다. 표본학교에서 표본학급의 추출은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② 가중치 작성

본 연구의 중학교 대상 조사는 층화이단계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즉 지역과 학교 유형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12개 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에서 학교 내 학생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 표본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 학급 내의 전체 학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조사된 각 학생에 대한 가중치는 ㉠ 설계 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되었다. 중학교 조사의 사후층화 조정은 지역 구분(4)과 성별 구분(2)에 대해서 8개 사후층을 구성하여 조정하였다.

나. 고등학교 조사

① 표본설계

고등학교 조사의 대상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국한하였다. 전체 고등학생 중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은 99.0%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을 제외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이다. 참고로 과학계, 예술계, 외국어계, 체육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구분하였다. 다음 <표 Ⅳ-3>은 고등학교 대상 조사의 모집단 현황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대상 조사는 전국의 3,538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041,21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 Ⅳ-3> 모집단 현황 : 고등학교

구 분	학교수	학급수	재학생수	재학생(남)	재학생(여)	학급당 평균 학생수
전 체	2,156	54,478	1,781,420	938,965	842,455	32.7
인문계	1,382	37,141	1,259,792	659,986	599,806	33.9
실업계	713	16,783	503,104	270,037	233,067	30.0
각종학교(고교)	9	75	2,065	1,414	651	27.5
방송통신고교	39	368	13,085	6,141	6,944	35.6
고등기술학교	13	111	3,374	1,387	1,987	30.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대상 조사의 표본설계는 중학교 대상 조사의 표본설계와 거의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다. 중학교 대상 조사와 같이 1차 추출단위(PSU)는 학교, 2차추출단위(SSU)는 학급이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용된 표본추출방법은 중학교 조사와 같은 층화이단계추출법이다.

표본은 복합표본설계인 층화2단계추출법에 따라서 추출되기 때문에 표본크기의 결정은 복합표본설계의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반영하여 산정되어

야 한다. 중학교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계효과를 반영하여 표본크기를 산정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청소년발달지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2005년도에 실시된 청소년발달지표 조사는 본 연구의 주제와 다소 다르지만 표본추출 과정이 본 연구의 경우와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에 대한 전국 통계의 오차의 한계를 3% 내외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대상 조사의 표본크기는 60개교이다.

고등학교 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지역(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과 학교유형(일반계, 실업계)을 고려하여 층화하였다. 1차적으로 지역(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을 고려하여 나누고, 2차로 각 지역에서 학교 유형(일반계, 실업계)에 따라 구분하여 모집단을 8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표본학교 수 배분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학생수 제곱근 비례배정, 학생수 비례배정, 서울 지역 우선 배정 후 비례배정 등의 방법을 적용한 후 비교해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 지역에 우선적으로 22개 학교를 배정한 후,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비례배분하는 방안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화 과정에 대한 국가간 비교이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그 나라의 수도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지역에 대한 신뢰성 높은 통계작성이 요구된다. 서울 지역에 우선적으로 22개 학교를 배분하면 모비율 추정에서 서울 지역의 추정결과의 오차한계를 5%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각 지역 내에서 일반계와 실업계의 배분은 학생수 비례로 배정하였다. 각 층에서 표본학교의 추출은 학생수 확률비례추출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해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표본학급의 추출은 1, 2학년 중에서 단순임의추출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음은 고등학교 대상 조사의 각 층별 표본 학교 수 현황이다.

<표 Ⅳ-4> 고등학교 대상 조사의 각 층별 표본크기 현황

구 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
일반계	18	10	13	3	44
실업계	4	4	5	3	16
전체	22	14	18	6	60

② 가중치 작성 과정

고등학교 대상 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은 중학교 대상 조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 고등학교 대상 조사는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지역과 학교 유형(인문계, 실업계)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8개 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에서 학교 내 학생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 표본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 학급 내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조사된 각 학생에 대한 가중치는 ㉠ 설계 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되었다. 고등학교 조사의 사후층화 조정은 지역 구분(4), 학교 유형(인문계, 실업계). 성별 구분(2)에 대해서 16개 사후층을 구성하여 조정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한국의 조사 대상자 3,747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5>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979명으로 전체의 52.8%이며, 여학생은 1,768명으로 전체의 47.2%로 남학생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817명으로 전체의 48.5%, 고등학생이 1,930명(실업계 고등학생이 517명으로 전체의 13.8%, 인문계 고등학생이 1,413명, 37.7%)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출생년도별로는 1988-1989년생이 797명으로 21.2%, 1990년생이 958명

(25.6%), 1991년생 820명(21.9%), 1992년생 979명(26.1%), 1993년생 173명(4.6%)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학생이 1,760명으로 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 1,471명(39.3%), 읍·면 지역 515명(13.8%)로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Ⅳ-5> 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	1,979	52.8%
	여	1,768	47.2%
학교급별	중학생	1,817	48.5%
	고등학생	1,930	51.5%
출생별	1988-1989년생	797	21.2%,
	1990년생	958	25.6%
	1991년생	820	21.9%
	1992년생	979	26.1%
	1993년생	173	4.6%
지역별	대도시	1,760	47.0%
	중소도시	1,471	39.3%
	읍·면 지역	515	13.8%
부모의 학력별 (아버지 학력 기준)	초등학교 졸 이하	93	2.6%
	중학교 졸	177	4.7%
	고등학교 졸	1,558	41.6%
	대학교 졸	1,206	32.2%
	대학원 이상	249	6.6%

부모의 학력별(아버지 학력 기준)로는 초등학교졸 이하 93명(2.6%), 중학교졸 177명(4.7%), 고등학교졸 1,558명(41.6%), 대졸 1,206명(32.2%), 대학원 이상 249명(6.6%)으로 고졸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Ⅳ-5>는 한국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각 집계에서 무응답치는 제외되었다.

2) 일본

(1) 조사개요

가.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

일본조사는 일본의 조사기관인 사단법인 중앙조사사(社団法人中央調査社)에 위탁하였다. 조사는 동경도(도서부는 제외)에 살고 있는 고교생 남녀 개인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3일(목)~23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88년 4월~1991년 3월로, 조사 시점에서 만 15~18세에 해당한다.

나.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은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으로부터 층화이단무작위추출법(層化二段無作爲抽出法)을 이용하였다. 주민기본대장은 각 자치단체가 주민표(住民票)를 세대별로 편성하여 작성한 대장(台帳)에 거주자의 이름, 성별, 연령을 기재한 것이다. 일본에서 주민기본대장은, 주민의 거주 관계에 대한 공증, 선거인 명부의 등록, 그 외 주민에 관한 사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된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지역의 각 자치단체에 학술 조사를 목적으로 대장의 열람 허가를 신청한 후에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층화(層化)는 도내(都內)의 시구정촌(市區町村)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3층(層)으로 나누었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각 층에 있어서의 조사 지점수를 할당하고 각 층 내의 자치단체에 대해 조사 지점수를 배분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67개의 조사 지점을 결정하였다. 표본수는 800명이다. 이를 지점수로 나누어 1지점 당 12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조사 지점에서 새롭게 예비 샘플을 추출하였다. 대상자가 이사를 간 경우(8명), 대상자의 주소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5명), 실제로 대상자에게 면접하였을 때, 고등학생이 아닌 경우(8명) 등의 총 21명은 예비 샘플을 사용하였다.

다.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방문유치법(訪問留置法)이다. 이 방법은 우선 조사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와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 조사표를 배포한다. 다음으로, 대상자는 자택에서 조사표를 기입힌다. 그 후, 조사원이 새롭게 지정한 날에 대상자의 집을 재방문하여 대상자가 기입한 조사표를 받아 온다.

라. 유효 회수율

유효 회수수는 489명, 유효 회수율은 61.1%이었다.

회수되지 못한 311명의 내역을 살펴 보면, 이사(12명), 장기 부재(10명), 일시 부재(60명), 주소 불명(4명), 거부(207명), 대상 부적격(12명), 그 외(6명)이다. 그 외의 경우로서는 장애(질병)가 있어서 질문지에 응답할 수 없거나, 조사표를 분실한 경우 등이다. 또한 이사, 주소 불명, 대상 부적격의 경우는, 예비 샘플을 사용하였으나, 예비 샘플이 회수되지 못했을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회수 불능의 이유 중에는 거부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는 응답자가 바쁘기 때문,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모든 질문지 응답을 거절하는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본의 조사 대상자 489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6>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27명으로 전체의 46.4%이고, 여학생은 262명으로 전체의 53.6%로 남학생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조사대상자는 전부 고등학생이었으며, 이중 직업계(실업계) 고등학생이 40명으로 전체의 8.2%, 일반계(인문계) 고등학생이 449명으로 전체의 91.8%를 차지하였다.

출생년도별로는 1988년생이 95명으로 19.4%, 1989년생이 167명(34.2%),

1990년생 189명(38.7%), 1991년 생 38명(7.8%)으로 분포되어 있어 70%이상이 1989년-1990년생이었다.

일본 조사는 동경에서 전부 표집되었으므로 대도시 거주자가 489명, 100%로, 도시·비도시 지역 간 차이를 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모의 학력 별(아버지 학력 기준)로는 중학교 졸 11명(2.2%), 고등학교 졸 141명(28.8%), 대졸 273명(55.8%), 대학원 이상 19명(3.9%)으로 대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Ⅳ-6> 일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	227	46.4
	여	262	53.6
학교급별	직업계 고등학생	40	8.2
	일반계 고등학생	449	91.8
출생별	1988년생	95	19.4
	1989년생	167	34.2
	1990년생	189	38.7
	1991년생	38	7.8
지역별	대도시	489	100.0
부모의 학력별 (아버지 학력 기준)	중학교 졸	11	2.2
	고등학교 졸	141	28.8
	대학교 졸	273	55.8
	대학원 이상	19	3.9

3) 독일

(1) 조사개요

독일조사는 베를린 지역의 김나지움(1개교)과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가 통합된 학교인 종합학교(1개교)를 편의표집에 의하여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독일의 조사 대상자 495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7>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71명으로 전체의 54.5%이고, 여학생은 224명으로 전체의 45.1%로 남학생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는 1970-1988년생이 47명(9.6%), 1989~1991년생이 334명(68.2%), 1992~1995년생 109명(22.3%)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1989년~1991년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독일 조사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표집되어 대도시 거주자가 483명으로 97.8%를 차지하였다. 그 외 중·소도시는 6명(1.2%), 읍·면 지역은 5명(1.0%)를 차지하여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부모의 학력별(아버지 학력 기준)로는 초졸 이하 98명(20.9%), 중학교 졸 181명(38.6%), 고등학교 졸 12명(2.6%), 대졸 90명(19.2%), 대학원 이상 14명(3.0%)으로 중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V-7> 독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	271	54.5
	여	224	45.1
출생별	1970-1988년생	47	9.6
	1989-1991년생	334	68.2
	1991-1995년생	109	22.3
지역별	대도시	483	97.8
	중소도시	6	1.2
	읍·면 지역	5	1.0
부모의 학력별 (아버지 학력 기준)	초등학교졸 이하	98	20.9
	중학교졸	181	38.6
	고등학교졸	12	2.6
	대학교졸	90	19.2
	대학원 이상	14	3.0

4) 스웨덴

(1) 조사개요

스웨덴의 자료는 다단계 유층별 군집표집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스웨덴을 290개의 콤뮨으로 구분한 뒤 남성과 여성 군집으로부터 인구비례로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1,500명을 추출했다. 그 중 이사 5건, 사망 1건, 입원 등의 개인적 이유로 답할 수 없는 6건 등 총 12건이 제외되었다.

설문은 우편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차에 걸친 발송으로 이루어졌다. 1차 발송에서는 협조문과 설문지를 발송했고, 2차 발송에서는 협조문만을 다시 발송해서 설문의 중요성과 협조에 대한 당부를 상기시켰고, 3차발송 시에는 다시 협조문과 설문지를 발송했다. 1차 발송과 2차 발송, 그리고 2차 발송과 3차 발송 사이에는 2주의 시차를 주었다.

설문기간은 4월 28일 1차발송, 5월 12일 2차발송, 5월 26일 3차 발송 등 4월 28일부터 시작하여 8월 15일 마감 때까지 총 528명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다.

3차에 걸친 발송과 이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 1차 발송: 425개 설문 회수
- 2차 발송: 43개 설문 회수
- 3차 발송: 60개 설문 회수

전체 회수율은 36%로 12명의 system missing을 제외한 1,488명 중 528명 회송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웨덴의 조사 대상자 514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8>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20명으로 전체의 42.8%이며, 여학생은 291명으로 전체의 56.6%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66명으로 전체의 12.8%, 고등학생이 314명(실업계

고등학생이 138명으로 전체의 26.8%, 인문계 고등학생이 176명, 34.2%)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기타 예술학교, 전문학교 등이 있었으나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실업계, 인문계)만 집계에 포함하였다.

출생년도별로는 1982~1987년생이 122명으로 23.9%, 1988년생이 168명(32.7%), 1989년생 160명(31.1%), 1990년생 55명(10.7%)의 분포를 보였다.

스웨덴 조사는 전국조사로서, 대도시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36명(26.5%), 중·소도시 280명(54.5%), 읍·면 지역 92명(17.9%)로, 중·소 도시 지역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별(아버지 학력 기준)로는 초졸 이하 68명(13.2%), 중학교졸, 63명(12.3%), 고등학교졸 130명(25.3%), 대졸 135명(26.3%), 대학원 이상 43명(8.4%)이었다.

<표 Ⅳ-8> 스웨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	220	42.8
	여	291	56.6
출생별	1982-1987년생	122	23.9
	1988년생	168	32.7
	1989년생	160	31.1
	1990년생	55	10.7
지역별	대도시	136	26.5
	중소도시	280	54.5
	읍·면 지역	92	17.9
부모의 학력별 (아버지 학력 기준)	초등학교졸 이하	68	13.2
	중학교졸	63	12.3
	고등학교	130	25.3
	대학교졸	135	26.3
	대학원 이상	43	8.4

5) 미국

(1) 조사개요

미국조사는 미국내 전문 리서치 회사(IRS)에서 위임하여 이루어졌다. IRS는 전국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조사 대상자가 2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조사그룹이다. 관리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67%, 남성이 33%이며, 연간소득별 구성을 보면, 10만달러 이상이 10%, 7만 5천~9만 9900달러가 10%, 5만~74만 9900달러가 19%, 3만 5천~4만 9900달러가 17%, 3만 5천달러 이하는 44%이다. 연령별로는 18~24세가 15%, 25~34세가 25%, 35~44세가 23%, 45~54세가 20%, 55세 이상이 17%로 미국 국세조사 규모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조사 회사에서는 인터넷 참가자의 생년월일, 결혼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인종, 언어, 직업, 교육, 자택 우편번호, 지역, 주택 보유 여부, 애완동물 유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참가자 약 10,0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였다. 당초 다른 비교국가와 동일한 조사 조건을 위해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를 담당하던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국의 조사 대상자 1,875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9>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853명으로 전체의 45.5%이고, 여학생은 1,022명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는 1986-1988년생이 177명으로 9.4%, 1989년생이 468명(25.0%), 1990년생 462명(24.6%), 1991년생 401명(21.4%), 1992~1994년생 367명(19.6%)의 분포를 보였다.

미국 조사는 전국조사로서, 대도시(교외부근 포함)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47명(39.8%), 중·소도시 905명(48.3%), 읍·면 지역 223명(11.9%)로,

중·소 도시 지역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 별(아버지 학력 기준)로는 초졸 이하 164명 (8.7%), 중학교졸 495명(26.4%), 고등학교졸 431명 (23.0%), 대졸 464명(24.7%), 대학원 이상 265명 (3.0%)으로, 중·고·대졸자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9> 미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	853	45.5
	여	1,022	54.5
출생별	1986-1988년생	177	9.4
	1989년생	468	25.0
	1990년생	462	24.6
	1991년생	401	21.4
	1992-1994년생	367	19.6
지역별	대도시	747	39.8
	중소도시	905	48.3
	읍·면 지역	223	11.9
부모의 학력별 (아버지 학력 기준)	초등학교졸 이하	164	8.7
	중학교졸	495	26.4
	고등학교졸	431	23.0
	대학교졸	464	24.7
	대학원 이상	265	3.0

2. 가족의 구조 및 가족문화

1) 가족의 구조

이 장에서는 우선 각국 청소년의 가족구조와 환경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이상 5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부모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족구조를 비교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각국의 가족구조를 조사하는 것은 각 국가의 가

족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각국의 가족구조를 비교하였다(표 IV-10).

<표 IV-10> 국가별 가족구조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양친부모	3298	88.4	428	88.4	378	76.1	362	70.7	1184	63.1
아버지	84	2.3	6	1.2	8	1.6	32	6.3	58	3.1
어머니	140	3.8	42	8.7	63	12.7	86	16.8	263	14.0
아버지와 계모	23	.6	2	.4	3	.6	4	.8	44	2.3
어머니와 계부	32	.9	4	.8	37	7.4	11	2.1	246	13.1
양부모	31	.8	0	0	1	.2	3	.6	4	.2
부모 없음	122	3.3	2	.4	5	1.0	14	2.7	69	3.7
전체	3730	100.0	484	100.0	497	100.0	512	100.0	1868	100.0

주 : 양친부모 =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산다.
아버지 = 아버지하고만 함께 산다.
어머니 = 어머니하고만 함께 산다.
아버지와 계모 =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산다.
어머니와 계부 =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산다.
양부모 = 양아버지, 양어머니와 함께 산다.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와 함께 산다'(표에서 '양친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한국 88.4%, 일본 88.4%, 독일 80.6%, 스웨덴 70.7%, 미국 63.1%로 분포율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양친부모와 사는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였으나, 독일, 스웨덴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 수치가 63.1%로 기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았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표에서 '어머니') 비율도 국가별로 차이가 났다. 모자가정 비율은 한국 3.8%, 일본 8.7%, 독일 10.2%, 스웨덴 16.8%, 미국 14.0%로, 비교대상국들에 비하여

한국의 모자 가정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 재혼 등으로 가족 해체가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서구의 가족구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핵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에 비해 모자가정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 IV-11>과 <표 IV-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이 변하고 있으며,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비해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연구와 정책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는 상반되게 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은 더디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의식하여 실제 가족구조를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3]. 급격히 변해가는 가족구조와 병행할 수 있는 가치관의 재정립 문제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Ⅳ-11> 연도 별 총 이혼건수 및 이혼율 (한국)

연도	총이혼건수	조이혼율*(%)
1980	23,662	0.6
1990	45,694	1.1
2000	119,982	2.5
2005	128,468	2.6

주 :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3) 실제로 청소년 조사 대상자들 중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 구성원인 경우에도 설문지에 응답할 때는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산다'는 문항을 선택하는 일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표 Ⅳ-12> 혼인상태별 한 부모 가구수와 비율 (한국)

(단위: 가구, %)

연 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90	226,731 (25.5)	497,867 (56.0)	78,861 (8.9)	85,394 (9.6)	888,853 (100.0)
1995	216,067 (22.5)	526,320 (54.8)	123,969 (12.9)	93,616 (9.8)	959,972 (100.0)
2000	252,917 (22.5)	502,284 (44.7)	245,987 (21.9)	122,666 (10.9)	1,123,854 (100.0)

주 : *한부모 가구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는 배우자가 가출, 유기, 장기복역 등의 상태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가족 문화의 한 영역인 부부 사이의 가사노동 분담률을 조사하였다.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가사노동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가사노동을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어머니가 한다('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한다('아버지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로 척도를 구성하여 물었다.

우선 '식사준비'에 대한 가사노동 분담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80.9%(중학생 78.6%, 고등학생 83.1%), 일본이 89.4%였다. 독일의 경우는 73.7%였고, 스웨덴은 52.7%, 미국은 73.5%였다. 스웨덴의 경우 어머니가 식사준비를 하는 비율이 기타 국가에 비해 낮았고, 일본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0.2%(중학생 11.7%, 고등학생 8.8%), 일본이 4.5%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는 14.2%였고, 스웨덴은 31.3%, 미국 13.1%였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2.3%, 일본은 1%였다. 독일의 경우는 8.0%였고, 스웨덴 9.3%, 미국은 10.2%였다. 또한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5.8%, 일본이 4.3%였다. 독일의 경우는 3.1%였고, 스웨덴은 4.1%, 미국 3.1%였다.

‘설거지’에 대한 가사노동 분담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9.6%(중학생 68.1%, 고등학생 74.1%), 일본이 82.8%였다. 독일의 경우는 47%였고, 스웨덴은 39.3%, 미국 60.6%였다. 스웨덴의 경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기타 국가에 비해 낮았으며, 일본은 비교적 높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4%(중학생 15.8%, 고등학생 12.4%), 일본이 7%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는 26.0%였고, 스웨덴은 43.3%, 미국은 18.5%였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0.3%, 일본은 0.8%였다. 독일의 경우는 7.1%였고, 스웨덴은 8.8%, 미국은 7.9%였다. 또한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9.6%, 일본이 6.7.%, 독일이 17.3%, 스웨덴이 6.0%, 미국이 13.0% %였다.

‘청소’에 대한 가사노동 분담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전부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2.7%, 일본이 84.5%였다. 독일의 경우는 68.5%였고, 스웨덴은 53.3%, 미국은 69.7%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9.8%, 일본이 8.4%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는 16.6%였고, 스웨덴은 31.1%, 미국 18.3%였다. 스웨덴의 경우 기타 조사 대상국가에 비해 ‘반반씩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 일본은 2.9%였다. 독일의 경우는 3.5%였고, 스웨덴은 5.1%, 미국은 5.1%였다. 또한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10.2%, 일본이 3.9.%였다. 독일의 경우는 11.4%였고, 스웨덴은 8.0%, 미국 6.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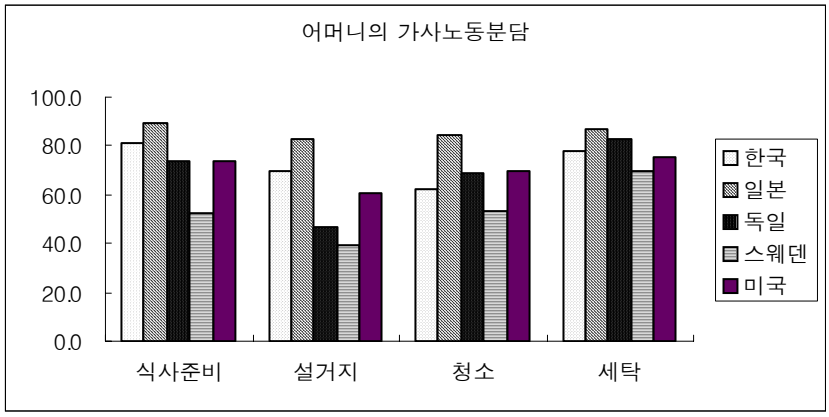
‘세탁’에 대한 가사노동 분담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77.9%, 일본이 87.1%였다. 독일의 경우는 82.7%였고, 스웨덴은 69.6%, 미국 75.4%였다. ‘어머니, 어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0.3%, 일본이 5.1%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는 8.2%였고, 스웨덴은 18.9%, 미국 12.6%였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 일본은 2.2% 였다. 독일의

경우는 2.5%였고, 스웨덴은 5.1%, 미국은 7.1%였다. 또한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10.2%, 일본이 3.9.%였다. 독일의 경우는 6.6%였고, 스웨덴은 3.7%, 미국은 4.9%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스웨덴의 경우 모든 가사노동에서 '어머니가 주로 한다'는 비율이 낮았고, 그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반씩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내 성역할분담에 대한 양성평등 지향성은 스웨덴 가족이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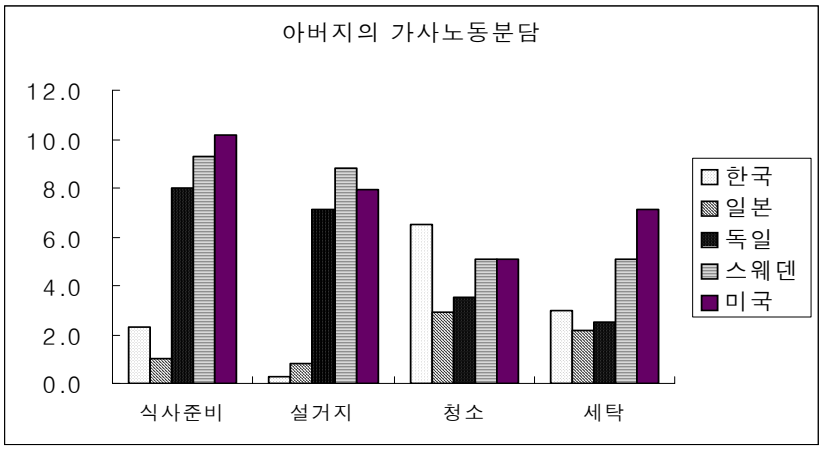
<표 Ⅳ-13> 어머니의 가사노동분담 각국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식사준비	80.9	89.4	73.7	52.7	73.5
설거지	69.6	82.8	47.0	39.3	60.6
청소	62.7	84.5	68.5	53.3	69.7
세탁	77.9	87.1	82.7	69.9	75.4



주: * 각문항 '어머니가 한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 어머니의 가사노동 분담 - 각국비교



주 : 각문항 '아버지가 한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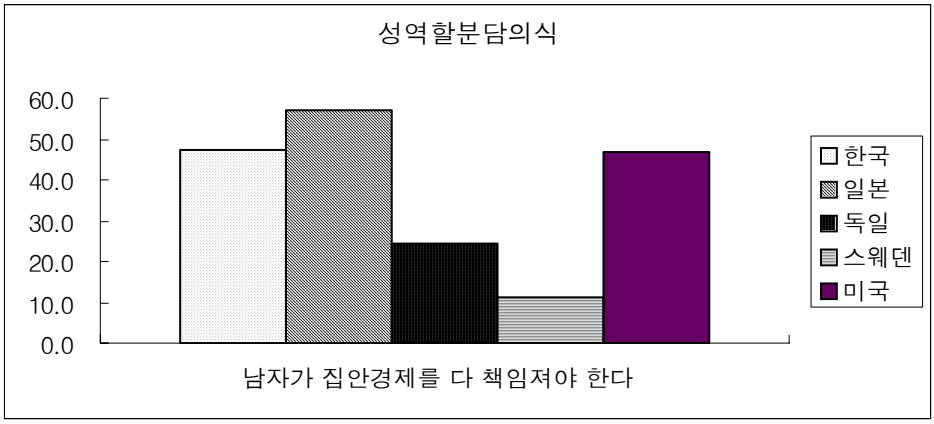
[그림 Ⅳ-2] 가사노동 분담 - 각국비교

이에 반해 일본은 모든 가사노동에서 '어머니가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일, 스웨덴,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과 일본에서 어머니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높았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식사준비'를 제외한 '설거지', '청소', '세탁'에서 어머니의 가사분담률이 독일, 스웨덴,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성역할분담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보여준다.

3)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이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녀의 성역할 의식은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문항을 통해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물었다. 이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47.2%, 일본이 56.9%, 독일 24.5%, 스웨덴 11.1%, 미국 46.6%로서 한국 청소년과 일본 청소년들은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보다 성역할분담의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청소년들의 성역할분담의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성역할분담의식은 미국 청소년들의 성역할분담의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청소년들의 의식주준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진국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 가정경제의 책임에 대한 성역할분담 의식 - 각국비교

그렇다면, 부모의 가사노동 부담정도에 따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각국의 사례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분석 결과는 <표 Ⅳ-14>과 같다.

<표 Ⅳ-14>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 의식 사이의 관계(한국)

남자도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님의 가사노동 기여비율				
		어머니가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사람이 한다	전체
그렇지 않다	빈도	2152	281	55	165	2653
	%	57.5	7.5	1.5	4.0	70.8
그렇다	빈도	867	101	31	78	1075
	%	23.2	2.7	.8	2.0	28.7
무응답	빈도	13	0	1	3	17
	%	.3	0	0	.1	.5
전체	빈도	3032	382	87	244	3745
	%	81.0	10.2	2.3	6.5	100.0

χ^2 = 79.102 (p<.001)

‘어머니가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152명(57.5%),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는 867명(23.2%)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55명, 1.5%), ‘그렇다’(31명, .8%)이다.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카이제곱 값이 79.10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조사 결과는 다음 <표 IV-15>과 같다.

<표 Ⅳ-15>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일본)

남자도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님의 가사노동 기여비율				
		어머니가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사람이 한다	전체
그렇지 않다	빈도	316	16	4	14	350
	%	64.6	3.3	.8	2.8	71.6
그렇다	빈도	118	6	1	11	136
	%	24.1	1.2	.2	2.2	27.8
무응답	빈도	3	0	0	0	3
	%	.6	0	0	0	.6
전체	빈도	437	22	5	25	489
	%	89.4	4.5	1.0	5.1	100.0

χ^2= 4.720

일본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들은 316명(64.6%),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118명(24.1%)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4명, .8%), ‘그렇다’(1명, .2%)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반씩 한다는 응답과 다른 사람이 한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카이제곱 값은 4.720으로 집단 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이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가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독일 조사 결과는 다음 <표 IV-16>와 같다.

<표 Ⅳ-16>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독일)

남자도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님의 가사노동 기여비율				
		어머니가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사람이 한다	전체
그렇지 않다	빈도	202	43	28	16	289
	%	43.4	9.2	6.0	3.4	62.2
그렇다	빈도	144	20	8	4	176
	%	31.0	4.3	1.7	.9	37.8
전체	빈도	346	63	36	20	465
	%	74.4	13.5	7.7	4.3	100.0

$\chi^2 = 9.533$ ($p<.05$)

독일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02명(43.4%),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144명(31.0%)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28명, 6.0%), '그렇다'(8명, 1.7%)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반씩 한다는 응답은 '그렇다'(43명, 9.2%), '그렇지 않다(20명, 4.3%)'이다.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카이제곱 값이 9.5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따라서 독일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조사 결과는 다음 <표 IV-17>과 같다.

<표 Ⅳ-17>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스웨덴)

남자도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님의 가사노동 기여비율				
		어머니가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사람이 한다	전체
그렇지 않다	빈도	204	121	38	15	378
	%	41.0	24.3	7.6	3.0	76.1
그렇다	빈도	66	38	9	6	119
	%	13.3	7.6	1.8	1.2	23.9
전체	빈도	270	159	47	21	497
	%	54.3	32.0	9.5	4.2	100.0

χ^2 = .878

스웨덴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204명(41.0%),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는 66명(13.3%)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38명, 7.6%), '그렇다'(9명, 1.8%)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반씩 한다는 응답은 '그렇다'(121명, 24.3%), '그렇지 않다(38명, 7.6%)'로서 다른 비교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카이제곱 값은 .87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스웨덴 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 조사 결과는 다음 <표 IV-18>와 같다.

<표 Ⅳ-18>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 사이의 관계(미국)

남자도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님의 가사노동 기여비율				
		어머니가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사람이 한다	전체
그렇지 않다	빈도	665	142	118	36	961
	%	35.5	7.6	6.3	1.9	51.3
그렇다	빈도	714	104	74	22	914
	%	38.1	5.5	3.9	1.2	48.7
전체	빈도	1379	246	192	58	1875
	%	73.5	13.1	10.2	3.1	100.0

χ^2 = 19.908 (p<.001)

미국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665명(35.5%), '그렇지 않다'(714명, 38.1%)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반씩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42명(7.6%), '그렇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04명(5.5%)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분포를 보면, '그렇지 않다'(118명, 6.3%) '그렇다'(74명, 3.9%)이었다. 카이제곱 값은 19.908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미국 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 독일, 미국 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이 자녀의 성역할분담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 반면, 일본과 스웨덴 가족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독일,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역할 의식 형성에 역할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는 부모역할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성역할분담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영향이 더 클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3. 부모자녀 관계

1)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한국부모'라는 개념을 다른 조사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헌신적 양육행동'이라는 개념을 생성하여 각국의 양육형태를 조사하였다.

(1) 긍정적 양육행동

긍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양육행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용된 문항들은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준다' 등 6문항이다.

우선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83.6%, 어머니 86.3%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82.0%, 어머니 89.6%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94.7%, 어머니 94.0%, 스웨덴은 아버지 77.0%, 어머니 88.8%, 미국은 아버지 77.4%, 어머니 92.2%가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5개국 모두에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어머니 차이는 나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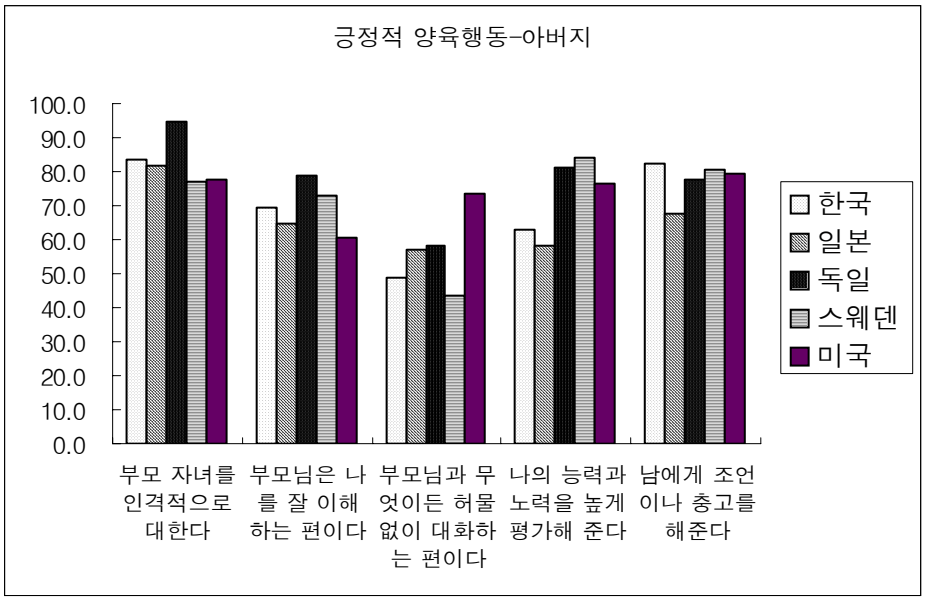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69.3%, 어머니 78.8%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64.6%, 어머니 80.2%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79.1%, 어머니 87.3%, 스웨덴은 아버지 73.1%, 어머니 81.0%, 미국은 아버지 60.5%, 어머니 85.8%로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국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49.0%, 어머니 68.4%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57.1%, 어머니 84.7%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58.2%, 어머니 76.4%, 스웨덴은 아버지 43.4%, 어머니 61.4%, 미국은 아버지 73.8%, 어머니 94.0%였다. 이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국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부모와 허물없이 대화하는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가들에 비해 높았다.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63.0%, 어머니 65.8%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58.5%, 어머니 69.1%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81.4%, 어머니 86.2%, 스웨덴은 아버지 84.3%, 어머니 88.8%, 미국은 아버지 76.3%, 어머니 93.5%였다.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부모보다는 독일, 스웨덴, 미국의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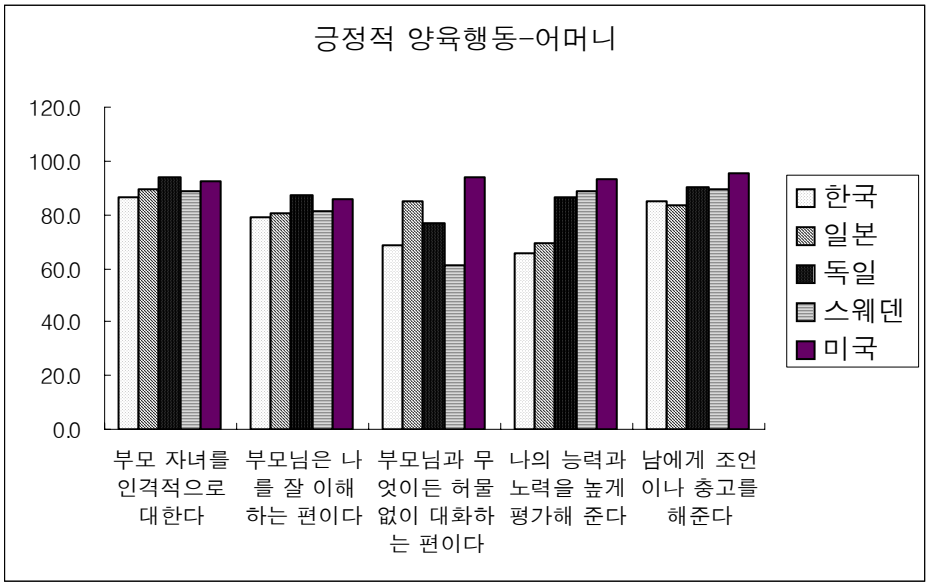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준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82.2%, 어머니 84.6%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67.5%, 어머니 83.2%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77.6%, 어머니 89.9%, 스웨덴은 아버지 80.3%, 어머니 89.1%, 미국은 아버지 79.6%, 어머니 95.5%였다.

5개국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나라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는 항목에서 독일의 긍정적 응답률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높았다. 또한 ‘부모님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서 미국의 긍정적 응답율이 특이하게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항목별로 국가별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국가별 차이보다는 자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차이가 좀 더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주 :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주 :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서로 상관성이 높은가를 각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긍정적 양육행동 변수들 중 '아버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선택하여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IV-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조사 대상국가 모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어머니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9>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아버지는 나를인격적으로 대한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나를인격적으로 대한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나를인격적으로 대한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나를인격적으로 대한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나를인격적으로 대한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346**	.169**	.319**	.218**	.336**	.128**	.500**	.271**	.309**	.245**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156**	.314**	.207**	.248**	.079	.341**	.294**	.384**	.247**	.267**

**. p<.01

(2) 부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항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양육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부정적 양육행동 측정을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한다', '나를 심하

게 때릴 때가 많다', '내가 잘못 했을 때 체벌을 가 한다',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 한다',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등 총 7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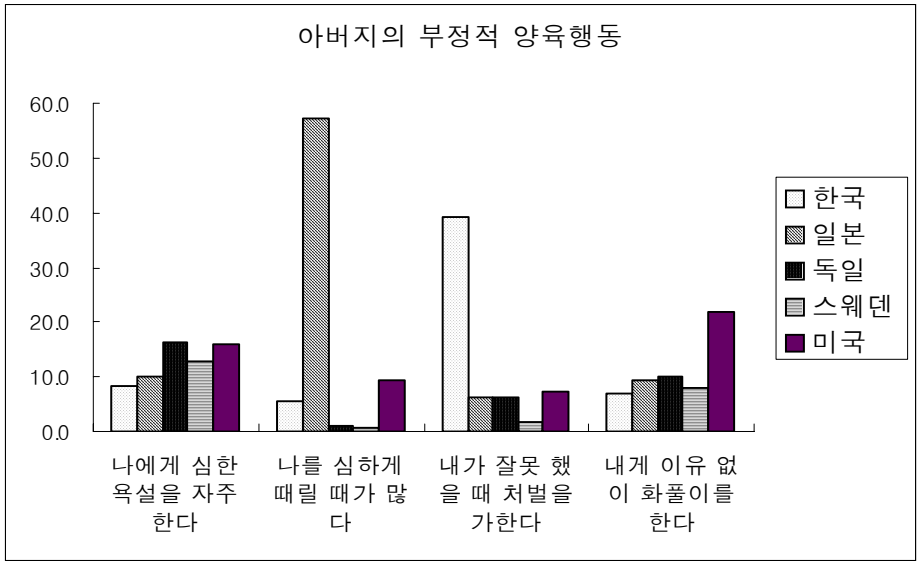
우선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8.3%, 어머니 7.1%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10.0%, 어머니 10.8%로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16.4%, 어머니 21.2%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12.5%, 어머니 7.0%, 미국 아버지 16.0%, 어머니 11.5%로서 심한 욕설을 하는 비율이 한국보다는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스웨덴과 미국과 달리 어머니 쪽이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욕설을 자주 한다고 응답하였다.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4.9%, 어머니 4.7%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3.7%, 어머니 2.0%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1.1%, 어머니 1.2%로 매우 낮았으며 스웨덴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미국은 아버지 9.4%, 어머니 7.3%였다.

'내가 잘못 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36.3%, 어머니 4.7%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체벌을 훈육방법의 하나로 보았을 때, 한국가족에서는 아버지가 훈육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1%, 어머니 4.7%로 아버지, 어머니 비율의 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독일은 아버지 6.2%, 어머니 7.2%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1.6%, 어머니 1.9%, 미국은 아버지 7.4%, 어머니 7.8%였다. 한국의 경우, 아버지가 체벌을 가한다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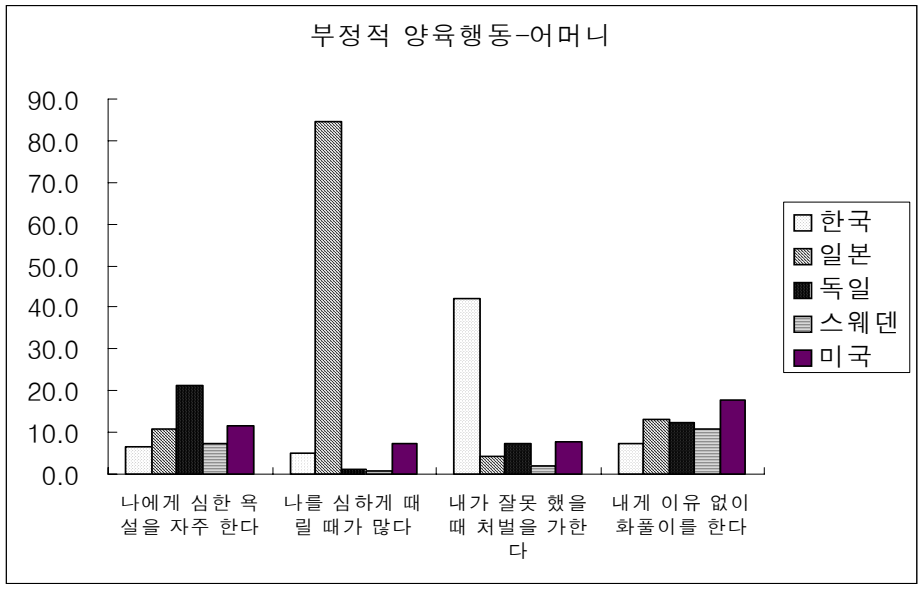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 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8.2%, 어머니 9.4%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들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8.9%, 어머니 13.1%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한국의 경우보다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9.9%, 어머니 12.2%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7.8%, 어머니 10.5%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며 미국은 아버지 21.7%, 어머니 17.8%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해석상의 난점이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5]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 I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6]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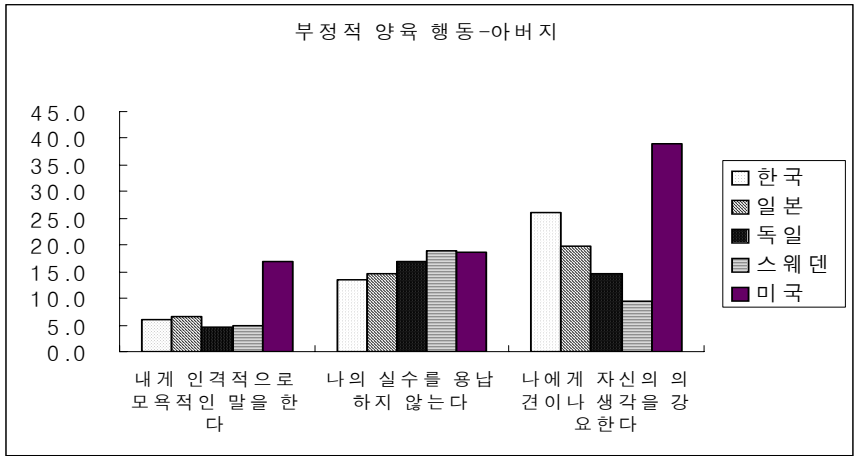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40.6%, 어머니 5.7%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에게 함부로 이야기 하는 쪽은 아버지인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37.2%, 어머니, 5.3%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아버지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4.5%, 어머니 6.5%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4.7%, 어머니 5.2%, 미국은 아버지 16.8%, 어머니 10.6%였다.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들이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13.2%, 어머니, 13.2%로 아버지, 어머니 비율이 동일하였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14.7%, 어머니 16.0%여서 근소하게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16.9%, 어머니 17.4%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18.1%, 어머니 19.8%로서 아버지, 어머니

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으며 미국 또한 아버지 18.6%, 어머니 15.0%였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부모 모두 자녀의 실수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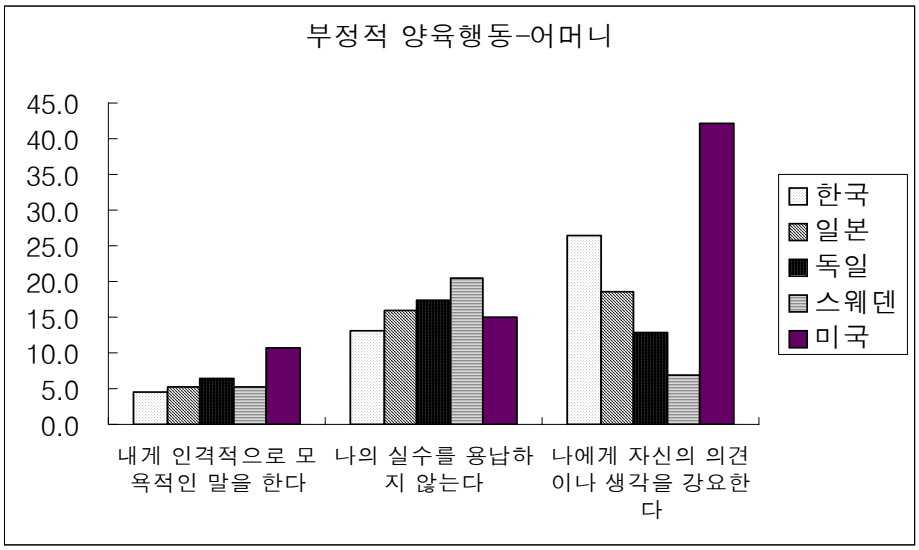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28.7%, 어머니 26.2%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19.8%, 어머니 28.6%로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와 반대되어서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아버지 14.7%, 어머니 12.8%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9.1%, 어머니 6.6%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는 비율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미국은 아버지 39.1%, 어머니 42.2%로 일본과 같이 어머니의 비율이 아버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비교해 볼 때, '어머니는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미국 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높았다. 이것이 미국 가족의 모자관계에서 부정적 양육태도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7]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II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8]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Ⅱ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서로 상관성이 높은가를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부정적 양육행동 변수들 중 '아버지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어머니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라는 문항을 선택하여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Ⅳ-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웨덴 가족에서는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와 '어머니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라는 문항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조사 대상국들에서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이유없이 화풀이를 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어머니에게서도 긍정적 양육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환

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0>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아버지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아버지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아버지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아버지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아버지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어머니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275**	.181**	.294**	.200**	.569**	.318**	.534**	.081	.451**	.328**
어머니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200**	.266**	.167**	.187**	.296**	.515**	.159**	.461**	.340**	.467**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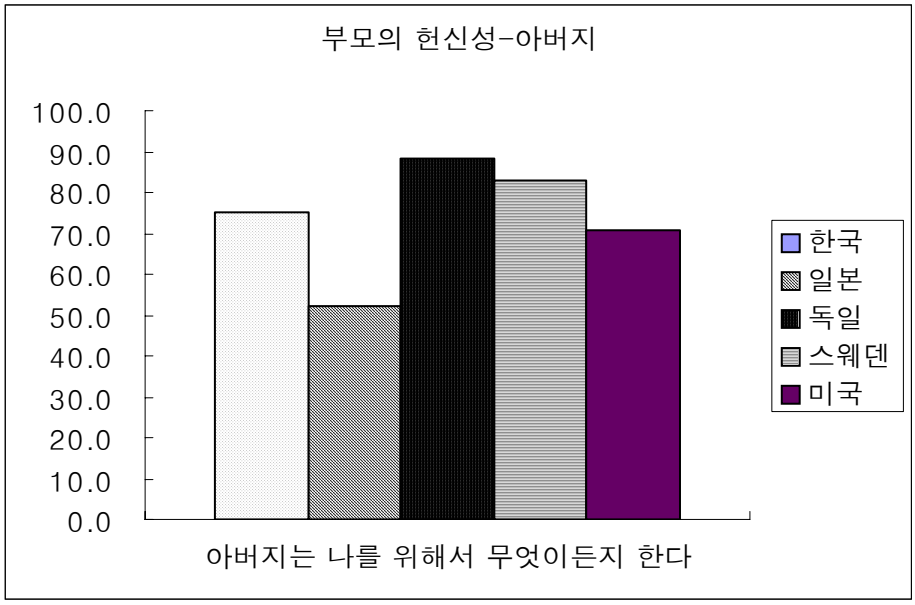
(3) 부모의 헌신적 양육행동

부모자녀 사이에 대한 관계에 있어 부모의 헌신성은 부모의 양육의 의무이자, 부모로서의 권위 획득을 정당화 하는 기제이다. 부모의 헌신성은 부모에 대해 자녀가 갖게 되는 신뢰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의 헌신성을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우선 아버지의 헌신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75.3%, 일본 52.4%, 독일 88.1%, 스웨덴 82.7%, 미국 70.7%였다. 어머니의 헌신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한국의 경우 78.4%, 일본 59.1%, 독일 92.9%, 스웨덴 86.0%, 미국 92.2%였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대상 5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성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일본 청소년이 어머니의 헌신성을 가장 낮게, 독일 청소년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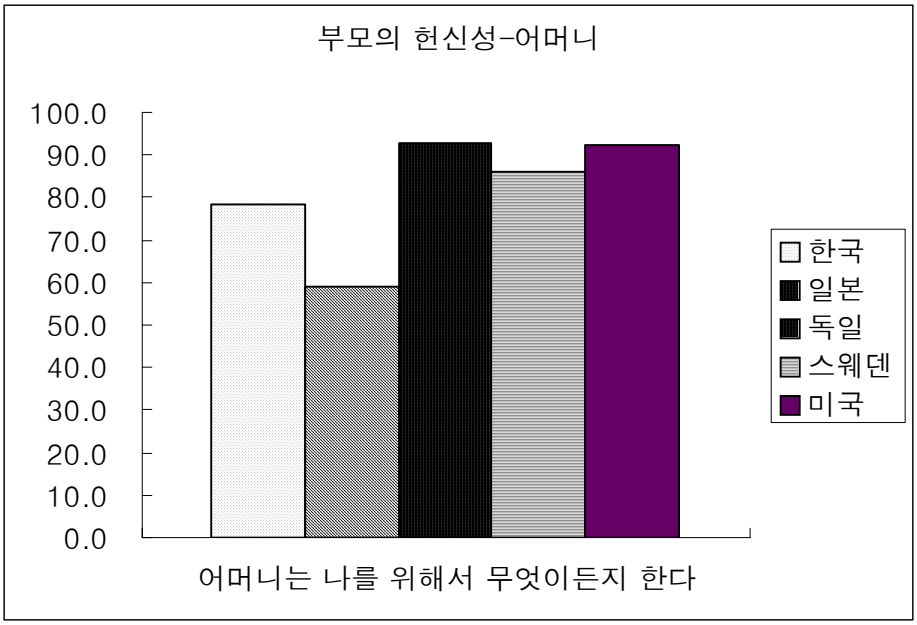
다.

한국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헌신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 헌신성에 대한 평가는 독일, 스웨덴, 미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한국의 부모가 다른 조사 대상국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덜 헌신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청소년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바라는 바가 커서 부모들의 헌신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9] 아버지의 헌신성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0] 어머니의 헌신성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1) 의사소통 방식

①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방식

부모와 자녀간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수단은 상호의사소통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가족내 사회화의 주요 기제이자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의 척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즉,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며,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부모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지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먼저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하여 부부(즉, 자녀의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방식

을 조사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선 '서로의 입장을 듣고 냉정히 이야기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8.2%, 일본 5.3%, 독일 76.3%, 스웨덴은 73.2%이다[4]. 한국은 독일과 스웨덴에 비해서는 냉정히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매우 떨어졌으나 일본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가족 내에서는 부부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았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36.4%, 일본 8.6%, 독일 34.4%, 스웨덴 35.8%였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비율이 한국의 경우 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 8.6%로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서로 말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4.8%, 일본이 8.9%, 독일 15.6%, 스웨덴 10.7%였다. 독일의 경우 이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본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8.5%, 일본이 6.9%, 독일 32.2 %, 스웨덴 33.1%였다. 어머니가 아버지 의견에 따르는 식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한국의 경우가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의견에 따른다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기타 조사 대상 국가들과 대조된다.

'아버지가 어머니 의견에 따른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42.6%,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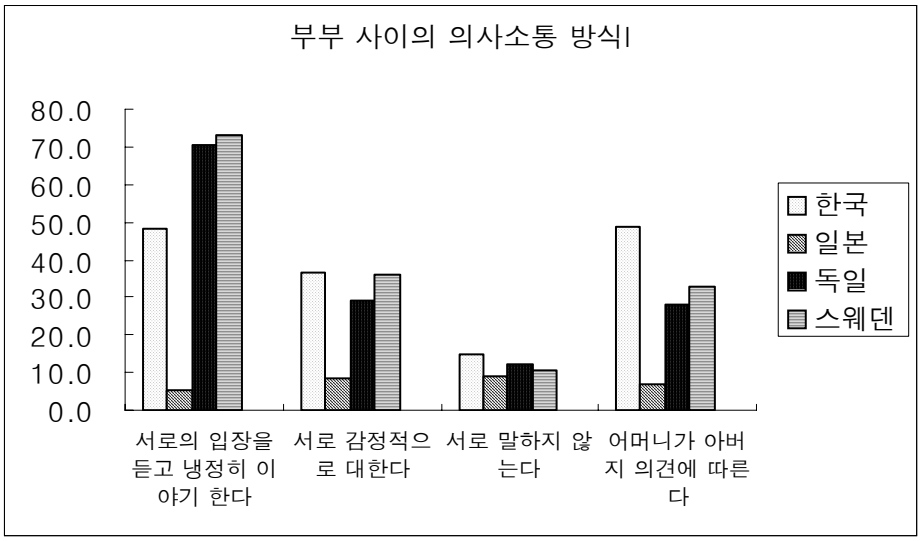
4)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미국조사는 인터넷 설문지 변환시 각 하부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묻지 않고 하부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구성되어 비교하지 않았다.

49.1%, 독일 35.8%, 스웨덴 41.2%였다. '아버지가 어머니 의견에 따른다'는 위의 항목과는 달리 한국의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어느 한쪽이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16.2%, 일본 37.8%, 독일 37.3%, 스웨덴 11.9%였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한국이나 스웨덴보다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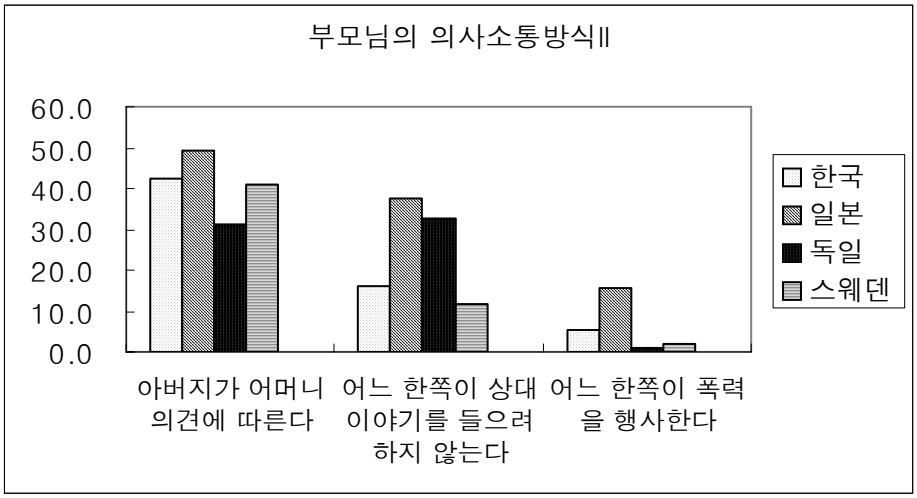
'어느 한쪽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2%, 일본이 15.4%로 나타났다. 독일은 1.4%, 스웨덴은 2.1%였다. 폭력을 사용하여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낮았으나 독일, 스웨덴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가족의 경우 폭력을 행사한다는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의 경우 부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기타 조사 대상 국가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라는 항목에 대한 일본조사대상자의 긍정적 비율은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부부관계의 표출방식에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느 한쪽이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의 결과와 상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가족에서는 부부사이 갈등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자제하지만, 갈등이 증폭될 때는 폭력행사로 쉽게 전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1]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방식I (미국제외)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2]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방식II (미국제외)

②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청소년들은 아버지-어머니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관찰·학습하여, 부모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또한 부모자녀사이의 의사소통은 각 나라의 가치관, 사회·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각 국가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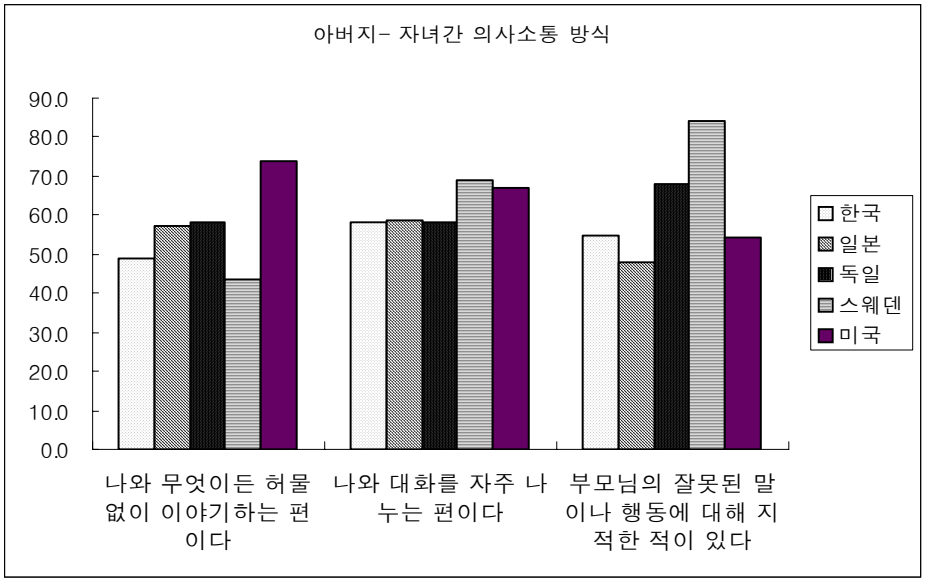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44.8%, 어머니 68.1%로 어머니의 비율이 뚜렷이 높았다. 자녀들과 어머니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아버지 57.1%, 어머니 84.6%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아버지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58.2%, 어머니 76.4%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독일 아버지의 경우는 한국 아버지보다 자녀와 허물없는 대화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스웨덴은 아버지 41.8%, 어머니 60.1%로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가 컸으며, 어머니가 자녀들과 보다 허물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버지 73.8%, 어머니 94.0%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며 5개국 중 어머니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52.3%, 어머니 80.2%로 어머니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자녀들과 어머니 사이에 의사소통 빈도가 아버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58.7%, 어머니, 88.3%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58.1%, 어머니 76.7%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스웨덴은 아버지 66.3%, 어머니 83.5%였다. 미국은 아버지 67.0%, 어머니 92.1%로서, 스웨덴과 미국 아버지의 경우는 한국 아버지보다 잦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63.9%, 어머니 47.9%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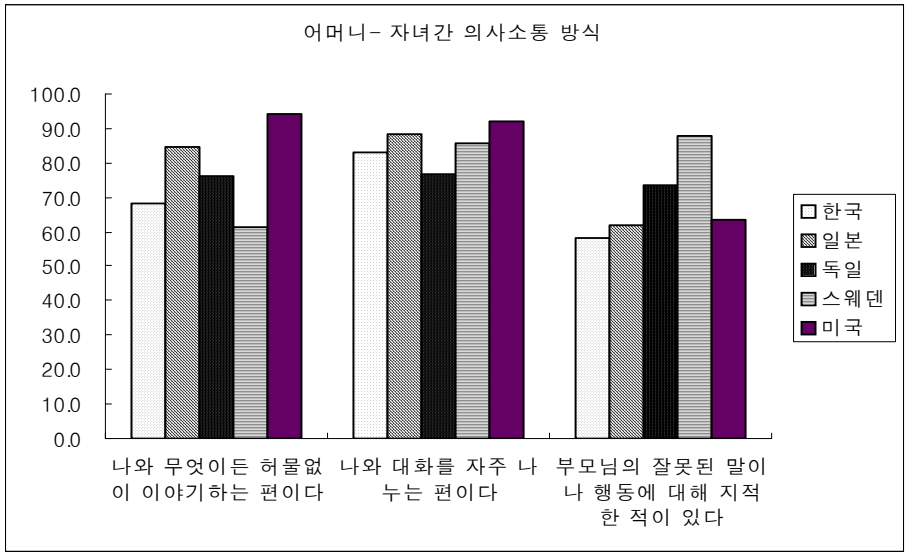
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57.8%, 어머니 62.0%여서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67.9%, 어머니 73.5%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80.2%, 어머니 84.6%, 미국은 아버지 54.4%, 어머니 63.4%였다. 독일과 스웨덴 가족에서는 아버지/어머니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비율이 한국, 일본, 미국보다 높았다.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회에 비해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비록 개인주의적 문화권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비동질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독일과 스웨덴과 차이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종합해보면,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긍정적이고, 대부분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대화를 자주하는 등 개방적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3]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방식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4]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방식

(2) 의사소통 내용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한국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 어머니가 1, 2순위로 친구가 약간 높았으며 일본 청소년들은 친구가 1순위였다. 독일 청소년들은 어머니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고 스웨덴 청소년들은 어머니와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공동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부모와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 것이다.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담했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17.2%, 어머니, 35.5%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4.5%, 어머니, 41.9%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18.2%, 어머니 35.2%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58%, 어머니 66.7%였다. 또한 미국은 아버지 25.6%, 어머니 62.1%로 나타났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도 역시 어머니 비율이 높았다. 스웨덴의 경우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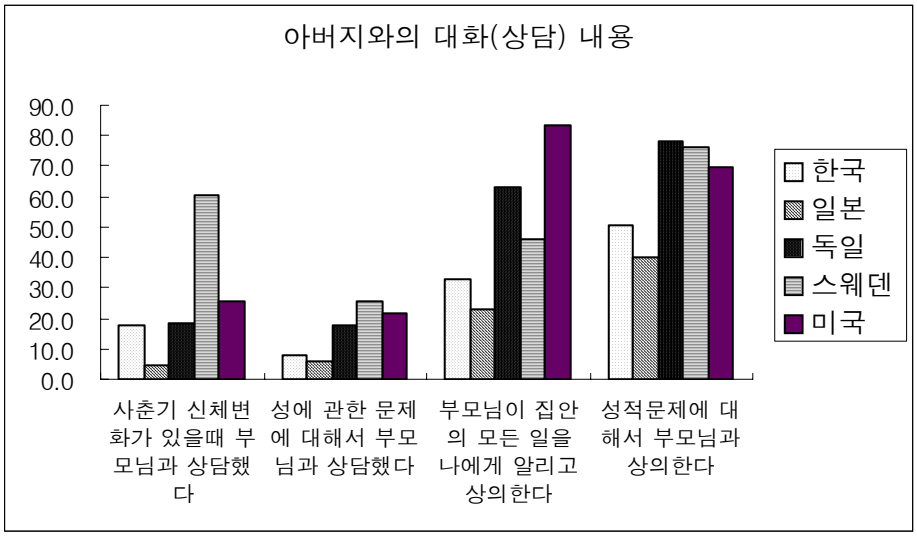
상담했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58%),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대조를 보였다.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9.3%, 어머니 20.6%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아버지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1%, 어머니 25.3%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17.7%, 어머니 29.5%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24.3%, 44.4%, 미국은 아버지 21.6%, 어머니 51.3%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스웨덴의 경우 어머니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비율이 44.4%로 매우 높았다. 또한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4.3%로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높은 것을 관찰 할 수 있어서 스웨덴 가족이 성문제에 관해 개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32.2%, 어머니 22.7%여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40.8%, 어머니 37.7%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62.8%, 어머니 74.2%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44%, 어머니 51.6%, 미국은 아버지 61.1%, 어머니 83.4%로서 독일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상의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 비교를 해보았을 때, 집안일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버지에 있는 반면, 독일과 스웨덴 가족에서는 어머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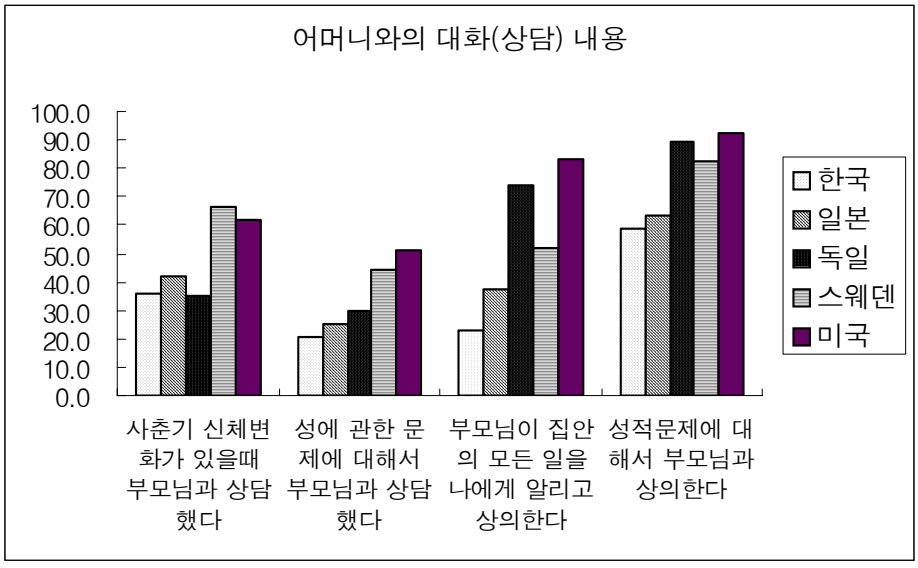
'성적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어머니와 상의 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57.6%, 어머니 59.0%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는 아버지가 다른 문제보다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55.6%, 어머니 63.4%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78.2%, 어머니 89.6%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73.2%, 어머니 82.8%, 미국은 아버지 69.9%, 어머니 92.4%였

다.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가족 모두에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15] 아버지와의 대화내용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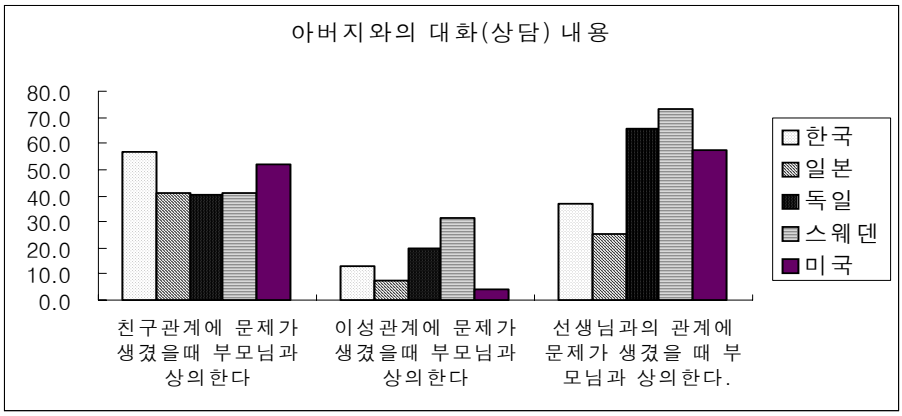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16] 어머니와의 대화내용 I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 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57.0%, 어머니 39.2%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41.2%, 어머니 44.2%여서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40.4%, 어머니 58.5%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40.1%, 어머니 58.2%, 미국은 아버지 51.7%, 어머니 86.0%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에서도 교우관계 문제를 주로 어머니와 상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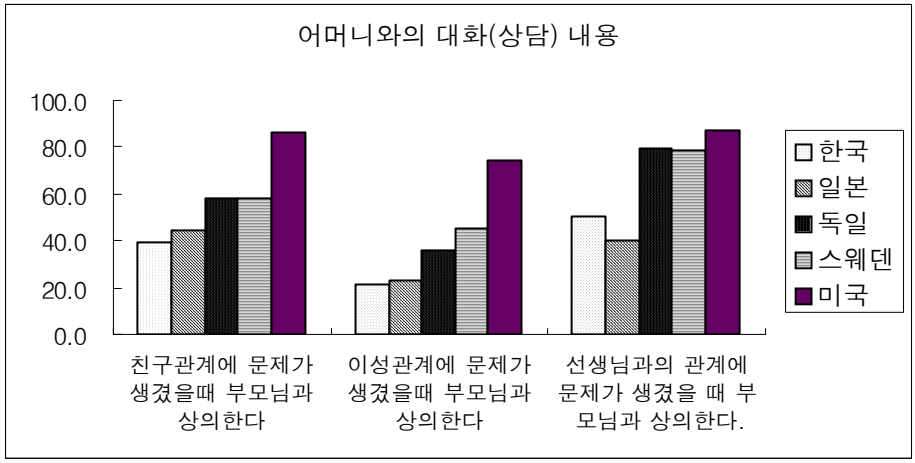
‘이성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 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13.2%, 어머니 21.3%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본 조사 결과 이성간의 문제, 성문제 등은 어머니와 이야기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7.5%, 어머니 23.3%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20.0%, 어머니 35.6%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30%, 어머니 44.9%, 미국은 아버지 41.2%, 어머니 74.1%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에서도 이성 관계 문제를 주로 어머니와 상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와 이성 관계 문제를 상의하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 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37.1%, 어머니 50.7%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에 가서 교사를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이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25.6%, 어머니 40.3%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65.4%, 어머니 79.1%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70.2%, 어머니 79%, 미국은 아버지 57.4%, 어머니 87.6%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나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사이의 차이가 한국처럼 크지 않았다. 즉 독일과 스웨덴 가족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어머니와 상의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도 상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7] 아버지와의 대화내용 II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18] 어머니와의 대화내용 II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관련 각국 비교

①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하는 말 /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을 각 나라 별로 정리하여 부모자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되는 대화를 비교함으로 각 국가의 가족에서 부모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성향을 살펴 볼 수 있다.

한국가족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1순위는 ‘공부해라(1,647명, 44%)’였다. 또한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12.6%)’, ‘절약해라(3.2%)’, ‘부지런해라(10.8%)’도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듣는 말로 나타났다. 일본가족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1순위는 ‘공부해라(30.3%)’였고 2순위는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21.5%)’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공부해라’가 1순위였으나 ‘공부해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30.3%)은 한국(44%)보다 낮았다. 또한 한국과 달리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가 2순위인 것은 일본사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결과이다. 독일가족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1순위는 역시 ‘공부해라(34.0%)’였다. 또한 ‘부지런해라(18.1%)’,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16.7%)’도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듣는 말로 나타났다. 스웨덴가족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1순위는 ‘공부해라(125명, 24.3%)’이었으나 이 사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부지런해라(61명, 11.9%)’, ‘절약해라(59명, 11.5%)’도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듣는 말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부해라(807명, 43.1%)’가 1순위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하지마라(13.2%)’, ‘절약해라(7.1%)’, ‘부지런해라(6.7%)’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모든 나라에서 ‘공부해라’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그 정도는 미국과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의 2순위 항목을 보면, 한국은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 일본은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독일은 ‘부지런해

라', 스웨덴은 '부지런해라', 미국은 '거짓말 하지마라'로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도덕성이나 근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1> '부모님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각국 비교

자주 듣는 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공부해라	1,647	44.0	148	30.3	169	34.0	125	24.7	807	43.1
컴퓨터게임 하지마라	427	12.6	31	6.3	83	16.7	43	8.5	99	5.3
다른사람과 비교	222	5.9	25	5.1	9	1.8	19	3.8	36	1.9
남에게 폐 끼치지마라	149	4.0	105	21.5	10	2.8	9	1.8	18	1.0
거짓말 하지마라	309	8.2	35	7.2	14	2.0	28	5.5	247	13.2
절약해라	118	3.2	21	4.3	10	18.1	59	11.7	133	7.1
부지런 해라	406	10.8	12	2.5	90	18.9	61	12.1	125	6.7

그렇다면, 청소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무엇일까?

한국가족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1순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1719명, 45.9%)'이었다. 또한 '공부해라(1154명, 30.8%)'도 자녀들이 싫어하는 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가족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1순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191명, 39.1%)'이었고 2순위는 '공부해라(144명, 29.4%)'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과 '공부해라'로 나타났다.

독일가족에서 1순위는 역시 '공부해라'(140명, 28.2%)였다. 또한 이외에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18.5%)', '남과 비교하는 말(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과 달리 '부지런해라(41명, 9.9%)'도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가족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해라(150명, 40.1%)',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57명, 11.4%)', '남과 비교하는 말(120명,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독일과 달리 '절약해라(37명, 7.2%)'도 스웨덴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 각국 비교

자주 듣는 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부해라	1,154	30.8	114	29.4	140	28.2	150	40.1	326	17.4
컴퓨터게임 하지마라	349	9.3	28	5.7	92	18.5	57	11.4	353	18.8
다른사람과 비교	1,719	45.9	191	39.1	67	13.5	120	24.1	621	33.1
남에게 폐 끼지지마라	29	0.8	10	2.0	12	2.4	11	2.2	71	3.8
거짓말 하지마라	59	1.6	5	1.0	12	2.4	3	0.6	76	4.1
절약해라	25	0.7	13	2.7	14	2.8	37	7.4	186	9.9
부지런 해라	64	1.7	14	2.9	46	9.3	17	3.4	71	3.8

미국의 가족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621명, 33.1%)'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18.8%)', '공부해라(17.4%)'로 나타났다. 상위 조사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자주 하는

말'로 '공부해라'가 1위였으나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3순위였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주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상관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이 두 항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가족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3> 상관분석: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 - 각국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부모님이 하는 말 중 듣기 싫은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중 듣기 싫은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중 듣기 싫은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중 듣기 싫은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중 듣기 싫은 말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	.324**	.377**	.448**	.409**	.184**

**. p<.01

②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 각국 비교

최근 한국에서는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노동력 참가, 사회인식의 변화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각국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자녀의 성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 사이 나누는 대화(상담)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를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한국표본에서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교우관계' '이성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는 항

목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 모든 항목에서 딸의 경우 아버지와 상의한다는 비율이 아들보다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가족에서는 아버지-아들보다는 아버지-딸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Ⅳ-24>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차이(한국)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남	1.75	0.848	0.187	0.666
	여	1.78	0.869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남	1.51	0.728	0.991	0.320
	여	1.47	0.726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남	2.08	0.831	29.830	0.000
	여	2.20	0.887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36	1.021	0.798	0.372
	여	2.47	1.036		
교우관계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1.97	0.889	4.017	0.045
	여	2.03	0.943		
이성관계로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1.60	0.769	9.843	0.002
	여	1.68	0.833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08	0.946	47.245	0.000
	여	2.25	1.024		

<표 Ⅳ-25>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일본)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남	1.86	1.940	0.586	0.444
	여	1.88	2.123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남	1.81	1.896	0.787	0.375
	여	1.85	2.086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남	2.41	1.938	0.322	0.571
	여	2.47	2.045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61	1.824	1.286	0.257
	여	2.79	1.977		
교우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09	1.885	1.734	0.189
	여	2.26	2.066		
이성관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1.84	1.885	2.735	0.099
	여	2.02	2.174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남	2.18	1.899	1.828	0.177
	여	2.48	2.026		

일본 표본에서는 한국의 표본과는 달리 어느 항목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가족에서는 아버지-자녀 사이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표본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가족에서는 아버지-자녀 사이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6>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독일)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남	1.83	0.901	0.057	0.811
	여	1.70	0.839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남	1.75	0.904	2.617	0.107
	여	1.56	0.826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남	2.79	0.981	0.006	0.939
	여	2.80	0.97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3.16	0.851	0.582	0.446
	여	3.20	0.809		
교우관계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09	0.966	2.172	0.141
	여	2.53	0.983		
이성관계로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1.75	0.924	0.301	0.583
	여	1.79	0.978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84	0.950	1.095	0.296
	여	2.98	0.962		

스웨덴 표본에서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성적 문제' '교우관계', '이성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는 항목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Ⅳ-27>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스웨덴)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남	2.58	0.823	0.466	0.495
	여	2.67	0.873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남	2.10	0.821	0.029	0.864
	여	1.87	0.802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남	2.45	0.677	6.848	0.009
	여	2.46	0.790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95	0.660	14.991	0.000
	여	2.90	0.825		
교우관계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30	0.774	16.390	0.000
	여	2.44	0.936		
이성관계로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14	0.734	16.837	0.000
	여	2.21	0.923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87	0.766	3.795	0.052
	여	2.93	0.896		

미국 표본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두 항목은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와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이다. 이들 항목을 보면, 아들이 딸들보다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 빈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미국)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남	2.10	1.046	59.308	.000
	여	1.53	.877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남	1.99	1.045	80.690	.000
	여	1.46	.821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남	2.70	.026	1.678	.195
	여	2.63	1.036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89	1.039	.069	.793
	여	2.94	1.053		
교우관계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51	1.024	1.096	.295
	여	2.48	1.046		
이성관계로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26	1.011	2.125	.145
	여	2.23	1.045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60	1.076	3.012	.083
	여	2.63	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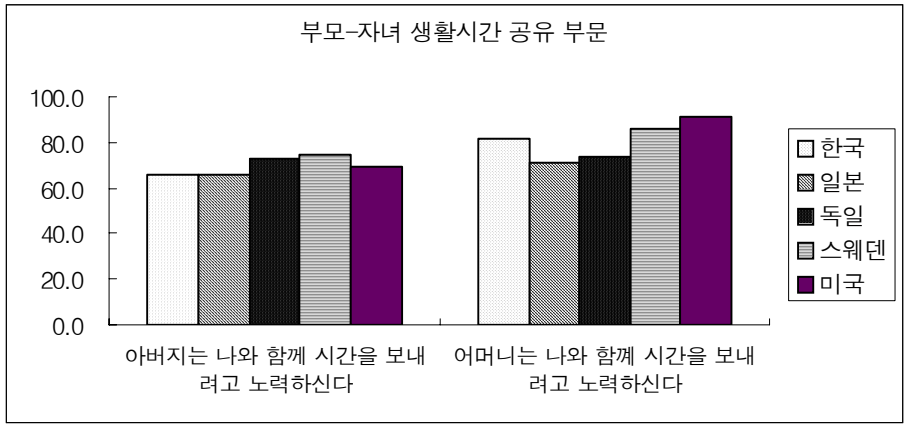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았을 때, 한국과 스웨덴,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스웨덴, 미국은 그 양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영역 모두에서 아버지-딸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아들 사이의 관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가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영역 모두에서 아버지-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딸 사이의 관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 가족은 성적문제에서는 아버지-아들관계, 교우관계와 이성 관계 문제는 아버지-딸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 문항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아버지-자녀사이의 관계 지수 평균 값이 한국보다 높았다. 예를 들어,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스웨덴 아버지-아들사이의 평균값은 2.58, 아버지-딸 사이의 평균 값은 2.67인 반면, 한국 아버지-아들 사이 평균값은 1.75, 아버지-딸 사이 평균값은 1.78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스웨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수

준은 한국보다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3) 부모자녀간 생활시간 공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관계의 질적 발전의 양적 전제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한 공감이 높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폭하여 갈등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65.7%, 어머니 81.9%로 어머니가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아버지 보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5.7%, 어머니 70.9%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가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아버지보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아버지 73.8%, 어머니 87.4%, 스웨덴은 아버지 74.9%, 어머니 85.8%, 미국은 아버지 69.0%, 어머니 90.9%로 한국 부모들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Ⅵ-19] 부모-자녀간 생활시간 공유

스포츠 등 야외활동, 여행, 음악회(영화, 박물관 등)관람, TV시청에 대한 부모-자녀 간 공유시간을 조사하였다. 척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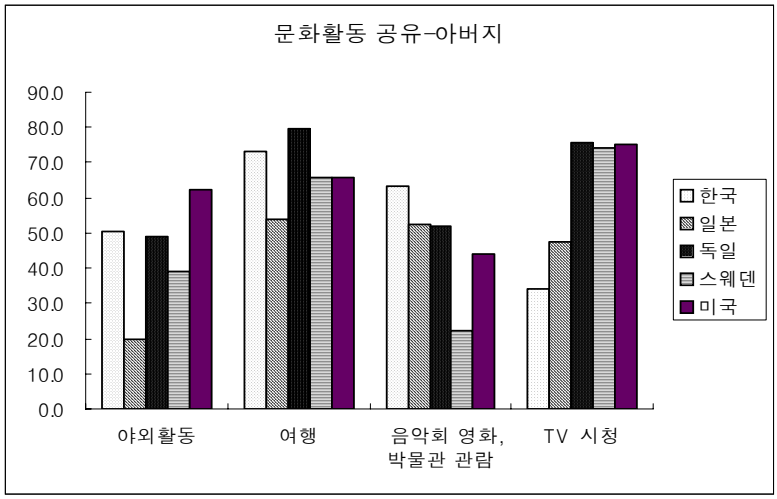
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 '한다'('가끔씩' 또는 '자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4%였고, 어머니와는 50.5%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아버지와는 19.7%였고, 어머니와는 16.1%여서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독일은 아버지와는 49.2%였고, 어머니와는 32.5%였다. 독일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에 참여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웨덴은 아버지와는 39.3%였고, 어머니와는 24.9%로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미국은 아버지와는 62.6%, 어머니와는 61.1%로 한국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에 참여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행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2%였고, 어머니와는 65.9%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아버지와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일본의 경우 아버지와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4.1%였고, 어머니와는 61.3%여서 어머니와 여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와는 80.1%였고, 어머니와는 86.1%로. 한국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여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스웨덴은 아버지와는 65.2%였고, 어머니와는 66.3%여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미국은 아버지와는 65.7%, 어머니와는 80.3%로 미국의 경우 어머니와의 여행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음악회(영화, 박물관 등) 관람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였고, 어머니와는 44.3%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아버지와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4%였고, 어머니와는 47.2%였는데,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문화생활을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독일은 아버지와는 52.0%였고, 어머니

와는 59.1%로, 어머니와 함께 문화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한국에 비해 아버지와 관람하는 비율은 높았다. 스웨덴은 아버지와는 22.4%였고, 어머니와는 28.9%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어머니와 문화생활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버지와는 44,2%, 어머니와는 62.9%로 어머니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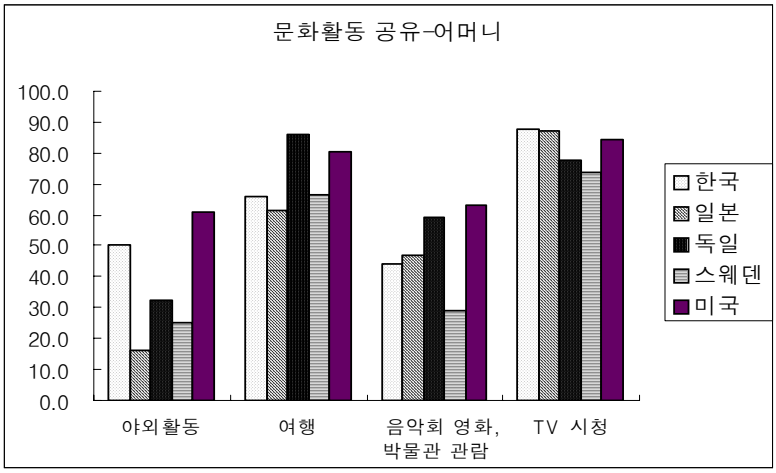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0] 아버지와의 문화활동 공유

'TV 시청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 '가끔씩' 또는 '자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4.3%였고, 어머니와는 87.5%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늦은 귀가로 인하여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TV 시청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버지와 '가끔씩' 또는 '자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7.7%였고, 어머니와는 86.9%여서 일본 역시 어머니와 TV 시청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와는 75.5%였고, 어머니와는 77.5%로서 어머니, 아버지 사이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웨덴은 아버지와는 74.1%였고, 어머니와는 73.9%여서 아버지와 함

께 TV를 시청하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은 아버지와는 75.2%, 어머니와는 84.5%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어머니, 아버지 사이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1] 어머니와의 문화활동 공유

4) 부모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모·자녀 사이의 친밀감을 분석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83.3%, 어머니 87.6%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보다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82.0%, 어머니 89.6%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보다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아버지 94.7%, 어머니 95.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스웨덴은 아버지 74.1%, 어머니 86.6%, 미국은 아버지 77.4%, 어머니 92.2%로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아버지보

다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74.4%, 어머니 76.1%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신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4.6%, 어머니 80.2%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한국에 비해 컸다. 독일은 아버지 79.1%, 어머니 87.3%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 어머니 수준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웨덴은 아버지 70.8%, 어머니 79.6%로, 역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 어머니 수준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스웨덴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은 아버지 61.5%, 어머니 85.8%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나 한국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 준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40.6%, 어머니 65.9%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상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37.2%, 어머니 67.8%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한국보다 컸다. 독일은 아버지 66.7%, 어머니 82.3%로 어머니가 주로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아버지 68.3%, 어머니 85.0%, 미국은 아버지 72.6%, 어머니 93.8%로 역시 어머니가 주로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비해 서구 국가들의 경우 부모와 고민 상담을 이야기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1.5%, 어머니 71.7%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가 자녀의 능력에 대해 아버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57.5%, 어머니, 68.7%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81.4%, 어머니 86.2%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81.3%, 어머니 86.8%, 미국은 아버지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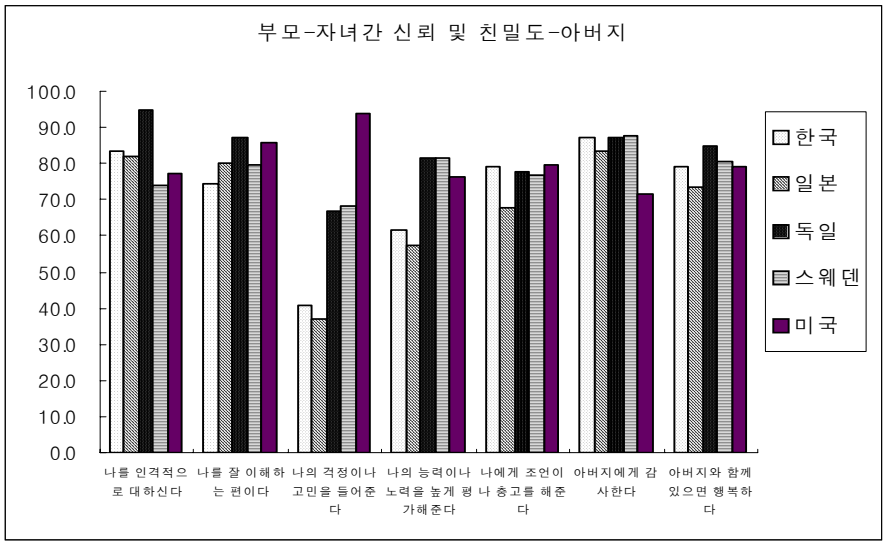
어머니 93.5%로 독일과 스웨덴 미국 모두 한국, 일본과 비교할 때 자녀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준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79.1%, 어머니 81.7%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7.6%, 어머니 82.3%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은데, 그 차이가 한국의 경우보다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77.6 %, 어머니 86.5%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76.8%, 어머니 87.5%, 미국은 아버지 79.6%, 어머니 95.5%였다. 독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도 역시 어머니가 조언과 충고를 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아버지가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는 비율이 기타 조사 대상국에 비해 낮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감사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87.3%, 어머니 90.3%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나, 87.3%, 90.3%라는 높은 비율로 보아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83.2%, 어머니 90.0%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87.1%, 어머니 93.8%, 스웨덴은 아버지 87.7%, 어머니 90.1%, 미국은 아버지 71.8%, 어머니 88.6%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가족에서도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며, 높은 비율로 보아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 볼 때 5개국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접촉이 더 잦은 것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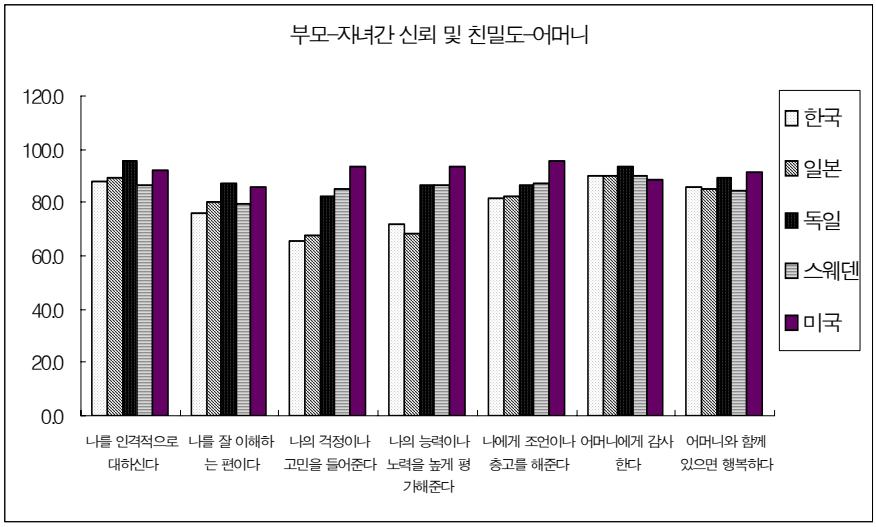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79.2%, 어머니 85.8%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73.4%, 어머니 84.9%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85.0%, 어머니 89.0%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80.4%, 어머니 84.6, 미국은 아버지 79.1%, 어머니 91.3%로 어머니의 비율이 아버지보다 높았다. 각국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비율에 있어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2] 아버지와 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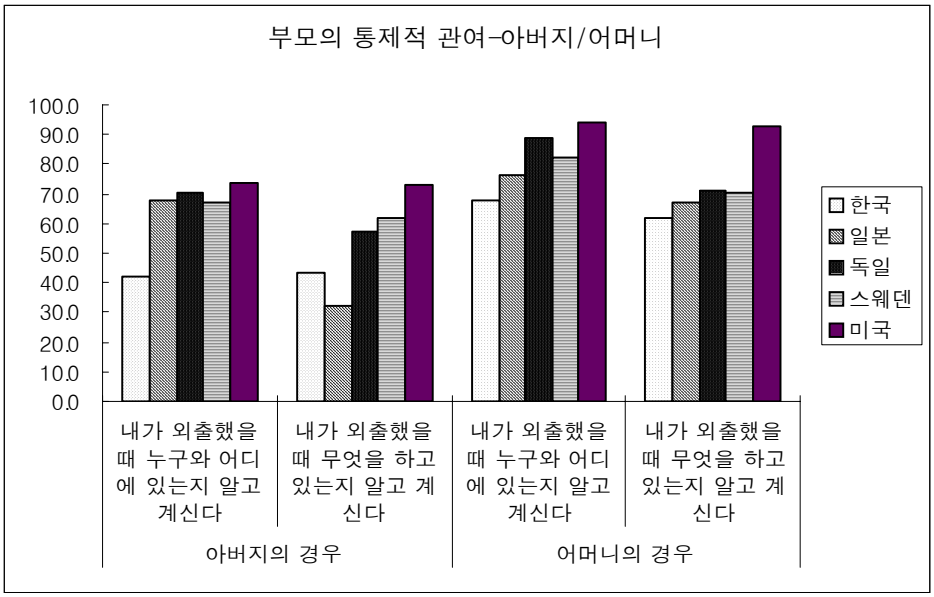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4] 어머니와 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5) 부모의 통제적 관여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43.4%, 어머니 67.8%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자녀가 집에 부재할 때 어디에 있을지를 알고, 감독하는 것은 어머니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7.8%, 어머니 76.1%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아버지 70.3%, 어머니 89.0%, 스웨덴은 아버지 67.1%, 어머니 82.5%, 미국은 아버지 73.9%, 어머니 93.9%로 나타났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의 가족에서도 자녀가 집에 부재할 때 어디에 있을지를 알고, 감독하는 것은 어머니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의 경우 아버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외출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43.4%, 어머니 62%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집에 부재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감독하는 것은 어머니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32.3%, 어머니 67.2%여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한국보다 더 크다. 일본에서 자녀의 주된 감독자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아버지 57.1%, 어머니 71.2%, 스웨덴은 아버지 61.7%, 어머니 70.6%, 스웨덴은 아버지 72.9%, 어머니 92.5%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의 가족에서도 자녀가 집에 부재할 때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감독하는 것은 어머니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서 서구국가들의 아버지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5] 부모의 통제적 관여

6) 부모의 관심과 기대

(1) 부모의 관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어머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가. 공부에 대한 관심

공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아버지 84.3%, 어머니 92.2%로 어머니가 자녀의 공부에 대해 아버지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4.3%, 92.2%라는 높은 비율로 보아,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의 공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아버지 59.5%, 어머니 83.2%여서 어머니의 관심도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독일은 아버지 69.3%, 어머니 82.4%였다. 스웨덴은 아버지 79.2%, 어머니 89.1%, 미국은 아버지 89.9%, 어머니 97.6%로, 역시 어머니 쪽이 자녀의 공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에 대한 관심은 한국과 미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나.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아버지 56.5%, 어머니 84.3%였으며 어머니의 관심도가 높았다. '공부'에 대한 관심에 비해 아버지의 관심도가 매우 낮게 나온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는 아버지 42.3%, 어머니 76.9%여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친구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아버지 59.9%, 어머니 78.9%였다. 또한 스웨덴은 아버지 69.6%, 어머니 85.4%, 미국은 아버지 83.2%, 어머니 97.0%로서 역시 어머니 쪽이 자녀의 친구관계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과 스웨덴 부모의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수준은 한국의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다. 이성 관계에 대한 관심

이성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아버지 42.1%, 어머니 59.4%여서 어머니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아버지 23.9%, 어머니 46.3%여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이성 관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은 아버지 42.8%, 어머

니 58.0%, 스웨덴은 아버지 62.8%, 어머니 77.4%, 미국은 아버지 81.5%, 어머니 95.7%였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도 역시 어머니 쪽이 자녀의 친구관계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웨덴 부모의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수준은 한국의 부모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어머니의 자녀의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은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라. 여가·취미생활에 대한 관심

여가·취미생활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아버지 57.0%, 어머니 91.1%여서 어머니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일본의 경우도 아버지 45.6%, 어머니 87.9%여서 어머니가 자녀의 여가·취미 생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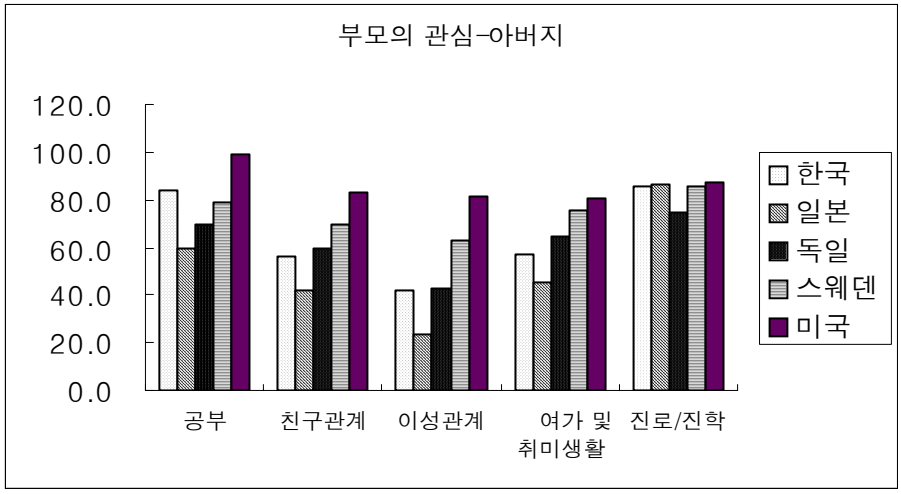
독일은 아버지 64.5%, 어머니 73.4%였다. 스웨덴은 아버지 75.3%, 어머니 81.3%, 미국은 아버지 80.7%, 어머니 93.9%였다. 스웨덴 가족의 경우 어머니뿐 만아니라 아버지도 자녀의 여가·취미생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여가 및 취미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 향후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관심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아버지 85.6%, 어머니 91.1%로,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해 아버지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5.6 %, 91.1%라는 높은 비율로 보아,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아버지 86.2%, 어머니 87.9%였다. 한국, 일본 모두 양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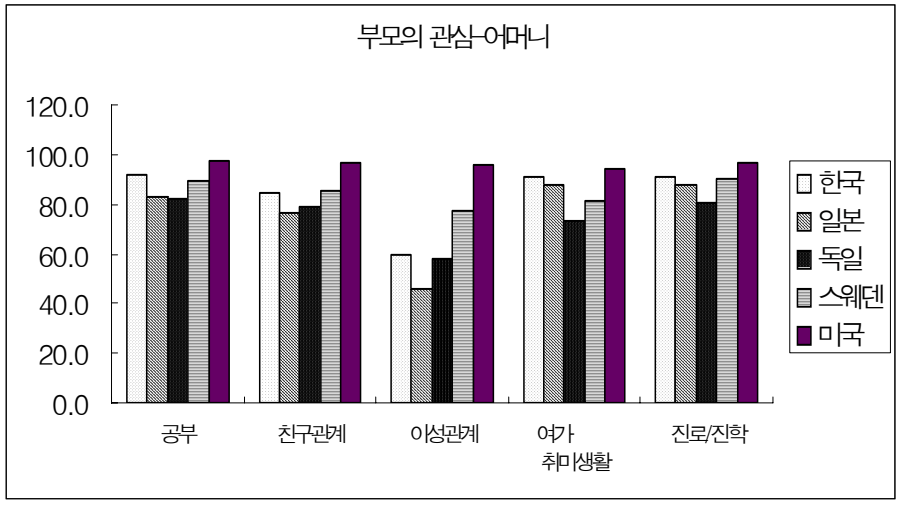
독일은 아버지 75.1%, 어머니 80.5%, 스웨덴은 아버지 85.9%, 어머니 89.9%, 미국은 아버지 87.4%, 어머니 97.0%로 독일과 스웨덴, 미국 가족에서도 역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향후 진로 및 진학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6] 아버지의 관심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7] 어머니의 관심

이를 종합해볼 때,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의 문화나 사회 가치관과는 별도로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자녀들에 대한 관심 영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공부, 진로·진학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영역에는 관심이 높은 반면, 자녀의 이성관계나 여가·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뿐 아니라 자녀의 여가·취미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은 기타 다른 영역에 비해 자녀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낮은 관심도를 보였는데, 스웨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공부, 친구관계, 이성관계, 여가·취미생활, 진로·진학에 비슷한 수준의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 해당한다.

(2) 부모의 기대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를 기타 조사 대상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 9가지의 보기(학업성취, 장래 직업, 사회적 성공, 좋은 대학 진학, 자립심 형성, 인간적 성숙, 건강, 행복)를 주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다음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1, 2위 순위에 대한 결과이다. 한국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기대는 건강과 학업성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독일, 스웨덴의 경우는 행복과 건강이었다. 미국은 학업성취와 자녀들의 행복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아버지는 비교 대상국에 비하여 자신의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1·2순위 기대 (복수응답)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학업성취	1,241	20.3	60	6.7	69	9.3	97	10.2	814	22.2
장래직업	895	14.6	86	9.6	65	8.7	107	11.3	524	14.3
사회적 성공	589	9.6	70	7.8	41	5.5	118	12.4	49	1.3
좋은 대학	806	13.2	54	6.0	45	6.1	37	3.9	36	1.0
자립심	233	3.8	98	10.9	36	4.8	94	9.9	538	14.7
인간적 성숙	508	8.3	108	12.0	43	5.8	54	5.7	222	6.1
건강	1,316	21.5	204	22.7	207	27.9	127	13.4	652	17.8
행복	432	7.1	209	23.2	226	30.4	288	30.3	774	21.1
결혼	99	1.6	10	1.1	11	1.5	29	3.0	58	1.6
전체	6,120	100.0	899	100.0	743	100.0	951	100.0	3667	100.0

다음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1·2위 순위에 대한 결과이다.

한국 경우,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기대는 건강과 학업성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아버지의 기대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머니들은 비교 대상국에 비하여 자신의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행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는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스웨덴과 미국 부모들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1·2순위 기대(복수응답)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업성취	1,303	21.0	58	6.2	61	7.9	88	9.1	674	18.0
장래직업	901	14.6	76	8.1	42	5.4	68	7.0	328	8.8
사회적 성공	574	9.3	55	5.8	32	4.1	93	9.6	46	1.2
좋은 대학	857	13.8	54	5.7	45	5.8	32	3.3	23	.6
자립심	169	2.7	99	10.5	34	4.4	96	9.9	445	11.9
인간적 성숙	374	6.0	104	11.0	51	6.6	43	4.5	208	5.6
건강	1,373	22.2	236	25.1	239	30.8	158	16.4	846	22.6
행목	482	7.8	250	26.5	252	32.5	336	34.8	1073	28.7
결혼	159	2.6	10	1.1	19	2.5	51	5.3	95	2.5
전체	6,191	100.0	942	100.0	775	100.0	965	100.0	3778	100.0

① 아버지/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 비교

다음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자신에 대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님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78.5%, 어머니는 86.1%이었으며 일본은 아버지 53.0%, 어머니 66.3%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69.9%, 어머니 74.2%, 스웨덴은 아버지 69.7%, 어머니 75.2%, 미국은 아버지 91.4%, 어머니 97.1%로 모든 국가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한 결과이다.

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신의 장래직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묻는 문항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79.2%, 어머니 85.9%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일본은 아버지 52.4%, 어머니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69.3%, 어머니 72.1%, 스웨덴은 아버지 68.8%, 어머니 70.3%, 미국은 아버지 90.9%, 어머니 96.2%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톺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부모의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한 기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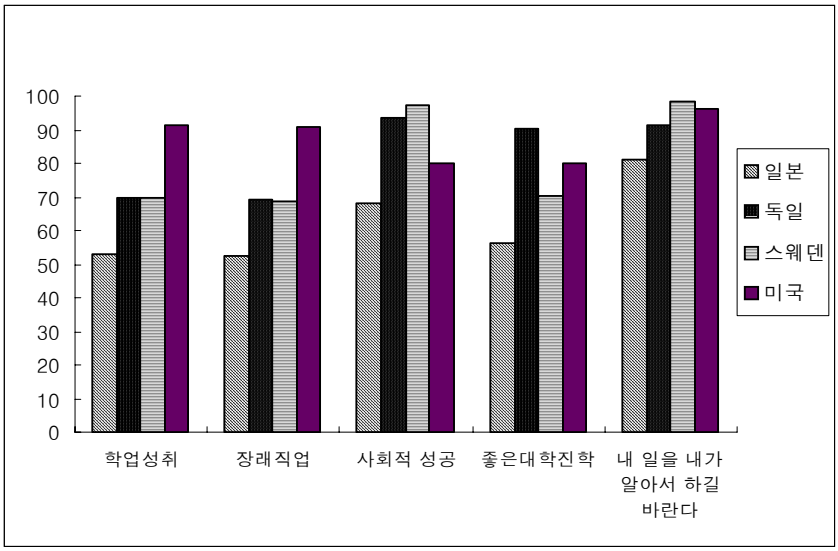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신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 92.8%, 어머니 94.8%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68.1%, 어머니 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90.3%, 어머니 92.1%. 스웨덴은 아버지 97.2%, 어머니 97.6%.로 독일과 스웨덴의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버지 79.8%, 어머니 88.2%로 부모 사이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스웨덴 부모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라. 성공적인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란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91.9%, 어머니 91.1%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56.2%, 어머니 62.4%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90.1%, 어머니 92.1%로 매우 높았으며 스웨덴은 아버지 70.1%, 어머니 72.4%, 미국은 아버지 38.1%, 어머니 44.7%로 나타났다. 일본과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모의 자녀의 진학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예상대로 자녀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또한 각 국가에 있어서 자녀의 성공적인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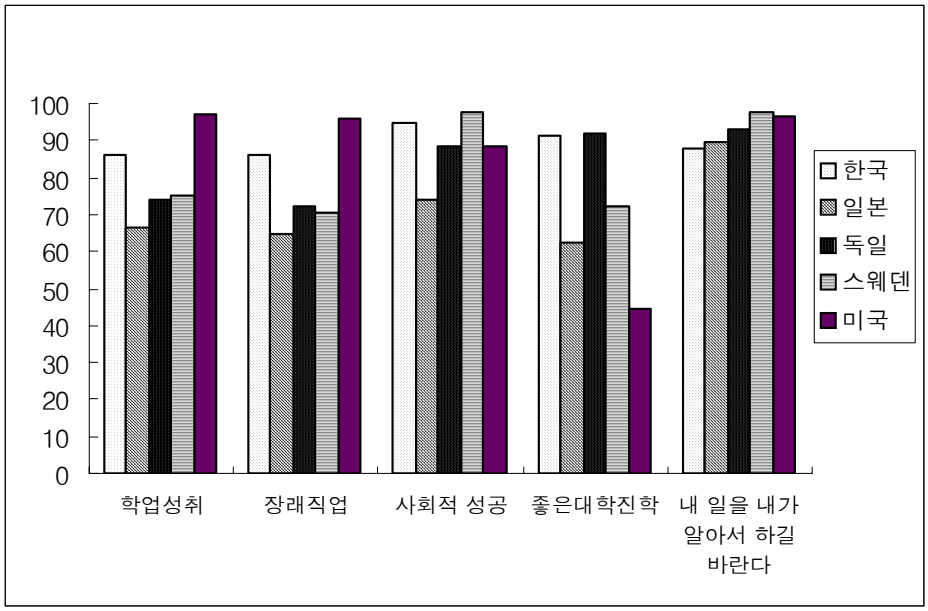
마. 자기주도성에 대한 기대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길 바란다'에 대한 문항에서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85.9%, 어머니 87.6%였으며, 일본의 경우 아버지 81.2%, 어머니 89.4%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91.2%, 어머니 93.1%, 스웨덴은 아버지 98.2%, 어머니 97.6%, 미국은 아버지 89.8%, 어머니 96.4%로 자기주도성에 대한 기대는 조사대상국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과 미국은 자기주도성에 대한 기대가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독립심을 강조하는 문화적 맥락의 영향이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8] 아버지의 기대 I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29] 어머니의 기대 Ⅰ

바. 인간적 성숙에 대한 기대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92.8%, 어머니 95.5%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86.7%, 어머니 93.3%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95.5%, 어머니 97.5%, 스웨덴은 아버지 96.1%, 어머니 96.8%, 미국은 아버지 90.2%, 어머니 97.4%로 인간적 성숙에 대한 기대도는 조사대상국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건강에 대한 기대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95.5%, 어머니 97.3%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88.5%, 어머니 94.9%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96.4%, 어머니 97.9%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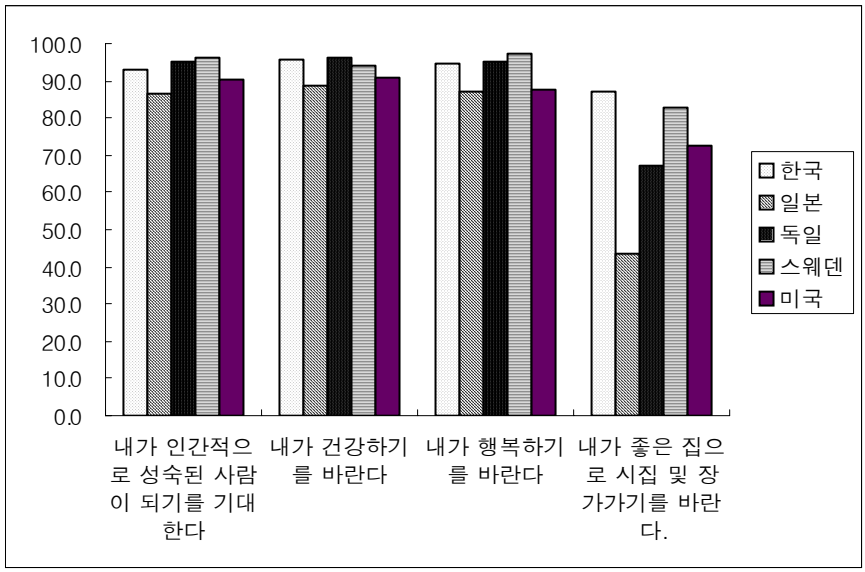
은 아버지 93.9%, 어머니 95.8%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90.6%, 어머니 97.4%였다. 조사대상국들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이 모두 높고 조사대상국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94.8%, 어머니 96.9%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87.1%, 어머니 93.9%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95.1%, 어머니 97.7%였고, 스웨덴은 아버지 97.4%, 어머니 98.4%, 미국은 아버지 87.7%, 어머니 96.3%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기대도 조사대상국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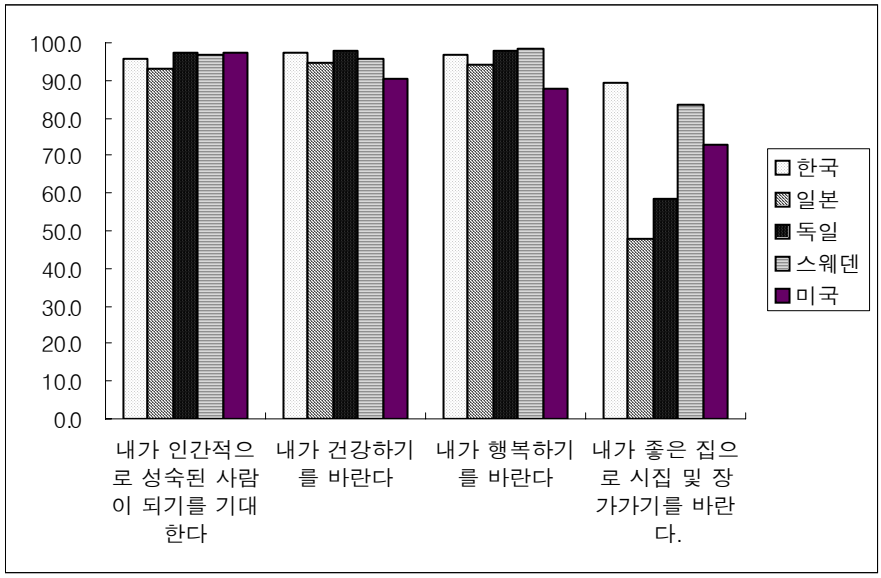
자. 결혼에 대한 기대

'내가 좋은 집으로 시집 및 장가가기를 바란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 87.2%, 어머니 89.4%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43.4%, 어머니 47.9%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아버지는 59.3%, 어머니 58.3%, 스웨덴은 아버지 82.6%, 어머니 83.7%.였고 미국은 아버지 67.2%, 어머니 72.7%로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국가의 부모들보다 자녀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기대가 아버지보다 약간 높았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자녀의 결혼에 대한 기대가 기타 조사 대상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30] 아버지의 기대 II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31] 어머니의 기대 II

②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청소년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각국비교

부모님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국과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의 부모 모두 대학교까지 교육받기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표 IV-19> 참조). 그러나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75.3%, 82.%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독일은 36.6%로서 상당히 낮았다. 또한 스웨덴과 미국도 65.5%, 61.8%로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1> 부모님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각국비교, %)

기대 학력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중졸	0.1	0.0	10.9	3.3	.1
고졸	1.87	11.5	33.8	16.5	2.7
전문대 및 대졸	75.3	82.6	36.6	65.5	61.8
대학원 이상	21.5	4.9	13.5	10.9	35.4

청소년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문항에서도 한국과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의 청소년 모두 대학교까지 교육받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IV-32 참조). 그러나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73.3%, 79.7.%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독일은 36.2%로서 상당히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위의 '부모의 기대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IV-32> 청소년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각국비교, %)

기대학력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중졸	0.6	0.2	9.5	3.5	0.4
고졸	4.7	11.5	21.1	16.7	5.1
전문대 및 대졸	73.3	79.7	36.2	67.1	67.4
대학원 이상	21.2	8.2	30.6	10.7	37.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 기대와 청소년 스스로에 대한 교

육수준 기대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 변수들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IV-33 참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자녀의 학업에 대한 열망수준을 증진시켜, 자녀들 스스로 기대 수준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된다. 조사대상국 전부에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자신의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IV-33> 상관분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과 '자녀 자신의 교육기대수준' (각국비교)

상관분석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자녀의 기대	자녀의 기대	자녀의 기대	자녀의 기대	자녀의 기대
부모의 기대	.448**	.635**	.609**	.727**	.666**

**. p<.01

7) 부모자녀간 갈등관계

(1) 부모의 간섭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가 34.3%, 어머니 40.2%였다. 일본의 경우 아버지는 11.5%, 어머니 21.5%로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간섭이 낮게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20.2%, 어머니 38.6%, 스웨덴은 아버지 26.3%, 어머니 42.7%, 미국은 아버지 23.6%, 어머니 34.8%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간섭이 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청소년들의 용돈관리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 17.0%, 어머니 30.3%이고, 일본은 아버지 8.8%, 어머니 18.4%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28.9%, 어머니 37.1%, 스웨덴은 아버지 50.0%, 어머니 57.5%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39.8%, 어머니 48.2%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자녀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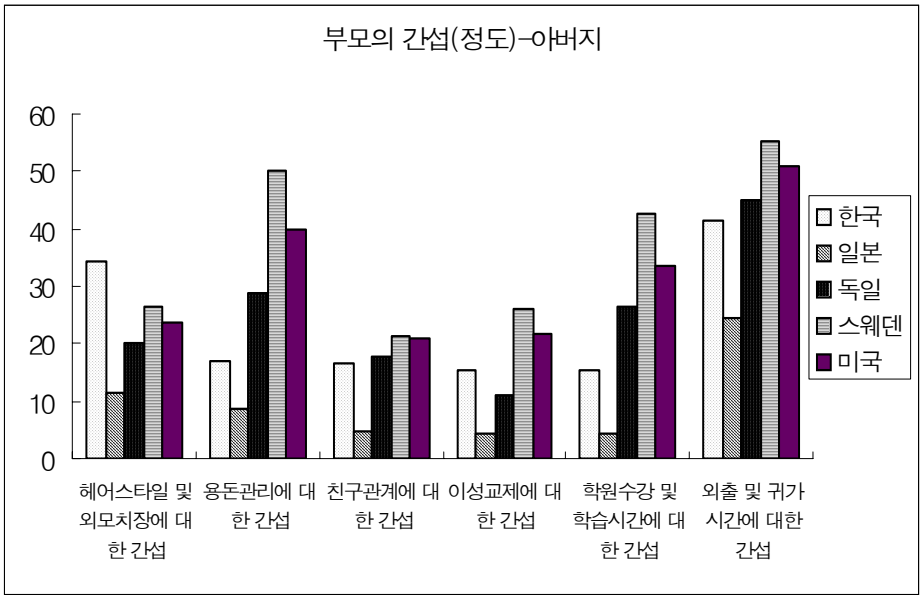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나타나는 철저한 금전관리 개념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머니 쪽이 자녀의 용돈관리에 간섭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 대한 간섭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 16.4%, 어머니 29.6%이고, 일본은 아버지 4.7%, 어머니 9.0%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17.6%, 어머니 28.8%, 스웨덴은 아버지 21.3%, 어머니 30.2%, 미국은 아버지 20.9%, 어머니 26.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친구관계에 대한 간섭 정도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의 비율이 높았으며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일본 부모는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 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간섭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간섭정도는 15.2%, 어머니 20.9%이고, 일본은 아버지 4.3%, 어머니 7.0%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11.0%, 어머니 19.9%, 스웨덴은 아버지 26.0%, 어머니 35.7%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21.8%, 어머니 25.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간섭 정도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스웨덴과 미국 부모가 자녀의 이성 관계에 대해 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간섭정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주의적 문화권인 스웨덴에서 자녀들 자신이 부모들의 통제와 간섭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일본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간섭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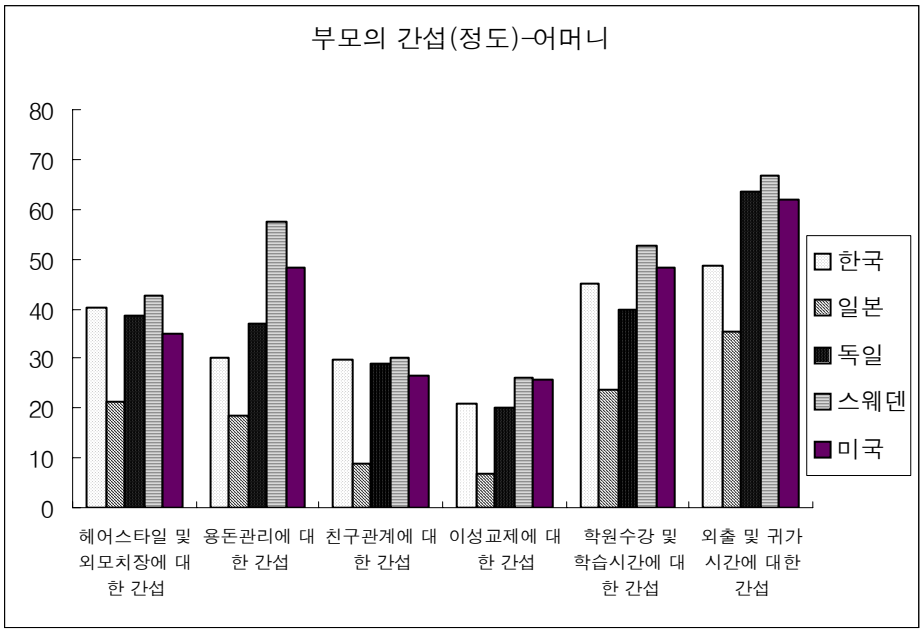
'나의 학원수강이나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는 문항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 15.2%, 어머니 45.2%이며 일본은 아버지 4.3%, 어머니 23.9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26.3%, 어머니 40.0%, 스웨덴은 아버지 42.8%, 어머니 52.5%였고, 미국은 아버지 33.5%, 어머니 48.3%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가족에서 자녀의 학업관리 담당자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간섭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외출 시 귀가시간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 41.5%, 어머니 48.8%이며 일본은 아버지 24.5%, 어머니 35.4%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45.1%, 어머니 63.7%, 스웨덴은 아버지 55.2%, 어머니 66.7%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51.0%, 어머니 61.8%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높은 비율로 자녀의 외출 시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일본에서 외출시 귀가시간에 대한 간섭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서구국가들의 경우 외출시 귀가시간에 대한 간섭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2] 아버지의 간섭정도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3] 어머니의 간섭정도

(2) 갈등

'나는 부모님과 자주 부딪힌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23.3%가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고 응답하였고 31.0%는 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은 아버지와는 17.8%, 어머니와는 28.8%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27.7%, 어머니 39.8%, 스웨덴은 아버지 15.9%, 어머니 21.6%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28.1%, 어머니 28.2%로 미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미국을 제외한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는 어머니와 부딪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이 부모와 부딪힌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적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는 31.8%, 어머니와는 44.0%이며 일본은 아버지와 31.8%, 어머니와 23.7%로 나

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26.0%, 어머니 32.7%, 스웨덴은 아버지 6.4%, 어머니 8.6%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20.2%, 어머니 27.4%로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자녀의 성적문제로 어머니와 부딪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성적문제로 부모와 부딪히는 비율이 기타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높았다.

친구관계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상황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는 7.9%, 어머니와는 13.1%였으며 일본은 아버지와 3.5%, 어머니와 6.5%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6.2%, 어머니 10.6%, 스웨덴은 아버지 1.8%, 어머니 4.6%였고, 미국은 아버지 14.3%, 어머니 16.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친구문제로 어머니와 부딪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친구관계로 인해 부모와 부딪히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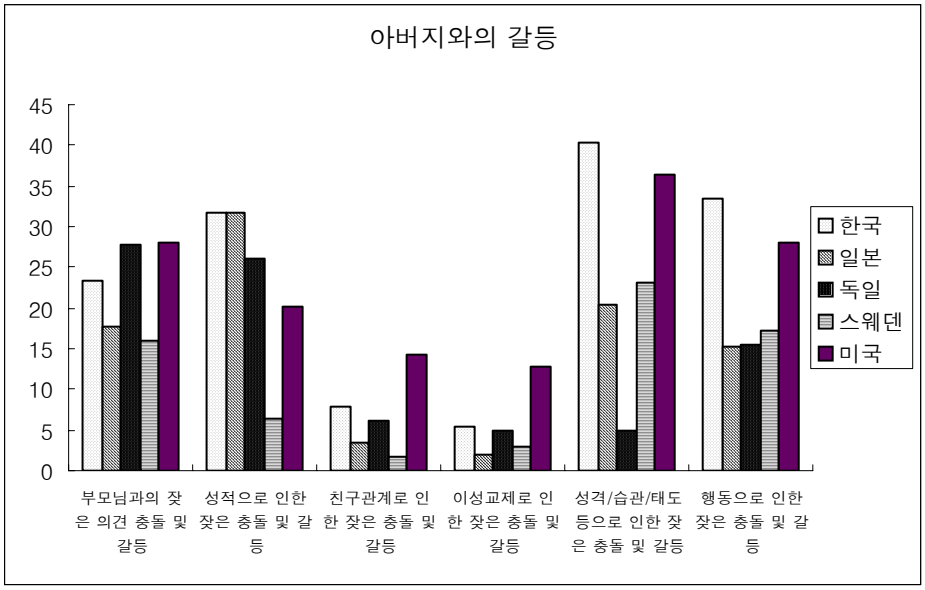
이성교제로 인하여 부모님과의 갈등상황 발생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는 5.3%, 어머니와는 8.9%였으며 일본은 아버지와는 2.0%, 어머니와는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4.9%, 어머니 6.6%, 스웨덴은 아버지 3.0%, 어머니 4.4%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12.9%, 어머니 14.2%로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이성교제문제로 어머니와 부딪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와는 달리 이성교제로 부모님과 부딪힌다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성격이나 습관, 태도 등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상황 발생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는 40.4%, 어머니와는 47.4%였으며 일본은 아버지와는 20.4%, 어머니와는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24.2%, 어머니 34.0%, 스웨덴은 아버지 23.0%, 어머니 27.5%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36.4%, 어머니 37.9%로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어머니와 부딪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격이나 습관, 태도 등으로 부모들과 갈등상황을 빚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행동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잦은 갈등 상황 발생에 대한 문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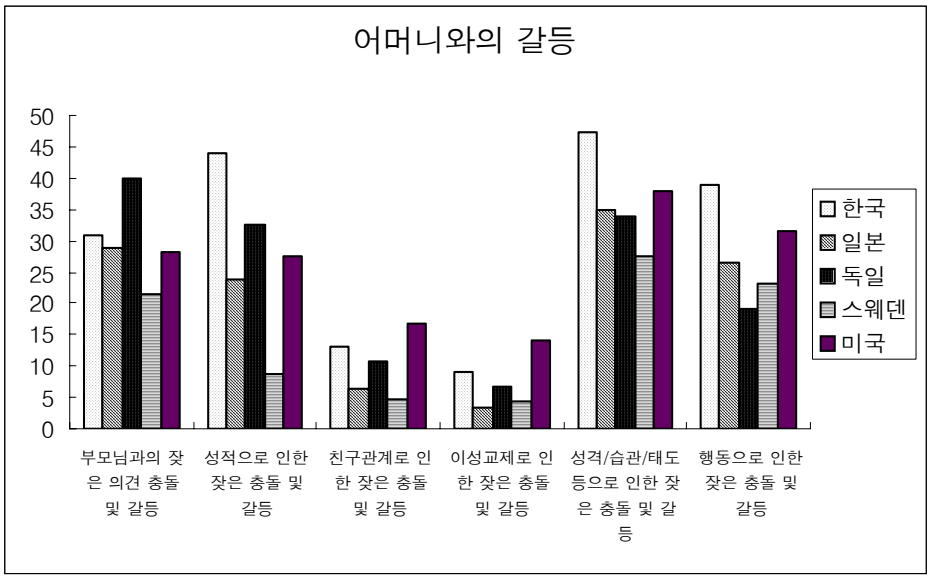
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아버지와는 33.4%, 어머니와는 38.8%였으며 일본의 경우 아버지와는 15.3%, 어머니와는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15.4%, 어머니 19.1%, 스웨덴은 아버지 17.1%, 어머니 23.1 %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28.1%, 어머니 31.5%로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어머니와 부딪히는 비율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청소년 자신의 행동으로 부모님과 잦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상황을 아버지, 어머니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쪽은 어머니이므로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 직면할 기회가 아버지보다 빈번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격, 습관, 태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응답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4] 아버지와의 갈등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5] 어머니와의 갈등

(3) 갈등 시 부모자녀태도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충돌 및 갈등 상황 발생 시 부모님의 관용 성향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부딪혔을 때 묵묵히 봐주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는 35.5%, 어머니 33.6%였으며 일본은 아버지 60.3%, 어머니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58.2%, 어머니 64.1%, 스웨덴은 아버지 13.6%, 어머니 12.9%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58.9%, 어머니 66.6%로 독일과 일본, 미국에서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묵묵히 봐주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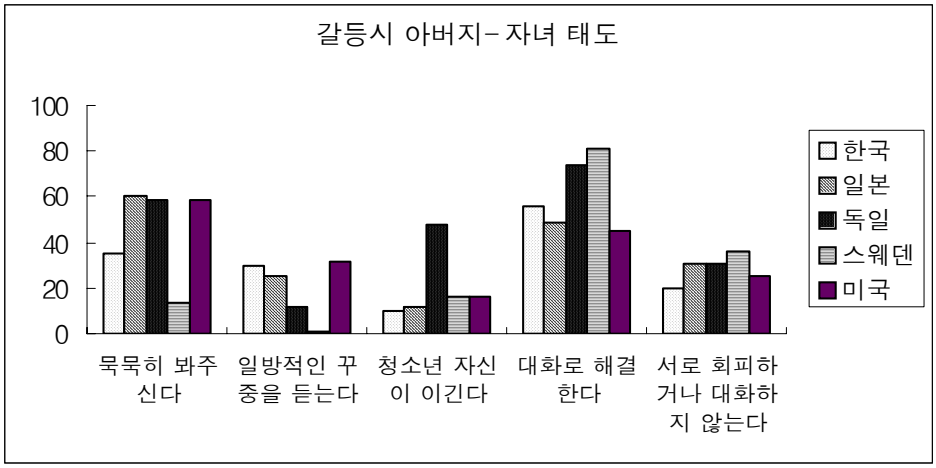
부모와의 충돌 및 갈등상황 발생 시 부모의 일방적인 꾸중을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일방적 야단은 29.9%, 어머니는 28.4%였으며, 일본은 아버지는 25.6%, 어머니는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12.0%, 어머니 14.0%, 스웨덴은 아버지 1.2%, 어머니 0.8%였고, 미국은 아버지 31.6%, 어머니 23.6%로 나타났다. 유교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가족에서 자녀가 잘 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훈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일방적 야단을 맞는다는 비율이 높아서 미국 부모들의 훈육방법도 상당히 엄격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부모들은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꾸중하는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부모님과 부딪혔을 때 청소년 자신이 이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9.8%, 어머니와는 13.6%였으며 일본은 아버지와는 12.1%, 어머니와는 14.5%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47.6%, 어머니 52.4%, 스웨덴은 아버지 15.9%, 어머니 17.7%였고, 미국은 아버지 16.6%, 어머니 18.8%로 나타났다. 독일 가족에서는 부모님과 갈등 시 청소년들이 이긴다는 응답률이 기타 조사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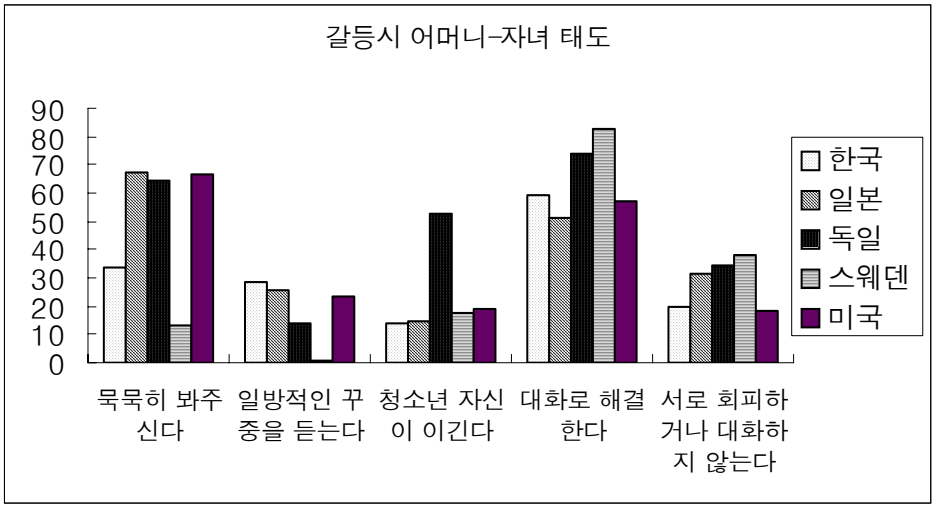
부모님과 부딪혔을 때 대화로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는 55.9%, 어머니와는 59.6%였으며 일본은 아버지와는 48.7%, 어머니와는 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73.6%, 어머니 72.4%, 스웨덴은 아버지 80.7%, 어머니 82.7%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45.0%, 어머니 57.4%로 나타났다. 독일과 스웨덴 가족에서 대화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아, 독일과 스웨덴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 쪽이 일방적인 권력을 가지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과 부딪혔을 때 서로 회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는 19.8%, 어머니와는 19.5%였으며 일본은 아버지와는 30.3%, 어머니와는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아버지 30.3%, 어머니 34.2%, 스웨덴은 아버지 35.9%, 어머니 38.3%였으며, 미국은 아버지 24.8%, 어머니 18.6%로 나타났다. 독일과 스웨덴 가족에서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다른 조사국에 비해 높았는데 이를 통해 독일과 스웨덴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 쪽이 일방적인 권력을 가지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6] 갈등시 부모자녀 태도-아버지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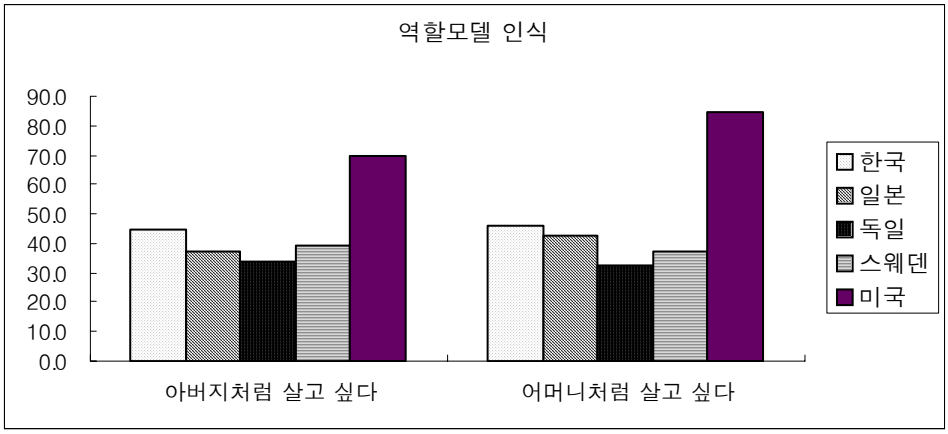
[그림 Ⅳ-37] 갈등시 부모자녀 태도-어머니

8) 부모의 영향력

① 역할모델

청소년들이 부모를 자신의 역할모델로서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44.9%였으며 일본은 37.2%, 독일 33.8%, 스웨덴 39.3%, 미국 69.6%였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역할모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독일의 경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들은 46.0%였고 일본은 42.7%, 독일 32.4%, 스웨덴 37.0%, 미국 84.6%이다. 어머니에 대한 역할모델 인식 또한 미국 청소년들이 기타 조사국에 비해 다소 높게, 독일 청소년들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8] 부모의 역할모델 인식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또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라는 응답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각 국가별로 독립표본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34>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한국)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남	1.59	.833	.028	.867
	여	1.64	.880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남	1.60	.830	.448	.503
	여	1.58	.76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역할모델)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향력(역할모델)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와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는 항목 모두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5>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일본)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남	1.76	1.084	.620	.431
	여	1.84	1.362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남	1.76	1.083	.423	.516
	여	1.62	1.046		

그러나 독일 표본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36>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독일)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남	1.62	.486	3.514	.061
	여	1.66	.474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남	1.69	.461	13.660	.000
	여	1.66	.489		

스웨덴 표본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평균값이 높았다는 것이다.

<표 IV-37>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스웨덴)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남	1.54	.499	11.940	001
	여	1.63	.483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남	1.65	.479	4.798	.029
	여	1.60	.491		

미국 표본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평균값이 높았다.

종합해볼 때,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일(어머니 경우),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과 다른 성의 부모를 역할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 IV-3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모델 비교 (미국)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남	1.26	.440	53.633	.000
	여	1.34	.474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남	1.11	.315	23.168	.000
	여	1.15	.356		

② '아버지가 싫다', '어머니가 싫다'라고 응답한 비율 각국비교

아버지가 싫다는 한국 청소년들의 비율은 8.2%, 일본은 14.1%로 일본이 한국보다 다소 높았다. 서구 국가들을 보면, 독일 9.1%, 스웨덴 18.7%, 미국

13.3%로서, 일본, 한국에 비해 그 비율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싫다고 말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한국이 5.0%, 일본 4.1% 독일 4.4%, 스웨덴 17.5%, 미국 5.1%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싫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웨덴 청소년들이 기타 청소년들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표 Ⅳ-39> '아버지가 싫다', '어머니가 싫다' (각국 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아버지가 싫다	8.2%	14.1%	9.1%	18.7%	13.3%
어머니가 싫다	5.0%	4.1%	4.4%	17.5%	5.1%

③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으로는 한국과 독일, 미국 청소년들은 어머니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친구, 스웨덴은 부모님과 이성 친구를 포함한 친구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친구'를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았다. 일본은 조사대상자 전원이 고등학생으로 기타 조사대상국 응답자들에 비해 연령이 높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보다는 친구에게로 관심과 비중이 옮겨가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Ⅳ-40>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각국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아버지	1,681	26.9	128	17.5	274	30.9	161	20.0	1060	28.9
어머니	2,088	33.5	187	25.5	337	38.0	205	25.5	1436	39.1
형제자매	251	4.0	56	7.7	61	6.9	70	8.7	154	4.2
할아버지	44	0.7	7	1.0	3	0.3	12	1.5	94	2.6
할머니	54	0.9	13	1.8	12	1.4	6	0.7	142	3.9
친척	78	1.2	8	1.1	7	0.8	25	3.1	67	1.8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선생님	254	4.1	48	6.6	8	0.9	28	3.5	136	3.7
친구	1,232	19.7	179	24.5	102	11.5	149	18.5	353	9.6
이성친구	125	2.0	21	2.9	66	7.4	63	7.8	102	2.8
사회적 인물 및 위인	198	3.2	52	7.1	6	0.7	50	6.2	41	1.1
없음	234	3.7	33	4.5	10	1.1	35	4.4	88	2.4
계	6,239	100.0	732	100.0	886	100.0	804	100.0	3673	100.0

4. 청소년의 생활・의식・참여

1) 생활・활동・참여

(1) 생활

① 청소년의 생활시간

생활시간을 폰 메일 사용횟수,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용시간. TV 시청 등 미디어 접촉시간과 학습시간과 학원 및 과외공부 시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하루 일과 시간을 살펴보았다.

우선 폰 메일을 보내는 횟수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87.4통을 보내고 92.1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21.2통을 보내고 22.5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독일은 하루 평균 4.91통을 보내고 8.37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웨덴은 하루 평균 4.61통을 보내고 4.39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한국 청소년의 경우 폰 메일을 보내는 횟수와 받는 횟수에서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5)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미국자료는 인터넷 조사질문지에 전환시 오류가 발생하여 비교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는 핸드폰 사용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서구 유럽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 비율은 한국이나 일본 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같은 차이는 핸드폰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내면의 이야기 등을 나누며 교우관계를 형성해가는 반면, 서구 청소년(성인을 비롯하여)들은 핸드폰을 공식적·사무적인 필요로서 사용하므로 폰 메일을 보내는 횟수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이 하루 평균 약 97분을, 일본 85.8분, 독일 하루 평균 185.4분, 스웨덴이 124.9분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독일과 스웨덴에 비교해 짧은 시간을, 그러나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을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 시간을 같은 범주로 묶었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으나, 한국와 일본의 경우, 학교가 전일제로 운영될 뿐 아니라 학원수강이나 과외수업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생활시간이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다음의 조사결과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TV 시청시간은 한국이 하루 평균 108.7분, 일본 150.9분, 독일 157.7분, 스웨덴 118분이었다. 일본과 독일 청소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한국이 하루 평균 117.7분, 일본 72.6분, 독일 72.5분, 스웨덴 77.7분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월등히 길어 이들이 과중한 학업수행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원 및 과외공부시간은 한국이 하루 평균 123.1분, 일본 35.77분, 독일 22.0분, 스웨덴 29.5분이었다. 위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의 학원 및 과외 공부 시간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월등히 길어 이들이 과중한 학업수행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41> 청소년의 생활시간: 하루평균 기준 (미국제외)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폰메일 (통)	발신	87.4통	21.2통	4.91통	4.61통
	수신	92.1통	22.5통	8.37통	4.39통
게임,인터넷(분)		97분	85.8분	185.4분	124.9분
TV 시청(분)		108.7분	150.9분	157.7분	118분
혼자 공부(분)		117.7분	72.6분	72.5분	77.7분
과외공부(분)		123.1분	35.77분	22.0분	29.5분

또한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나서 귀가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평균 귀가 시간은 밤 10시~11시가 가장 많았고, 일본은 오후 5~6시경이 가장 많았다. 독일과 미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오후 4시 이전에 귀가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오후 4~5시 사이 또는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소년들의 귀가 시간은 각 국가의 생활시간, 방식,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서구국가들, 특히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들(미성년자들)이 방과 후 및 야간 시간에 미성년들은 부모의 보호 하에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가 시간이 한국에 비교할 때, 비교적 이르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고, 기타 조사 대상국가에 비해 야간 시간의 치안이 안전한 관계로 야간시간에 청소년들의 통행이 자유롭다. 이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이 타 국가에 비해 늦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방과 후 보충수업과 학원 등 학업관련 활동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 따라서 각국의 귀가시간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업관련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2> 방과후 귀가시간 (각국비교)

귀가시간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오후 4시 이전	116	3.1	34	7.0	410	84.0	130	25.4	954	50.9
오후 5시경	338	9.1	82	16.9	12	2.5	107	20.9	329	17.5

귀가시간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오후 6시경	226	6.1	78	16.0	2	0.4	31	6.1	208	11.1
오후 7시경	197	5.3	83	17.1	2	0.4	19	3.7	68	3.6
오후 8시경	125	3.4	63	13.0	5	1.0	24	4.7	33	1.8
오후 9시경	354	9.6	36	7.4	1	0.2	27	5.3	33	1.8
오후 10시경	760	20.5	46	9.5	2	0.4	10	2.0	11	0.6
오후 11시경	735	19.9	17	3.5	3	0.6	2	0.4	7	0.4
밤 12시 이후	493	13.3	1	0.2	3	0.6	3	0.6	4	0.2
일정치 않음	306	8.3	45	9.3	48	9.8	158	30.9	228	12.2
합계	3700	100.0	486	100.0	488	100.0	511	100.0	1,875	100.0

한편, 집에 돌아온 후 자기 전까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상대가 누구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귀가 후 취침 전까지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22.7%), 혼자 지내거나(21.5%), 어머니(양어머니 포함)(21.2%)와 보낸다고 하였다. 일본 청소년들은 어머니(28.2%), 혼자 지냄(26.6%), 가족 모두(26.4%)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청소년들은 혼자 지낸다는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형제·자매(21.7%), 어머니(17.6%)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기 전까지 혼자 보낸다고 하는 답변(51.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은 가족 모두와 함께 보낸다고 답변한 비율이 35.9%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와 보낸다는 답변이 31.0%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스웨덴과 독일 청소년들이 개인주의적 문화 환경에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적 문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해석에서 조금 벗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문화 권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감시와 보호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있는 미국에서는 방과후 청소년들이 혼자 보내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11.7%)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방과후 취침 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상대 (각국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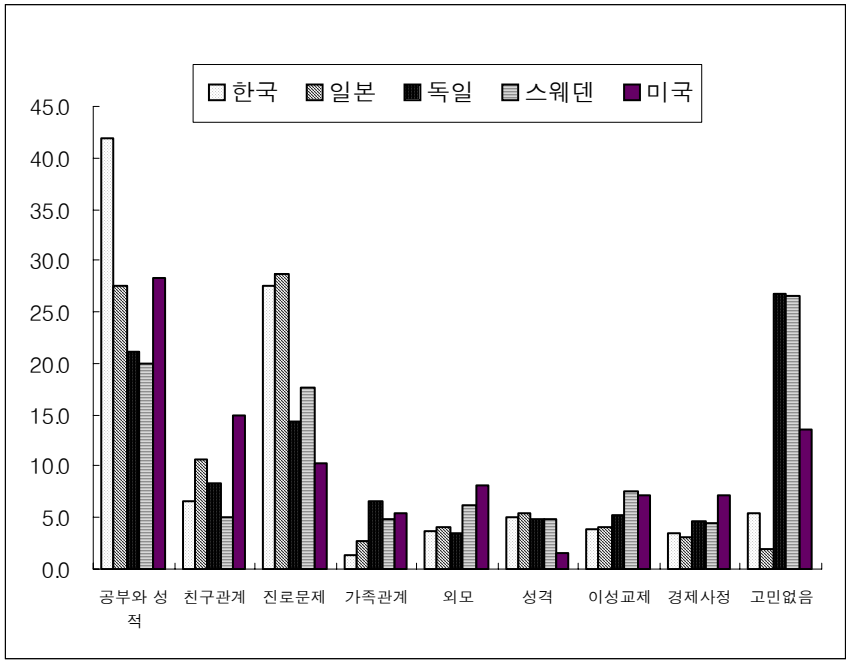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혼자	806	21.5	130	26.6	156	32.2	262	52.2	200	11.7
형제자매	639	17.0	69	14.1	105	21.7	49	9.8	229	12.2
아버지(양아버지)	139	3.7	6	1.2	14	2.9	14	2.8	94	5.0
어머니(양어머니)	796	21.2	138	28.2	85	17.6	42	8.4	586	31.3
할아버지	9	0.2	-	-	3	0.6	1	0.2	4	0.2
할머니	57	1.5	15	1.0	76	15.7	123	24.5	24	1.3
가족 모두와	850	22.7	129	26.4	45	9.3	11	2.2	686	36.6
그냥 잔다	416	11.1	9	1.8	-	-	-	-	32	1.7
무응답	356	1.0	3	0.6	-	-	-	-	-	-
합계	3,747	100.0	489	100.0	484	100.0	502	100.0	1,875	100.0

② 청소년의 고민: 각국비교

청소년들의 고민 내용과 심각한 고민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부와 성적', '친구관계', '진로문제', '가족문제', '외모', '성격', '이성교제', '집안 경제 사정'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1, 2순위를 매기게 하였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단연 공부와 성적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며 일본의 청소년들은 진로문제와 학업문제에 대한 고민 수준이 비슷했다. 독일과 스웨덴 청소년들은 공부와 성적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미국 청소년들은 '고민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독일: 26.8%, 스웨덴: 26.5%, 미국: 13.6%).

<표 Ⅳ-44> 각국 청소년의 고민거리 (복수응답)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공부와 성적	2,965	41.9%	221	27.5	162	20.8	183	20.0	1060	28.3
친구관계	460	6.5	85	10.6	58	7.5	46	5.0	561	15.0
진로문제	1,950	27.5	231	28.8	111	14.3	162	17.7	387	10.3
가족관계	102	1.4	22	2.7	57	7.3	44	4.8	206	5.5
외모	265	3.7	33	4.1	31	4.0	58	6.3	308	8.2
성격	357	5.0	44	5.5	37	4.8	44	4.8	58	1.5
이성교제	279	3.9	32	4.0	46	5.9	70	7.6	267	7.1
경제사정	244	3.4	26	3.2	39	5.0	41	4.5	270	7.2
고민 없음	385	5.4	21	2.	208	26.8	243	26.5	508	13.6
기타	78	1.1	88	11.0	28	3.6	25	2.7	119	3.2
전체	7,084	100.0	803	100.0	777	100.0	916	100.0	3744	100.0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39] 청소년의 고민거리

(2) 활동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에서의 활동 내용을 집안일, 취미/문화, 스포츠 활동, 여행 및 캠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등 청소, 요리, 세탁 등 집안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이 68.7%, 일본 49.5% 독일 60.6%, 스웨덴 77.2%, 그리고 미국은 59.2%이었다. 스웨덴 청소년들이 집안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Ⅳ-45> 청소년의 가사활동 (청소/요리/세탁)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청소, 세탁, 요리 등	2,576	68.7	242	49.5	301	60.6	396	77.2	1,110	59.2

미술관 관람이나 음악회, 영화관람 등 취미 및 문화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이 60.8%, 일본 84.3% 독일 71.6%, 스웨덴 58.2%, 그리고 미국은 80%이었다. 집안일에 대한 항목과는 반대로 일본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로 일본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가 확충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문화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58.2%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Ⅳ-46> 청소년의 문화 활동 (각국 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미술관 관람, 음악회, 영화관람 등	2,278	60.8	412	84.3	339	68.2	298	58.2	1,508	80.4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 58.6%, 일본 61.8%, 독일 77.5%, 스웨덴 73.1%, 미국 57.2%였다. 서구 유럽 청소년들의 경우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생활 체육이 정착된 문화권에서 청소년들이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비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관련 활동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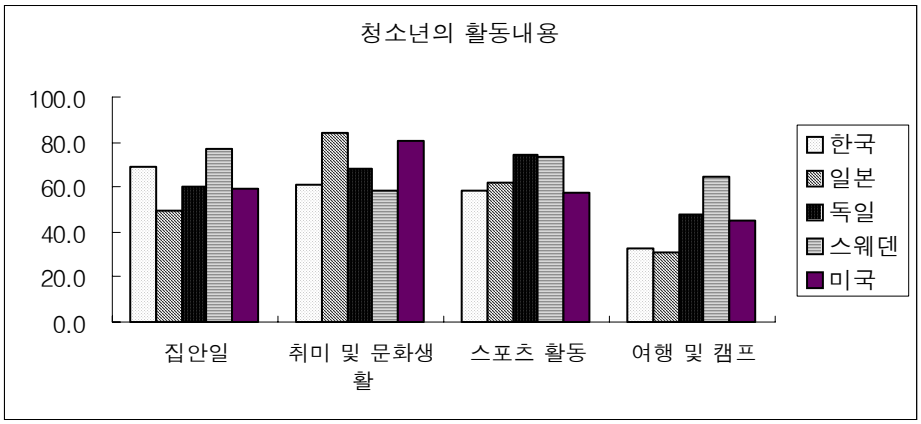
<표 Ⅳ-47> 청소년의 야외 활동 (각국 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스포츠 등 야외활동	2,196	58.6%	302	61.8%	370	74.4	375	73.1	1,073	57.2

여행이나 캠프를 즐긴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 32.8%, 일본 30.9% 독일 51.6%, 스웨덴 64.5%, 미국 45.4%였다. 한국, 일본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인하여 여행이나 캠프를 즐긴다고 대답한 비율이 낮은 반면, 독일, 스웨덴, 미국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여행이나 캠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표 Ⅳ-48> 청소년의 여행 및 캠프 활동 (각국 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여행 및 캠프	1,229	32.8	151	30.9	237	47.7	330	64.5	851	45.4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40] 청소년의 활동내용

청소년의 활동내용 중 '집안일'에 참여하는 비율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독립표본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49>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한국)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유의확률
집안일(청소, 요리, 세탁 등)을 하는 정도	남	2.78	1.021	1979	15.993	.000
	여	2.91	.890	1768		

한국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집안일을 하는 정도에 차이가 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집안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남자는 집안일에 신경써서는 안된다'고 하는 전통의식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표 IV-50>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일본)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유의확률
집안일(청소, 요리, 세탁 등)을 하는 정도	남	2.28	.911	227	4.109	.043
	여	2.47	.819	262		

일본도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집안일을 하는 정도에 차이가 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집안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그러나 평균값을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청소년들의 참여율보다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IV-5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독일)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유의확률
집안일(청소, 요리, 세탁 등)을 하는 정도	남	2.67	.855	269	4.109	.043
	여	2.88	.792	215		

독일의 경우도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집안일을 하는 정도에 차이가 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평균값을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청소년들의 참여율보다 낮았다.

<표 IV-52>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스웨덴)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유의확률
집안일(청소, 요리, 세탁 등)을 하는 정도	남	2.88	.787	219	.080	.778
	여	3.20	.730	291		

스웨덴에서도 평균값으로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집안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평균값을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청소년들의 집안일 참여율보다 훨씬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 청소년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집안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5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안일' 참여율 차이 (미국)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유의확률
집안일(청소, 요리, 세탁 등)을 하는 정도	남	2.55	.834	853	16.423	.000
	여	2.76	.782	1022		

미국도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집안일을 하는 정도에 차이가 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집안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평균값을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청소년들의 참여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안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참여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 자원 봉사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56.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청소년들은 하고 싶어서(27.8%) 또는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12.5%)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하고 싶어서(35.6%), 스웨덴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권유(23.3%)로, 미국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41.4%) 자원봉사에 참여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경우 기타 조사대상국 사례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서'라는 응답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자원봉사활동이 학업수행결과에 반영되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표 IV-54>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 (각국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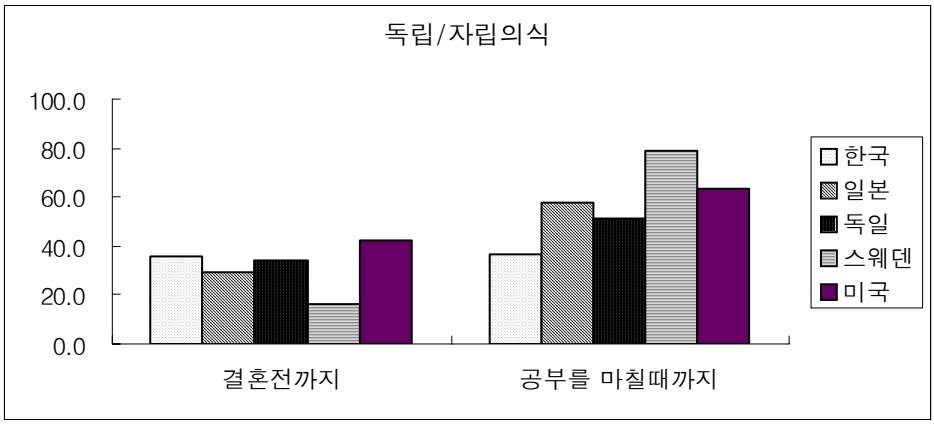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 동기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내가 하고 싶어서	11.9	27.8	35.6	5.8	41.4
부모님의 권유로	3.9	4.7	3.6	23.3	7.0
친구 및 주위의 권유로	3.6	9.8	4.2	2.5	2.4
동아리 활동을 통해	5.5	12.5	2.6	5.8	13.2
종교단체 활동을 통해	2.5	1.2	5.4	0.8	12.1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56.8	5.3	2.2	0.2	11.2
기타	2.6	4.5	7.6	5.4	12.7

2) 의식

(1) 독립/자립의식

‘결혼 전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이 35.5%, 일본이 29.2%, 독일 34.0%, 스웨덴 16.0%, 미국 4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청소년들은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시기부터 경제적 자립·독립에 대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41.9%)는 특이한데, 흔히 독립의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의아하다. 이는 불황과 높은 실업률의 결과로,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캥거루 족(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공부를 다 마칠 때 까지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이 36.5%, 일본 57.5%, 독일 51.3%, 스웨덴 78.5%, 미국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문항과는 반대로 스웨덴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국 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비·생활비 비용과 스웨덴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로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교육비를 국가에서 보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부모들의 부담보다는 스웨덴 부모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1] 청소년의 독립/자립의식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청소년들에게 금전의 중요성을 학습시키고, 경제관념을 배양시키며, 경제적 자립심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시기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하여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최종학업을 마친 후', '취업 이후', '결혼 이후', '부모님에게 계속 의존해도 좋다'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한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경험유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p<.001$), 일본과 스웨덴 청소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와 독립시기 결정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일찍 습득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그 점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표 IV-55>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경제적 독립시기 결정 (각국 비교)

경제적 독립 시기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중졸	11 (0.3%)	31 (0.8%)	0 (0.0%)	1 (0.2%)	10 (2.2%)	12 (2.6%)	0 (0.0%)	3 (0.6%)	3 (.2%)	12 (.6%)
고졸	249 (6.6%)	760 (20.3%)	35 (7.2%)	47 (9.6%)	37 (8.0%)	43 (9.3%)	25 (5.2%)	27 (5.6%)	170 (9.1%)	224 (11.9%)
대졸	215 (5.7%)	1,057 (28.2%)	53 (10.8%)	128 (26.2%)	50 (10.9%)	77 (16.7%)	32 (6.7%)	31 (6.5%)	352 (18.8%%)	391 (20.9%)
취업 이후	172 (4.6%)	806 (21.5%)	59 (12.1%)	141 (28.8%)	59 (12.8%)	151 (32.8%)	133 (27.8%)	202 (42.3%)	218 (11.6%)	369 (19.7%)
결혼 이후	56 (1.5%)	214 (5.7%)	5 (1.0%)	14 (2.9%)	6 (1.3%)	2 (.4%)	1 (0.2%)	2 (0.4%)	22 (1.2%)	37 (2.0%)
계속 의존	3 (0.1%)	12 (0.3%)	0 (0.0%)	2 (0.4%)	0	6 (1.3%)	1 (0.2%)	1 (0.2%)	12 (.6%)	23 (1.2%)
카이 제곱값	171.14**		7.79		20.995*		11.95		22.548**	

*. p<.05 **. p<.01

(2) 직업의식

① 직업선택의 기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한국의 경우 '하고 싶은 일'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직업선택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경우 '하고 싶은 일'이 37.7%로 그 다음으로는 '재미있는 일(19.7%)' 순으로 응답했다.

독일의 경우 '재미있는 일(33.0%)'과 '하고 싶은 일' 순이었고 스웨덴은

‘하고 싶은 일(44.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미국은 ‘하고 싶은 일(38.9%)’,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12.5%)’을 기준으로 직업선택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국의 청소년들 대부분이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직업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6>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복수응답)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하고 싶은 일	2.651	35.9	367	37.7	171	18.6	449	44.4	1,454	38.9
재미있는 일	655	8.9	192	19.7	303	33.0	95	9.4	738	19.8
개성을 살리는 일	407	5.5	137	14.1	32	3.5	30	3.0	143	3.8
시간이 자유로운 일	303	4.1	31	3.2	14	1.5	125	12.4	124	3.3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	420	5.7	48	4.9	26	2.8	255	25.2	192	5.1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1,788	24.2	103	10.6	267	29.1	16	1.6	769	20.6
서회적 지위가 있는 일	247	3.4	17	1.7	35	3.8	40	4.0	33	0.9
안정적인 직업	909	12.3	79	8.1	70	7.6	1	0.1	283	7.6
전체	7,381	100.0	974	100.0	918	100.0	1,011	100.0	3,7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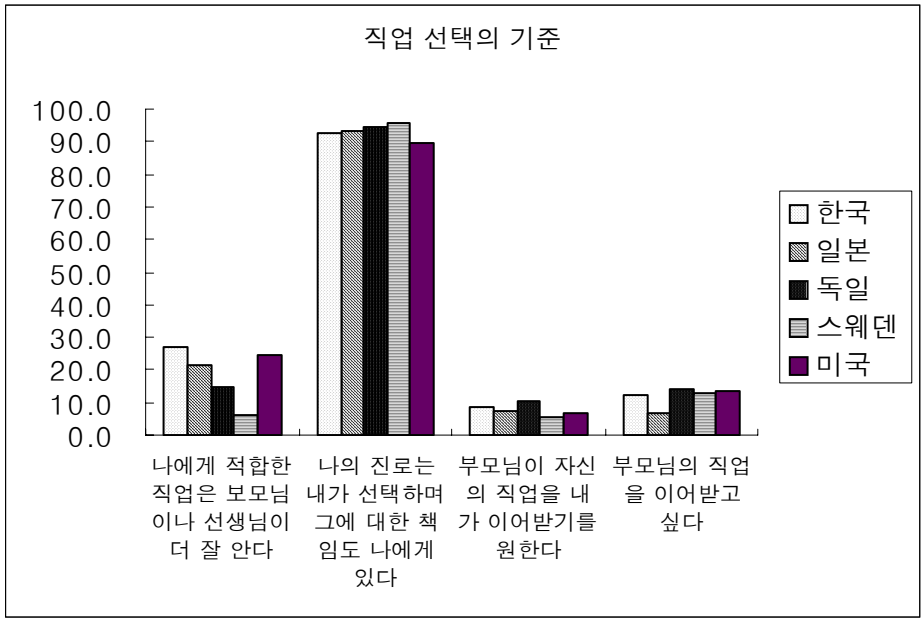
한편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26.9%, 일본 21.7%, 독일 14.9%, 스웨덴 6.1%, 미국 24.7%였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 항목에 대한 비율이 독일, 스웨덴에 비해 매우 높다. 한국과 일본, 미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의 책임소재를 자기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92.6%, 일본 93.3% 독일 94.5%, 스웨덴 95.8%, 미국 89.7%로 나라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모님이 자신의 직업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국이 8.7%, 일본 7.4% 독일 10.7%, 스웨덴 5.7%, 미국 6.6%로 대체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어서 하기를 바라는 사례는 비교적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국이 12.2%, 일본이 7.0%, 독일 14.4%, 스웨덴 12.7%, 미국 13.4%로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한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의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그 비율(7.0%)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낮았다. 일본의 경우 자식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얻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2] 직업선택의 기준

② 아르바이트 경험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이 19.2%, 일본 31.5%, 독일 33.6%, 스웨덴 41.2%, 미국 43.0%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가 가장 많았고 일본은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았다. 독일은 전단지 돌리기, 스웨덴은 음식점에서 배달 경험, 미국은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았다.

<표 Ⅳ-57>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 각국비교

아르바이트 업종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전단지 돌리기	53.9%	3.2	33.1	7.5	1.7
패스트푸드점	4.7%	22.1	3.6	6.1	18.1
24시간 편의점	1.5%	22.1	3.6	5.2	3.5
상점에서 물건팔기	4.1%	18.8	6.0	13.7	6.2
신문배달	1.6%	0.6	18.7	3.8	2.4
주유소	2.2%	1.3	1.8	0.5	0.7
사무보조	3.6%	3.9	6.7	7.1	9.3
건설현장일	3.0%	1.3	4.9	5.7	2.1
이벤트 행사장	3.1%	3.2	4.9	2.8	1.6
음식점에서 서빙	17.1%	29.2	9.1	14.6	10.4
음식점에서 배달	3.9%	1.9	3.0		1.2
기타	10.4%	20.1	53.0	51.4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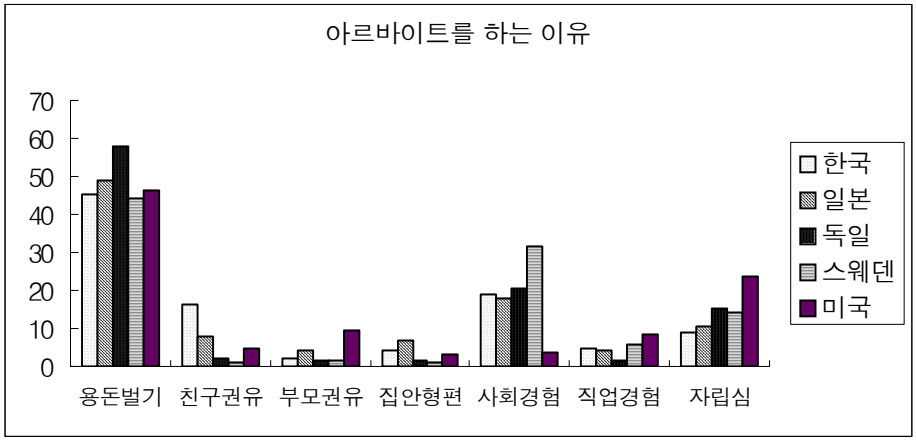
주 : * 아이돌보기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그렇다면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대해 각국 청소년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표 IV-58>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각국 비교)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용돈벌기	525	45.4	138	48.8	168	57.9	172	44.3	624	46.4
친구권유	190	16.5	22	7.8	6	2.1	5	1.3	60	4.5
부모권유	24	2.1	12	4.2	4	1.4	7	1.8	131	9.7
집안형편	46	4.0	19	6.7	4	1.4	4	1.0	45	3.3
사회경험	217	18.8	50	17.7	60	20.7	122	31.4	50	3.7
직업경험	52	4.5	12	4.2	4	1.4	23	5.9	115	8.6
자립심	103	8.9	30	10.6	44	15.2	55	14.2	319	23.7
전체	1,157	100.0	283	100.0	290	100.0	388	100.0	1,344	100.0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청소년들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1순위,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는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2순위로 나타났다.



주: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43] 아르바이트 이유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청소년들은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응답했고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청소년들은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응답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59>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견해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아주 좋은 경험이다	26.0%	61.3	71.0	62.5	38.9
한 두 번 정도는 해도 좋다	53.1%	22.1	18.7	28.2	37.3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3.1%	8.8	0.2	2.1	3.9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1.6%	1.2	0.8	0.6	4.4
잘 모르겠다.	5.3%	6.1	5.0	0	15.6

(3) 성역할 의식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15.4%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일본 24.3%, 독일 14.5%, 스웨덴 5.9%, 미국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각국의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시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국 청소년의 개별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한국 청소년들의 성 고정의식은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 스웨덴 보다는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 청소년들은 의외로 매우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 청소년들은 조사 대상국들 중 가장 비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23.3%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일본 29.7%, 독일 20.0%, 스웨덴 6.7%, 미국 24.3%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청소년과 일본, 미국 청소년들은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보다 성 고정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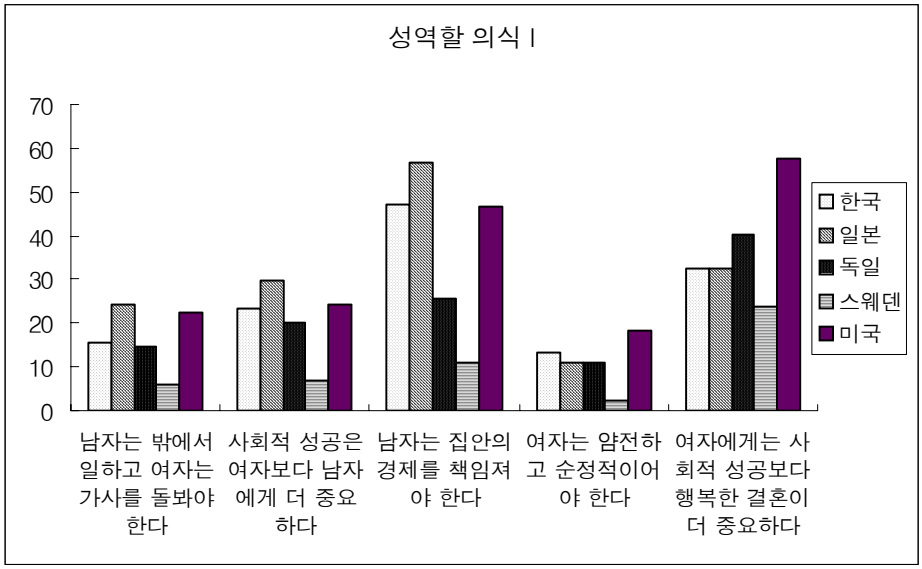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47.2%, 일본이 56.9%, 독일 25.7%, 스웨덴 11.1, 미국 46.6%이다. 위의 두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국청소년과 일본, 미국 청소년들은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보다 보다 성 고정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얌전하고 순정적이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13.4%, 일본 11.2%, 독일 10.9%, 스웨덴 2.2%, 미국 18.3%였다. 이 항목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청소년의 성 고정 의식이 기타 조사대상국의 청소년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32.3%. 일본 32.5%, 독일 40.1%, 스웨덴 23.6%, 미국 57.7%인데, 스웨덴이 이 항목에 대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독일과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조사된 성역할 의식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성역할 의식이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4] 성역할 의식 I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이 28.7%, 일본 27.8% 독일 38.1%, 스웨덴 23.8%, 미국 48.7%이다. 미국청소년들이 기대 조사 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23.8%로서 조사 대상국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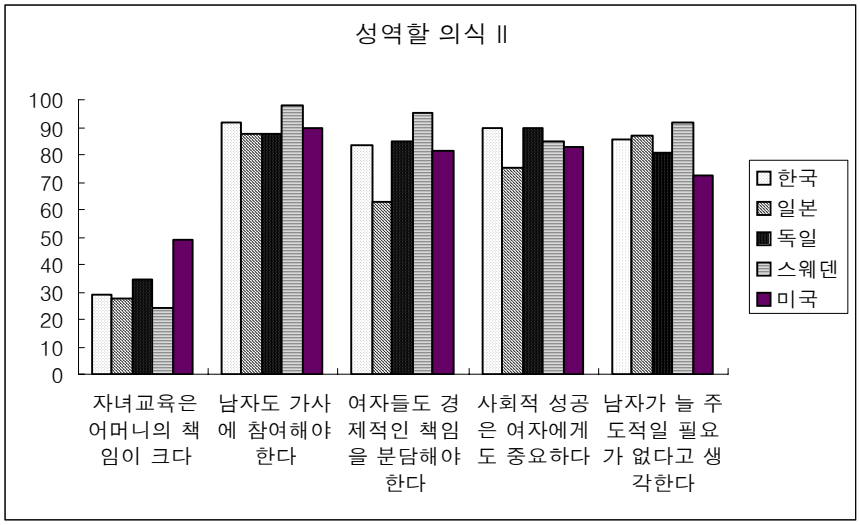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91.4%, 일본 87.3% 독일 85.1%, 스웨덴 97.8%, 미국 89.5%로, 가사노동에 있어서 남녀구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83.3%, 일본 62.8% 독일 84.8%, 스웨덴 95.1%, 미국 81.7%로, 일본을 제외하고 여성의 경제적 책임 분담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89.5.%, 일본 75.5% 독일 89.7%, 스웨덴 84.5%, 미국 82.5%로,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녀구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가 늘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85.6%, 일본 87.1% 독일 80.9%, 스웨덴 91.9%, 미국 72.1%로,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녀구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 의식에 대한 항목별 분포를 보았다(그림 IV-45 참조).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남자가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국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직 청소년들에게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주: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5] 성역할의식 II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 고정의식을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몇 몇 예외는 있으나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청소년들은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보다 보다 성 고정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회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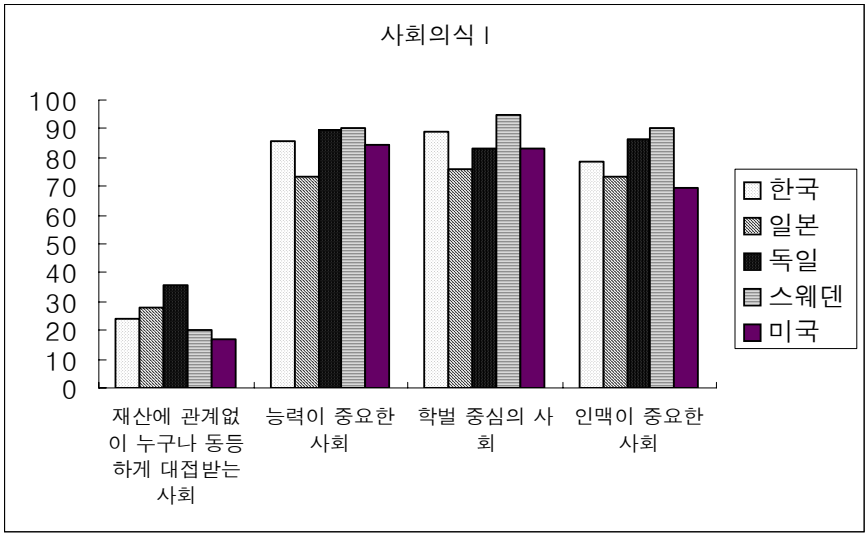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23.9%, 일본 27.8%, 독일 35.6%, 스웨덴 20.4%, 미국 17.2%로 독일 청소년의 사회의식이 비교적 높았으며 미국 청소년들은 가장 낮은 의식을 나타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미국 사회에서 재산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접받는다는 명제에의 동의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85.5%, 일본 73.6%, 독일 89.8%, 스웨덴 90.5%, 미국 8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능력위주의 사회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그 외의 국가들에서도 이 문항에 대한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우리 사회는 학력을 중시하는 학벌중심 사회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

은 한국이 88.9%, 일본 75.9%, 독일 83.4%, 스웨덴 94.9%, 미국 83.4%로 나타났다. 한국과 스웨덴의 경우 학력을 중시하는 학벌 중심 사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높았다.

우리 사회의 인맥이 중요한 사회하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78.4%, 일본 73.2%, 독일 86.1%, 스웨덴 90.5%, 미국 69.3%로 나타났다. 인맥 중시 사회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스웨덴, 독일, 한국, 일본, 미국 순이다. 스웨덴, 독일 청소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사회에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이 흥미롭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6] 사회의식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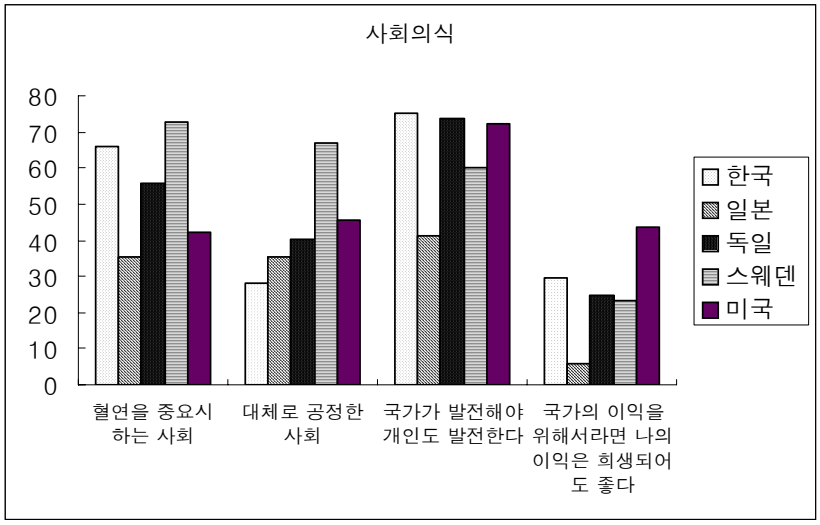
혈연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65.8%, 일본 35.2%, 독일 55.7%, 스웨덴 72.5%, 미국 42.3%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혈연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혈연과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유교권이라 하더라도 일본은 그 수치가 낮아 '혈연'에 대한 생

각이 한국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은 한국 28.3%, 일본 35.6%, 독일 40.2%, 스웨덴 67.0%, 미국 45.4%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한국사회에 팽배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청소년 세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이 75.3%, 일본 41.3%, 독일 73.7%, 스웨덴 60.0%, 미국 72.1%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치가 특히 낮은 것은 최근 일본사회가 가치변동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국이 29.4%, 일본 5.9% , 독일 24.7%, 스웨덴 23.2%, 미국 43.7%로 나타났다. 위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7] 사회의식 Ⅱ

3) 자아개념

(1) 긍정적 자아개념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한국이 53.7%, 일본 54.2%, 독일 91.2%, 스웨덴 86.9%, 미국 9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독일, 스웨덴, 미국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자아정체감에 대한 문화의 영향력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구인의 경우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한국이 51.9%, 일본 33.1%, 독일 84.0%, 스웨덴 83.3%, 미국 96.7%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게, 일본 청소년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위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독일, 스웨덴, 미국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 33.1%로서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은 한국 71.3%, 일본 42.9%, 독일 92.1%, 스웨덴 85.5%, 미국 95.5%로 미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 42.9%로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자신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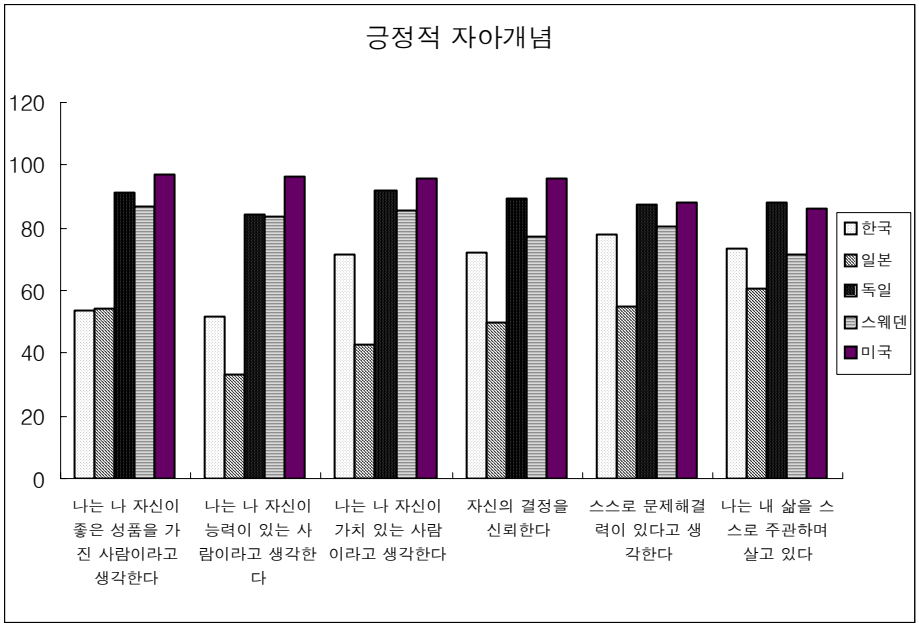
자신의 결정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국이 72.2%, 일본 49.7%, 독일 89.5%, 스웨덴 77.1%, 미국 95.9%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 청소년들의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일본 청소년들은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문제해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한국 77.9%, 일본 55.2%, 독일 87.4%, 스웨덴 80.3%, 미국 88.0%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독일 청소년

들이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73.5%, 일본 60.9%, 독일 88.4%, 스웨덴 71.8%, 미국 96.1%로 나타났다. 역시 일본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미국이 가장 높았다.

긍정적 자아개념 항목들을 통해 국가 비교를 해 본 결과, 몇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과 독일, 스웨덴의 비율이 매우 높아 서구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아시아권 청소년들의 자아개념보다 강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자아존중감 항목 전부에서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어서,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8] 긍정적 자아개념

(2) 부정적 자아개념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5.2%, 일본 38.4%, 독일 16.9%, 스웨덴 60.0%, 미국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독일청소년은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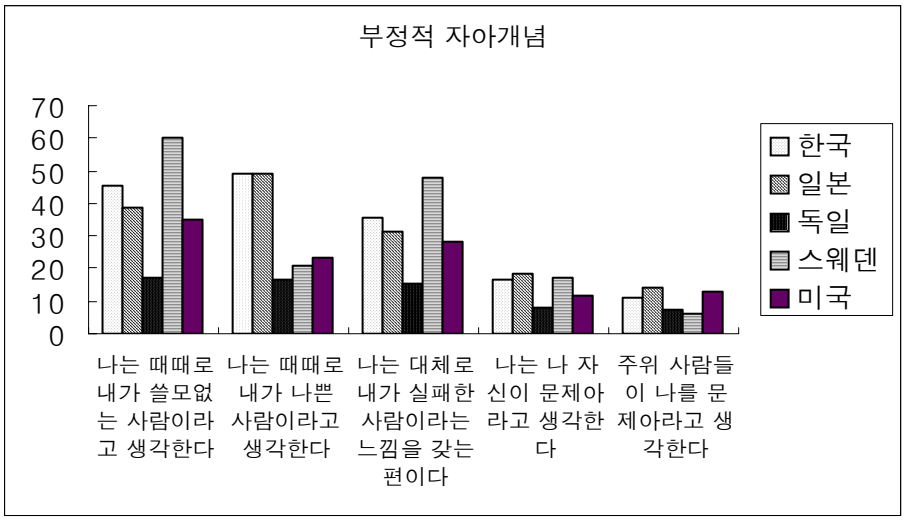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9.1%, 일본 49.1%, 독일 16.7%, 스웨덴 20.9%, 미국 23.4%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서구 청소년들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35.6%, 일본 31.3%, 독일 15.4%, 스웨덴 48.1%, 미국 28.1%로 나타났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독일 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도 독일과 미구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6.7%, 일본이 18.2%, 독일 8.1%, 스웨덴 17.5%, 미국이 11.7%로 나타나 국가별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일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문제아로 보는 비율이 기타 비교 대상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한국이 11.0%, 일본 14.3%, 독일 7.1%, 스웨덴 6.0%, 미국 13.2%로 나타났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라고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일본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 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독일이나 스웨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이 높은 반면, 일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각문항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Ⅳ-49] 부정적 자아개념

(3) 긍정적,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인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각각의 정서가 관련된 개인적·환경적 맥락이 서로 다르고(이미리, 2005),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가 개인의 행동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독립적 차원에서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은정, 2006).

실제로 비행이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을 부정적 자기평가라는 변수를 통해 개념화하여 사용하고, 긍정적 자기평가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적 자기평가와 긍정적 자기평가는 관련된 맥락이 다르고, 개인의 행동선택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민수홍·유성렬, 2003; 백혜정·황혜정, 2005). 그러므로 이 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두 가지 영역,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가 국가별로 청소년 자녀의 가정환경 변수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한국가족에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적, 어머니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 자녀 외출시 아버지 감독이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488, p<.001). 그러나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성적,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자녀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6.364, p<.001).

<표 Ⅳ-60>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통제변수		
성별(남 = 1)	0.016	0.001
성적	-0.049**	0.117**
아버지 학력	0.009	0.051**
어머니 학력	0.012	-0.057**
아버지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0.027	-0.033
어머니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0.125**	0.015
아버지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0.028	0.016
어머니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0.015	-0.038
자녀 외출시 아버지 감독	0.057**	0.005
자녀 외출시 어머니 감독	-0.023	0.021
수정된 R제곱	.017	.014
F 값	7.489**	6.36**

주: * p < .05, ** p < .01

일본가족에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어떠한 요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과 아버지와 대화빈도,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빈도가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가족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어머니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그리고 자녀 외출시 어머니 감독이 자녀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으로 볼 때, 일본 가족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61>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일본)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통제변수		
성별(남 = 1)	-.031	.044
성적	-.040	.064
아버지 학력	.058	.083
어머니 학력	.012	.032
아버지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070	-.050
어머니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135**	.002
아버지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191**	-.152**
어머니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123**	.156**
자녀 외출시 아버지 감독	-.097	.152
자녀 외출시 어머니 감독	.070	-.219**
수정된 R제곱	.002	.014
F 값	1.15	1.81

주: + p<.01* p < .05, ** p < .01

독일가족에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어떠한 요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적만이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081, p<.05).

독일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은 모델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IV-62>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일)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통제변수		
성별(남 = 1)	.010	.032
성적	-.140*	.112
아버지 학력	.021	-.001
어머니 학력	.037	.035
아버지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026	.012
어머니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108	-.040
아버지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078	-.066
어머니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045	.013
자녀 외출 시 아버지 감독	.091	-.066
자녀 외출 시 어머니 감독	.050	-.034
수정된 R제곱	.053	.002
F 값	2.981*	1.088

주: * p < .05, ** p < .01

스웨덴가족에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어떠한 요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델에 투입된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성적과 자녀 외출 시 아버지감독과 어머니 감독이 자녀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으로 볼 때, 스웨덴 가족에서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은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63>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웨덴)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통제변수		
성별(남 = 1)	-0.31	0.199
성적	0.014	0.051
아버지 학력	0.072	-0.034
어머니 학력	0.047	-0.02
아버지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0.093	-0.068
어머니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0.061	0.19
아버지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0.024	-0.36
어머니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0.008	-0.73
자녀 외출시 아버지 감독	-0.004	0.126**
자녀 외출시 어머니 감독	0.007	-0.155**
수정된 R제곱	.011	.002
F 값	1.78	2.99

주: * p < .05, ** p < .01

미국의 가족에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델에 투입된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성적, 아버지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어머니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자녀 외출 시 어머니 감독으로 나타났다(F = 23.736, p<.01). 또한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성적, 아버지 학력, 아버지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어머니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요인이었다(F = 18.727, p<.01).

<표 IV-64>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미국)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통제변수		
성별(남 = 1)	.006	.070*
성적	-.102**	.129**
아버지 학력	-.024	.070*
어머니 학력	.037	-.032
아버지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106**	-.106**
어머니와 자녀 사이 보내는 시간	.052	-.104**
아버지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004	-.063
어머니와 자녀 사이 대화빈도	.101**	-.072
자녀 외출시 아버지 감독	.011	-.001
자녀 외출시 어머니 감독	.142**	.005
수정된 R제곱	.113	.002
F 값	23.736**	18.727

주: * p < .05, ** p < .01

이상에서 보았을 때, 국가 별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녀의 성별, 부모 학력 등의 배경 변수보다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 변수, 즉,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와의 대화빈도, 부모의 감독 등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정의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자아 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및 기타 청소년 발달 관련 정책을 개발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각 국가의 가족구조, 대화빈도, 의사소통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각 국가의 가족환경과 부모자녀관계의 양상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 조사결과 요약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5개국 비교조사 연구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구조 비교

먼저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이상 5개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족구조 하에서 부모-자녀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와 함께 산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분포율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은 양친부모와 사는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였으나, 독일, 스웨덴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 수치가 63.1%로 기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았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비율도 국가별로 차이가 났다. 모자가정 비율은 한국 3.8%, 일본 8.7%, 독일 10.2%, 스웨덴 16.8%, 미국 14.0%로, 비교대상국들에 비하여 한국의 모자 가정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 재혼 등으로 가족 해체가 일어나고 있으나, 서구 유럽의 가족구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핵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사회화

자녀의 의식 결정에 부모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이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독일, 미국 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이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 반면, 일본과 스웨덴 가족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독일,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역할 의식 형성에 역할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부모 양육행동을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헌신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양육형태를 비교조사 하였다. 5개국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나라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부모님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서 미국의 긍정적 응답율이 특이하게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항목별로 국가별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국가별 차이보다는 자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차이가 좀 더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헌신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한국 부모의 헌신성이 높은 경향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 헌신성에 대한 평가는 독일, 스웨덴, 미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모가 다른 조사대상국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덜 헌신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청소년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바라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모들의 헌신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 아버지-자녀 사이의 관계,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각 국가별로 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는가를 살펴볼 결과, 독일과 스웨덴 가족에서는 아버지/어머니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비율이 한국, 일본, 미국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회에 비해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분석이 꼭 적합한 것은 아닌데, 미국이 비록 개인주의적 문화권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비동질적인 미국사회의 경우 독일과 스웨덴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기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대화를 자주하는 등 개방적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을 각 나라 별로 정리하여 국가 별 부모자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되는 대화를 비교함으로 각 국가의 가족에서 부모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성향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주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상관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이 두 항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가족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국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독립변수를 자녀의 성별로 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국과 스웨덴, 그리고 미국가족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스웨덴, 미국은 그 양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영역 모두에서 아버지-딸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아들 사이의 관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가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영역 모두에서 아버지-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딸 사이의 관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 가족은 성적문제에서는 아버지-아들관계, 교우관계와 이성 관계 문제는 아버지-딸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 문항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아버지-자녀사이의 관계 지수 평균 값이 한국보다 높았다. 따라서 스웨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수준은 한국보다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국가별로 비교조사를 하였다. 한국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공부, 진로·진학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영역에는 관심이 높은 반면, 자녀의 이성관계나 여가·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뿐 아니라 자녀의 여가·취미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은 기타 다른 영역에 비해 자녀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낮은 관심도를 보였는데, 스웨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공부, 친구관계, 이성관계, 여가·취미생활, 진로·진학에 비슷한 수준의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 해당한다.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상황을 아버지, 어머니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쪽은 어머니이므로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 직면할 기회가 아버지보다 빈번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격, 습관, 태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응답이 기타 조사대상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4) 청소년들의 생활·참여·의식

청소년들의 생활, 의식을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고민, 가사노동 참여, 독립·자립의식, 직업의식, 성역할의식, 자아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점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들의 귀가시간 비교를 들 수 있다. 한국에 비교하여 서구 국가 청소년들의 귀가 시간이 상당히 일렀다. 청소년들의 귀가 시간은 각 국가의 생활시간, 방식,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서구국가들, 특히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들(미성년자들)이 방과 후 및 야간 시간에 미성년들은 부모의 보호 하에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가 시간이 한국보다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고,

기타 조사 대상국가에 비해 야간 시간의 치안이 안전한 관계로 야간시간에 청소년들의 통행이 자유롭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방과 후 보충수업과 학원 등 학업관련 활동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 따라서 각국의 귀가시간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업관련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변수는 성역할 의식이다.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남자가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국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직 청소년들에게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스웨덴 청소년들이 기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종합해보면, 가족구조, 부모자녀관계, 생활시간, 가치관들이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각 국가의 가족구조, 대화빈도, 의사소통 수준,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각 국가의 가족환경과 부모자녀관계의 양상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Ⅴ.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Ⅴ.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동시에 사회변화에 따라 어떻게 사회화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청소년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 또는 장인 가족,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미디어를 중심으로 각국을 비교할 것이다. 2006년도에는 제1차 사회화기관인 「가족 및 가정」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을 비교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청소년의 개념을 비교하여 이 연구가 취할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관련 주요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각국의 가족 및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조사」 실시하여 5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규정은 각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기가 더욱 연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청년실업에 따른 의존기의 연장이 주요원인이지만, 동시에 '청소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도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청소년'

의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기존의 질서, 가치의 기초위에 상정했던 사회화과정에 대한 의미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 사회화 과정의 근간을 이룬 구조기능주의적인 관점이 사회화 과정에서의 청소년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거나 사회화 과정을 수동적인 학습과정으로 본 것과는 달리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하위문화론적 접근, 생애과정론의 관점, 해석적 관점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은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사회화 과정에 빚어질 수 있는 계급 또는 계층간의 격차에 주목하고, 하위문화론적 접근은 사회화 과정이 기존 질서의 재생산을 넘어 개별 행위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지견을 제시해 주며, 생애과정론의 관점은 사회화 과정에 대한 종단적 접근의 유용성을 제공해 주고, 해석적 관점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넘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실천의 제시해 주고 있다. 이들 이론들은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사회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사회학류의 이론적 입장과는 달리 「발달」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입장으로부터 생물학적 측면을 포함한 인간생활의 변화를 다면적으로 그리는 입장의 이론, 예를 들어 발달과업론, 행동주의 이론, 사회인지론, 생태심리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인지발달론, 정신분석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은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에서의 미시적 변화에 통찰할 수 있는 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셋째, 한국 가족의 자녀사회화 과정은 한국의 독특한 가족주의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을 목적 지향적으로 키우고 있으며, 그 안에서 아이들은 이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이나 부모의 목표는 매우 뚜렷해서, 오로지 목적을 향해 정진하며 가족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주의는 '도구적' 가족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한국의 가족내 자녀사회화의 문제는 바로 이 도구적 가족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넷째,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비교) 조사 결과는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화, 부모자녀관계, 청소년들의 생활·참여·의식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가족구조 비교에서는 5개국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 비율도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한국의 모자 가정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 재혼 등으로 가족 해체가 일어나고 있으나, 서구 유럽의 가족구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핵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화 비교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의식 결정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독일, 미국 가족에서는 부모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이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해당 조사대상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역할 역할모델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의 부모 양육행동을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헌신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양육형태를 비교조사 하였는데. 5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헌신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 헌신성에 대한 평가는 독일, 스웨덴, 미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의 여지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③ 부모자녀관계 비교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모자녀 갈등해결 방법 등을 위주로 조사·비교한 결과, 부모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웨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사대상국 모두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관심 영역 조사결과 한국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영역에는 관심이 높은 반면, 자녀의 이성 관계나 여가·취미생활에 대한 관

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 아버지들은 학업관련 뿐 아니라 자녀의 여가·취미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④ 청소년들의 생활·참여·의식 부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 의식을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고민, 가사노동 참여, 독립·자립의식, 직업의식, 성역할의식, 자아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중 특이한 사항만 서술하자면 한국 청소년들은 대다수는 방과 후 보충수업과 학원 등 학업관련 활동 때문에 서구 국가 청소년들의 귀가 시간이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 성역할 의식에 서는 스웨덴 청소년들이 기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2) 결론

각국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구조, 부모자녀관계, 생활시간, 가치관들이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가족구조, 대화빈도, 의사소통 수준,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각 국가의 가족환경과 부모자녀관계의 양상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5개국 비교조사결과, 한국은 아직 양부모가정이 절대적으로 많으나, 가족의 다양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족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국면, 모든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주제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뉴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가족은 여전히 1차 사회화 기관으로 중요하며, 가족이 변하고 또는 해체의 위기에 있다고 논해지는 이 시기야말로 가족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조사결과, 많은 한국의 가정, 부모들이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의식은 변하고 있지만,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문화와 의식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다.

정책적으로 가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가족이 '도구화'되지 않도록 가족과 청소년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일,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 가족간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격차를 줄이는 일에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문제를 넘어 그리고 가족의 문제를 가족의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은 2007년 2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마련될 것이다.

2. 정책제언

2006년도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중 가족내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가족내 사회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부모자녀간 대화를 비롯한 의사소통, 부모의 기대, 자녀의 기대 그리고 부모자녀간 공동의 활동이나 생활영위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정책의 접근성이 매우 희박하다. 가족내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인 관심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사회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은 매우 세심한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가족내 자녀사회화에 대한 지원책들이다.

정책적인 대안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부모, 청소년 또는 가족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부모교육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자녀교육에 충분한 물적 인적 심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특정 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부모가 될 청소년들에게 자녀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다양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시키는 것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이미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같은 공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의 부모교육은 수요자가 찾아가는 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또 찾아가는 수요자 역시 매우 한정적이며, 더욱이 정작 부모교육이 필요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드문 현실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정책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가 있다. 대체로 아버지들은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부모교육에서 중요한 타켓 중 하나가 아버지인 것이다. 아버지는 대체로 직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직장을 통한 아버지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는 아버지들의 학교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기업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책(인센티브제도)이 필요하다. 보다 광범위한 부모교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자료의 발간, 배포 등의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건소와 학교를 통하여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모자수첩과 가정수첩이 제작·배포되고 있다. 수첩 안에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단, 모든 가정에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시 관공서를 통해서 자녀교육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상의 교육이나 홍보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자녀교육 등 부모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부모

교육의 다른 한 방법은 다양한 자녀교육의 방법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기관이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자녀교육에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특정 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계층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부모 양육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회화 과정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되므로 여타의 교육 및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처방이 따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수혜가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청소년에 대한 자녀교육의 의무화이다. 이미 성인이 되면 재교육의 가능성은 줄어들며 교육수혜자들도 줄어든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다. 청소년들의 자녀교육체험활동 등 자녀교육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자녀교육' 교과를 마련하거나 자녀교육실습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부모교육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관련된 정책제언을 정책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원

현상과 진단

◉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각종 전화상담과 기타 민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 그러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찾아오는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회 전반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음.

◉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 성역할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점차 가족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교육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외국인부모가정, 조부모 양육가정 등 가족구조의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정책 및 제언

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1.1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친근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남자 강사들의 지도가 필요. 다양한 성향의 아버지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토론, 영화, 강의,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화

1.2 남녀공동참여를 모토로 한 대대적 캠페인 실시

- 아버지들의 교육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남성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예: 기업체 세미나실, 낚시대회 등)에서 아버

지의 참여 촉구 홍보 등.

- 언론매체를 통한 남녀공동참여 캠페인 실시

1.3 직장을 매개로 한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프로그램 유도(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 아버지들이 직장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고, 직장 내에서 가족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원

1.4 학교운영위원회 등 아버지들의 참여 확대

-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을 통해 아버지들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아버지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시 유급휴가제 도입 지원(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② 가족 유형(구조)별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2.1 다양한 가족 유형별로 가정내 부모역할모델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예를 들어, 재혼가정의 경우 적절한 부모역할모델(예: 계부모에 의한 훈육이슈)을 찾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등 재혼가정, 한부모 가정, 입양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별로 부모역할 모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도입

2.2 각 가족 유형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온·오프라인의 가족 유형별 네트워크 지원

③ 농어촌 지역 및 소외계층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3.1 농어촌 지역의 부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보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캠프,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3.2 농어촌 지역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법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 뿐 아니라

부모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

3.3 농어촌의 조부모 양육 가정에 대해서 대리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촌영농후계인과 농어촌 청소년들을 1:1로 결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필요. 이때 YC(Youth Companion)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3.4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학교, 복지시설, 복지담당부서, 교육청등의 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배분하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필요.

3.5 지역사회에서의 민간 가족 보호 그룹(Family Advocacy Group)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내의 자녀교육 및 부모교육 자원을 확충함.

④ 부모교육 매체개발 보급

4.1 부모교육 홍보책자의 발간 학교를 통해서 부모교육 관련 책자 배포 및 홍보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발달에 맞는 부모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수첩 보급사업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아직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 없음)

4.2 부모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 : 부모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사이버 교육 등

-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시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거나 자녀교육에 대한
- 책자발간 및 배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사이버 상의 접근은 도시를 중심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상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책자발간 보급 사업 및 방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함.

⑤ 예비 부모들에 대한 자녀교육 정보 및 교과 편성

5.1 성인이 되면 교육의 접근가능성이 줄어들므로 부모교육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할 필요가 있음.

5.2 부모교육에 대한 지식을 청소년에 미리 습득하고, 가족생활 및 자녀·유아교육 체험 등을 경험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화합도 도모할 수 있음.

2. 소외계층 가정에 대한 지원

현상과 진단

◉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계층간 격차 심화로 계층별 가족내 부모교육 자원(문화자본)의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어, 특히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계층별로 문화적 사회적 자원의 격차 크다는 점임.

◉ 또한 아시아 이주 노동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사회인식의 재고찰이 필요한 시기임. 다문화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정책 및 제언

① 경제적 지원

1.1 내용적 결손가정: 유기, 방임, 부모가출로 인해서 내용적 결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부자 복지법 또는 소년소녀가정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방임의 경우 판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시적인 관찰이 요구됨.

1.2 아동양육비 지급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양육비 선급제도, 이행감독제

도, 공탁제도,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부양능력이 없는 빈곤층 이혼가정을 위해서 일정수준의 최저양육비를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음.

② 문화-여가지원

2.1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과후 활동 사업에 양질의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대책의 하나로 퇴직교사 등 경험이 풍부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이로써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일자리 창출 부가효과도 있음.

③ 대안학교 설립 운영

3.1 소외계층 가족의 경우 자녀에게 충분한 사회화 자원을 지원하지 못하므로 지역내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방과후 학교(아카데미)와 병행,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뉴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과 부모의 유대관계 강화

현상과 진단

◉ 모든 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음. 특히 한국의 가족내에서 두드러진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것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입증되었음.

◉ 뉴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는 부모세대가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및 제언

①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 및 기성세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마련

1.1 세대 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갖가지 행사가 마련되고 있지만, 특히 뉴미디어를 가족이 함께 체험하거나 뉴미디어와 관련된 부모자녀간 또는 세대간 대화의 장을 마련함.

1.2 세대 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갖가지 행사가 마련되고 있지만, 특히 뉴미디어를 가족이 함께 체험하거나 뉴미디어와 관련된 부모자녀간 또는 세대간 대화의 장을 마련함.

② 사이버 가정문화 운동의 전개

2.1 가족신문,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 경연대회 등 가족단위로 사이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2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우수 가족 홈페이지 공개, 링크 등을 통하여 사이버 가족문화 만들기 지원하고, 가족 홈페이지 제작 무상지원 방안 모색

③ 사이버 범죄 및 부모들의 감독 및 지도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지원 서비스

3.1 자녀들의 사이버 범죄 및 비행을 방지하거나 가정에서의 사후 대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과 홍보강화

4. 가족 단위 활동지원 및 활동프로그램의 강화

현상과 진단

◉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연구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들과의 문화활동 체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5일제 근무추세에 대비하여 가족여행 등에 대한 가족을 동반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정책 및 제언

① 가족단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보조지원 확대

1.1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육성기금사업에서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1.2 각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가족 활동프로그램

② 기업에서의 가족단위 여행 등 지원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2.1 자녀들의 방학에 맞춘 장기휴가 등 장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2.2 가족단위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확대 및 가족단위 숙박할인제도 활성화

참 고 문 헌

[한국어 문헌]

_____(2003). “모자가족 아동의 학업능력: 양부모가족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가족과 문화』 15(2): 61-80.

_____(2003). 모바일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스타커뮤니티’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_____(2004). “한국 가족의 자녀교육: 문화습속의 관점에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28(4): 62-83.

_____(2004). 청소년심리학의 기초.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4).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_____(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_____(2006b). “2006 청소년통계,” (2006. 5.).

_____(2006).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곽효문(2001).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념비교. 사회복지정책. 제12집. pp187-221.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가을): 5-32.

구창훈(2000). 이동전화의 이용행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근(1999).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3): 1-23.

김경식(2003). “학교 학업성적에 대한 과외학습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13(3): 45-64.

김두환(2005). “교육목표의 관계적 동조와 학업성취: 지위획득 연구의 새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15(1): 43-64.

김신일(1993).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김영호(2000). 청소년의 건강행동과 심리적 변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4호, pp145-153.

김영화(2001). 『한국의 교육과 사회』 교육과학사.

김종길·김문조(2004). 아바타와 청소년의 사어버 정체성 발달. 청소년학연구. 11(2). pp.185-215.

김진희·김경신(200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5 (1). pp.137-166.
김현수(2006).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자료집. 국가청소년 위원회.
김현주·이병훈(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성 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6: 138-161.
문은식·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 (2): 271-288.
박성옥 · 양연숙(2000). “부모의 자녀가치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생활과학연구』, 대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6호.
박창남·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방하남·김기헌(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38(4): 193-222.
변광수 외 2인(1981). 복지의 나라 스웨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변광수 외(1993). 복지의 나라 스웨덴. 한국외국어대학교출반부.
변광수(2005).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삐에르 부르디외(199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새물결.
석영미(2003). “현대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부모 관계에 대한 고찰: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18호.
손승영 외(2003). 『학업중퇴자: 현실과 대안』, 학지사.
손승영(2002). “수험생 어머니의 인식과 생활변화에 대한 계층별 분석”, 『사회발전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제 8호, 127-146쪽.
손승영(2006).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손혜경(2006). 스웨덴 노동시장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신필균 외 1인(1999). 스웨덴 사회복지 유형과 발전상.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한울출판사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여성학』 제 12권, 2호, 1-38쪽.
안병철 · 조성남(1996). “수험생 자녀와 주변인으로서의 아버지‘, 이동원 외,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4
유홍준·정태인(2002).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 자녀의 인성, 학업과 교유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3(1). pp.269-297.

유희정(1992).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윤은정 외(2005). 청소년의 생활양식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105-120.
윤철경 외 2인(2003). 청소년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발전 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윤혜미·박병금(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요인. 사회복지연구. 133-164.
이동원(1996). “대학입시와 가족의 위기,” 이동원 외,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이선이 외(2006).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제 29권, 1호, 97-132쪽.
이정환(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임선애 역(2002). 스웨덴 쑥쑥 교육. 코모토 요시코 저, 홍익출판사
장미혜(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8(4): 223-251.
장상수·손병선(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학』 39(4): 198-230.
장혜경 외(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광호(2002). 선진국의 교육개혁 효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0권 3호. pp123-146.
정재영(2002). “사회 태도에 미치는 가족주의의 영향,” 『사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제22호.
조선일보(2006). 세계는 교육혁명중-스웨덴편. 2006/01/31일자 기사.
조정문·장상희(2001). 가족사회학. 대우총서.
陳寶良(2001). 이치수 역(2001), 중국유맹사. 서울: 아케넷.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193-216.
최흥국・스스무 히라바야시(1999).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0(1):103-122.
통계청(2006a). 『2005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4).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한상철(1998). 청소년의 위험행동. 청소년학연구. 5(3). 45-62.
한유미 외 4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한인숙・박춘호(1996).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력과 한계,” 이동원 외,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일본어 문헌]

CIA,「The World Factbook 2004」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OECD,「Education at a Glance 2005」
OECD,「Extending Opportunities :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OECD,「Extending Opportunities :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教育指標の国際比較」(2005)
古瀬 徹・塩野谷祐一 (1999). 先進諸国の社会保障4 ドイツ.東京大学出版会
内閣府(2001). 『日本の青少年の生活と意識―第2回調査 青少年の生活と意識に關する基本調査報告書』.
_____(2006).『青少年白書』.
渡部眞(2001). 「青少年をめぐる状況の変化―1995年と2000年 `両調査の比較分析から」内閣府『日本の青少年の生活と意識―第2回調査 青少年の生活と意識に關する基本調査報告書』, 205-216 .
藤田英典 (1995). 「生活環境の変容と青少年の生活世界」總務廳 『現代の青少年―第5回青少年の連帶感などに關する調査報告書』, 7-13 .
藤田伍一・塩野谷祐一(1999). 先進諸国の社会保障7 アメリカ.東京大学出版会
藤井良治・塩野谷祐一(1999). 先進諸国の社会保障6 フランス.東京大学出版会
落合恵美子 (1994, 1997).『21世紀家族へ 新版』有斐閣選書 .
牟田和恵 (1996).『戦略としての家族』新曜社 .
武内清 (1995). 「青年の意識 `行動は変わったか―時系列比較と屬性比較」總務廳『現代の青少年―第5回青少年の連帶感などに關する調査報告書』, 103-110 .
武川正吾・塩野谷祐一(1999). 先進諸国の社会保障1 イギリス.東京大学出版会
文部科学省,「国際数学理科教育動向調査の2003年調査」
_____,「OECD生徒の学習到達度調査(PISA)」

_____,「データからみる日本の教育 2005」
山田昌弘 (1994) ,『近代家族のゆくえ』新曜社.
小谷敏(1993).『若者論を讀む』世界思想社 .
小松隆二・塩野谷祐一(1999). 先進諸国の社会保障2　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東京大学出版会
松田茂樹(1999). 「育兒の変化に對応した支援策の方向性」『LDI　REPORT』ライフデザイン研究所 , 1999.5：29-53 .
深谷野亞(1995). 「家族」總務廳『現代の青少年—第5回青少年の連帶感などに關する調査報告書』, 14-31 .
苅谷剛彦(2001).『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有信堂 .
日本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の動向-日本と世界」
日本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の動向-日本と世界」
日本総務省統計局,「世界の統計 2005」
日本青少年研究所(1984).　仕事と価値観　90年代への「人間と仕事」国際レポート
日本青少年研究所(1994).　中学生・高校生の日常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ー日本・米国・中国の 3 カ国の比較
日本青少年研究所(1994).　ニュースレター第18号.　高校生ライフスタイル調査ー日・米・台湾・高校生比較ー
日本青少年研究所(1998).　中学性・高校生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報告書
日本青少年研究所(1998).　ニュースレター第22号.　日・中・韓　中学生・高校生の生活と意識する調査
日本青少年研究所(2001).　子どものしつけに関する調査ー日本・中国比較報告書
日本青少年研究所(2001).　ニュースレター第25号.　中学生・高校生新千年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ー日本・韓国・アメリカ・プラン国際比較
日本青少年研究所(2003).　ニュースレター第27号.　日本・アメリカ・中国・韓国　高校生の生活と意識する調査
日本青少年研究所(2005).　高校生の学習意識と日常生活調査報告書ー日本・アメリカ・中国の 3 カ国の比較
千本曉子(1990).　「日本にみる性別役割分業の形成－家計調査をとおして」荻野美穗·落合恵美子·千本曉子『制度としての＜女＞』平凡社 .
總務廳(1995).『現代の青少年—第5回青少年の連帶感などに關する調査報告書』.
澤山美果子(1990) ,「子育てにおける男と女」女性史總合研究會編『日本女性生活史 4 近代』東京大學出版會: 125-162 .
国立女性教育会館(2006).　「平成16年度‧17年度　家庭教育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報

告書』.)
国際連合,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日本総務省統計局, 「2000年 酷税調査報告」
坂本佳鶴惠(1997).『＜家族＞イメージの誕生』新曜社 .
丸尾直美・塩野谷祐一(1999). 先進諸国の社会保障5　スウェーデン.東京大学出版会
厚生労働省,「社会保障の受給と負担の見通し」

[영어 문헌]

Baumrind, D.(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Brooks-Gunn, Lerner, R. & Peterson, A. (Ed). Encyclopedia of adolescence.

(1997).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roceedings of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Aug. 15, Chicago, IL.

Acock, A. C. and D. H. Demo(1994). Family Diversity and Well-Being. Thousand Oaks, CA: Sage.

Acock, A. C. and V. L. Bengtson(1980). "Socializa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Actual versus Perceived Similarity among Parents and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01-515.

Acock, A. C., D. Barker, and V. L. Bengtson(1982). "Mother's Employment and Parent-Youth Simil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441-455.

Adlaf, E. M. and F. J. Ivis(1996). "Structure and relations: the influence of familial factor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Substance Abuse 5: 1-19.

Ahrons, C. R. (1994). The Good Divorce. New York Harper Collins.

Amato, P. R. and B. Keith. (1991). "Parental Divorce and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Amato. P. R. (1996). "Explain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28-640.

Ambry, M. K., (1992). "Childless Dances," American Demographic, 14:55.

Amey, C. H. and S. L. Albrecht. S. L (1998). "Race and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 drug use: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arental interaction." Journal of Drug Issues 28: 283-298.

Annie E. Casey Foundation. (1998). When Teens Have Sex: Issues and Trends. Kids

Count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Author.

Arditti, J. A. (1999). ″Rethinking Relationships between Divorc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Capitalizing on Family Strengths.″ Family Relations 48: 109-19.

Ariès, Philippe(1962). Centuries of Childhood: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Y.: Vintage Books.

Arnett, J. J. (1999).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erican Psychologist 54(5): 317-326.

Aseltine, R. H. (1995). “A Reconsideration of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evia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03-121.

Aseltine, R. H. (1996). “Pathways Linking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eviance.″ Journal of Health and Science Behavior 37: 133-148.

Austin, R. (1978). ″Race, father-absenc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15: 487-504.

Bandura, A. (1964). ″The Stormy Decade: Fact or Fic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1: 224-231.

Barling, J. and E. K. Kelloway. (1999). Young Workers: Varieties of Experi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rnes, G, M., A. S. Reifman, M. P. Farrell, and B. A. Dintcheff. (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Six-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75-186.

Barrett, A. E and R. J. Turner. (2006). ″Family structure and substance use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examining explanations for the relationship.″ Addiction 101(1): 109-120.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American Socie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1-16.

Bengtson, V. L., T. J. Biblarz, and R. E. L. Roberts. (2002). How Families Still Matter: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in Two Gener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ngtson. V. L. (1989). ″The Problem of Generation: Age Group Contrasts, Continuities, and Social Change.″ Pp 25-52 in The Course of Later Life: Research and Reflection, edited by V. L. Bengtson and K. W. Schai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Benson, J. J., J. Arditti, J. T. R. De Ariles, and S. Smit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ttributions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Intimate 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3: 450-464.

Biblarz, T. J. and A. E. Raftery. (1993) "The Effects of Family Disruption on Social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97-109.

Bickley, P.G., Keith, T., Trivete, P.S. & Anderson, A.(1995). Does parental involvement affect eighth grade student achieve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22(3), 474-496.

Bostrom, M. (2001). The 21st century teen: Public perception and teen reality: A summary of public opinion data. Washington, DC: The Frameworks Institute.

Bourdieu, P and J.-C. Passeron. (1976).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Translated by R. Nice. Beverly Hills: Sage.

Bowles, S. and H.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Bracey, G. (1998). "Tinkering with TIMSS." Phi Delta Kappan 80: 32-38.

Brake, M. (1985). Comparative Youth Culture: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s and Youth Subcultures in America, Britain, and Canada. London and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0). The Employment Situation: January 200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Burnside, M. A., P. E. Baer, R. J. McLaughlin, and A. D. Pokorny. (1986). "Alcohol use by adolescents in disrupted famil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0: 274-278.

Butts, J. A. (2000). Youth Crime Drop.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Justice Policy Center.

Chao, R.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Cicourel, A. V. (1974). Cognitive Sociology: Language and Meaning in Interaction. New York: Free Press.

Clingempeel, W. G., J. J. Colyar, E. Brand, and E. M. Hetherington.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Grandparents: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tructure and Pubertal Effects." Child Development 63:1404-22.

Conger, R. D. and W. Chao. (1996). "Adolescent Depressed Mood." Pp. 157-75 in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edited by Ronald Simmons. Thousand Oaks, CA: Sage.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Corsaro, W. A. (1985). Friendship and Peer Culture in the Early Years. Norwood, NJ: Ablex.

Corsaro, W. A. and T. A. Rizzo, T. A. (1988). "Discussion and Friendship: Socialization Processes in the Peer Culture among Italia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879-894.

DeLeire, T. and A. Kalil. (2002). "Good Things Come in Threes: Single-Parent Multi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Demography 39(2): 393-413.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0). Youth Violenc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Rockville, MD: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orfman, L., K. Woodruff, V. Chavez, and L. Wallack. (1997). "Youth and Violence on Local Television News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8): 1311-1316.

Duffett, A., J. Johnson, and S. Farkas. (1999). Kids These Days '99: What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the Next Generation. New York: Public Agenda.

Elam, S. M., L. C. Rose, and A. M. Gallup. (1994). "The 26th Annual Phi Delta Kappa/Gallup Poll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75(1): 41-56.

Elder, G. H. (1985).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lder, G. H., C. C. Evans, and S. Parker. (1995). School Talk: Gender and Adolescen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Emery, R. E. (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Epstein, J. (1999). School and family connections: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integrating sociologies of education and fami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15(2), 99-126.

Everhart, R. B. (1983). Reading, Writing, and Resistance: Adolescence and Labor in a Junior High School. Boston: Routledge.

Falci, C. (2006). "Family Structure, Closeness to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Par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47(1): 123-146.

Feng, D., R. Giarrusso, V. L. Bengtson and N. Frye. (199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51-463.

Flewelling, R. and K. Bauman.(1990). "Family structure as a predictor of initial substance use and sexual intercourse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71-81.

Furlong, Andy and Cartmel, Fred. 1997. Young people and social change:individualization and risk in late modernity. Buckingham;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Furstenberg, F. F. Jr. and J. O. Teitler. (1994).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What Happens to Children of Divorce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5: 173-90.

Gates, G. J. and F. L. Sonenstein. (2000). "Heterosexual Genital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 Males: 1988 and 1995."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2(6): 295-297.

Ge, X., R. D. Conger, F. O. Lorenz, and R. L. Simons. (1994). "Parents'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44.

Gil, A. G., W. A. Vega and F. Biafora. (1998). "Temporal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isk factors on drug use initiation in a multiethnic sample of adolescent bo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73-393.

Glass, J., V. L. Bengtson, and C. C. Dunham. (1986). "Attitude Similarity in Three-Generation Family: Socialization Status Inheritance or Reciprocal Influ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685-698.

Good, T. and J. Brophy. (2003). Looking in Classrooms. New York: Longman.

Gumbiner, J. (2003). Adolescent Assessment. NJ: John Wiley and Sons.

Hagan, F. and M. Sussman. (1988). "Deviance and the Family: Where have we been and where are we going?"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22.

Hall, G. S. (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D. Appleton & Company.

Hall, G. Stanley(1904). Adolescence: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2 vols. New York:D. Appleton and Co.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ew York: Free Press.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s of Style. London: Methuen.

Herman, A. M. (2000). Report on the Youth Labor Force.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labor.

Hetherington, M. E.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Child Development 60: 1-14.

Hitlin, S. (2006).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on Values and Aspirations: Bridging Two Theories of Social Class and Socializ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9(1): 25-46.

Hoffmann, J. P. (1993). "Exploring the direct effect and indirect family effects on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Drug Issues 23(3): 535-557.

Hoffmann, J. P. (2002). "The Community Contex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2): 314-330

Hoffmann, J. P. and R. Johnson. (1998). "A National Portrai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0(3): 633-645.

Ianni, Francis A. J. (1989), The Search for Structure: A Report on American Youth Today, The Free Press.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nnings, M. K. and R. G. Niemi. (1974). The Political Character of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Families and Schoo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isty Press.

Johnes, R. K., J. E. Darroch, and S. T. Henshaw. (2002). "Patterns i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Women Obtaining Abortions in 2000-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5): 226-235.

Johnson, R. (1986).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cy: General patterns and gender differences." Criminology 24: 65-84.

Jones, A. L. and S. N. Jolly. (2003). "Power in North Carolina Parents: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Self-Efficacy?" Sociation Today 1(2)

Justice Policy Institute. (2000). The Color of Justice: An Analysis of Juvenile Adult

Court Transfers in California. Washington, DC: Author.

Kalmijn, M. (1994). "Mo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Children's Schoo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257-275.

Kaufman, P., X. Chen, S. P. Choy, S. A. Ruddy, A. K. Miller, J. K. Fleury, K. A. Chandler, M. R. Rand, P. Klaus, and M. G. Planty. (2000).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0.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U. S. Department of Justice.

Kessler, S., D. J. Ashenden, R. W. Connell, and G. W. Dowsett. (1985). "Gender Relations in Secondary Schooling." Sociology of Education 66: 21-40.

Kleijwegt, Marc(1991). Ancient youth: the ambiguity of youth and the absence of adolescence in Greco-Roman society. Amsterdam: J.C. Gieben.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 Homewood, IL: Dorsey Press.

Kohn, M. L.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Kohn, M. L. and C. Schooler. (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Maclead, J. (1995). Ain't No Makin' It: Aspirations and Attainment in a Low-Income Neighborhood. Boulder, CO: Westview Press.

Males, M. A. (2000). Kids and Guns: How Politicians, Experts, and the Press Fabricate Fear of Youth. Philadelphia: Common Courage Press.

McLanahan, S. and G. Sandefur.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cNeal, R. (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70: 206-220.

McRobbie, A. (1991). Feminism and Youth Culture: From Jackie to Just Seventeen. Boston: Unwin Hyman.

Mehan, H., L. Hubbard, and I. Villanueva. (1994). "Forming Academic Identities: Accommodation with Assimilation among Involuntary Minorities."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5: 91-117.

Mihalic, S. F. and D. Elliott. (1997). "Short-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Adolescent Work." Youth and Society. 28(4): 464-498.

Modell, J. (1989). Into One's Own: From Youth to Adulthood in the United States, 1920-1975.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lwen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lackwell.

Parcel, T. L. and E. G. Menaghan. (1994). Parents' Jobs and Children's Liv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IL: Free Press.

Phelan, P., A. L. Davidson, and H. C. Yu. (1993). "Students' multiple Worlds: Navigating the Borders of Family, Peer and School Cultures." Pp. 52-88 in Renegotiating Cultural diversity in American Schools, edited by Phelan, P., A. L. Davidson, and H. C. Yu.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latt, Anthony M.(1977). The Child Savers: The Invention of Delinquency.

Pope, C. E. and H. N. Snyder. (2003). Race as a Factor in Juvenile Arrests.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Popenoe, D. (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27-556.

Rollins, B. C. and D. L. Thomas.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Pp. 317-364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edited by W. Burr, R. Hill, R. I. Nye, and I. L. Reiss. New York: Free Press.

Rose, L. C and A. M. Gallup. (2000). "The 32nd Annual Phi Delta Kappa/Gallup Poll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82(1): 41-57.

Rosen, L. (1985). "Family and delinquency: Structure or function?" Criminology 23: 553-7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s, C. E. and J. Mirowsky. (1999). "Parental Divorce, Life Course Disruption,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034-1045.

Rueter, M. A. and R. D. Conger. (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 98-115.

Sawhill, I. V. (1998). Teen Pregnancy Prevention: Welfare Reform's Missing Component. Washington, DC: Brookings.

Schneider, B. and D. Stevenson. (1999). The Ambitious Generation: America's Teenagers Motivated but Directionl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Sebald, H. (1968). Adolescence: A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Appleton.

Shuman, A. (1986). Storytelling Rights: The Uses of Oral and Written Texts by Urban Adolesc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mons, R. L. and C. Johnson. (1996). "Part III: Family Interaction." Pp. 78-80 in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edited by R. Simons. Thousand Oaks, CA: Sage.

Smetana, Judith G., Nicole Campione-Barr, and Aaron Metzger. (2006). "Adolescent Development in Interpersonal and Societal Contex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255-84.

Smith, T. E. (1983). "Parental Influence: A Review of the Evidence of Influence and a Theoretical Model of the Parental Influence Process." Pp. 13-45 in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4, edited by A. Kerkhoff. Greenwich, CT: JAI Press.

Snynder, H. N. and M. Sickmund. (1999).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1999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Sorenson, C. (1994). Success and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8, 1, 10-35.

Starrels, M. E. and K. E. Holm. (2000). "Adolescents' Plans for Family Formation: Is Parental Socialization Importa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16-429.

Steinberg, L. and S. B. Silverberg, (1987), "Infl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751-760.

Steinberg, Laurence and Amanda Sheffield Morri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Strom, K. J. (2000). "Profile of State Prisoners under Age 18, 1985-1997."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NCJ 176989).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Suh, T., C. G. Schutz, and C. E. Johanson. (1996). "Family structure and initiating non-medical drug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Substance Abuse 5: 21-36.

Sui-Chu, E. H. and J. D. Willms.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136-141.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World Wide Web.

Swell, W. H. and V. P. Shah. (1968). “Parents’ Educational Aspiration and Achie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191-209.

Swell, W. H., A. O. Haller, and A. Portes.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2-91.

Terry, E. and J. Manlove. (2000). Trends in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use among Teens. Washington, DC: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Troll, L. and V. L. Bengtson. (1979). ″Generation in the Family.″ Pp 127-161 in Theories about Family 1, edited by W. Burr, R. Hill, I. Reiss and I. Nye. New York: Free Pres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Youth Violenc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Rockville, MD: Author.

Valenzuela, A. (1999). Subtractive Schooling: U.S.-Mexican Youth and the Politics of Cari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Van Voorhis, P., F. T. Cullen, R. A. Mathers, and C. C. Garner. (1988).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quality on delinquenc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actors.″ Criminology 26:235-61.

Videon, T. M. (2002).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Parental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489-503.

Wallerstein, J., J. M. Lewis, and S. Blakeslee.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A 25 Year Landmark Study. New York: Hyperon.

Warren, J. R., P. C. LePore, and R. D. Mare. (2000).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onsequences for Students’ Grades in Academic Course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37(4): 943-969.

Webster, P. S., T. L. Orbuch, and J. S. House. (1995). ″Effects of Childhood Family Background on Adult Marital Quality and Perceived 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 404-432.

Wells, L. E. and J. H. Rankin. (1986). ″The broken homes model of delinquency: Analytic issu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3: 68-93.

Wells, L. E. and J. H. Rankin. (1991). ″Families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broken homes.″ Social Problems 38: 71-93.

Wills, P. E. (1981).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olfer, L. T. and P. Moen. (1996). "Staying in School: Maternal Employment and the Timing of Black and White Daughters' School Exit." Journal of Family Issues 17: 540-560.

Words, M., T. C. Bynum, and C. J. Corley. (1994). "Looking up Youth: The Impact of Race on Detention Deci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2): 149-165.

Wulff, H. (1988). Twenty Girls: Growing up, Ethnicity and Excitement in a South London Microculture. Stockholm: University of Stockholm.

Young, K.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roceedings of the 10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6 Aug 16, Toronto, Canada.

Youniss, J. and J. Smollar.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Zullig, K. J., R.F., E..Huebner, and J.. Drane. (2005). "Associations among Family Structure, Demographics, and Adolescent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Issue 14(2): 195-206.

울리히 벡 (1999). 아즈마 렌・이또 미도리 역. 『위험사회』. 東京:政大学出版局.

[독일어 문헌]

Alt, Ch. (Hrsg.; 2005) : Kinderleben. Aufwachsen zwischen Familie, Freunden und Institutionen, Bd.1; Aufwachsen in Familien; Bd. 2: Aufwachsen zwischen Freunden und Institutionen. Reihe DJI-Kinderpanel. Wiesbaden

Barthelmes, J. (1999a): Raver, Rapper, Punks, Skinheads und viele anders. Beobachtungen aus jugendkulturellen Szenen. In: Erziehung und sozialer Wandel. Zeitschrift für Pädagogik. 39. Beiheft. Weinheim, Basel. S. 39-50

Barthelmess, J./Sander, E. (1997) : Medien in Familie und Peer-group. Vom Nutzen der Medien Für 13- und 14jährige. Medienerfahrungen von Jugendlichen, Bd. 1. Müchen.

Barthelmess, J./Sander, E. (2001) : Erst die Freunde, dann die Medien. Medien als Begleiter in Pubertät und Adoleszenz. Medienerfahrungen von Jugendlichen, Bd. 1. München

Bietau, A. (1989): Arbeiterjugendliche zwischen Schule und Subkultur - Eine

Straßenclique in einer ehemaligen Bergarbeitersiedlung des Ruhrgebiets. In: Breyvogel, W.(Hrsg.): Pädagogische Jugendforschung. Opladen, S. 131-159

Bildung. In: Datenreport 2004.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eite aktualisierte Auflage. http://www.destatis.de/datenreport/d_daten.htm (24.04.06).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2004b).]

Bildung. In:Datenreport 2004.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eite, aktualisierte Auflage. [Statistisches Bundesamt] (2004b) http://www.destatis.de/datenreport/d_datend.htm(24.04.06)

Bildung. In:Datenreport 2004.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eite, aktualisierte Auflage. [Statistisches Bundesamt](2004a) http://www.destatis.de/download/d/datenreport/2_09gesch.pdf(8.5.2006)

Bittman, Michael/Rice, James Mahmud(2000). The rush hour :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89.

Bonfadelli, H. (1996): Lesen im Alltag Jugendlicher. Umfang und Motivationen, Modalitäten. In: Hohmann, J. S./Rubinich, J. (Hrsg.):Wovon der Schüler träumt. Leseförderung im Spannungsfeld von Literaturvermittlung und Medienpädagogik. Frankfurt a. M., S. 51-66

Bruner, C. F./Dannenbeck, C. (2002): Freiwilliges Engagement bei Jugendlichen. Eine qualitative Studie zu Erfahrungen, Motivla gen und Unterstützungsbedarf verbandsmäßig organisierter Jugendlicher in ausgewählten Jugendverbänden und Jugendgemeinschaften des Kreisjugendrings München-Stadt. München

Büchner, P./Fuhs, B. (1998): Zur Sozialisationswirkung und zur biographischen Bedeutung der Kindersportkultur. Marburg

Bundeskrimalamt (2005).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004.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0a)]. Vereinbarkeit von Erwerbstätigkeit und Pflege: betrieblich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pflegender Angehöriger.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2b)]. Elfter Kinder-und Jugendbericht der Bundesregierung.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5a)] Siebter Familienbericht.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5b)] Zwolfter kinder-and Jugendbericht.

Chassé, K. A./Zander, M./Rasch, K. (2003): Meine Familie ist arm. Wie Kinder im Grundschulalter Armut erleben und bewältigen. Opladen

Cornelißen, W./Blank, K. (2004b) : Zeitverwendung von Jugen und Mädchen. In: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Alltag in Deutschland. Analysen zur Zeitverwendung. Beiträge zur Ergebniskonferenz der Zeitbudgeterhebung 2001/02 am 16./17. Februar 2004 in Wiesbaden. Forum der Bundesstatistik, Bd. 43, S. 160-174

Dannenbeck, C./EßER, f./LöSCH, H. (1999): Herkunft(er)zählt. Befunde iiber Zugehrigkeiten Jugendlicher. Münster, New York, München, Berlin

Die Stilisierung des Geschlechts: Jugendliche Lebensstile, Risikoverhalten und die Konstruktion von Geschlechtlichkeit. Weinheim, München: Juventa.

DJI-Jugendsurvey 2003,3 Welle, eigene Berechnungen.

Dreher, E./Dreher, M. (1985) : Entwicklungsaufgaben im Jugendalter. In:Liepmann, D./Stiksrud, A.(Hrsg.):Entwicklungsaufgaben und Bewältigungsprobleme in der Adoleszenz. Göttingen, S. 56-70

Dudek, P. (2002) : Geschichte der Jugen. In Krüger, H.-H./Grunert, C. (Hrsg.) : Handbuch Kindheits-und Jugendforschung. Opladen, S. 333-349

Eckert, R./Reis, Ch./wETZSTEIN, tH. (2000): "Ich will halt anders sein wie die anderen." Abgrenzung, Gewalt und Kreativität in Gruppen von Jugendlichen. Opladen

Edelstein, W. (2004): Wider die Leuchttürme. Ein Plädoyer für kulturelle Bildung mit Flächenwirkung. In: Welck, K. v./Schweizer, M. (Hrsg.): Kider zum Olimp! Wege zur Kultur für Kinder und Jugendliche. Köln, S. 27-32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Engstler, H., & Menning, S. (2003). Die Familie im Spiegel der amtlichen Statistik. Lebensformen, Familienstrukturen, wirtschaftliche Situation der Familien und familiendemographische Entwicklung in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Erwerbstätigkeit und Arbeitslosigkeit. In: Datenreport 2004.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eiteaktualisierte Auflage. http://www.destatis.de/datenreport/download/d/datenreport/1_03gesch.pdf.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2004c).]

Eurostat, How Europeans spend their time. Every life of women and men. Luxemburg(2004)

Fagan, Collete (2003). Working-time preferences and work-life balance in the EU : some policy leration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Familie. In: Datenreport 2004.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eite, aktualisierte Auflage. http://www.destatis.de/download/d/datenreport/2_09gesch.pdf(8.5.2006). [Statistisches Bundesamt (Hrsg.)(2004a).]

Fend, H. (2001) : Entwicklungspsychologie des Jugendalters. Opladen.

Fischer, A. (2000): Jugend und Politik. In: Deutsche Shell (Hrsg.): Jugend 2000. 13. Shell Jugendstudie, Bd. 1. Opladen, S. 261-282

Fischer, C. (2001): "Das gehört jetzt irgendwie zu mir." Mobilisierung von Jugendlich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zum Engagement in einem Umweltverband. Eine Fallstudie am Beispiel der BUNDjugend. Dissertation an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der TU Chemnitz, Institut für Sozialogie. Chemnitz, archiv.tu-chemnitz.de/pub/2002/0013/Index3.html

Fölling-Albers, M./Hopf, A. (1995) : Auf dem Weg vom Kleinkind zum Schulkind. Opladen

Fritz, J./Ferh, W. (Hrsg.;1997) : Handbuch Medien: Computerspiele. Bonn

Fritz, J./Ferh, W. (Hrsg.;2003) : Computerspiele-virtuelle Spiel und Lernwelten. Bonn

Fuhs, B(1996): Das außerschulische Kinderleb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In: Büchner, P./Fuhs, B./Krüger, H.-H. (Hrsg.): Vom Teddybär zum ersten Kuß. Wege aus der Kindheit Ost- und Westdeutschland. Opladen, S. 159-200

Gille, M., Sardei-Biermann, S., Gaiser, W., & de Rijke, J. (2006).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in Deutschland. Lebensverhältnisse, Werte und gesellschaftliche Beteiligung 12- bis 29-Jährig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Großegger, B./Heinzlmaier, B. (2002): Jugendkultur Guide. Wien

Grossmann, Karin (2005). Frühe Bindungen und psychische Sicherheit bis ins junge Erwachsenenalter. Frühförderung Interdisziplinär 24, 55-64.

Grossmann,K./Grossmann,k./Kindler,H./Scheuerer-Englisch,H./SPANGLER,G./Stöcker,K./Suess, G./Zimmermann,P. (2003) : Die Bindungstheorie : Modell, entwicklungspsychologische Forschung und Ergebnisse. In:Keller, H.

(Hrsg.):Handbuch der Kleinkindforschung. 3. korr., überarb. und erw. Aufl.Bern, Göttingen, Toronto, Seattle, S. 223-282.

Hallinan, M. T. (1980): Potters of cliquing among youth. In: Foot, H. C./Chapman, A.J./Smith, J.R.(Hrg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hood. New York

Hans Bertram,

Hans Bertram, auf der Basis von Dten des DJI Familiensurvey 2000, 10318.

Helsper, W. (1989): Jugendliche Gegenkultur und schulisch-bürokratische Rationalität. In: Breyvogel, W.(Hrsg.): Padagogische Jugendforschung. Opladen, S. 161-186

Holzapfel, R. (1999): Kinder aus asylsuchenden und Flüchtlingsfamilien: Lebenssituation und Sozialisation. In: Dietz, B./Holzapfel, R.:Kinder aus Familien mit Migrationshintergrund. Kinder in Aussiedlerfamilien und Asylbewerberfamilien - alleinstehende Kinderflüchtlinge. München, S. 53-233

Honig, M.-S(2002) : Geschichte der Kindheit. In Krüger, H.-H./Grunert, C. (Hrsg.) : Handbuch Kindheits-und Jugendforschung. Opladen, S. 309-332

Hurrelmann, K. (2005).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Weinheim, München : Juventa. 8. Auflage.

Klocke, A. (1996): Aufwachsen in Armut. In: Zeitschreftt für Sozialisationsforschung und Erziehungssoziologie, 16, 4, S. 390-409

Kraam, N. (2003) : Interaktives, problemlösendes Denken im vernetzten Computerspiel. Dissertation an der Gesamthochschule Wuppertal, elpub. bib.uni-wuppertal.de/edocs/dokumente/fbo3/diss2002/kraam-aulenbach;internal&action=buildframes.action, 15.03.2004

Kraam, N. (2004) : Kompetenzfördernde Aspekte von Computerspielen. In: Medien und Erziehung.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3/2004, S. 12-17

Krappmann, L./Oswald, H./Niedereisen, B. (1999) : Soziale Ungleichheit unter Kindern in Schulklassen. Antrag an die DFG. Potsdam

Krüger, H-H./Pfaff, N.(2004): Jugendkulturen und Jugendcliquen in Sachsen-Anhalt und Nordrhein-Westfalen. In: Krüger, H.-H./Helsper, W.: Schulische Anerkennungsbeziehungen und politische Orientierungen von Jugendlichen. Wiesbaden.

Lesthaeghe, Ron (2000). Europe's demographic Issues : Fertility, household formation and replacement migration. Brüssel.

Lüders, Ch./Kade, J./Hornstein, W. (2004): Entgrenzung des Pädagogischen. In: Krüger, H. -H./Helsper, W. (Hrsg.): Grundbegriffe und Grundfragen der Erziehungswissenschaft. 6. artual. Aufl. Wiesbaden, S. 207-216

Mieredorff, J./Olk, TH. (2002): Gesellschaftstheoretische Ansätze. In:Küger, H.-H./Grunert, C.(Hrsg.): Handbuch Kindheits-und Jugendforschung. Opladen, S. 117-142

Nahrstedt, W./Brinkmann, D./Theile, H./Roecken. G. (2002): Lernort Erlebniswelt. Neue Formen informeller Bildung in der Wissensgesellschaft. Forschungsbericht im Auftrag des BMBF. Bielefeld

Preiß, Ch. (2004): Laben und Lernen mit Musik. In: Wahler, P./Tully, C. J./Preiß, Ch.: Jugendliche in neuen Lernwelten. Selbstorganisierte Bildung jenseits institutioneller Qualifizierung. Wiesbaden, S. 131-152

Rabe-Kleberg, Ursula (2003). Gender Mainstreaming und Kindergarten. Berlin.

Rainwater, Lee/Smeeding, Timothy (2003). Poor kids in a rich country: America's childr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Raithel. J (2005) Die Stilisierung des Geschlechts : Jugendliche Lebensstile, Risikoverhalten und die Konstruktion von Geschlechtlichkeit. Weinheim, München : Juvenyta.

Rauschenbach, Th. (2004): Der Druck kommt gleich von mehreren Seiten. In: Jugend Nachrichten, 58, 7, S. 7-8

Reinders, H. (2004) : Entstehungskontexte interethnischer Freundschaften in der Adoleszenz.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7, 1, S. 121-145

Reinders, H. (2004): Entstehungskontexte interethnischer Freundschaften in der Adoleszenz.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rft, 7, 1, S. 121-145

Riley, Matilda White/ Riley, John W.Jr. (1992). Individuelles und gesellschaftliches Potential des Alterns. In: Baltes, Paul B./Mittelstraß, Jürgen (Hrsg.). Zukunft des Alterns und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Berlin, 437-459.

Rinker, B./Schwarz, B. (1996) : Selbstwirksamkeit. In: Zinnecker, J./Silbereisen, R. K.:Kindheit in Deutschland. Aktueller Survey über Kinder und ihre Eltern. Weinheim, München, S. 291-302

Rittner, V. (2004): Perspektiven und Probleme des Sports in der Ganztagsschule. In: Neue Praxis, 34, 6, S. 558-567

Rolff, Hanss-Günter/Zimmermann, Peter (1985). Kindheit im Wandell.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isation im Kindesalter. Weinheim.

Roppelt, U.(2003): Kinder-Experten ihres Alltage? Eine empirische Studie zum außerschulischen Alltag von 8- bis 11- jährigen Kindern aus dem Bleiweißviertel. Nürnberg

Rubin, K.-H./Bukowski, W,/Parker, J.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 and groups. In: Eischberg, M. (Hrsg.):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S. 619-700

Schmidt, U.(2004) : Im Reich der Feen und Kobolde. Lan-Party für Mädchen. In: Medien und Erziehung.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48, 3, S. 30-33

Schmidt, W. (2003): kindersport Im Wandel der Zeit. In: Schmidt, W./Hartmann-Tews, I./Brettschneider, W.-D. (Hrsg.): Erster Deutscher Kinder- und Jugendsportbericht. Schorndorf, S. 109-126

Schröder, H.(1995): Jugend und Modernisierung. Weinheim, München

Schulze-Krüdener, J. (1999): Freiwilligenarbeit als Instanz der biograpfischen Arbeit-Konsequenzen für die Jugendverbände. In: Timmermann, H./Wessela, E./ (Hrsg.): Jugendforschung in Deutschland: eine Zwischenbilanz. Opladen, S. 65-75

Schümer, G., Weiß, M./Steinert, B./Baumert, J./Tillmann, K.-J/Meier, U. (2001): Lebens- und Lernbedingungen von Jugendlichen. Kapitel 9. In: Baumert, J. u.a.: PISA 2000. Basiskompetenzen vo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Opladen, S. 411-510

Shell Jugendstudie (2006). Jugend 2006. Frankfurt: Fischer.

Shonkoff, J.P./Phillips, D.A. (Hrsg.;2000) : From Neurons to Neighbourhoods :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ommittee on Integrating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Board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ommission on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Washington D.C

Singer, W. (2003): Was kann ein Mensch wann lernen? Ein Beitrag aus der Sicht der Hirnforschung. In: Fthenakis, W. E. (Hrsg.): Elementarpädagogik nach PISA. Wie aus Kindertagesstätten Bildungseinrichtungen werden können. Freiburg, Berlin, Wien, S. 67-75

Singer, W. (2004): Musische Bildung muss spätestens im Kindergaten beginnen. In: Welck, K. v./Schweizer, M. (Hrsg.): Kinder zum Olymp! Wege zur Kultur fürKinder und Jugendliche. Köln, S. 22-26

SPoKK(Arbeitsgruppe für Symblische Politik, Kultur und Kommunikation) (Hrsg.; 1997)L Kursbuch Jugendkultur. Stile, Szenen und Identitäten vor der Jahrtausendwende.

Mannheim

Statistisches Bundesamt (2004b). Altag in Deutschland. Analysen zur Zeitverwendung. Forum der Bundesstatistik, Bd. 43.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 Die Familie in Spiegel der amtlichen Statistik, Aktualisierte Date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3)

Ströter-Bender, J. (1999) : ″Vor-Bilder zum Ein-Bilden″. Zur ästhetischen SozialisationdurchBildschirmspiele.Meisenheima.G.,hil.uni-sb.de/fr/kunsterziehung/neue_medien

Strozda, Ch./Zinnecker, J. (1996): Freundschaft und Clique. Das informelle Netzwerk der Gleichaltrigen. In: Zinnecker, J./Silbereisen, R. K. (Hrsg.): Kindheit in Deutschland. Weinheim, München, S: 81-98

Szymenderski, Peggy (2004). Zwei Welten-Laben in Ost-und Westdeutschland. München.

Tenorth, H.-E. (1988) : Geschichte der Erziehung. Einführung in die Grundzüge ihrer neuzeitlichen Entwicklung. Weinheim, München, S. 73-81

Theunert, H./Eggert, S. (2003) :Virtuelle Lebenswelten-Annäherung an neue Dimensionen des Medienhandelns. In:Medien und Erziehung.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47, 5, S. 3-13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Fertility Report 2003. S.

Uta Meier-Grăwe, Scientific Use Zeitbudgeterhebung 1991/1992 und 2001/2002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eigene Berechnungen.

Valtin, R./Fatke, R. (1997) : Freundschaft und Liebe. Persönliche Beziehungen im Ost/West- und im Geschlechtervergleich. Donauwörth.

Weinheim, München: Juventa.8. uflage.

Wiemken, J.(2004) : Barbie Mode Desugner oder WarCraft? Geschlechtsspezifische Präferenzen bei Computerspielern. In: Medien und Erziehung.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48, 3, S. 24-29

Wilk, L./Bacher, J. (Hrsg.; 1995): Kindliche Lbenswelten.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Annäherung. Opladen

Zeiher, Helga (1983). Die vielen Räume der Kinder. Zum Wandel räumlicher Lebensbedingungen seit 1945. In : Preuss-Lausitz, Ulf (Hrsg.). Kriegskinder, Konsumkider, Krisenkinder. Zur Sozialisationsgeschichte seit dem Zweiten Weltkrieg. Weinheim, 176-194.

Zinnecker, J./Silbereisen, R. K.:Kindheit in Deutschland. Aktueller Survey über Kinder

und ihre Eltern. Weinheim, München

[스웨덴 문헌]

http://www8.cao.go.jp/youth/english/worldyouth7-e/html/mokuji-e.html

Ekstedt, Eskil and Sundin, Elisabeth(eds)(2006). Den nya arbetsdelningen arbets- och nringslivets organisatoriska omvandling i tid, rum och tal (The new labor restructuring: organisational change in time, space and era). Stockholm: Arbetslivsinstitutet.

.Meghir, C. and M Palme(1999), "Assessing the Effect of Schooling on Earnings: Using a Social Experimen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orking Paper, 99(10).

Bjornberg, Ulla & Jurgen Sass(Eds.),(1997) Families with small children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Aldershot: Ashgate.

Boethius, C. G. (ed.)(1993). .Varfr har det blivit s svrt att hlla ihop(Why has it been so hard to stick together). Stockholm: Prisma.

Brembeck, Helene(1997). Efter Spock uppfostran idag (The way of upbringing). Idrottens Grafiska AB.

Dagens nyheter(2006). "Lura oss inte att atudera" http://www.dn.se/DNet/jsp/polopoly.jsp

Darvishpour, Mehrdad(2004). Sociologiska texter om familj, etnicitet, feminism och rasism (Sociological texts about family, ethnicity, feminism and racism). Centrum fr Vlfrdsforskning. Mlardalens hgskola.

Demografiska rapporter(2003). Barn och deras familjer 2001 (Children and their families). 2003:1:2. Del 2. Texter och diagram. Stockholm: SCB.

Demografiska rapporter(2004). Barn och deras familjer 2003 (Children and their families). 2004:3. Stockholm: SCB.

Ds (2001), Barnafdandet i fokus. Frn befolkningspolitik till barnvnligt samhlle (Giving birth to children. From a politics of population to a children-friendly society). Stockholm: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Ds (2005). Stockhol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ocial Structuring.

Esping-Andersen(1996). Gosta.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to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Henschen, Helena, (ed.)(1987). Barn i stan frn sekelskiftet till ttiotal (Child in town from new millinium to 1980s). Kristiansatd: Kristianstads boktryckeri.

Hinnfors, Jonas(1992). Familjepolitik. Samhllsfrndringar och partistrateriger 1960-1990.

(Family Policy. Social change and party strategy in 1960-1990). Gteborg. Gteborg University.

Holmberg, Sren, and Oscarsson, Henrik(2002). Svenskt vljarbeteende (Swedish electoral voting). Gteborg: Gteborg University.

Jablonska, Beata(2006). Ungdomars psykosociala frhllanden (Psychosocial Relationship of the Youth). Centrum fr folkhlsa (Center for Civil Health), Avdelningen fr folkhlsoarbete. Stockholm.

Juul, Jesper(2005). Livet i familjen om det viktiga samspelet (Life in family abou the important interplay). Stockholm: Fakta.

Kommitte direktiv 2006:66. Stockholm.

Lrarfrbundet (Teachers' Association)(2002). Jmstlld skola strategier och metoder (School for equality strategies and methods). Stockholm.

Popenoe, David(1988). Disturbing the Nest. Family Change and Decline in Modern Societ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Proposition(2004). Makt att bestmma rtt till vlfrd. (Power to decide: Right for welfare). Stockholm, Elanders.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

SCB(2003). Barn och deras familjer 2002(Children and thier families), Demografiska rapporter 2003:7. Stockholm.

SCB(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05). Befolkningsstatistik efter kn och lder 2005 (Population Statistics by gender and age in 2005). Stockholm.

SIKA, (2004). Fakta om informations- och kommunikationsteknik i Sverige 2004 (Fact abou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ique). Statens institut fr kommuniationsanalys (National Institute for Communication Analysis). Stockholm.

Sorrentino, Constance, (1990), 'The changing famil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90. 41-58.

SOU (1994). Ungdomars vlfrd och vrderingar. Rapport till Barn- och Ungdomsdelegationen och Generationsutredningen (Welfare and values of the youth. Report submitted to delegation of child and youth). Stockholm: Fritzes.

SOU (1996). Fritid i frndring (Leisure in change). Stockholm: Fritzes.

SOU (2000), En uthllig demokrati (A sustainable democracy). Demokratiutredningens slutbetnkande. Stockholm: Fritzes.

SOU (2000), Vlfrdens frutsttningar. Arbetsmarknad, demografi och segregation (Welfare at the crossroads. Development during the 1900s). Stockholm: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Strandbrink, Peter and Victor Pestoff(2006). Small-scale Wlefare on a Large Scale: Social cohesion and the politics of Swedish childcare.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1999). Review of national youth policy. Stockholm.

The National Insurance(2006). FK4058_a_Fa. Stockholm.

Ungdomsstyrelen(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1996). Krokig vg till vuxen (Crooked way to the adult). Stockholm.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2003). De kallar oss unga (They call us young). Stockholm.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 Arenor fr alla (Arena for all). Stockholm.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0. Fokus 05 (Focus 2005). Stockholm.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9. Unga och Freningsidrotten (Youth and Sports Associations). Stockholm.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6:3. En Beskrivning av Ungomars Villkor (A Description of Life Conditions of the Youth), Stockholm.

Ungdomsstyrelsen(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1998). Ny tid - Nya tankar? Undomgars vrderingar och framtidstro (New era new thinking. Value system of the youth and their future belief). Stockholm.

Westholm, Anders(1991). The Political Heritage: Testing theories of family socialization and generational change. Uppsala: Uppsala University.

부 록

1. 단순집계표
2. 질문지
3. 5개국 주요통계

1. 단순집계표

문6.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가사노동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식사준비							
1. 어머니가 전부 한다	31.1	38.8	35.1	57.5	30.5	26.8	27.2
2. 어머니가 주로 한다	47.5	44.3	45.8	31.9	42.3	45.5	25.5
3.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11.7	8.8	10.2	4.5	14.0	13.9	31.3
4. 아버지가 주로 한다	2.2	2.0	2.1	0.8	7.8	6.4	6.8
5. 아버지가 전부 한다	0.3	0.2	0.2	0.2	2.2	1.4	2.5
6.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6.4	5.2	5.8	4.3	3.1	4.0	4.1
무 응 답	0.8	0.7	0.7	0.8	-	2.0	2.5
2) 설거지							
1. 어머니가 전부 한다	25.5	31.0	28.4	47.4	25.8	19.3	19.5
2. 어머니가 주로 한다	42.5	43.1	42.8	35.4	34.5	28.6	19.8
3.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15.8	12.4	14.0	7.0	18.9	25.2	43.0
4. 아버지가 주로 한다	4.6	3.7	4.1	1.6	6.2	5.6	4.1
5. 아버지가 전부 한다	0.3	0.3	0.3	0.8	1.8	1.2	4.7
6.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10.4	8.8	9.6	6.7	12.8	16.7	6.0
무 응 답	0.8	0.8	0.8	1.0	-	3.4	2.9
3) 청소							
1. 어머니가 전부 한다	21.7	27.0	24.4	54.0	26.1	22.3	25.9
2. 어머니가 주로 한다	37.4	39.1	38.3	30.1	43.4	44.3	27.4
3.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22.6	17.2	19.8	8.4	18.4	16.1	31.1
4. 아버지가 주로 한다	6.2	5.3	5.7	2.5	3.7	2.6	2.9
5. 아버지가 전부 한다	1.0	0.6	0.8	0.4	1.4	0.8	2.1
6.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10.4	10.1	10.2	3.9	7.0	11.1	8.0
무 응 답	0.8	0.8	0.8	0.8	-	2.8	2.5
4) 세탁							
1. 어머니가 전부 한다	37.9	41.4	39.7	63.8	40.2	50.7	46.3
2. 어머니가 주로 한다	38.9	37.6	38.2	23.7	34.9	30.0	23.3
3.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11.6	9.0	10.3	5.1	12.9	8.0	18.9
4. 아버지가 주로 한다	2.8	2.6	2.7	1.8	4.8	1.6	2.3
5. 아버지가 전부 한다	0.4	0.2	0.3	0.4	2.5	0.8	2.7
6.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7.5	8.2	7.9	4.3	4.6	6.4	3.7
무 응 답	0.9	0.8	0.9	0.8	-	2.4	2.7

문7.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서로의 입장을 듣고 냉정히 이야기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3	11.1	12.7	57.5	-	5.0	4.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3	36.2	36.7	31.9	-	16.3	14.4
3. 그런 편이다	41.3	44.1	42.8	4.5	-	44.1	43.4
4. 매우 그렇다	5.5	5.4	5.4	0.8	57.3	24.7	29.8
무 응 답	1.7	3.1	2.4	5.3	-	9.9	7.6
2)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3.5	16.7	20.0	47.4	-	16.7	14.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2	41.6	40.9	35.4	-	37.0	34.8
3. 그런 편이다	30.9	34.7	32.8	7.0	-	25.8	30.2
4. 매우 그렇다	3.1	4.1	3.6	1.6	16.6	2.4	5.6
무 응 답	2.3	3.0	2.6	8.6	-	18.1	15.0
3) 서로 말하지 않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9.8	48.2	53.8	54.0	-	52.9	54.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3	31.3	28.9	30.1	-	20.9	23.7
3. 그런 편이다	10.4	15.4	13.0	8.4	-	10.3	7.0
4. 매우 그렇다	1.5	2.0	1.8	2.5	11.2	3.4	3.7
무 응 답	1.9	3.2	2.5	5.1	-	12.5	11.3
4) 어머니가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7	14.4	14.6	63.8	-	29.2	22.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6	34.6	34.1	23.7	-	27.2	32.5
3. 그런 편이다	44.2	43.5	43.8	5.1	-	25.8	29.8
4. 매우 그렇다	5.2	4.2	4.7	1.8	4.5	1.0	3.3
무 응 답	2.3	3.3	2.8	5.5	-	16.9	12.3
5) 아버지가 어머니 의견에 따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4	16.6	16.0	14.5	-	26.2	18.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1	39.1	38.1	27.6	-	27.6	27.6
3. 그런 편이다	40.8	38.3	39.5	37.4	-	27.8	35.8
4. 매우 그렇다	4.0	2.4	3.1	11.7	5.3	2.2	5.4
무 응 답	2.6	3.7	3.2	8.8	-	16.3	12.3
6) 어느 한 쪽이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6.8	45.5	51.0	17.8	-	25.4	49.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7	32.3	29.6	35.2	-	28.4	27.0
3. 그런 편이다	11.1	15.2	13.2	30.3	-	27.8	8.4
4. 매우 그렇다	2.7	3.2	3.0	7.8	4.7	4.2	3.5
무 응 답	2.6	3.8	3.2	9.0	-	14.3	12.1
7) 어느 한 쪽이 폭력을 행사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81.7	76.3	78.9	50.1	-	82.9	82.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7	14.9	13.3	26.0	-	2.0	3.9
3. 그런 편이다	3.5	4.5	4.0	11.9	-		1.4
4. 매우 그렇다	1.3	1.2	1.2	3.5	0.5	1.2	0.8
무 응 답	1.9	3.2	2.5	8.6	-	13.9	11.9

문8-1. 당신은 아래 사항을 아버지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1. 전혀 하지 않는다	13.4	20.5	17.0	50.9	17.8	31.4	28.0
2. 거의 하지 않는다	27.3	32.6	30.0	23.3	19.4	16.1	27.6
3. 가끔씩 한다	45.2	36.8	40.9	16.8	43.6	33.4	29.6
4. 자주 한다	11.8	7.3	9.5	2.9	19.2	12.7	9.7
무 응 답	2.2	2.8	2.5	6.1	-	6.4	5.1
2) 여행							
1. 전혀 하지 않는다	13.7	17.1	15.4	18.0	15.5	8.5	9.9
2. 거의 하지 않는다	28.2	33.1	30.7	21.3	18.5	10.1	19.6
3. 가끔씩 한다	45.9	39.3	42.5	44.6	43.8	26.0	38.9
4. 자주 한다	9.6	7.4	8.5	10.4	22.1	48.7	26.3
무 응 답	2.5	3.2	2.9	5.7	-	6.8	5.3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1. 전혀 하지 않는다	23.3	33.5	28.6	38.4	27.9	16.9	33.1
2. 거의 하지 않는다	37.9	38.8	38.4	26.8	27.6	28.2	39.3
3. 가끔씩 한다	30.2	21.1	25.5	25.6	34.4	37.4	18.7
4. 자주 한다	6.3	3.3	4.8	3.3	10.1	11.5	3.7
무 응 답	2.3	3.3	2.8	5.9	-	6.0	5.3
4) TV시청							
1. 전혀 하지 않는다	3.2	4.6	3.9	7.4	10.8	10.5	6.4
2. 거의 하지 않는다	5.9	7.7	6.8	12.5	14.0	12.3	13.8
3. 가끔씩 한다	23.9	31.0	27.5	35.2	38.0	31.4	37.7
4. 자주 한다	64.5	53.8	59.0	39.5	37.1	38.8	36.4
무 응 답	2.5	3.0	2.7	5.5	-	7.0	5.6

문8-2. 당신은 아래 사항을 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1. 전혀 하지 않는다	12.9	18.1	15.6	57.7	13.3	35.2	24.9
2. 거의 하지 않는다	28.2	31.4	29.9	22.7	25.6	27.8	31.9
3. 가끔씩 한다	42.2	36.4	39.2	13.1	41.7	23.5	25.9
4. 자주 한다	12.8	9.9	11.3	3.1	19.5	6.8	7.4
무 응 답	3.9	4.1	4.0	3.5	-	6.6	9.9
2) 여행							
1. 전혀 하지 않는다	12.6	15.1	13.9	13.5	6.3	4.0	6.6
2. 거의 하지 않는다	26.8	29.3	28.1	22.5	13.3	9.3	17.9
3. 가끔씩 한다	45.3	42.2	43.7	50.3	46.9	27.6	40.3
4. 자주 한다	11.5	9.3	10.4	11.0	33.5	54.7	26.1
무 응 답	3.8	4.2	4.0	2.7	-	4.4	9.1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1. 전혀 하지 않는다	16.2	25.0	20.7	25.8	15.0	11.7	23.7
2. 거의 하지 않는다	30.2	31.3	30.8	23.7	22.3	27.4	38.3
3. 가끔씩 한다	37.4	32.2	34.7	38.4	42.5	42.5	23.3
4. 자주 한다	12.2	7.3	9.6	9.2	20.2	13.9	4.7
무 응 답	4.1	4.3	4.2	2.9	-	4.6	9.9
4) TV시청							
1. 전혀 하지 않는다	2.9	3.2	3.0	2.5	3.5	6.6	4.3
2. 거의 하지 않는다	5.9	6.6	6.2	8.0	12.1	14.9	12.6
3. 가끔씩 한다	22.9	27.9	25.5	32.3	44.1	34.2	37.4
4. 자주 한다	64.6	58.6	61.5	54.6	40.3	39.8	36.6
무 응 답	3.6	3.8	3.7	2.7	-	4.4	9.1

문9-1. 당신의 아버지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공부							
1. 전혀 관심 없다	2.0	2.1	2.1	6.5	6.0	7.0	2.7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10.2	12.0	11.1	27.2	4.0	21.5	13.0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49.1	51.2	50.2	41.9	16.6	39.8	45.1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6.3	32.1	34.1	18.6	73.4	24.5	34.0
무 응 답	2.3	2.6	2.5	5.7	-	7.0	5.1
2) 친구관계							
1. 전혀 관심 없다	3.6	4.8	4.2	12.5	7.6	10.3	4.7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24.7	28.3	26.6	39.5	8.7	26.8	20.8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48.8	48.2	48.5	37.6	33.3	41.0	52.3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5	15.7	18.0	4.7	50.3	14.3	17.3
무 응 답	2.4	3.0	2.7	5.7	-	7.6	4.9
3) 이성관계							
1. 전혀 관심 없다	15.1	14.0	14.5	25.8	8.0	18.3	8.9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42.5	38.8	40.6	45.4	10.4	33.6	23.3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28.3	32.3	30.3	19.6	30.9	26.0	43.2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1.6	12.1	11.8	3.3	50.7	12.9	19.6
무 응 답	2.5	2.8	2.7	5.9	-	9.3	4.9
4) 여가·취미생활							
1. 전혀 관심 없다	7.5	10.6	9.1	13.3	8.4	8.5	3.7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28.2	33.8	31.1	35.2	10.7	24.3	16.0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44.3	40.3	42.2	37.8	38.1	38.0	50.4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7.3	12.4	14.8	7.8	42.8	21.5	24.9
무 응 답	2.6	2.9	2.8	5.9	-	7.6	5.1
5) 진로·진학							
1. 전혀 관심 없다	2.6	2.6	2.6	5.5	6.9	7.4	2.1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10.3	10.0	10.1	21.9	5.4	15.3	7.2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37.6	40.6	39.2	40.5	19.8	35.2	35.2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47.0	43.9	45.4	26.2	67.9	33.4	49.8
무 응 답	2.5	2.8	2.7	5.9	-	8.7	5.6

문9-2. 당신의 어머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공부							
1. 전혀 관심 없다	1.1	1.3	1.2	1.2	1.1	3.2	1.6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2	5.0	4.1	13.1	1.3	13.9	4.3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33.1	38.3	35.8	51.3	8.7	41.9	41.1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59.9	53.1	56.4	31.9	88.9	38.4	48.1
무 응 답	2.6	2.2	2.4	2.5	-	2.6	5.1
2) 친구관계							
1. 전혀 관심 없다	1.5	2.2	1.9	2.9	1.4	3.2	1.2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10.1	12.6	11.4	17.6	1.6	17.1	8.2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47.8	50.8	49.3	56.9	17.2	48.9	51.4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8.0	32.2	35.0	20.0	79.8	27.0	34.0
무 응 답	2.6	2.2	2.4	2.7	-	3.8	5.3
3) 이성관계							
1. 전혀 관심 없다	10.4	8.0	9.2	14.7	1.4	11.3	4.3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1.1	27.0	29.0	36.6	2.8	28.4	13.0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35.6	40.0	37.9	34.8	18.7	35.0	44.4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3	22.7	21.5	11.5	77.1	19.7	33.1
무 응 답	2.7	2.3	2.5	2.5	-	5.6	5.3
4) 여가·취미생활							
1. 전혀 관심 없다	5.3	6.1	5.7	6.3	1.4	5.0	1.6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21.1	25.7	23.5	27.2	4.6	20.5	11.9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46.3	44.8	45.5	49.3	26.5	46.1	49.0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3.9	20.8	22.3	14.5	67.5	24.5	32.3
무 응 답	3.3	2.6	2.9	2.7	-	3.8	5.3
5) 진로·진학							
1. 전혀 관심 없다	2.3	1.1	1.7	1.6	1.3	5.4	1.2
2.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5.0	4.4	4.7	7.8	1.7	13.3	3.5
3.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28.7	34.2	31.5	45.8	10.9	40.2	33.1
4.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61.2	58.0	59.6	42.1	86.1	36.8	56.8
무 응 답	2.8	2.3	2.5	2.7	-	4.2	5.4

문10.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공부해라	45.4	42.5	43.9	30.3	43.1	34.0	24.3
2.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13.2	12.1	12.6	6.3	5.3	16.7	8.4
3.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6.4	5.5	5.9	5.1	2.0	1.8	3.7
4.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3.6	4.3	4.0	21.5	1.0	2.0	1.8
5. 거짓말 하지마라	7.7	8.8	8.2	7.2	13.6	2.8	5.4
6. 절약해라	2.1	4.1	3.1	4.3	6.9	2.0	11.5
7. 부지런해라	9.7	12.0	10.9	2.5	6.7	18.1	11.9
8. 기타	11.3	9.4	10.3	20.9	21.4	18.9	31.5
무응답	0.5	1.3	0.9	2.0	-	3.6	1.6
문11.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공부해라	30.9	30.7	30.8	29.4	17.5	28.2	29.2
2.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10.3	8.3	9.3	5.7	18.2	18.5	11.1
3.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47.0	44.8	45.9	39.1	33.4	13.5	23.3
4.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0.9	0.6	0.8	2.0	4.1	2.4	2.1
5. 거짓말 하지마라	1.3	1.8	1.6	1.0	3.9	2.4	0.6
6. 절약해라	0.5	0.8	0.7	2.7	9.8	2.8	7.2
7. 부지런해라	1.6	1.8	1.7	2.9	3.8	9.3	3.3
8. 기타	7.0	10.1	8.6	15.3	9.2	17.9	20.0
무응답	0.5	0.9	0.7	1.8	-	5.0	3.1

문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6	7.1	6.4	13.3	15.5	4.8	3.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7	28.5	25.7	29.9	15.6	19.9	16.7
3. 그런 편이다	52.3	49.8	51.0	40.7	35.6	35.0	62.5
4. 매우 그렇다	17.7	11.8	14.7	9.4	33.3	34.6	13.4
무응답	1.7	2.7	2.2	6.7	-	5.6	3.5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4	2.8	3.1	3.3	10.0	2.0	4.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9	10.3	11.0	8.4	12.2	3.0	17.3
3. 그런 편이다	51.1	54.1	52.7	37.8	33.7	16.1	48.8
4. 매우 그렇다	31.2	30.0	30.6	44.2	44.1	73.6	25.3
무응답	2.4	2.8	2.6	6.3	-	5.2	3.7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8	7.4	7.1	9.0	16.7	4.6	6.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1	28.1	25.2	20.0	22.9	15.1	20.0
3. 그런 편이다	44.3	43.2	43.7	45.4	39.3	39.2	54.3
4. 매우 그렇다	25.0	18.5	21.7	19.2	21.1	35.4	16.5
무응답	1.8	2.8	2.3	6.3	-	5.6	3.1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3	16.4	14.9	12.5	12.2	13.5	11.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3	39.3	37.8	24.3	13.7	26.0	43.2
3. 그런 편이다	35.5	29.9	32.6	36.2	33.7	31.6	28.6
4. 매우 그렇다	12.8	11.7	12.2	20.9	40.3	23.3	13.2
무응답	2.1	2.7	2.5	6.1	-	5.6	3.7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9	10.5	9.2	10.0	14.9	12.5	4.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4	39.7	36.1	24.9	17.8	27.0	25.5
3. 그런 편이다	37.5	32.3	34.8	35.8	34.4	32.4	46.3
4. 매우 그렇다	20.6	14.6	17.5	22.9	32.8	22.3	20.0
무응답	1.7	2.9	2.3	6.3	-	5.8	3.7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5	18.5	17.1	24.3	12.8	11.1	7.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5	42.2	39.9	32.3	14.4	20.5	20.2
3. 그런 편이다	30.5	27.2	28.8	27.2	32.7	24.3	43.8
4. 매우 그렇다	14.5	9.3	11.8	10.0	40.1	39.0	24.5
무응답	2.0	2.8	2.5	6.1	-	5.0	3.9

문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2	16.6	15.9	27.6	13.6	8.5	6.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1	39.4	38.3	32.7	12.5	19.9	23.3
3. 그런 편이다	33.1	31.0	32.0	23.5	24.6	27.6	42.8
4. 매우 그렇다	12.8	10.2	11.4	9.8	49.3	39.4	24.3
무응답	1.8	2.8	2.3	6.3	-	4.6	2.9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7	16.6	15.7	28.6	14.2	12.5	6.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9.7	40.1	39.9	36.2	12.9	28.0	27.6
3. 그런 편이다	32.7	31.5	32.1	22.5	30.5	28.4	44.4
4. 매우 그렇다	11.0	8.8	9.8	6.5	42.3	25.4	17.3
무응답	1.9	3.0	2.4	6.1	-	5.8	3.9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9.1	8.4	8.8	10.6	11.2	5.0	3.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5	28.1	27.3	24.5	12.3	12.5	11.3
3. 그런 편이다	43.6	45.5	44.6	40.9	32.3	28.8	56.8
4. 매우 그렇다	18.9	15.1	16.9	17.6	44.2	47.7	24.5
무응답	1.9	2.8	2.4	6.3	-	6.0	3.5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2	4.1	4.6	6.7	9.8	6.4	3.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8	15.5	13.7	19.2	10.2	14.5	15.8
3. 그런 편이다	44.1	46.8	45.5	41.5	34.5	34.6	50.2
4. 매우 그렇다	37.1	30.3	33.6	26.0	45.5	38.0	26.7
무응답	1.8	3.2	2.5	6.5	-	6.4	4.3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0.7	65.5	68.0	63.8	65.3	43.1	41.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9	22.7	21.3	20.0	18.3	36.0	42.8
3. 그런 편이다	5.9	7.2	6.6	6.1	11.6	11.5	9.9
4. 매우 그렇다	1.5	1.8	1.7	3.9	4.7	4.0	2.5
무응답	2.0	2.8	2.4	6.1	-	5.4	3.7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7.1	76.5	76.8	83.8	81.8	90.3	89.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6	16.3	15.9	6.3	8.7	2.8	7.4
3. 그런 편이다	4.4	3.2	3.8	3.1	6.6	0.6	0.6
4. 매우 그렇다	1.1	1.2	1.1	0.6	2.9	0.4	0.2
무응답	1.8	2.8	2.3	6.1	-	5.8	2.7

문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8	35.0	33.0	76.7	83.5	77.1	89.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6	28.2	28.4	11.0	8.9	11.5	6.0
3. 그런 편이다	31.5	27.8	29.6	4.7	5.3	4.4	1.4
4. 매우 그렇다	7.3	6.2	6.7	1.4	2.3	1.4	0.2
무응답	1.9	2.8	2.3	6.1	-	5.6	3.1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5.7	67.5	71.5	70.6	53.8	71.4	66.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5	20.2	17.9	13.7	24.3	13.3	22.2
3. 그런 편이다	5.7	7.5	6.6	7.2	15.2	7.0	7.0
4. 매우 그렇다	1.3	2.2	1.8	2.2	6.6	2.2	0.8
무응답	1.8	2.6	2.2	6.3	-	6.0	3.3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8.0	71.3	74.5	76.3	66.6	78.1	76.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3	18.6	16.5	10.8	16.6	12.1	15.6
3. 그런 편이다	5.1	5.9	5.5	5.3	11.4	3.0	4.1
4. 매우 그렇다	0.9	1.6	1.2	1.4	5.5	1.2	0.6
무응답	1.8	2.6	2.2	6.1	-	5.6	3.5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3.0	52.1	52.5	47.9	59.9	50.9	62.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6	31.3	32.0	31.3	21.1	27.4	15.8
3. 그런 편이다	10.3	11.6	11.0	11.2	13.5	11.5	12.8
4. 매우 그렇다	2.2	2.2	2.2	3.5	5.5	4.4	5.3
무응답	1.8	2.7	2.3	6.1	-	5.8	3.9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6.9	37.5	37.2	45.0	31.7	63.0	63.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7	29.7	31.6	28.8	29.4	17.3	24.1
3. 그런 편이다	20.9	23.6	22.3	15.7	28.0	10.1	7.4
4. 매우 그렇다	6.3	6.5	6.4	4.1	11.0	3.8	1.8
무응답	2.2	2.7	2.5	6.3	-	5.8	3.7
18)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5	4.8	4.6	6.7	9.9	5.0	3.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6	15.6	13.6	13.7	11.5	9.1	11.1
3. 그런 편이다	39.2	45.7	42.5	40.5	35.8	32.2	48.4
4. 매우 그렇다	42.8	31.0	36.7	32.9	42.8	47.7	31.9
무응답	2.0	2.9	2.5	6.1	-	6.0	4.7

문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9)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8	22.6	23.7	37.0	56.2	37.0	23.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3	47.7	49.0	40.3	26.3	39.2	58.0
3. 그런 편이다	19.9	22.6	21.3	14.1	12.5	15.1	11.9
4. 매우 그렇다	3.1	4.0	3.6	2.5	5.0	2.8	2.5
무응답	1.9	3.0	2.5	6.1	-	5.8	4.1
20)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2	2.7	2.9	4.7	11.3	4.2	1.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6.8	8.0	7.4	5.9	16.8	7.8	7.2
3. 그런 편이다	38.1	37.8	38.0	31.9	39.1	28.2	44.9
4. 매우 그렇다	50.1	48.6	49.3	51.3	32.7	53.1	42.8
무응답	1.9	2.9	2.4	6.1	-	6.6	3.1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4.1	44.5	44.3	67.3	54.6	44.7	10.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5.6	36.4	36.0	21.3	20.3	30.6	26.8
3. 그런 편이다	13.2	10.8	12.0	3.3	17.2	12.1	45.1
4. 매우 그렇다	5.2	5.2	5.2	1.2	7.9	4.6	12.8
무응답	2.0	3.1	2.5	7.0	-	8.0	4.5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2.5	60.1	61.2	70.1	59.3	53.5	30.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1	27.0	27.0	17.2	19.6	22.9	41.1
3. 그런 편이다	6.7	7.9	7.3	4.7	13.9	12.3	21.2
4. 매우 그렇다	1.9	2.1	2.0	1.4	7.1	4.2	3.1
무응답	1.9	2.8	2.4	6.5	-	7.0	3.9
23)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3.7	25.9	24.8	32.1	18.6	12.9	7.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9.8	41.3	40.6	38.0	20.7	21.3	44.4
3. 그런 편이다	28.4	24.8	26.5	19.0	37.4	33.0	37.0
4. 매우 그렇다	6.3	5.2	5.7	3.7	23.3	24.7	7.0
무응답	1.8	2.8	2.3	7.2	-	8.0	4.3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3.1	24.7	23.9	26.0	14.4	4.2	4.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8	26.8	25.8	27.6	15.8	15.9	18.5
3. 그런 편이다	33.1	30.7	31.8	28.0	33.7	34.0	53.3
4. 매우 그렇다	17.3	14.9	16.1	12.1	36.1	38.2	19.8
무응답	1.8	2.9	2.3	6.3	-	7.6	3.9

문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6	35.5	33.6	47.9	22.0	27.0	14.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5.7	37.8	36.8	29.2	26.3	28.6	41.4
3. 그런 편이다	22.9	17.6	20.2	12.7	32.4	26.0	29.4
4. 매우 그렇다	7.9	6.2	7.0	3.7	19.2	11.7	10.7
무응답	1.9	2.9	2.4	6.5	-	6.8	4.1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0.6	52.1	51.4	64.6	30.6	49.3	19.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8	32.3	33.0	20.9	28.0	24.7	45.1
3. 그런 편이다	9.7	9.2	9.5	5.9	28.0	11.3	22.8
4. 매우 그렇다	3.7	3.6	3.7	1.6	13.4	7.2	7.2
무응답	2.1	2.8	2.5	7.0	-	7.4	5.3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1	31.9	31.5	42.7	22.0	12.5	6.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8	28.9	28.8	25.4	20.5	19.7	19.3
3. 그런 편이다	27.7	27.5	27.6	18.6	31.1	33.2	47.3
4. 매우 그렇다	10.5	8.6	9.5	7.0	26.4	27.8	23.0
무응답	1.9	3.1	2.5	6.3	-	6.8	3.9
28)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8.8	16.5	17.6	20.0	20.8	7.4	3.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6	25.7	26.1	25.6	24.5	22.1	11.5
3. 그런 편이다	41.3	43.5	42.4	29.9	38.0	35.0	54.1
4. 매우 그렇다	11.5	11.6	11.5	18.0	16.6	27.6	26.1
무응답	1.9	2.7	2.3	6.5	-	7.8	4.5
29)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2	5.8	6.0	14.3	15.0	3.2	3.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0	17.2	16.6	27.0	14.3	7.8	13.2
3. 그런 편이다	46.2	46.7	46.5	39.3	29.6	18.7	36.4
4. 매우 그렇다	29.8	27.6	28.7	13.1	41.2	63.0	42.6
무응답	1.8	2.7	2.3	6.3	-	7.2	4.5

문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	3.7	3.1	4.7	2.6	2.0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8	14.6	13.7	21.1	6.8	10.3	10.9
3. 그런 편이다	53.5	56.4	55.0	51.7	33.3	35.8	65.0
4. 매우 그렇다	29.9	24.1	26.9	19.2	57.4	49.5	20.8
무응답	1.4	1.3	1.3	3.3	-	2.4	2.5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	2.3	2.7	1.0	2.4	1.0	2.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9.5	6.7	8.1	7.0	5.7	3.2	8.2
3. 그런 편이다	49.9	54.3	52.2	40.5	35.3	14.9	49.4
4. 매우 그렇다	35.5	35.3	35.4	49.1	56.6	79.1	37.2
무응답	2.0	1.3	1.7	2.5	-	1.8	2.5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1	4.7	4.4	2.7	3.6	2.6	3.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7	18.0	16.9	14.7	10.9	9.9	15.2
3. 그런 편이다	46.9	48.7	47.8	48.7	39.7	37.4	55.3
4. 매우 그렇다	31.7	27.1	29.3	31.5	45.8	48.1	24.3
무응답	1.7	1.6	1.6	2.5	-	2.0	1.8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8	6.7	6.8	2.7	1.9	6.6	4.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3	23.5	23.4	10.4	4.5	16.3	33.1
3. 그런 편이다	39.8	41.1	40.5	41.5	30.2	32.8	37.0
4. 매우 그렇다	28.3	27.0	27.6	43.1	63.4	41.6	23.2
무응답	1.9	1.7	1.8	2.2	-	2.6	2.1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9	4.0	3.5	1.8	2.3	5.4	1.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3	16.3	14.8	7.4	5.6	17.3	12.3
3. 그런 편이다	41.2	43.5	42.4	40.9	29.5	34.8	52.7
4. 매우 그렇다	41.0	34.8	37.8	47.4	62.6	40.2	30.7
무응답	1.6	1.4	1.5	2.5	-	2.2	2.5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0	8.2	7.6	8.4	2.1	5.2	2.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8	27.9	25.0	21.3	3.9	12.1	10.1
3. 그런 편이다	41.3	39.9	40.6	38.4	28.4	22.7	48.1
4. 매우 그렇다	28.0	22.7	25.3	29.4	65.6	57.7	37.0
무응답	1.8	1.2	1.5	2.5	-	2.2	1.9

문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4	7.6	7.5	5.7	2.5	3.2	1.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9	23.4	23.2	16.0	3.4	7.6	14.0
3. 그런 편이다	42.4	45.1	43.8	41.5	19.7	21.1	51.4
4. 매우 그렇다	25.6	22.4	24.0	34.6	74.3	66.6	31.1
무응답	1.6	1.5	1.5	2.2	-	1.4	1.9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8.9	7.9	8.4	10.0	2.8	7.2	3.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0	28.5	28.2	20.7	4.5	20.7	23.9
3. 그런 편이다	41.5	44.0	42.8	42.5	23.9	33.2	50.4
4. 매우 그렇다	20.0	18.3	19.2	24.7	68.8	36.0	20.2
무응답	1.5	1.2	1.4	2.0	-	2.8	2.1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1	6.5	6.8	7.0	2.0	2.4	2.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7	23.8	24.2	21.7	4.7	11.1	8.8
3. 그런 편이다	45.7	49.2	47.5	46.0	29.2	30.0	59.3
4. 매우 그렇다	21.0	19.1	20.0	23.1	64.1	54.3	27.4
무응답	1.6	1.3	1.5	2.2	-	2.2	2.3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4	3.5	3.4	1.8	1.6	3.0	1.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4	15.6	13.1	12.5	3.0	10.1	8.8
3. 그런 편이다	49.4	49.7	49.5	49.9	29.5	37.4	55.3
4. 매우 그렇다	35.0	29.6	32.2	33.3	65.9	46.5	32.3
무응답	1.9	1.6	1.7	2.5	-	3.0	1.8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4.1	71.6	72.8	64.2	70.6	42.9	47.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8	19.3	18.6	22.7	17.6	33.6	42.4
3. 그런 편이다	4.3	6.2	5.3	8.6	8.7	13.9	5.4
4. 매우 그렇다	2.1	1.5	1.8	2.2	3.1	6.6	1.6
무응답	1.6	1.5	1.5	2.2	-	3.0	2.7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9.3	79.6	79.4	88.3	86.3	92.8	88.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5	14.4	14.4	7.6	6.3	2.8	8.4
3. 그런 편이다	3.6	3.3	3.5	1.8	4.5	0.6	0.6
4. 매우 그렇다	1.2	1.2	1.2	0.2	3.0	0.6	0.2
무응답	1.4	1.5	1.4	2.0	-	3.2	1.9

문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9	38.5	35.3	83.0	84.6	79.9	89.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3	26.2	26.2	10.8	7.4	11.1	7.2
3. 그런 편이다	31.4	28.6	29.9	2.7	5.1	3.8	1.2
4. 매우 그렇다	8.9	5.2	7.0	1.4	2.9	3.2	0.8
무응답	1.5	1.5	1.5	2.0	-	2.0	1.8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5.1	70.6	72.8	64.4	55.7	70.2	66.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6	18.2	16.9	20.4	26.2	15.3	20.4
3. 그런 편이다	6.5	8.0	7.3	10.2	13.3	7.8	9.5
4. 매우 그렇다	1.3	1.9	1.6	2.9	4.8	4.0	1.0
무응답	1.5	1.3	1.4	2.0	-	2.6	2.1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8.4	76.3	77.3	79.1	73.8	79.9	77.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7	16.3	15.5	13.5	15.5	11.7	15.8
3. 그런 편이다	3.6	4.3	4.0	4.1	7.3	3.2	3.3
4. 매우 그렇다	1.7	1.8	1.7	1.2	3.4	2.8	1.8
무응답	1.6	1.3	1.4	2.0	-	2.4	1.9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1.9	55.0	53.5	48.3	62.6	79.9	61.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9	30.9	31.9	33.5	22.1	11.7	15.4
3. 그런 편이다	11.5	10.5	11.0	12.1	11.3	3.2	13.2
4. 매우 그렇다	2.2	2.2	2.2	3.9	4.0	2.8	6.6
무응답	1.5	1.5	1.5	2.2	-	2.4	3.1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8.2	40.7	39.5	45.4	26.7	65.4	63.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4	32.3	32.4	33.5	30.4	19.3	26.7
3. 그런 편이다	21.2	20.6	20.9	14.7	31.4	8.7	4.9
4. 매우 그렇다	6.1	4.5	5.3	3.9	11.5	3.8	1.8
무응답	2.1	2.0	2.0	2.5	-	2.8	3.1
18)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5	3.9	3.2	2.9	2.1	3.4	2.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8.8	10.1	9.5	10.2	6.9	7.2	8.9
3. 그런 편이다	37.5	44.6	41.2	44.6	34.6	34.2	49.2
4. 매우 그렇다	49.6	39.8	44.6	40.3	56.4	52.1	35.4
무응답	1.6	1.6	1.6	2.0	-	3.0	3.5

문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9)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0	22.4	23.2	36.8	54.1	34.6	24.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9	46.9	46.9	42.1	27.0	40.8	56.8
3. 그런 편이다	23.0	24.5	23.7	16.0	14.3	17.7	12.3
4. 매우 그렇다	4.3	4.7	4.5	2.9	4.6	3.8	3.1
무응답	1.8	1.6	1.7	2.2	-	3.0	2.9
20)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	2.4	2.4	1.4	3.5	1.8	1.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	6.0	5.6	5.5	8.7	4.2	5.8
3. 그런 편이다	36.3	36.7	36.5	31.5	35.4	26.6	46.1
4. 매우 그렇다	54.4	53.4	53.8	59.5	52.4	64.4	44.0
무응답	1.8	1.6	1.7	2.0	-	3.0	2.1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어머니와 상담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3.1	34.7	33.9	37.6	19.1	30.2	7.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4	29.2	28.8	18.2	18.5	32.0	22.2
3. 그런 편이다	23.4	22.1	22.7	22.5	26.5	20.5	52.3
4. 매우 그렇다	13.3	12.4	12.8	19.4	35.8	13.3	14.4
무응답	1.8	1.6	1.7	2.2	-	4.0	3.7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0.4	49.2	49.8	50.3	27.6	38.8	16.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1	27.4	28.2	22.1	21.3	29.0	35.4
3. 그런 편이다	12.9	15.8	14.4	17.0	24.2	20.9	37.7
4. 매우 그렇다	6.1	6.3	6.2	8.4	27.0	7.4	6.6
무응답	1.5	1.3	1.4	2.2	-	3.8	3.5
23)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0.4	22.1	21.3	21.9	4.6	7.0	5.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1	35.7	36.4	37.4	12.1	17.7	39.5
3. 그런 편이다	31.3	32.1	31.7	30.5	39.9	36.6	42.2
4. 매우 그렇다	9.5	8.7	9.1	7.2	43.5	34.4	9.3
무응답	1.7	1.5	1.6	3.1	-	4.2	3.7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어머니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9.7	18.2	18.9	14.3	2.3	2.2	2.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9	20.9	20.4	20.2	5.4	7.8	11.7
3. 그런 편이다	35.2	38.5	36.9	42.3	27.5	34.0	56.2
4. 매우 그렇다	23.7	20.7	22.1	21.1	64.8	52.3	26.7
무응답	1.6	1.6	1.6	2.0	-	3.6	3.3

문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5.5	29.1	27.3	30.7	4.9	15.3	8.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5	31.5	31.5	22.9	9.3	24.9	30.2
3. 그런 편이다	27.1	25.4	26.2	27.6	34.5	28.4	41.2
4. 매우 그렇다	14.2	12.7	13.4	16.6	51.3	28.4	16.9
무응답	1.7	1.2	1.5	2.2	-	3.0	3.3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4.0	45.0	44.5	52.4	10.1	34.4	14.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5	32.3	32.4	21.7	15.9	27.6	37.0
3. 그런 편이다	14.1	13.8	13.9	15.1	32.1	19.3	32.7
4. 매우 그렇다	7.4	7.4	7.4	8.2	41.9	14.9	12.3
무응답	2.0	1.5	1.7	2.7	-	3.8	3.9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상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5	22.7	23.6	27.2	4.2	6.2	4.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9	22.7	23.8	20.4	8.1	14.1	13.4
3. 그런 편이다	31.8	36.2	34.1	31.9	28.5	33.6	52.5
4. 매우 그렇다	17.1	16.5	16.8	18.4	59.2	43.3	26.5
무응답	1.7	2.0	1.8	2.0	-	2.8	3.1
28) 어머니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7.5	15.9	16.7	12.9	12.5	5.8	2.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9	23.0	23.9	23.1	23.5	19.5	9.3
3. 그런 편이다	42.9	46.5	44.8	39.5	40.2	37.8	59.1
4. 매우 그렇다	13.1	13.0	13.0	22.5	23.9	32.6	25.5
무응답	1.6	1.7	1.6	2.0	-	4.2	3.5
29)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1	4.7	4.9	11.9	2.5	1.8	1.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4	14.8	14.6	27.0	5.4	5.0	11.7
3. 그런 편이다	45.7	45.7	45.7	42.3	21.8	18.7	36.8
4. 매우 그렇다	33.2	33.5	33.4	16.8	70.4	70.8	45.9
무응답	1.6	1.3	1.4	2.0	-	3.6	3.9

문13-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2.2	22.2	22.2	55.6	55.4	44.7	30.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3	41.4	41.3	27.0	20.7	30.8	40.7
3. 그런 편이다	26.2	25.0	25.6	8.6	17.6	12.5	22.0
4. 매우 그렇다	8.6	8.7	8.7	2.9	6.2	6.6	3.5
무응답	1.7	2.6	2.2	5.9	-	5.4	3.1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6.3	36.3	36.3	56.9	36.1	35.8	12.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7	45.3	44.5	28.4	23.9	31.0	36.0
3. 그런 편이다	14.3	11.7	12.9	6.5	30.7	17.3	39.7
4. 매우 그렇다	4.0	4.0	4.0	2.2	9.3	9.9	8.8
무응답	1.7	2.7	2.2	5.9	-	6.0	3.1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3.5	35.6	34.6	64.4	49.8	44.9	27.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7	46.6	46.7	24.9	29.0	32.4	48.6
3. 그런 편이다	13.3	11.9	12.6	4.1	16.0	13.5	18.3
4. 매우 그렇다	4.6	3.1	3.8	0.6	5.1	3.0	2.3
무응답	1.9	2.8	2.3	5.9	-	6.2	3.3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3.9	42.1	43.0	66.9	50.1	55.3	26.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4	38.5	39.5	22.5	27.3	26.0	44.7
3. 그런 편이다	8.4	10.2	9.3	2.2	16.5	7.0	20.0
4. 매우 그렇다	5.4	6.2	5.8	2.0	6.1	3.0	5.1
무응답	1.9	2.9	2.4	6.3	-	8.7	3.5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7.0	30.8	29.0	49.9	40.7	39.6	16.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8	38.1	37.5	29.9	25.7	29.8	38.7
3. 그런 편이다	24.7	20.5	22.5	11.2	23.9	15.9	37.0
4. 매우 그렇다	9.9	7.7	8.8	3.1	9.7	8.9	4.5
무응답	1.7	2.9	2.3	5.9	-	5.8	3.1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3.5	21.5	22.5	38.2	29.2	20.5	15.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6	33.1	33.8	30.9	19.7	31.0	27.8
3. 그런 편이다	27.8	26.7	27.3	17.4	34.0	25.4	37.9
4. 매우 그렇다	12.4	16.1	14.3	7.2	17.1	16.9	15.6
무응답	1.8	2.6	2.2	6.3	-	6.2	3.1

문13-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8.4	29.1	33.6	42.7	42.8	22.9	33.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9.5	42.7	41.1	33.3	28.2	44.7	47.7
3. 그런 편이다	15.0	19.7	17.4	13.3	18.5	19.7	12.1
4. 매우 그렇다	5.3	5.8	5.6	4.5	10.4	6.2	3.3
무응답	1.8	2.7	2.3	6.1	-	6.4	3.1
8) 나는 성적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0	25.9	27.9	49.3	59.1	43.3	60.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2	39.7	38.0	29.9	20.5	25.6	30.2
3. 그런 편이다	22.3	24.0	23.2	11.5	14.4	17.3	5.3
4. 매우 그렇다	9.7	7.6	8.6	3.5	6.1	6.8	1.0
무응답	1.7	2.8	2.3	5.9	-	7.0	3.3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3.2	51.7	52.4	71.0	61.5	65.8	67.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8	37.0	37.4	19.6	23.7	22.7	27.6
3. 그런 편이다	4.9	5.8	5.4	2.9	10.9	4.0	1.4
4. 매우 그렇다	2.3	2.7	2.5	0.6	3.8	1.8	0.4
무응답	1.8	2.7	2.3	5.9	-	5.6	3.5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4.0	59.7	61.8	74.4	65.7	72.8	69.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2	30.8	30.5	17.6	20.9	13.9	23.5
3. 그런 편이다	2.4	3.4	2.9	1.4	9.6	2.6	2.1
4. 매우 그렇다	1.6	3.2	2.4	0.6	3.8	1.8	0.8
무응답	1.9	2.9	2.4	5.9	-	8.9	3.7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8	24.0	24.4	41.5	40.2	32.6	40.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7	33.1	32.9	32.1	22.5	38.4	33.7
3. 그런 편이다	30.9	30.2	30.6	13.9	24.8	16.5	17.5
4. 매우 그렇다	9.9	9.8	9.8	6.5	12.6	6.2	4.7
무응답	1.7	2.8	2.3	5.9	-	6.2	3.7
12) 나는 행동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9.1	27.0	28.0	46.8	46.2	50.9	42.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5.4	37.2	36.3	31.7	24.9	27.6	37.5
3. 그런 편이다	25.8	24.6	25.2	11.7	19.7	11.3	14.6
4. 매우 그렇다	8.0	8.4	8.2	3.7	9.3	3.0	1.9
무응답	1.8	2.8	2.3	6.1	-	7.2	3.5

문13-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3) 아버지와 부딪힐 때 묵묵히 봐주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1.5	19.0	20.2	16.6	20.4	14.3	40.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6	40.3	41.9	16.6	21.2	24.1	37.5
3. 그런 편이다	28.3	33.0	30.7	41.1	35.5	30.8	10.9
4. 매우 그렇다	4.8	4.9	4.8	19.2	22.9	22.7	1.4
무응답	1.8	2.8	2.3	6.5	-	8.0	9.7
14)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2.7	28.1	30.3	35.8	41.8	65.0	87.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4	38.2	37.4	32.3	26.0	16.3	8.0
3. 그런 편이다	22.3	22.6	22.5	18.0	23.4	8.2	1.0
4. 매우 그렇다	6.6	8.2	7.4	7.6	8.9	2.8	0.2
무응답	2.0	2.8	2.4	6.3	-	7.6	3.9
15)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2.7	45.8	49.1	41.5	44.7	16.1	34.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3	40.8	38.6	39.7	38.6	30.6	43.8
3. 그런 편이다	8.0	9.2	8.6	10.4	12.5	37.6	13.6
4. 매우 그렇다	1.0	1.2	1.1	1.6	4.2	4.8	1.2
무응답	2.0	2.9	2.5	6.7	-	10.9	7.2
16)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0	13.5	14.2	22.3	24.1	7.8	6.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2	29.7	27.5	22.5	31.3	16.3	12.1
3. 그런 편이다	42.8	41.9	42.3	35.8	31.4	30.4	45.5
4. 매우 그렇다	15.3	12.0	13.6	12.9	13.2	37.0	31.7
무응답	1.8	2.8	2.3	6.5	-	8.5	4.3
17)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4.6	35.7	40.0	36.2	43.0	34.0	27.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0	34.5	34.2	27.4	32.0	30.4	33.7
3. 그런 편이다	14.7	20.8	17.9	21.9	17.5	17.3	27.4
4. 매우 그렇다	5.0	6.4	5.7	8.4	7.5	10.7	7.0
무응답	1.7	2.7	2.2	6.1	-	7.6	4.1

문13-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8.7	19.4	19.1	41.3	39.9	25.4	20.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4	41.1	38.8	35.6	24.5	34.4	35.4
3. 그런 편이다	31.4	27.6	29.4	17.6	28.6	25.6	34.6
4. 매우 그렇다	11.4	10.1	10.8	3.9	7.0	12.1	6.8
무응답	2.0	1.8	1.9	1.6	-	2.6	2.9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9.2	26.6	27.9	46.8	27.5	30.4	8.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8	41.9	39.9	33.1	23.8	30.4	32.5
3. 그런 편이다	23.4	23.6	23.5	13.5	36.9	23.3	45.1
4. 매우 그렇다	7.6	6.1	6.8	4.9	11.8	12.5	10.7
무응답	2.0	1.8	1.9	1.6	-	3.4	2.9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7.4	27.6	27.5	56.0	41.7	33.0	21.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9	42.6	40.8	33.1	31.3	35.6	45.5
3. 그런 편이다	23.8	22.1	22.9	7.0	22.0	21.9	24.1
4. 매우 그렇다	7.9	5.6	6.7	2.0	5.0	5.8	5.1
무응답	2.1	2.1	2.1	1.8	-	3.6	3.5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9.5	36.8	38.1	62.6	44.1	45.9	21.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9.3	38.4	38.8	28.4	29.7	29.4	41.1
3. 그런 편이다	12.8	14.6	13.7	5.1	20.3	14.1	26.5
4. 매우 그렇다	6.1	8.1	7.2	1.8	5.9	4.6	8.4
무응답	2.3	2.1	2.2	2.0	-	6.0	2.5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0.8	23.9	22.4	40.9	28.4	30.2	13.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3	32.2	30.3	33.5	22.7	28.2	32.7
3. 그런 편이다	32.5	28.9	30.7	19.4	34.1	23.7	42.8
4. 매우 그렇다	16.2	12.9	14.5	4.5	14.8	15.1	8.2
무응답	2.1	2.0	2.1	1.6	-	2.8	2.9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9.9	17.6	18.7	29.4	18.9	10.1	11.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0	29.8	30.4	32.5	19.3	25.2	20.8
3. 그런 편이다	31.8	32.7	32.3	24.9	39.4	31.2	41.4
4. 매우 그렇다	15.1	17.9	16.5	10.4	22.3	30.6	23.5
무응답	2.2	2.0	2.1	2.7	-	3.0	2.5

문13-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 나는 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8	25.1	28.4	35.0	40.9	16.9	30.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4	39.6	38.5	34.6	30.6	41.2	45.9
3. 그런 편이다	22.6	26.0	24.3	21.1	20.9	28.4	16.0
4. 매우 그렇다	6.1	7.3	6.7	7.8	7.6	10.1	5.1
무응답	2.1	2.0	2.1	1.6	-	3.4	2.9
8) 나는 성적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3.2	20.3	21.7	41.1	49.7	34.4	60.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0	33.4	32.2	33.5	22.7	30.2	28.8
3. 그런 편이다	29.1	33.2	31.2	17.2	19.4	22.5	7.2
4. 매우 그렇다	14.5	11.2	12.8	6.5	8.3	8.9	1.2
무응답	2.1	2.0	2.0	1.6	-	4.0	2.7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8.5	47.7	48.1	65.4	56.8	61.4	65.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5	37.0	36.8	26.4	25.8	25.2	27.2
3. 그런 편이다	9.7	10.2	10.0	5.5	13.4	7.6	3.3
4. 매우 그렇다	3.0	3.2	3.1	1.0	3.9	2.6	1.2
무응답	2.1	1.9	2.0	1.6	-	3.2	3.1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0.7	55.9	58.2	74.0	61.0	69.2	67.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6	30.8	30.7	21.1	24.5	18.5	24.9
3. 그런 편이다	4.1	7.3	5.7	2.2	10.7	4.4	3.1
4. 매우 그렇다	2.3	4.0	3.2	1.0	3.8	1.8	1.2
무응답	2.3	2.0	2.2	1.6	-	6.0	3.3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1.1	20.6	20.8	32.3	37.8	26.0	38.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7	30.6	29.7	31.3	24.0	37.8	32.1
3. 그런 편이다	35.0	34.9	35.0	26.2	27.5	23.5	20.0
4. 매우 그렇다	13.0	12.0	12.5	8.6	10.8	9.3	6.6
무응답	2.2	1.9	2.1	1.6	-	3.4	2.9
12) 나는 행동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5.7	23.8	24.7	36.8	41.0	47.1	39.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1	36.7	34.5	34.8	27.1	30.6	35.4
3. 그런 편이다	30.3	28.9	29.6	19.8	22.5	14.5	18.9
4. 매우 그렇다	9.6	8.9	9.2	6.7	9.4	3.8	3.5
무응답	2.3	1.8	2.1	1.8	-	4.0	3.1

문13-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3) 어머니와 부딪힐 때 묵묵히 봐주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2.3	19.5	20.9	12.9	10.8	10.5	39.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9	41.8	43.3	17.2	22.4	23.7	38.9
3. 그런 편이다	26.2	32.3	29.4	45.4	39.6	36.0	10.3
4. 매우 그렇다	4.3	4.2	4.2	22.1	27.2	25.2	1.4
무응답	2.2	2.2	2.2	2.5	-	4.6	9.5
14) 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7	28.4	30.0	36.0	44.5	64.0	87.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9	40.7	39.3	36.2	31.3	17.9	8.2
3. 그런 편이다	21.6	22.4	22.1	19.4	19.0	9.1	0.6
4. 매우 그렇다	6.2	6.5	6.4	6.1	5.2	4.2	0.2
무응답	2.5	2.0	2.2	2.2	-	4.8	3.9
15) 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7.0	40.0	43.4	34.6	40.4	10.9	34.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5	43.0	40.8	48.5	40.7	33.4	42.2
3. 그런 편이다	10.3	13.2	11.8	12.5	15.8	42.3	14.6
4. 매우 그렇다	1.8	1.9	1.8	2.0	3.1	6.4	1.9
무응답	2.3	2.0	2.2	2.5	-	7.0	6.8
16) 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8	10.7	12.2	18.6	14.4	6.8	3.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4	27.6	26.0	28.0	28.9	19.5	12.8
3. 그런 편이다	43.1	45.6	44.4	37.2	38.7	31.4	48.2
4. 매우 그렇다	16.4	14.1	15.2	13.7	18.0	37.8	31.9
무응답	2.3	2.1	2.2	2.5	-	4.4	3.1
17) 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6.2	37.5	41.7	35.0	48.9	32.2	26.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1	35.1	34.1	31.5	32.5	30.6	32.9
3. 그런 편이다	13.8	19.5	16.7	23.5	13.8	21.3	28.4
4. 매우 그렇다	4.8	5.7	5.3	8.0	4.8	11.3	8.6
무응답	2.1	2.3	2.2	2.0	-	4.6	3.5

문14-1.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6	3.3	3.0	12.3	5.8	5.6	1.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2	17.5	16.4	28.6	2.7	22.7	27.0
3. 그런 편이다	46.7	46.5	46.6	38.0	17.8	48.5	50.0
4. 매우 그렇다	33.9	30.0	31.9	14.9	73.7	17.5	16.5
무응답	1.5	2.7	2.2	6.1	-	5.6	4.5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5	2.5	2.5	10.6	5.5	6.4	1.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9	16.3	16.1	30.7	3.2	22.1	28.0
3. 그런 편이다	44.1	46.7	45.4	37.0	19.4	43.5	50.0
4. 매우 그렇다	35.9	31.7	33.7	15.3	71.8	21.1	16.0
무응답	1.5	2.8	2.2	6.3	-	6.8	4.1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	1.1	1.2	7.6	8.4	3.6	1.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	5.0	3.9	17.6	11.3	5.4	1.8
3. 그런 편이다	37.2	36.1	36.6	44.0	35.9	32.0	47.3
4. 매우 그렇다	57.4	55.0	56.2	24.1	44.4	52.3	45.9
무응답	1.5	2.7	2.1	6.7	-	6.6	4.1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	1.0	1.2	14.9	28.4	5.0	2.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	6.4	5.0	22.3	33.7	4.2	25.9
3. 그런 편이다	34.5	34.0	34.3	33.5	26.5	21.7	40.7
4. 매우 그렇다	59.0	55.9	57.4	22.7	11.4	62.6	26.1
무응답	1.5	2.7	2.1	6.5	-	6.4	4.9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0	2.5	2.3	4.5	6.3	3.0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1	9.1	9.6	7.8	3.8	5.2	1.0
3. 그런 편이다	41.9	46.4	44.2	41.5	22.2	39.2	45.3
4. 매우 그렇다	44.4	39.3	41.8	39.7	67.7	45.9	48.8
무응답	1.6	2.7	2.2	6.5	-	6.6	4.1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0	1.5	1.3	2.9	5.9	2.2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5	4.0	3.7	4.1	3.6	2.0	2.9
3. 그런 편이다	36.8	37.5	37.1	37.0	17.9	21.5	46.5
4. 매우 그렇다	57.2	54.2	55.6	49.7	72.6	68.6	45.5
무응답	1.6	2.8	2.2	6.3	-	5.6	4.3

문14-1.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8	1.3	1.1	2.0	5.7	1.8	1.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	1.6	1.3	3.1	3.3	1.6	4.5
3. 그런 편이다	21.3	23.2	22.3	21.5	14.5	11.9	35.6
4. 매우 그렇다	75.4	71.2	73.2	67.1	76.5	78.9	54.3
무응답	1.5	2.7	2.1	6.3	-	5.8	4.3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7	1.7	1.2	2.5	7.2	2.2	1.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	2.1	1.8	4.1	4.9	2.4	1.6
3. 그런 편이다	22.3	25.1	23.8	21.9	16.4	12.5	29.0
4. 매우 그렇다	74.0	68.3	71.1	65.2	71.5	76.9	64.4
무응답	1.5	2.8	2.2	6.3	-	6.0	4.1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8	2.4	2.1	20.9	13.7	17.7	4.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7.9	9.0	8.5	29.0	19.2	19.3	11.9
3. 그런 편이다	37.7	33.2	35.4	28.8	32.8	28.4	46.9
4. 매우 그렇다	51.0	52.6	51.8	14.5	34.3	25.6	31.7
무응답	1.6	2.8	2.2	6.7	-	9.1	4.9
문14-2.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	1.9	1.5	8.6	1.3	2.4	1.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9.5	12.7	11.2	23.7	1.5	22.3	22.8
3. 그런 편이다	43.3	44.5	43.9	48.1	10.8	46.9	52.7
4. 매우 그렇다	44.7	39.8	42.2	18.2	86.4	24.7	20.2
무응답	1.4	1.1	1.2	1.4	-	3.4	2.9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	1.8	1.6	7.2	1.2	4.6	1.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5	11.9	11.2	27.8	2.4	21.7	27.8
3. 그런 편이다	40.9	45.0	43.0	44.8	18.2	46.1	50.6
4. 매우 그렇다	45.8	40.1	42.9	18.6	78.1	23.1	17.7
무응답	1.5	1.1	1.3	1.6	-	4.0	2.9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7	0.9	0.8	6.1	2.8	2.0	0.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	3.5	3.2	17.8	9.1	5.4	1.9
3. 그런 편이다	31.8	35.8	33.9	47.9	34.5	31.2	48.1
4. 매우 그렇다	63.2	58.7	60.9	26.2	53.6	57.7	46.3
무응답	1.4	1.1	1.2	2.0	-	3.4	3.3

문14-2.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9	1.1	1.0	15.3	25.0	2.8	2.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	4.9	3.7	20.4	30.6	4.6	24.3
3. 그런 편이다	30.9	33.0	32.0	38.4	25.8	22.1	42.0
4. 매우 그렇다	64.5	59.8	62.1	23.9	18.6	67.2	27.8
무응답	1.4	1.1	1.3	1.8	-	3.0	3.5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1	2.5	2.3	2.2	1.2	1.2	0.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8.9	8.7	8.8	6.5	2.2	5.4	1.9
3. 그런 편이다	37.6	45.5	41.7	42.3	15.7	39.4	43.4
4. 매우 그렇다	49.9	42.2	45.9	47.0	80.9	50.5	51.4
무응답	1.4	1.2	1.3	1.8	-	3.4	2.9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6	0.8	0.7	1.2	1.1	0.4	0.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	2.8	2.6	3.5	1.4	2.0	2.7
3. 그런 편이다	35.5	38.8	37.2	39.7	13.8	19.1	46.3
4. 매우 그렇다	60.3	56.4	58.3	53.6	83.7	76.1	47.5
무응답	1.4	1.2	1.3	2.0	-	2.4	3.1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4	0.9	0.7	0.4	1.1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0.4	1.0	0.7	2.9	1.3	2.0	3.3
3. 그런 편이다	19.4	21.6	20.5	22.3	8.5	9.9	34.6
4. 매우 그렇다	78.3	75.4	76.8	72.6	89.0	85.7	58.2
무응답	1.5	1.1	1.3	1.8	-	2.4	3.1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4	1.1	0.8	0.4	1.3	0.8	0.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0.6	1.5	1.0	3.7	2.4	1.4	1.2
3. 그런 편이다	20.3	23.6	22.0	22.7	10.0	11.7	28.6
4. 매우 그렇다	77.4	72.7	75.0	71.2	86.4	83.5	66.9
무응답	1.4	1.1	1.3	2.0	-	2.6	2.9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	2.2	1.9	21.5	10.0	17.7	4.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6.4	8.2	7.3	28.6	17.4	21.1	11.7
3. 그런 편이다	34.1	31.7	32.9	29.9	32.3	26.6	44.2
4. 매우 그렇다	56.5	56.6	56.5	18.0	40.3	27.8	36.6
무응답	1.4	1.3	1.4	2.0	-	6.8	3.5

문15. 문14의 1~9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아버지 1순위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24.6	16.9	20.6	7.2	33.9	10.5	15.2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2.2	10.6	11.3	7.8	8.9	7.4	10.3
3.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5.8	6.8	6.3	7.0	0.8	3.2	8.4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5.6	15.4	10.7	4.7	0.6	3.0	3.3
5.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2.1	2.7	2.5	10.0	11.5	3.0	6.8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7.4	5.8	6.6	10.0	4.5	3.6	3.1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22.4	23.1	22.8	22.7	18.7	25.4	9.7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2.9	3.2	3.0	22.1	18.1	19.5	34.6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0.3	0.6	0.5	0.6	1.0	0.4	8.6
무응답	16.7	15.0	15.8	8.0	2.2	23.9	-
아버지 1+2순위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	-	33.1	12.3	43.6	13.9	18.4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	-	23.9	17.6	28.2	13.1	21.7
3.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	-	15.7	14.3	2.6	8.2	29.7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	-	21.5	11.0	1.9	9.1	8.0
5.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	-	6.2	20.0	28.4	7.2	17.5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	-	13.6	22.1	12.1	8.7	8.5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	-	35.1	41.7	34.5	41.6	21.2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	-	11.5	42.7	41.3	45.5	59.9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	-	2.6	2.0	3.0	2.2	15.1
무응답	-	-	36.7	16.2	4.3	50.5	-

문15. 문14의 1~9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어머니 1순위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26.0	17.6	21.6	6.1	25.6	9.3	12.5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1.1	9.4	10.2	7.4	5.0	4.0	6.2
3.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6.1	5.6	5.8	4.9	0.8	2.6	7.0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5.9	16.5	11.4	5.9	0.6	3.4	2.7
5.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1.8	2.0	1.9	9.8	9.5	2.6	8.0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5.0	4.2	4.6	9.6	3.4	4.4	2.1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23.5	25.4	24.4	24.5	26.5	30.2	11.7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3.4	4.5	3.9	27.4	27.0	21.7	41.6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0.9	1.4	1.1	0.8	1.3	1.0	8.2
무응답	16.4	13.5	14.9	3.5	0.2	20.7	-
어머니 1+2순위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	-	34.8	11.9	35.6	12.3	19.8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	-	24.0	15.5	18.0	8.5	14.2
3.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	-	15.3	11.2	2.5	6.4	18.4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	-	22.9	11.0	1.3	9.1	7.1
5.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	-	4.5	20.2	23.9	6.8	13.2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	-	10.0	21.3	11.2	10.3	8.0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	-	36.7	48.3	44.7	48.1	28.8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	-	12.9	51.1	57.3	50.7	66.0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	-	4.2	2.0	5.2	3.8	24.5
무응답	-	-	34.8	7.4	0.5	44.1	-
문16.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1. 중학교	0.7	0.5	0.6	0.2	0.4	9.5	3.5
2. 고등학교	4.8	4.7	4.7	11.5	5.1	21.1	16.7
3. 전문대	4.9	6.2	5.6	10.4	12.8	4.6	16.1
4. 대학교	65.7	69.6	67.7	69.3	44.6	31.6	51.0
5. 대학원 이상	23.8	18.8	21.2	8.2	37.1	30.6	10.7
무응답	0.1	0.3	0.2	0.4	-	2.6	1.9
2) 부모님은 당신이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1. 중학교	0.1	0.1	0.1	-	0.1	10.9	3.3
2. 고등학교	1.9	1.8	1.8	11.5	2.7	33.8	16.5
3. 전문대	3.1	4.2	3.7	10.0	11.4	5.2	13.0
4. 대학교	67.1	75.8	71.6	72.6	50.4	31.4	52.5
5. 대학원 이상	26.1	17.0	21.5	4.9	35.4	13.5	10.9
무응답	1.7	1.0	1.4	1.0	-	5.2	3.7

문1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1. 예	49.6	40.5	44.9	37.2	69.6	33.8	39.3
2. 아니오	49.9	58.3	54.2	60.3	30.4	60.2	57.4
무응답	0.6	1.2	0.9	2.5	-	6.0	3.3
2)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1. 예	50.2	42.0	46.0	42.7	84.6	32.4	37.0
2. 아니오	49.1	57.3	53.3	55.6	15.4	62.4	60.1
무응답	0.7	0.7	0.7	1.6	-	5.2	2.9
3) 나는 아버지가 싫다 (미국:나는 아버지가 좋다)							
1. 예	6.9	9.4	8.2	14.1	86.7	9.1	18.7
2. 아니오	92.3	89.3	90.7	83.0	13.3	85.9	74.7
무응답	0.8	1.3	1.1	2.9	-	5.0	6.6
4) 나는 어머니가 싫다 (미국:나는 어머니가 좋다)							
1. 예	4.9	5.1	5.0	4.1	94.9	4.4	17.5
2. 아니오	94.3	93.8	94.0	94.1	5.1	90.7	76.1
무응답	0.8	1.1	1.0	1.8	-	4.8	6.4
문18. 당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순위							
1. 아버지	26.0	24.1	25.0	15.3	25.7	33.4	18.9
2. 어머니	35.4	31.8	33.5	19.4	50.3	37.0	23.2
3. 형제자매	2.5	3.4	2.9	4.9	2.7	5.0	7.4
4. 할아버지	0.4	0.5	0.5	1.2	1.5	0.6	1.6
5. 할머니	0.9	0.8	0.9	1.2	2.0	1.0	0.6
6. 친척	0.9	0.9	0.9	0.4	0.8	0.2	2.1
7. 선생님	1.8	2.1	1.9	5.5	2.3	1.0	1.8
8. 친구	12.2	17.3	14.8	24.1	8.6	7.4	13.6
9.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	0.9	1.6	1.3	2.0	2.2	5.4	9.9
10. 사회적인 인물, 위인, 정치가 등	2.2	3.3	2.8	7.0	0.7	0.6	5.6
11. 없다	13.0	9.6	11.3	13.1	1.7	1.2	3.1
12. 기타 ( )	1.0	1.6	1.3	4.1	1.6	4.6	12.3
무응답	2.7	3.0	2.9	1.6	-	2.4	-

문18. 당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2순위							
1. 아버지	-	-	45.5	26.2	56.7	55.5	33.5
2. 어머니	-	-	56.5	38.7	76.7	69.8	37.3
3. 형제자매	-	-	6.9	12.1	8.1	12.9	14.2
4. 할아버지	-	-	1.2	2.0	4.9	0.6	3.3
5. 할머니	-	-	1.6	2.7	7.4	2.4	2.4
6. 친척	-	-	2.3	1.6	3.6	1.4	4.7
7. 선생님	-	-	7.1	11.5	6.9	1.6	3.3
8. 친구	-	-	34.7	40.9	19.2	23.1	33.5
9.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	-	-	3.6	4.5	5.5	14.9	32.1
10. 사회적인 인물, 위인, 정치가 등	-	-	5.8	12.9	2.4	1.2	13.7
11. 없다	-	-	15.3	13.1	4.5	2.4	15.1
12. 기타 ( )	-	-	2.7	7.2	4.0	7.2	7.1
무응답	-	-	16.9	26.8	0.1	6.8	-
문19. 다음은 당신과 부모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아버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34.3	43.5	39.1	58.3	36.0	46.9	61.1
2. 거의 하지 않는다	41.3	36.2	38.7	23.3	22.3	16.1	15.4
3. 가끔 하는 편이다	18.9	14.7	16.7	11.2	26.8	20.7	12.6
4. 자주 한다	4.1	3.6	3.8	3.1	14.9	10.5	5.4
무응답	1.4	2.0	1.7	4.1	-	5.6	5.4
2) 어머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28.7	35.9	32.4	43.8	16.1	41.9	54.1
2. 거의 하지 않는다	36.1	32.5	34.2	21.9	17.4	21.7	18.9
3. 가끔 하는 편이다	26.9	21.8	24.3	24.3	37.1	19.9	16.0
4. 자주 한다	7.4	9.1	8.3	7.8	29.4	12.3	5.4
무응답	0.9	0.7	0.8	2.2	-	4.2	5.6
3)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20.5	27.5	24.1	47.6	17.0	50.3	57.2
2. 거의 하지 않는다	39.6	38.1	38.8	27.0	26.0	21.7	17.7
3. 가끔 하는 편이다	35.0	28.8	31.8	19.6	41.4	16.5	16.1
4. 자주 한다	3.4	3.4	3.4	4.5	15.6	7.2	4.7
무응답	1.4	2.2	1.8	1.2	-	4.0	4.3

문20. 당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내가 하고 싶어서	11.1	12.7	11.9	27.8	41.4	35.6	5.8
2.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영향으로)	3.9	3.9	3.9	4.7	7.0	3.6	23.3
3. 친구 및 주위의 권유로	4.3	3.0	3.6	9.8	2.4	4.2	2.5
4.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3.5	7.3	5.5	12.5	13.2	2.6	5.8
5. 종교단체 활동을 통해서	3.0	2.0	2.5	1.2	12.1	5.4	0.8
6.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61.6	52.4	56.8	5.3	11.2	2.2	0.2
7. 기타	2.8	2.4	2.6	4.5	12.7	7.6	5.4
무응답	10.0	16.3	13.2	34.2	-	38.6	56.0
문21.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결혼 전까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1.0	13.9	12.5	24.5	21.8	29.0	31.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1	53.1	51.6	45.6	36.3	34.4	51.4
3. 그런 편이다	34.0	29.3	31.5	22.7	33.8	15.1	12.1
4. 매우 그렇다	4.6	3.4	4.0	6.5	8.1	17.5	3.7
무응답	0.4	0.4	0.4	0.6	-	4.0	1.4
2)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활비(학비 포함)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9	16.5	15.3	8.0	9.4	13.7	2.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2	48.3	47.8	33.9	26.8	33.0	18.9
3. 그런 편이다	32.8	29.9	31.3	44.4	46.2	30.8	52.1
4. 매우 그렇다	5.5	4.8	5.1	13.1	17.5	18.3	25.3
무응답	0.5	0.5	0.5	0.6	-	4.2	1.4
문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							
1. 중학교 졸업 후	2.2	0.4	1.3	0.2	0.8	5.0	0.6
2. 고등학교 졸업 후	27.9	27.0	27.5	16.8	20.6	17.1	10.7
3.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33.3	35.6	34.5	37.0	40.0	26.6	13.2
4. 취업한 이후	24.9	28.5	26.8	40.9	31.3	42.7	66.9
5. 결혼한 이후	9.1	5.6	7.3	3.9	3.1	1.6	1.2
6.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0.4	0.4	0.4	0.4	2.0	1.2	0.4
7. 기타 ( )	1.2	1.7	1.4	0.8	2.2	1.4	4.1
무응답	0.9	0.7	0.8	-	-	4.4	2.9

문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야 할 시기							
1. 중학교 졸업 후	1.5	0.8	1.1	0.2	0.2	2.6	2.3
2. 고등학교 졸업 후	18.1	19.1	18.6	21.5	16.0	39.4	43.4
3.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24.6	22.8	23.7	26.4	36.9	14.9	8.8
4. 취업한 이후	20.1	23.0	21.6	31.1	20.6	18.5	29.0
5. 결혼한 이후	30.4	29.7	30.0	17.4	13.2	3.8	1.4
6.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1.7	1.2	1.4	1.8	8.5	2.2	0.4
7. 기타 ( )	2.6	2.3	2.4	1.4	4.6	4.6	8.8
무응답	1.1	1.0	1.1	0.2	-	13.9	6.0

문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							
1. 중학교 졸업 후	2.2	0.4	1.3	0.2	0.8	5.0	0.6
2. 고등학교 졸업 후	27.9	27.0	27.5	16.8	20.6	17.1	10.7
3.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33.3	35.6	34.5	37.0	40.0	26.6	13.2
4. 취업한 이후	24.9	28.5	26.8	40.9	31.3	42.7	66.9
5. 결혼한 이후	9.1	5.6	7.3	3.9	3.1	1.6	1.2
6.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0.4	0.4	0.4	0.4	2.0	1.2	0.4
7. 기타 ( )	1.2	1.7	1.4	0.8	2.2	1.4	4.1
무응답	0.9	0.7	0.8	-	-	4.4	2.9
2)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야 할 시기							
1. 중학교 졸업 후	1.5	0.8	1.1	0.2	0.2	2.6	2.3
2. 고등학교 졸업 후	18.1	19.1	18.6	21.5	16.0	39.4	43.4
3.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24.6	22.8	23.7	26.4	36.9	14.9	8.8
4. 취업한 이후	20.1	23.0	21.6	31.1	20.6	18.5	29.0
5. 결혼한 이후	30.4	29.7	30.0	17.4	13.2	3.8	1.4
6.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1.7	1.2	1.4	1.8	8.5	2.2	0.4
7. 기타 ( )	2.6	2.3	2.4	1.4	4.6	4.6	8.8
무응답	1.1	1.0	1.1	0.2	-	13.9	6.0

문23. 다음의 보기 중 당신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순위							
1. 공부와 성적	68.4	64.5	66.4	27.2	41.7	23.7	27.0
2. 친구관계	3.4	3.3	3.3	9.6	12.1	5.8	3.3
3. 진로문제(진학/취업)	11.0	16.9	14.0	29.4	7.8	11.9	13.8
4. 가족관계(가족문제)	0.9	1.3	1.1	2.5	4.5	4.8	5.4
5. 외모	2.2	1.5	1.8	2.5	6.3	1.8	5.6
6. 성격	1.8	2.0	1.9	3.5	1.0	3.0	3.9
7. 이성교제	1.5	1.5	1.5	2.2	6.7	3.6	6.4
8. 집안의 경제사정	0.8	2.5	1.7	1.8	5.6	5.0	2.3
9.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7.0	3.7	5.3	18.0	12.3	30.6	28.8
10. 기타 ( )	0.8	0.9	0.9	2.2	2.0	3.2	1.6
무응답	2.4	1.9	2.1	1.0	0.0	6.4	1.8
1+2순위							
1. 공부와 성적	-	-	79.1	45.2	56.9	32.6	38.7
2. 친구관계	-	-	12.3	17.4	30.1	11.7	9.0
3. 진로문제(진학/취업)	-	-	52.0	47.2	20.7	22.3	32.1
4. 가족관계(가족문제)	-	-	2.7	4.5	11.0	11.5	9.4
5. 외모	-	-	7.1	6.7	16.3	6.2	10.8
6. 성격	-	-	9.5	9.0	3.0	7.4	7.1
7. 이성교제	-	-	7.4	6.5	14.1	9.3	12.7
8. 집안의 경제사정	-	-	6.5	5.3	14.5	7.8	7.5
9.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	-	10.3	18.0	26.8	41.9	45.8
10. 기타 ( )	-	-	2.1	4.3	6.2	5.6	6.6
무응답	-	-	10.9	35.8	0.1	43.7	20.3

문24. 당신은 누구와 고민을 상담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순위							
1. 아버지	11.8	8.9	10.3	3.5	14.6	17.1	10.5
2. 어머니	34.2	26.4	30.2	25.4	50.5	33.4	33.9
3. 형제자매	4.8	6.2	5.5	2.7	4.6	7.2	8.0
4. 친구	29.1	35.9	32.6	48.5	21.7	26.2	27.2
5. 할아버지	0.1	0.1	0.1	-	0.8	0.2	0.2
6. 할머니	0.3	0.2	0.2	0.4	1.5	0.8	0.2
7. 친척	0.8	0.6	0.7	-	0.5	1.2	0.4
8. 선생님	0.9	1.9	1.4	2.0	0.6	0.2	0.8
9. 상담전문기관	0.3	0.8	0.5	0.2	0.2	0.4	1.2
10. 학교상담선생님	0.0	0.3	0.1	0.6	1.1	-	-
11.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다	13.8	13.8	13.8	14.7	2.6	4.0	9.3
12. 기타 ( )	0.9	1.1	1.0	1.2	1.0	4.8	7.2
무응답	3.1	4.0	3.6	0.8	0.3	4.4	1.2
1+2순위							
1. 아버지	-	-	21.9	10.8	37.9	34.4	24.5
2. 어머니	-	-	51.2	49.1	77.1	60.2	50.0
3. 형제자매	-	-	12.7	10.6	13.8	15.7	22.6
4. 친구	-	-	54.3	64.6	41.2	47.7	50.0
5. 할아버지	-	-	0.3	-	2.0	0.4	-
6. 할머니	-	-	0.5	1.2	5.8	2.6	0.5
7. 친척	-	-	2.7	0.4	2.5	2.6	2.8
8. 선생님	-	-	6.3	8.0	2.4	0.8	1.4
9. 상담전문기관	-	-	1.3	0.8	0.9	1.0	1.4
10. 학교상담선생님	-	-	0.8	1.0	5.2	0.4	-
11.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다	-	-	20.6	14.7	8.2	7.6	15.6
12. 기타 ( )	-	-	3.3	3.7	2.1	7.6	17.9
무응답	-	-	24.3	35.0	0.7	18.7	13.2

문25. 당신은 다음의 활동을 하루(평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폰메일							
1. 보내는 문자	78.80	94.16	87.36	21.25	-	4.91	4.61
2. 받는 문자	83.01	99.31	92.07	22.50	-	8.37	4.39
2) 비디오·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용	100.61	93.69	97.04	85.75	-	185.42	124.86
3) TV시청	121.43	96.53	108.61	150.93	-	157.67	117.95
4) 학습시간(혼자 공부하는 시간)	113.58	121.57	117.68	72.59	-	72.51	77.66
5) 학원 및 과외공부	164.72	83.73	123.09	35.77	-	22.03	29.46

문26. 당신은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주로 언제쯤 집으로 돌아옵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오후 4시 이전	8.4	0.6	4.4	7.0	49.9	82.5	25.3
2. 오후 5시경	13.8	4.6	9.0	16.8	18.0	2.4	20.8
3. 오후 6시경	5.2	6.7	6.0	16.2	11.3	0.4	6.0
4. 오후 7시경	5.1	5.4	5.3	17.0	3.6	0.4	3.7
5. 오후 8시경	4.7	2.0	3.3	12.9	1.8	1.0	4.7
6. 오후 9시경	9.3	9.6	9.5	7.4	1.7	0.2	5.3
7. 오후 10시경	15.6	24.7	20.3	9.4	0.7	0.4	1.9
8. 오후 11시경	19.5	19.7	19.6	3.5	0.4	0.6	0.4
9. 밤 12시 이후	8.7	17.4	13.2	0.2	0.3	0.6	0.6
10. 일정치 않다	8.3	8.0	8.2	9.2	12.3	9.7	30.7
무응답	1.2	1.3	1.3	0.6	-	1.8	0.6
문27. 당신이 집에 돌아온 후, 자기 전까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많습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혼자	19.7	23.2	21.5	26.6	12.5	31.4	51.0
2. 형제자매	18.6	15.6	17.0	14.1	12.6	21.1	9.5
3. 아버지(양아버지)	3.2	4.2	3.7	1.2	4.7	2.8	2.7
4. 어머니(양어머니)	22.4	20.1	21.2	28.2	31.0	17.1	8.2
5. 할아버지	0.2	0.2	0.2	-	0.2	-	-
6. 할어머니	1.5	1.6	1.5	1.0	1.3	0.6	0.2
7.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26.3	19.3	22.7	26.4	35.9	15.3	23.9
8. 와서 그냥 자는 일이 많다	7.3	14.7	11.1	1.8	1.8	9.1	2.1
무응답	0.8	1.1	1.0	0.6	-	2.6	2.3
문28. 당신은 아래의 일 또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집안 일(청소, 요리, 세탁 등)							
1. 전혀 하지 않는다	4.6	7.6	6.1	18.6	7.6	5.4	1.9
2. 거의 하지 않는다	24.8	23.8	24.3	31.9	33.3	31.8	20.8
3. 가끔씩 한다	53.6	52.7	53.1	42.3	44.7	40.8	46.3
4. 자주 한다	16.3	14.9	15.6	7.2	14.3	19.7	30.7
무응답	0.7	1.0	0.9	–	–	2.2	0.2
2) 취미/문화(미술관 관람 · 음악회 · 영화관람)							
1. 전혀 하지 않는다	9.9	8.9	9.4	3.5	1.7	3.6	8.2
2. 거의 하지 않는다	30.9	26.9	28.9	12.3	18.2	26.0	33.5
3. 가끔씩 한다	45.5	50.1	47.9	41.9	59.1	40.0	44.0
4. 자주 한다	12.8	13.1	12.9	42.3	20.9	28.2	14.0
무응답	0.9	1.0	1.0	–	–	2.2	0.4

문28. 당신은 아래의 일 또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3) 스포츠 활동							
1. 전혀 하지 않는다	8.3	10.8	9.6	15.7	18.0	4.4	9.9
2. 거의 하지 않는다	27.9	33.6	30.8	22.5	24.6	18.7	16.9
3. 가끔씩 한다	41.6	38.8	40.1	26.0	28.0	24.5	30.5
4. 자주 한다	21.4	15.7	18.5	35.8	29.5	49.9	42.4
무응답	0.9	1.1	1.0	–	–	2.4	0.2
4) 여행이나 캠프							
1. 전혀 하지 않는다	18.3	21.7	20.0	33.5	15.2	10.1	8.8
2. 거의 하지 않는다	44.2	48.0	46.2	35.4	39.0	39.8	26.7
3. 가끔씩 한다	32.2	26.3	29.2	28.6	39.4	34.0	36.4
4. 자주 한다	4.5	2.8	3.6	2.2	6.4	13.7	27.8
무응답	0.9	1.1	1.0	0.2	–	2.4	0.4
문29. 당신이 장차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순위							
1. 하고 싶은 일	59.4	58.5	58.9	63.6	63.9	27.4	78.4
2. 재미있는 일	6.1	5.2	5.6	11.0	11.6	36.8	4.7
3.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	4.1	3.2	3.6	10.8	2.5	2.6	1.4
4.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	1.5	1.8	1.7	2.2	1.7	0.8	3.5
5.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일	2.8	2.2	2.5	1.4	3.3	1.2	8.4
6.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13.4	16.5	15.0	4.1	12.5	17.9	0.6
7.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일	1.9	1.9	1.9	0.4	0.5	1.8	2.1
8.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10.0	9.5	9.7	6.3	3.8	4.6	–
무응답	0.8	1.3	1.1	–	0.2	6.8	1.0
1+2순위							
1. 하고 싶은 일	–	–	70.8	75.1	77.4	34.4	88.7
2. 재미있는 일	–	–	17.5	39.3	39.4	61.0	16.5
3.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	–	–	10.9	28.0	7.6	6.4	5.7
4.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	–	–	8.1	6.3	6.6	2.8	25.9
5.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일	–	–	11.2	9.8	10.7	5.2	49.5
6.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	–	47.7	21.1	41.1	53.7	2.8
7.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일	–	–	6.6	3.5	1.7	7.0	7.1
8.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	–	24.3	16.2	14.7	14.1	-
무응답	–	–	3.0	0.8	0.4	15.3	3.8

문3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8	18.9	17.4	39.7	34.1	42.9	44.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8	58.1	55.0	38.2	41.0	37.6	49.0
3. 그런 편이다	28.8	20.9	24.7	17.4	20.9	10.5	5.4
4. 매우 그렇다	3.0	1.5	2.2	4.3	4.0	3.6	0.6
무응답	0.7	0.7	0.7	0.4	-	5.4	1.0
2)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1.6	1.4	1.2	2.5	0.8	1.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6.8	3.8	5.3	5.1	8.1	4.4	2.9
3. 그런 편이다	57.1	52.4	54.6	35.2	41.8	26.0	51.6
4. 매우 그렇다	34.1	41.5	37.9	58.1	47.7	63.2	42.8
무응답	0.7	0.8	0.7	0.4	-	5.6	1.6
3) 부모님은 내가 당신의 지업을 이어 받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4.2	48.7	46.5	72.8	76.7	68.6	53.3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3	40.7	43.9	19.4	16.6	15.7	39.7
3. 그런 편이다	6.1	8.2	7.2	5.3	5.1	5.8	5.4
4. 매우 그렇다	1.6	1.5	1.5	2.0	1.6	4.2	0.2
무응답	0.8	0.9	0.9	0.4	-	5.6	1.4
4) 나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 받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8.4	42.0	40.2	68.1	64.0	62.2	51.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7	45.9	46.8	24.3	22.2	18.1	34.0
3. 그런 편이다	11.0	9.6	10.2	4.5	10.8	8.2	10.9
4. 매우 그렇다	2.3	1.8	2.0	2.5	3.0	5.2	1.6
무응답	0.7	0.8	0.7	0.6	-	6.2	2.1

문31.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예	14.1	24.1	19.2	31.5	43.0	33.6	41.2
2. 아니오	82.9	74.0	78.4	68.5	57.0	62.0	54.5
무응답	3.0	1.9	2.4	-	-	4.4	4.3

문31-1. 당신이 했거나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전단지 돌리기 (스티커 부착)	70.3	43.7	53.9	3.2	1.7	33.1	7.5
2. 패스트푸드점	0.6	7.2	4.7	22.1	18.1	3.6	6.1
3. 24시 편의점	1.0	1.8	1.5	22.1	3.5	3.6	5.2
4. 상점에서 물건팔기	1.0	6.0	4.1	18.8	6.2	6.0	13.7
5. 신문배달	1.0	2.0	1.6	0.6	2.4	18.7	3.8
6. 주유소	0.6	3.2	2.2	1.3	0.7	1.8	0.5
7. 사무보조	4.5	3.0	3.6	3.9	9.3	6.7	7.1
8. 건설현장 일	0.6	4.4	3.0	1.3	2.1	4.9	5.7

문31-1. 당신이 했거나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9. 이벤트 행사장	1.6	4.0	3.1	3.2	1.6	4.9	2.8
10.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 서빙	3.5	25.5	17.1	29.2	10.4	9.1	14.6
11.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	1.6	5.4	3.9	1.9	1.2	3.0	-
12. 기타 ( )	7.4	12.2	10.4	20.1	-	53.0	51.4
(미국 12번 문항 : 베이비시터)	-	-	-	-	17.3	-	-

문31-2.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순위							
1. 용돈을 벌기 위해서	63.9	71.3	68.4	81.8	72.8	77.8	75.9
2. 친구들이 하니까	7.4	4.4	5.5	0.6	0.4	0.6	0.5
3. 부모님의 권유로	1.0	1.0	1.0	1.3	4.4	1.2	0.5
4.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0.3	4.2	2.7	3.2	2.0	0.6	1.4
5. 일반적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7.7	5.8	6.5	3.2	1.2	7.8	9.9
6. 장래의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기 위해	0.0	3.2	2.0	2.6	4.4	1.2	1.9
7.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3.9	0.8	2.0	2.6	7.2	3.0	5.2
8. 기타 ( )	3.5	2.8	3.1	4.5	7.7	6.6	4.2
무응답	12.3	6.6	8.8	-	-	1.2	0.5
1+2순위							
1. 용돈을 벌기 위해서	-	-	84.7	89.6	88.1	95.2	86.3
2. 친구들이 하니까	-	-	26.6	14.3	7.8	3.6	1.9
3. 부모님의 권유로	-	-	3.5	7.8	17.8	2.4	2.8
4.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	-	6.9	12.3	6.2	2.4	1.9
5. 일반적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	-	29.3	32.5	6.1	35.3	55.2
6. 장래의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기 위해	-	-	7.9	7.8	15.7	2.4	9.4
7.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	-	12.9	19.5	40.7	25.7	24.5
8. 기타 ( )	-	-	10.2	9.1	16.9	13.2	11.3
무응답	-	-	18.0	-	-	19.8	6.6

문32.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아주 좋은 경험이다	17.9	33.7	26.0	61.3	38.9	71.0	62.5
2. 한 두번 정도는 해도 좋다	52.9	53.3	53.1	22.1	37.3	18.7	28.2
3.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8.3	8.2	13.1	8.8	3.9	0.2	2.1
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2.3	1.0	1.6	1.2	4.4	0.8	0.6
5. 잘 모르겠다	7.7	3.0	5.3	6.1	15.6	5.0	-
무응답	1.0	0.7	0.9	-	-	4.0	6.6

문33.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0.2	48.0	44.2	42.7	49.1	54.1	67.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5	37.8	40.1	32.5	28.9	28.0	25.7
3. 그런 편이다	14.7	12.3	13.5	18.2	18.1	8.9	4.1
4. 매우 그렇다	2.1	1.7	1.9	6.1	3.9	5.4	1.8
무응답	0.4	0.3	0.3	0.4	-	3.6	0.8
2)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7.4	40.7	39.1	36.2	38.6	50.1	62.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1	34.4	37.2	33.3	36.8	26.6	30.2
3. 그런 편이다	18.6	19.9	19.3	23.3	20.0	13.3	4.9
4. 매우 그렇다	3.5	4.6	4.1	6.3	4.6	5.8	1.8
무응답	0.4	0.3	0.4	0.8	-	4.2	0.8
3)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1.5	22.4	22.0	17.4	28.5	41.9	51.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7	27.4	30.4	25.2	25.0	29.2	35.8
3. 그런 편이다	36.2	41.3	38.8	38.2	34.7	17.5	8.4
4. 매우 그렇다	8.2	8.6	8.4	18.6	11.8	7.0	2.5
무응답	0.4	0.3	0.3	0.6	-	4.4	1.6
4)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1.7	45.8	43.8	53.4	52.7	67.4	81.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2	40.6	42.3	34.6	28.8	18.3	14.8
3. 그런 편이다	11.7	11.4	11.6	8.2	15.2	6.6	1.4
4. 매우 그렇다	1.9	1.8	1.9	3.1	3.3	3.8	0.8
무응답	0.4	0.4	0.4	0.8	-	3.8	1.9
5)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6.9	27.6	27.2	31.5	17.3	21.3	38.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8	38.5	40.1	35.0	24.9	35.4	36.8
3. 그런 편이다	24.0	27.0	25.5	24.1	39.5	28.8	18.7
4. 매우 그렇다	6.9	6.5	6.7	8.4	18.2	9.3	4.5
무응답	0.4	0.4	0.4	1.0	-	5.2	1.9
6)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9.7	28.8	29.2	31.9	24.2	27.8	38.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4	39.8	41.6	39.7	26.7	31.2	37.4
3. 그런 편이다	22.7	27.1	25.0	21.7	36.5	29.0	19.3
4. 매우 그렇다	3.7	3.8	3.8	6.1	12.6	7.2	4.3
무응답	0.4	0.5	0.5	0.6	-	4.8	1.0

문33.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4	2.0	2.7	2.7	2.4	4.8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7.1	3.8	5.4	8.8	8.2	9.5	1.4
3. 그런 편이다	49.1	49.1	49.1	49.1	41.6	48.7	40.9
4. 매우 그렇다	40.0	44.5	42.3	38.2	47.8	33.2	55.8
무응답	0.5	0.5	0.5	1.2	-	3.8	1.2
8)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8	2.1	2.4	4.5	4.3	3.0	1.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2	11.5	13.8	31.5	13.7	11.5	3.9
3. 그런 편이다	60.4	63.9	62.2	47.0	49.3	55.3	51.9
4. 매우 그렇다	20.1	22.1	21.1	15.7	32.6	25.8	42.4
무응답	0.5	0.5	0.5	1.2	-	4.4	0.8
9)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1	2.2	2.2	5.1	3.8	2.4	3.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8.8	6.7	7.7	18.0	13.9	7.4	11.7
3. 그런 편이다	53.4	54.1	53.8	46.4	54.6	50.7	52.3
4. 매우 그렇다	34.9	36.4	35.7	29.0	27.8	35.0	30.5
무응답	0.7	0.5	0.6	1.4	-	4.4	1.9
10) 남자가 늘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2	2.1	3.1	2.7	7.7	5.8	5.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4	9.2	10.8	9.2	19.8	12.3	2.1
3. 그런 편이다	49.4	51.0	50.2	37.6	42.2	38.8	35.8
4. 매우 그렇다	33.5	37.2	35.4	49.5	30.3	37.8	54.5
무응답	0.6	0.4	0.5	1.0	-	5.2	1.8

문34.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한국에서는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6.3	44.5	35.6	31.7	50.8	23.7	21.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1	37.3	40.1	38.9	32.1	37.4	56.4
3. 그런 편이다	21.4	12.3	16.7	16.6	11.7	25.6	17.3
4. 매우 그렇다	8.8	5.8	7.2	11.2	5.4	8.2	2.7
무응답	0.5	0.2	0.3	1.6	-	5.0	1.8
2) 한국사회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4	3.9	3.6	6.7	4.7	1.6	1.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0	10.1	10.5	18.4	11.1	8.0	8.0
3. 그런 편이다	50.7	42.8	46.7	49.9	50.9	57.9	65.8
4. 매우 그렇다	34.3	43.1	38.8	23.7	33.3	27.4	23.3
무응답	0.6	0.2	0.4	1.2	-	5.0	1.6

문34.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3) 한국사회는 학력(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5	2.0	2.2	5.3	3.7	2.2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5	5.6	8.5	17.6	12.9	13.5	4.3
3. 그런 편이다	44.8	33.9	39.2	44.6	52.7	45.3	62.1
4. 매우 그렇다	40.6	58.4	49.7	31.3	30.7	33.6	31.5
무응답	0.6	0.2	0.4	1.2	-	5.4	1.4
4) 한국사회는 인맥(연줄)이 중요한 사회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9	2.3	3.5	4.7	6.8	1.6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0	10.4	17.5	20.2	27.8	11.5	8.6
3. 그런 편이다	44.5	39.8	42.1	49.1	49.0	53.5	58.4
4. 매우 그렇다	24.7	47.3	36.3	24.1	16.4	27.6	30.9
무응답	0.9	0.2	0.5	1.8	-	5.8	1.4
5) 한국사회는 혈연이 중요한 사회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9.0	4.2	6.5	17.2	22.6	6.0	1.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2	20.4	27.1	45.8	35.1	35.6	26.1
3. 그런 편이다	41.0	45.6	43.4	27.6	31.3	38.6	57.6
4. 매우 그렇다	15.0	29.4	22.4	7.6	11.0	13.7	13.8
무응답	0.8	0.4	0.6	1.8	-	6.0	1.6
6) 한국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8.2	30.0	24.3	21.7	20.8	15.5	5.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5	49.2	46.9	40.7	33.5	40.4	27.0
3. 그런 편이다	31.0	17.4	24.0	31.9	38.6	30.8	55.8
4. 매우 그렇다	5.6	3.1	4.3	3.7	7.1	6.8	10.1
무응답	0.8	0.4	0.6	2.0	-	6.4	1.6
7)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2	8.6	6.5	17.4	6.7	5.4	4.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	18.1	17.9	38.9	21.5	18.9	33.9
3. 그런 편이다	53.5	51.2	52.4	34.8	53.6	50.9	50.6
4. 매우 그렇다	24.1	21.8	22.9	6.5	18.2	17.3	7.4
무응답	0.5	0.3	0.4	2.5	-	7.4	3.3
8)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7.7	28.9	23.5	63.2	16.3	32.8	24.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7	46.7	46.7	28.8	40.5	37.2	48.8
3. 그런 편이다	28.8	20.8	24.7	4.9	37.1	15.9	17.3
4. 매우 그렇다	6.1	3.5	4.7	1.0	6.1	7.0	4.9
무응답	0.7	0.2	0.4	2.0	-	7.0	4.3

문35.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3	5.8	6.1	12.5	0.6	1.0	1.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5	38.2	39.8	32.5	2.5	7.2	10.9
3. 그런 편이다	44.1	48.8	46.5	42.9	23.2	59.2	52.3
4. 매우 그렇다	7.5	6.9	7.2	11.2	73.8	26.4	31.9
무응답	0.6	0.3	0.5	0.8	-	6.2	3.1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7	6.7	6.7	18.4	0.7	1.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0	41.7	40.9	47.9	2.8	13.9	16.1
3. 그런 편이다	43.9	42.6	43.2	25.8	25.7	56.9	59.7
4. 매우 그렇다	8.7	8.7	8.7	7.4	70.9	22.1	20.8
무응답	0.7	0.4	0.6	0.6	-	5.8	3.3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3	4.2	4.3	15.7	0.9	1.4	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1	23.8	23.9	40.7	3.5	6.0	13.2
3. 그런 편이다	55.1	54.9	55.0	31.9	27.7	59.4	52.7
4. 매우 그렇다	15.9	16.7	16.3	11.0	67.9	27.0	30.0
무응답	0.7	0.4	0.5	0.6	-	6.2	3.3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	2.7	2.9	13.5	0.9	0.2	0.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1	25.6	24.4	36.4	3.3	9.7	21.8
3. 그런 편이다	58.4	58.0	58.2	37.6	31.3	55.9	51.4
4. 매우 그렇다	14.7	13.4	14.1	12.1	64.5	27.8	23.3
무응답	0.7	0.3	0.5	0.4	-	6.4	3.1
5)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	2.4	2.7	8.2	1.5	1.6	0.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4	19.3	18.9	36.0	10.5	10.1	18.5
3. 그런 편이다	62.0	63.5	62.8	42.5	51.7	58.6	59.9
4. 매우 그렇다	15.9	14.4	15.1	12.7	36.3	23.9	17.9
무응답	0.7	0.4	0.5	0.6	-	5.6	3.1
6)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4	2.7	3.0	7.2	2.1	1.4	1.6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7	22.7	22.7	31.3	12.1	9.5	25.7
3. 그런 편이다	58.7	60.4	59.6	41.7	50.2	56.9	52.9
4. 매우 그렇다	14.4	13.4	13.9	19.2	35.6	26.2	16.5
무응답	0.8	0.8	0.8	0.6	-	6.0	3.3

문35.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9.9	17.3	18.6	24.9	33.4	41.9	10.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8	33.5	35.6	36.2	30.9	36.4	28.2
3. 그런 편이다	35.2	41.3	38.3	26.4	29.3	12.1	50.6
4. 매우 그렇다	6.3	7.4	6.8	12.1	6.4	3.8	7.6
무응답	0.8	0.6	0.7	0.4	-	5.8	3.1
8)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8.8	14.6	16.6	17.8	49.7	44.5	30.2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5.7	31.8	33.7	32.9	27.4	33.8	46.3
3. 그런 편이다	39.2	45.4	42.4	35.4	19.5	11.7	17.5
4. 매우 그렇다	5.6	7.8	6.8	13.7	3.3	4.0	2.7
무응답	0.8	0.5	0.6	0.2	-	6.0	3.3
9)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1	21.0	22.5	28.2	42.7	44.3	12.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4	39.2	41.2	39.7	29.2	35.2	37.7
3. 그런 편이다	27.6	33.4	30.6	22.7	23.7	11.5	40.9
4. 매우 그렇다	4.1	6.0	5.1	8.6	4.4	3.0	5.6
무응답	0.8	0.5	0.6	0.8	-	6.0	3.3
10)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8.5	38.0	38.2	46.6	70.1	68.4	30.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3	43.9	44.6	34.8	18.0	18.3	48.8
3. 그런 편이다	13.2	15.1	14.2	12.7	9.5	4.6	14.6
4. 매우 그렇다	2.3	2.7	2.5	5.5	2.5	3.0	2.3
무응답	0.7	0.4	0.5	0.4	-	5.6	3.5
1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1.3	48.2	49.7	48.5	71.0	71.8	51.9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9	40.4	38.7	36.6	15.4	15.5	39.1
3. 그런 편이다	9.8	9.3	9.6	11.2	10.5	3.8	5.6
4. 매우 그렇다	1.4	1.6	1.5	3.1	3.1	2.8	0.2
무응답	0.6	0.5	0.5	0.6	-	6.0	3.1

2. 질문지

청소년들의 가족생활과 가족에 대한 의식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금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족생활과 가족에 대한 의식을 비교조사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02-2188-8836)/김은정(02-2188-8802)

설문응답에 대한 부탁의 말씀

1. 질문의 번호 순서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 질문에 따라서는 특정한 분만 응답하셔야 합니다. 문항 뒤에 표시된 지시문
   (예: → 문 **문 2-1** 로 가세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3. 부모님에 관한 질문 중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4. 질문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한 곳**에만 체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5. 각 문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시고, ( )나 기타( )의 괄호 안에 가급적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SQ 1 당신의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 남성 ___② 여성

SQ 2 당신은 몇 년생이십니까? 19□□ 년

SQ 3 당신은 어떤 학교에 다니십니까?

___① 중학교 ___② 고등학교(인문계) ___③ 고등학교(실업계)
___④ 기타( )

SQ 4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___① 1학년 ___② 2학년 ___③ 3학년

SQ 5 당신은 현재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___① 대도시 ___② 중·소도시 ___③ 읍·면지역

SQ 6 당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① 상 ___② 중상 ___③ 중 ___④ 중하 ___⑤ 하

※ 다음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 당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친척, 기타의 경우는 몇 명인지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___① 친아버지
___② 친어머니
___③ 양아버지(계부)
___④ 양어머니 (계모)
___⑤ 친할아버지
___⑥ 친할머니
___⑦ 외할아버지
___⑧ 외할머니
___⑨ 남자형제 ☐ 명
___⑩ 여자형제 ☐ 명
___⑪ 친척 ☐ 명
___⑫ 기타 ( ) ☐ 명

문 2 당신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를 안다녔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원 이상	모르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3 당신의 **아버지**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양아버지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___① 예(→ 문 **문 3-1** 로 가세요)___② 아니오(→ 문 **문4** 으로 가세요)

문 3-1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한 후 가급적 (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적어 주십시오.

(예) 회사원 (은행차장, 자동차 영업사원, 중소제조업체 부장 등)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자영업 (음식점 주인, 소매상점 등) 기능·노동직 (배관 숙련공, 건설현장 인부 등)

___①교수( )
___②교사( )
___③회사원( )
___④공무원( )
___⑤사업가( )
___⑥의료인( )
___⑦연구원( )
___⑧경찰( )
___⑨군인( )
___⑩성직자( )
___⑪법조인( )
___⑫방송인( )
___⑬예술가( )
___⑭스포츠인( )
___⑮연예인( )
___⑯기능·노동직( )
___⑰자영업( )
___⑱기타( )

문 3-2 **아버지**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___①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___② 전일제 근로(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문4 당신의 **어머니**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양어머니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___① 예(→ **문 4-1** 로 가세요) ___② 아니오(→ **문5** 로 가세요)

문 4-1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한 후 가급적 (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적어 주십시오.

(예) 회사원 (은행차장, 자동차 영업사원, 중소제조업체 부장 등)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자영업 (음식점 주인, 소매상점 등)
기능·노동직 (배관 숙련공, 건설현장 인부 등)

___①교수( ) ___⑩성직자( )
___②교사( ) ___⑪법조인( )
___③회사원( ) ___⑫방송인( )
___④공무원( ) ___⑬예술가( )
___⑤사업가( ) ___⑭스포츠인( )
___⑥의료인( ) ___⑮연예인( )
___⑦연구원( ) ___⑯기능·노동직( )
___⑧경찰( ) ___⑰자영업( )
___⑨군인( ) ___⑱기타( )

문 4-2 어머니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___①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___② 전일제 근로(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문 5 가정소득(부모님의 수입) 전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기여하고 계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___① 어머니가 전부 번다
___② 어머니가 더 많이 번다
___③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번다
___④ 아버지가 더 많이 번다
___⑤ 아버지가 전부 번다
___⑥ 잘 모르겠다

문 6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가사노동에 각각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1) 식사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2) 설거지	①	②	③	④	⑤	⑥
(3) 청소	①	②	③	④	⑤	⑥
(4) 세탁	①	②	③	④	⑤	⑥

문 7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의 입장을 듣고 냉정히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2)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3) 서로 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어머니가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5) 아버지가 어머니 의견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6) 어느 한 쪽이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어느 한 쪽이 폭력을 행사한다	①	②	③	④

문8 당신은 아래 사항을 **부모님**과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 버 지와				어 머 니와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1)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여행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음악회/영화/박물관관람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TV 시청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9 당신의 **부모님**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머니는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공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이성관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여가·취미생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진로·진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10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___① 공부해라
___②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___③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___④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___⑤ 거짓말 하지마라
___⑥ 절약해라
___⑦ 부지런해라
___⑧ 기타 ( )

문11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하나만**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___① 공부해라
___②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___③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___④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___⑤ 거짓말 하지마라
___⑥ 절약해라
___⑦ 부지런해라
___⑧ 기타 ( )

문 12 다음 문항은 당신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에게)				어머니는(와, 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아버지는(와, 에게)				어머니는(와, 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담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아버지/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아버지/어머니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문항은 당신과 부모님과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어머니는(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아버지는(와)				어머니는(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나는 성적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나는 성격,태도,습관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나는 행동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힐 때 묵묵히 봐주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어머니는(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5 문 14 의 (1)~(9)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2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1순위_____	1순위_____
2순위_____	2순위_____

문 16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1)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당신이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1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①	②
(2)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①	②
(3) 나는 아버지가 싫다	①	②
(4) 나는 어머니가 싫다	①	②

※다음은 당신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8 당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대로 써주십시오. 없는 경우에는 1순위___에 11번을 써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친척
⑦ 선생님
⑧ 친구
⑨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
⑩ 사회적인 인물, 위인, 정치가 등
⑪ 없다
⑫ 기타( )

문 19 다음은 당신과 부모님의 **<u>자원봉사활동</u>**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하는 편이다	자주 한다.
(1) 아버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어머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20 당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내가 하고 싶어서
___②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영향으로)
___③ 친구 및 주위의 권유로
___④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___⑤ 종교단체 활동을 통해서
___⑥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___⑦ 기타(　　)

문 21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 전까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활비(학비 포함)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
___① 중학교 졸업 후
___② 고등학교 졸업 후
___③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___④ 취업한 이후
___⑤ 결혼한 이후
___⑥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___⑦ 기타(　　)

<부모님집으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야 할 시기>
___① 중학교 졸업 후
___② 고등학교 졸업 후
___③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___④ 취업한 이후
___⑤ 결혼한 이후
___⑥ 부모님에게 계속 의존해도 좋다
___⑦ 기타(　　)

문23 다음의 보기 중 당신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2가지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특별한 고민이 없는 경우에는 9번에 체크하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공부와 성적
② 친구관계
③ 진로문제(진학/취업)
④ 가족관계(가족문제)
⑤ 외모
⑥ 성격
⑦ 이성교제
⑧ 집안의 경제사정
⑨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⑩ 기타( )

문24 당신은 **누구와** 고민을 상담하십니까? (가장 자주 고민을 상담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번호를 써 주세요.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는 경우 1순위___에 11번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타를 선택한 경우 에는 ( )안에 누구인지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___① 아버지
___② 어머니
___③ 형제자매
___④ 친구
___⑤ 할아버지
___⑥ 할머니
___⑦ 친척
___⑧ 선생님
___⑨ 상담전문기관
___⑩ 학교상담선생님
___⑪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다
___⑫ 기타 ( )

문25 당신은 다음의 활동을 **하루(평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1) 폰 메일 사용 (문자)	보내는 문자 ( ) 통 받는 문자 ( ) 통
(2) 비디오 · 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용	( )시간 ( )분
(3) TV 시청	( )시간 ( )분
(4) 학습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 )시간 ( )분
(5) 학원 및 과외공부	( )시간 ( )분

문26 당신은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주로** 언제쯤 집으로 돌아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___① 오후 4시 이전
___② 오후 5시경
___③ 오후 6시경
___④ 오후 7시경
___⑤ 오후 8시경
___⑥ 오후 9시경
___⑦ 오후 10시경
___⑧ 오후 11시경
___⑨ 밤 12시 이후
___⑩ 일정치 않다

문27 당신이 집에 돌아온 후, 자기 전까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많습니까?(한 가지만 선택 하여 √표 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___① 혼자
___② 형제자매
___③ 아버지(양아버지)
___④ 어머니(양어머니)
___⑤ 할아버지
___⑥ 할머니
___⑦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___⑧ 와서 그냥 자는 일이 많다

문28 당신은 아래의 일 또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1) 집안 일 (청소, 요리, 세탁 등)	①	②	③	④
(2) 취미/문화(미술관 관람 ·음악회 ·영화관람)	①	②	③	④
(3) 스포츠 활동	①	②	③	④
(4) 여행이나 캠프	①	②	③	④

문29 당신이 **장차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_____
① 하고 싶은 일
② 재미있는 일

2순위 _____
⑤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일
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③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 ⑦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일
④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 ⑧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등)

문3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내가 당신의 직업을 이어 받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문31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___① 예(**문 31-1** 로 가시오) ___②아니오(**문32** 로 가시오)

문 31-1 당신이 했거나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입니까?(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___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___② 패스트푸드점
___③ 24시 편의점
___④ 상점에서 물건팔기
___⑤ 신문배달
___⑥ 주유소
___⑦ 사무보조
___⑧ 건설현장 일
___⑨ 이벤트 행사장
___⑩ 음식점(피자,치킨,분식집 등)에서 서빙
___⑪ 음식점(피자,치킨,분식집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
___⑫ 기타 : ( )

문 31-2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대로 써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___① 용돈을 벌기 위해서

___② 친구들이 하니까
___③ 부모님의 권유로
___④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___⑤ 일반적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___⑥ 장래의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기 위해
___⑦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___⑧ 기타(　　)

문 32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① 아주 좋은 경험이다
___② 한 두번 정도는 해도 좋다
___③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___④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___⑤ 잘 모르겠다

문 33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6)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7)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남자가 늘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문34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는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2) 한국사회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3) 한국사회는 학력(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4) 한국사회는 인맥(연줄)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5) 한국사회는 혈연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6) 한국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7)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문35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高校生の生活についての調査　◎

2006年７月

（調査企画）慶應義塾大学　文 学 部
（8425）　　（調査実施）社団法人　中 央 調 査 社

支局No.		地点No.			対象No.		点 検 者

質問回答に対するお願い

１．質問の番号の順番に従って、お答えください。
２．質問によっては、一部の方だけにお伺いする質問もあります。
　各質問の指示（例え：問2 - 1にお進みください　など）に従ってお答えください。
３．両親に関する質問のうち、両親がいない場合は保護者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
４．質問によってはあてはまるものを**全て回答**する場合と回答は**１つだけ**の場合がありますので、各質問の指示にご注意ください。
５．「その他」を回答された場合は、その他（　　）の括弧の中にはなるべく詳細に書いてください。
６．調査票の右欄の⑪や などの数字は集計上の記号です。お気になさらずお答えください。

まずあなた自身のこと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

Ｆ１．あなたの性別を教えてください。（**○は１つ**）

１　男性　　**２**　女性

Ｆ２．あなたは何年生まれでしょうか。

１９ [　　] 年

Ｆ３．あなたはどの学校に通っていますか。

1 中学校　**2** 高校（普通科）　**3** 高校（職業科）　**4** その他（　　）

Ｆ４．あなたは何年生でしょうか。

1 １年生　**2** ２年生　**3** ３年生

ここからは、あなたのご家族についてお伺いいたします。

問1.　現在、あなたが一緒に住んでいる方を次の中からすべてお答えください。（**○はいくつでも**）兄弟姉妹や親戚の方、その他の人の場合は、その人数をご記入ください。

1 実の父親
2 実の母親
3 継父
4 継母
5 祖父（父方）
6 祖母（父方）
7 祖父（母方）
8 祖母（母方）
9 男の兄弟（　　名）
10 女の兄弟（　　名）
11 その他の親戚（　　名）
12 その他　（　　名）
（具体的に　　）

問２．あなたの両親は学校をどこまで卒業しましたか。（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に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１つずつ**）

	学校に通ったことはない	小学校卒業	中学校卒業	高校卒業	短大高専卒業(2、3年制)	大学卒業(4年制)	大学院以上	わからない
父親	**1**	**2**	**3**	**4**	**5**	**6**	**7**	**8**
母親	**1**	**2**	**3**	**4**	**5**	**6**	**7**	**8**

問３．あなたの**父親**は現在、職業に就いていますか。（継父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には継父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は１つ**）

1　**2**
はい　いいえ
↓　→（**問４にお進みください**）

問3 - 1．あなたの**父親**のご職業は何でしょうか。お仕事の内容を（　　）の中に具体的

にご記入の上、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お手数ですが、自営・自由業等の方も会社にお勤めの方も「○○を作っている」、「○○を売っている」、「トラック運転手」など職業の内容を具体的にお書き下さい。
複数のお仕事をお持ちの場合は、主たるお仕事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
（**○は１つ**）

具体的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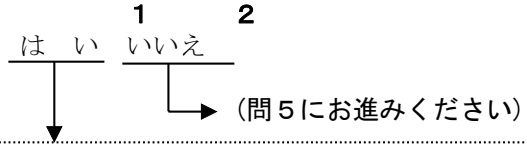
1	大学教員	**10**	聖職者
2	その他教員	**11**	法曹人（判事、検事、弁護士など）
3	会社員	**12**	マスコミ関係者
4	公務員	**13**	芸術家
5	会社経営者	**14**	スポーツ人
6	医療関係者	**15**	芸能人
7	研究員	**16**	技能・労務職
8	警察	**17**	自営業
9	自衛官	**18**	その他

問3 - 2. あなたの**父親**の働き方は、次のうち、どれにあてはまりますか。複数のお仕事をお持ちの場合は、主たる仕事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は１つ**）

1 自分で、商店や事業を経営している・家族として一緒に経営している
2 正社員として働いている（時間制勤務ではなく、一般的な勤務の場合）
3 派遣・契約・嘱託社員として働いている
4 アルバイトあるいはパートで働いている（時間制勤務）

（全員の方にお伺いします）

問４．あなたの**母親**は現在職業に就いていますか。（継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には継母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



問4 - 1. あなたの**母親**のご職業は何でしょうか。 お仕事の内容を（　　）の中に具体的にご記入の上、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お手数ですが、自

営・自由業等の方も会社にお勤めの方も「○○を作っている」、「○○を売っている」、「スーパーのレジ係」など職業の内容を具体的にお書き下さい。複数のお仕事をお持ちの場合は、主たるお仕事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は１つ**）

具体的に

1 大学教員
2 その他教員
3 会社員
4 公務員
5 会社経営者
6 医療関係者
7 研究員
8 警察
9 自衛官
10 聖職者
11 法曹人（判事、検事、弁護士など）
12 マスコミ関係者
13 芸術家
14 スポーツ人
15 芸能人
16 技能・労務職
17 自営業
18 その他

問4－2. あなたの**母親**の働き方は、次のうち、どれにあてはまりますか。複数のお仕事をお持ちの場合は、主たる仕事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は１つ**）

1 自分で、商店や事業を経営している・家族として一緒に経営している
2 正社員として働いている（時間制勤務ではなく、一般的な勤務の場合）
3 派遣・契約・嘱託社員として働いている
4 アルバイトあるいはパートで働いている（時間制勤務）

（全員の方にお伺いします）

問５. あなたの家の世帯収入（両親の収入）全体に対して、**父親と母親**はそれぞれどのように寄与していますか。（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１つ**）

1 母親が全部稼ぐ
2 母親がより多く稼ぐ
3 母親と父親がそれぞれ半分ずつ稼ぐ
4 父親がより多く稼ぐ
5 父親が全部稼ぐ
6 よくわからない

問６．あなたの**両親**は次の家事にどのくらい参加していますか。それぞれの家事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１つずつ）

	母親が全部する	母親が主にする	母親と父親がそれぞれ半分ずつする	父親が主にする	父親が全部する	両親以外の人が主にする
(1) 食事の用意	1	2	3	4	5	6
(2) 食器洗い	1	2	3	4	5	6
(3) 清掃	1	2	3	4	5	6
(4) 洗濯	1	2	3	4	5	6

問７．あなたのご家庭では、あなたの**両親**はお互いに意見の違いがある時、どうしますか。（1）から（7）それぞれ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それぞれ１つ）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お互いの立場を聞いて冷静に話しをする	1	2	3	4
(2) お互いに感情的に対応する	1	2	3	4
(3) お互いに話さない	1	2	3	4
(4) 母親が父親の意見に従う	1	2	3	4
(5) 父親が母親の意見に従う	1	2	3	4
(6) 父母のいずれか一方が相手の話を聞こうとしない	1	2	3	4
(7) 父母のいずれの一方が暴力を行使する	1	2	3	4

問８．あなたは、次のようなことを**両親**とどの程度一緒にしますか。（1）から（4）まで、**父親、母親についてそれぞれ**お答え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お住まいの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父母とも各項目○は１つずつ）

	父親と				母親と			
	まったくしない	ほとんどしない	たまにする	頻繁にする	まったくしない	ほとんどしない	たまにする	頻繁にする
記入例) 一緒に夕食を食べる	1	2	3	4	1	2	3	4
1) スポーツなどの野外活動の参加	1	2	3	4	1	2	3	4

	父親と				母親と			
	まったくしない	ほとんどしない	たまにする	頻繁にする	まったくしない	ほとんどしない	たまにする	頻繁にする
記入例)一緒に夕食を食べる	1	2	3	4	1	2	3	4
2) 旅行	1	2	3	4	1	2	3	4
3) 音楽会/映画/博物館観賞など	1	2	3	4	1	2	3	4
4) テレビ視聴	1	2	3	4	1	2	3	4

問９．あなたの**両親**は次のようなことに対してあなたにどの程度関心を持っていますか。**父親、母親それぞれ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お住まいの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父母とも各項目○は１つずつ）

	父親は				母親は			
	まったく関心がない	あまり関心をみせない	関心を持っているほうだ	とても深い関心を持っている	まったく関心がない	あまり関心をみせない	関心を持っているほうだ	とても深い関心を持っている
⑴ 勉強	1	2	3	4	1	2	3	4
⑵ 友達関係	1	2	3	4	1	2	3	4
⑶ 異性関係	1	2	3	4	1	2	3	4
⑷ 余暇・趣味生活	1	2	3	4	1	2	3	4
⑸ 進路・進学	1	2	3	4	1	2	3	4

問10．あなたの**両親**があなたに最もよくいう言葉は何ですか。**1つだけ**選んで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１つ）**

1 勉強しなさい
2 パソコン、ゲームをやめなさい
3 他の人と比較する言葉
4 他人に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
5 嘘をつかないように
6 節約しなさい
7 勤勉にしなさい
8 その他（　　）

問11．あなたの**両親**があなたにいう言葉のうち、最も聞きたくない言葉は何

ですか。**１つだけ**選んで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１つ）

1 勉強しなさい
2 パソコン、ゲームをやめなさい
3 他の人と比較する言葉
4 他人に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
5 嘘をつかないように
6 節約しなさい
7 勤勉にしなさい
8 その他（　　）

問12. あなたと両親との関係についてお伺いいたします。次の項目について、**父親や母親それぞれ**最も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父母とも各項目○は１つずつ）**

	父親				母親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⑴ 私と多くの時間を一緒に過ごそうと努力するほうである	1	2	3	4	1	2	3	4
⑵ 私を一人の人間として扱ってくれる	1	2	3	4	1	2	3	4
⑶ 私をよく理解するほうである	1	2	3	4	1	2	3	4
⑷ 何でも気安く話すほうである	1	2	3	4	1	2	3	4
⑸ 私と対話をよくするほうである	1	2	3	4	1	2	3	4
⑹ 私の心配や悩みをきいてくれる	1	2	3	4	1	2	3	4
⑺ 私が外出したとき、私が誰とどこにいるかを知っている	1	2	3	4	1	2	3	4
⑻ 私が外出したとき、私が何をしているかを知っている	1	2	3	4	1	2	3	4
⑼ 私の能力と努力を高く評価してくれる	1	2	3	4	1	2	3	4
⑽ 私に助言や忠告をしてくれる	1	2	3	4	1	2	3	4
⑾ 私に暴言を頻繁にいう	1	2	3	4	1	2	3	4
⑿ 私をひどく殴るときが多い	1	2	3	4	1	2	3	4
⒀ 私が悪いことをしたとき、体罰をする	1	2	3	4	1	2	3	4
⒁ 私に理由のない八つ当たりをする	1	2	3	4	1	2	3	4
⒂ 私に人格を否定するような侮辱的なことをいう	1	2	3	4	1	2	3	4
⒃ 私の間違いを許さない	1	2	3	4	1	2	3	4
⒄ 私に自分の意見や考え方を強要する	1	2	3	4	1	2	3	4
⒅ 私は（父/母と）一緒にいると幸せである	1	2	3	4	1	2	3	4
⒆ 私は（父/母に）嘘をよくつく	1	2	3	4	1	2	3	4
⒇ 私は（父/母に）感謝している	1	2	3	4	1	2	3	4

(続けてお答えください)

	父親				母親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21) 思春期の身体変化があった時、父/母と相談した	1	2	3	4	1	2	3	4
(22) 性に関することについて話をしたことがある	1	2	3	4	1	2	3	4
(23) 父/母は家庭のすべてのことを私に知らせ、相談する	1	2	3	4	1	2	3	4
(24) 成績に対して父/母と相談する	1	2	3	4	1	2	3	4
(25) 交友関係において問題がおきた時、父/母と相談する	1	2	3	4	1	2	3	4
(26) 異性関係において問題がおきた時、父/母と相談する	1	2	3	4	1	2	3	4
(27) 先生との関係において問題がおきた時、父/母と相談する	1	2	3	4	1	2	3	4
(28) 父/母の間違った言動について指摘したことがある	1	2	3	4	1	2	3	4
(29) 父/母は私のためであれば、何でもする	1	2	3	4	1	2	3	4

(次のページにお進みください)

問13. 次にあなたと両親とのあらそい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父親や母親それぞれ**、次の項目に関して、最も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父母とも各項目○は１つずつ）**

	父親は				母親は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⑴ 私のヘアスタイルや装いに対して干渉がひどい	1	2	3	4	1	2	3	4
⑵ 私のおこづかいに対して干渉がひどい	1	2	3	4	1	2	3	4
⑶ 私の友人関係に対して干渉がひどい	1	2	3	4	1	2	3	4
⑷ 私の異性交際に対して干渉がひどい	1	2	3	4	1	2	3	4
⑸ 私の塾および学習時間に対して干渉がひどい	1	2	3	4	1	2	3	4
⑹ 私の外出および帰宅時間に対して干渉がひどい	1	2	3	4	1	2	3	4
⑺ 私は（父/母）とよくぶつかる	1	2	3	4	1	2	3	4
⑻ 私は成績のことで、（父/母）とよくぶつかる	1	2	3	4	1	2	3	4
⑼ 私は、友人関係のことで、（父/母）とよくぶつかる	1	2	3	4	1	2	3	4
⑽ 私は、異性関係のことで、（父/母）とよくぶつかる	1	2	3	4	1	2	3	4
⑾ 私は、性格、態度、習慣のことで、（父/母）とよくぶつかる	1	2	3	4	1	2	3	4
⑿ 私は、日ごろの行動で、（父/母）とよくぶつかる	1	2	3	4	1	2	3	4
⒀ 父/母は自分とぶつかっても、見守ってくれる	1	2	3	4	1	2	3	4
⒁ 父/母とぶつかる時、一方的に叱られる	1	2	3	4	1	2	3	4
⒂ 父/母とぶつかる時、私が勝つ	1	2	3	4	1	2	3	4
⒃ 父/母とぶつかる時、言葉でお互いにうまく解決していく	1	2	3	4	1	2	3	4
⒄ 父/母とぶつかる時、お互いに話さないか、避ける	1	2	3	4	1	2	3	4

14. 次の項目は、あなたに対して両親が持っている期待に対する質問です。**父親や母親それぞれ**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父親は				母親は			
	そうではないまったく	そうではない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である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であるまったく	そうではないまったく	そうではない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である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であるまったく
⑴ 私の学業の成就に対して大きな期待をしている	1	2	3	4	1	2	3	4
⑵ 私の将来の職業に対して大きな期待をしている	1	2	3	4	1	2	3	4
⑶ 私が社会的に成功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	1	2	3	4	1	2	3	4
⑷ 私が良い大学に行くことを望んでいる	1	2	3	4	1	2	3	4
⑸ 私が自分のことは自分で判断して行動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	1	2	3	4	1	2	3	4
⑹ 私が人間的に成熟した大人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	1	2	3	4	1	2	3	4
⑺ 私が健康であることを望んでいる	1	2	3	4	1	2	3	4
⑻ 私が幸せであることを望んでいる	1	2	3	4	1	2	3	4
⑼ 良家に花嫁（花婿）としてとつぐことを願っている	1	2	3	4	1	2	3	4

父親・母親と○はそれぞれ１つずつ）

問15. 問14の(1)～(9)の項目の中、父親/母親があなたについて最も期待しているのはどれでしょうか。
２つを選んで、順番に記入してください。

父親　第１位 ☐　第２位 ☐

母親　第１位 ☐　第２位 ☐

1 私の学業の成就に対して大きな期待をしている
2 私の将来の職業に対して大きな期待をしている
3 私が社会的に成功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
4 私が良い大学に行くことを望んでいる
5 私が自分のことは自分で判断して行動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
6 私が人間的に成熟した大人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
7 私が健康であることを望んでいる
8 私が幸せであることを望んでいる
9 良家に花嫁（花婿）としてとつぐことを願っている

問16. 次の項目を読んで、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は１つずつ**）

	中学校	高校	短大・高専	大学	大学院以上
(1) あなたはどこまで教育を受け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か	**1**	**2**	**3**	**4**	**5**
(2) あなたの両親は、あなたがどこまで教育を受け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か	**1**	**2**	**3**	**4**	**5**

問17. 次の項目を読んで、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は１つずつ**）

	はい	いいえ
(1) 私は父親のように生きたい	**1**	**2**
(2) 私は母親のように生きたい	**1**	**2**
(3) 私は父親が嫌い	**1**	**2**
(4) 私は母親が嫌い	**1**	**2**

ここからは、あなたの生活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

問18. あなたの人生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人**は誰ですか。下記の欄からお２人まで選んでその番号をお答えください。（影響をあたえている人がいない場合には、一番影響を与えている人の記入欄に**12**をご記入ください。その他を選んだ場合には〔　　〕の中に具体的にご記入ください。）

一番影響を与えている人は［　　］２番目に影響を与えている人は［　　］

（その他を回答した場合：　　）

1	父親	**7**	先生
2	母親	**8**	友達
3	兄弟姉妹	**9**	交際している異性友達
4	祖父	**10**	社会的な人物、偉人、政治家など
5	祖母	**11**	その他
6	親戚	**12**	いない

問19. あなたとあなたのご両親のボランティア活動に対して伺います。次のうち、あ

てはまる番号をお答えください。　（○は１つずつ）

	まったくしない	ほとんどしない	たまにする方である	頻繁にする
⑴ 父親はボランティア活動に参加している	1	2	3	4
⑵ 母親はボランティア活動に参加している	1	2	3	4
⑶ 私はボランティア活動に参加している	1	2	3	4

問20. もし、あなたがボランティア活動に参加しているのであれば、その最も大きな理由は何でしょうか。

（○は１つ）

1　自分がやりたかったから
2　親のすすめで（あるいは影響で）
3　友達や周りの人のすすめで
4　クラブや同好会活動を通じて
5　宗教団体の活動を通じて
6　高い内申点を取るため
7　その他（　　）

問21. 次の項目について、あなたは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あてはまる番号をそれぞれお答えください。

（○は１つずつ）

	まったくそうで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であ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結婚するまでは両親に経済的に頼ってもいい	1	2	3	4
(2)（最終の）学校を卒業するまで、生活費(学費含め)は、完全に親の責任である	1	2	3	4

問22. あなたは、いつ親から独立すべきだと思いますか。それぞれあなたのお考えに最も近いものをお答えください。（○はそれぞれ1つずつ）

<経済的に独立すべき時期>
1 中学校卒業後
2 高校卒業後
3 大学などの最終学校卒業後
4 就職してから
5 結婚してから
6 親にいつまでも頼ってもかまわない
7 その他（　　）

<親のうちから出て一人暮らしをする時期>
1 中学校卒業後
2 高校卒業後
3 大学などの最終学校卒業後
4 就職してから
5 結婚してから
6 親にいつまでも頼ってもかまわ ない
7 その他（　　）

問23. 次のことがらのうち、あなたが悩んでいることがありますか。下記の欄から深刻な順に２つ選んでその番号をお答えください。（特に悩みがない場合には、「**10**」をご記入ください。その他を選んだ場合には、〔　〕の中に具体的にご記入ください。）

最も深刻な悩みは、［　　］　２番目に深刻な悩みは、［　　］

（その他を回答した場合：　　）

1　勉強と成績
2　友人関係
3　進路問題（進学・就職）
4　家族関係（家族問題）
5　外見
6　性格
7　異性交際
8　家庭の経済的な事情
9　その他
10　特に悩みはない

問24. あなたは**誰に**悩みを相談しますか。下記の欄から最もよく悩みを相談する人をお２人までを選んでその番号をお答えください。（誰とも相談しない場合には、**12を**記入してください。その他を選択した場合には、〔　〕の中に誰かを具体的にご記入ください。）

最も相談する人［　　］　２番目に相談する人［　　］

（その他を回答した場合：　　）

1　父親	7　親戚
2　母親	8　先生
3　兄弟姉妹	9　相談専門機関
4　友達	10　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
5　祖父	11　その他
6　祖母	12　誰とも相談しない

問25. あなたの日ごろの生活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あなたは、次のような活動を**一日（平日）**どの程度しますか。まったくしない場合は、「0」を記入ください。

⑴ 携帯メール使用（文字）	送信		通、受信	通
⑵ ビデオ・DVDの再生視聴、パソコン（TV）ゲームあるいはインターネット使用		時間		分
⑶テレビ視聴		時間		分
⑷ 学習時間（一人で勉強する時間）		時間		分
⑸ 塾および家庭教師のもとでの学習		時間		分

問26. あなたはふだん学校や塾が終って家に帰るのは何時ごろになりますか。（**○は１つ**）

1　午後4時以前	6　午後9時頃
2　午後5時頃	7　午後10時頃
3　午後6時頃	8　午後11時頃
4　午後7時頃	9　午後12時以後
5　午後8時頃	10　決まっていない

問27. あなたは家に帰った後、寝るまで誰と時間を過ごすことが最も多いでしょうか。（継父母と一緒にお住まいの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１つ**）

1 一人　　**5** 祖父
2 兄弟姉妹　　**6** 祖母
3 父親（継父）　**7** 家族全員と一緒に時間を過ごす
4 母親（継母）　**8** 帰ってそのまま寝ることが多い

問28. あなたは次の活動をどの程度しますか。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は１つずつ**）

	まったくしない	ほとんどしない	たまにする	頻繁にする
⑴ 家事（清掃、料理、洗濯など）	**1**	**2**	**3**	**4**
⑵ 趣味や教養	**1**	**2**	**3**	**4**
⑶ スポーツ活動	**1**	**2**	**3**	**4**
⑷ 旅行あるいはキャンプ	**1**	**2**	**3**	**4**

問29. あなたの成績はどの程度でしょうか。（**○は１つ**）

1 上　　**2** 中の上　　**3** 中の中　　**4** 中の下　　**5** 下

職業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

問30. あなたが将来の職業を考える際に、最も重要な基準は何でしょうか。下記の欄から最も重要であると考えることを２つまで選んでその番号をお答えください。

最も重要 [　　]　２番目に重要 [　　]

1 やりたい仕事
2 楽しい仕事
3 個性をいかせる仕事
4 時間が自由に使える仕事
5 貴重な経験ができる仕事
6 多くの金が稼げる仕事
7 社会的に高い地位につくことができる仕事
8 安定した職業（公務員など）

問31. 次の項目について、あなたのお考えに最も近いものをお答えください。（〇はそれぞれ１つずつ）

	そうは思わない	どちらかちえばそう思わない	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思う	そう思う
⑴ 私に相応しい職業は、私よりは親あるいは先生の方が分かっている	1	2	3	4
⑵ 私の進路は、私が選択し、その責任も私にある	1	2	3	4
⑶ 親は、私が親と同じ職業につくことを願っている	1	2	3	4
⑷ 私は親と同じ職業につきたい	1	2	3	4

問32. あなたは、この一年間にアルバイト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はい　　2 いいえ → （問33に進んでください）

問32－1. あなたがしたアルバイト、あるいは現在しているアルバイトはどれでしょうか。（複数の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していた）場合は、すべてお答えください。）　（〇はいくつでも）

1 チラシ配布（ステッカーを貼る）
2 ファースト・フード店
3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
4 商店で品物を売る
5 新聞配達
6 ガソリン・スタンド
7 事務補助
8 建設現場の仕事
9 イベント会場
10 飲食店（ピザ、チキン、スナック店など）で給仕
11 飲食店（ピザ、チキン、スナック店など）で配達
12 その他（　　）

問32－2. あなたがアルバイトをす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下記の欄から、２つを選んで重要な順にその番号をお答えください。（その他を回答した場合は、〔　〕の中にその理由をご記入ください。）

第１位 [　]　　第２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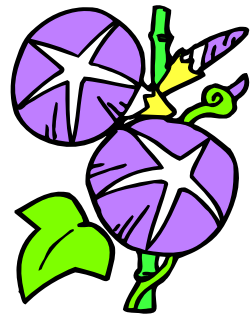
（その他を回答した場合：　　）

1　おこづかいを稼ぐため
2　友達がするから
3　親の勧めで
4　家庭の経済的な事情から
5　一般的な社会経験を積むため
6　将来の職業と関連する経験を積むため
7　自立心を養うため
8　その他

（全員の方にお伺いします）

問33. あなたは、高校生が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に対してどう思いますか。（○は1つ）

1　とてもいい経験である
2　１－２回位はしても良い
3　なるべくしない方が良いと思う
4　絶対してはいけない
5　よくわからない



（あともう少しご協力願います）

生活や社会に対する意識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

	そうは思わない	そうは思わない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思う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思う
(1) 男は外で働き、女は家庭を守るべきだ	1	2	3	4
(2) 社会的成功は女より男にもっと重要である	1	2	3	4
(3) 男は一家の経済的な責任を負うべきだ	1	2	3	4
(4) 女はおとなしく、従順であるべきだ	1	2	3	4
(5) 女には社会的な成功より幸せな結婚が重要である	1	2	3	4
(6) 子どもの教育は、父親より母親の責任が大きい	1	2	3	4
(7) 男も家事に参加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2	3	4
(8) 女も経済的な責任を分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2	3	4
(9) 社会的な成功は、女にとっても重要である	1	2	3	4
(10) 男がいつも主導的である必要はない	1	2	3	4

問34. 次の項目についてあなたはどう思いますか。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は１つずつ**）

問35. それでは、次の項目についてあなたはどう思いますか。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は１つずつ**）

	そうは思わない	そうは思わない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思う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思う
(1) 日本では財産と関係なく、誰でも同等に扱われる	1	2	3	4
(2) 日本は能力が重要な社会である	1	2	3	4
(3) 日本は学歴（学閥）が重要な社会である	1	2	3	4
(4) 日本は人脈が重要な社会である	1	2	3	4
(5) 日本は血縁が重要な社会である	1	2	3	4
(6) 日本は、大体公正な社会である	1	2	3	4
(7) 国が発展した上に、個人の発展が遂げられる	1	2	3	4
(8) 国のためであれば、私の利益は犠牲になっても良い	1	2	3	4

問36. それでは、次の項目を読んで、あ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
（○は１つずつ）

	そうは思わない	そうは思わない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思うどちらかといえば	そう思う
(1) 私は、自分を人柄の良い人間だと思う	1	2	3	4
(2) 私は、自分を能力のある人間だと思う	1	2	3	4
(3) 私は、自分を価値のある人間だと思う	1	2	3	4
(4) 私は、自分の判断が信頼できる	1	2	3	4
(5) 私は、自分の問題を自ら解決できると信じている	1	2	3	4
(6) 私は、自分の人生を主体的に過ごしている	1	2	3	4
(7) 私は、時々自分を不要の人間だと思う	1	2	3	4
(8) 私は、時々自分を悪い人間だと思う	1	2	3	4
(9) 私は大体、自分を失敗した人間だと思う方である	1	2	3	4
(10) 私は自ら問題児だと思っている	1	2	3	4
(11) 周りの人たちは、私を問題児であると考えている	1	2	3	4

～ 長い時間、調査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A Study of Youth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Dear Students: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a research study being conducted by investigators from The University of Iow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teenagers and their families from five different countries.

If you agree to participate, we would like you to read the questions that deal with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and other members of your family and your attitudes about related matters. For each question, you are asked to choose appropriate answers that apply to you most closely. You are free to skip any questions that you prefer not to answer. It will take approximately 30 minutes to finish the whole questionnaire.

Taking part in this research is completely voluntary. If you do not wish to participate, simply return the questionnaire to one of us. If you are willing to participate, we will provide you with a $10 gift certificate in appreciation of your time and cooperation. We will also make small contribution to your school. To claim your gift certificate, you only need to inform us that you have attempted to answer the questions sincerely when you return the finished questionnaire to us.

Your answers will be handled electronically and purely for statistical analysis. We will not collect your name or any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you, except your age and gender. It will not be possible for anyone to link you to your responses. Your anonymity is further assured by the fact that we will collect similar data from one hundred other student with the same age and gender as yours.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rights of research subjects, please contact the Human Subjects Office, 300 College of Medicine Administration Building,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52242, (319) 335-6564, or e-mail irb@uiowa.ed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sideration of this research study.

Jae-On Kim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Iowa

SQ1 What is your gender? __(1) Female __(2) Male

SQ2 In what year were you born? 19__ __

SQ3 What type of school do you attend?
__(1) Junior High or Middle School (public)
__(2) Junior High or Middle School (private)
__(3) High School (public)
__(4) High School (private)

SQ4 What grade are you in?
__(1) 9th grade __(3) 11th grade
__(2) 10th grade __(4) 12th grade

SQ5 What type of city or town do you live in right now?
__(1) In a large city (over 250,000)
__(2) In a suburb near a large city
__(3) In a medium size city (50,000-250,000)
__(4) In a small city or town (under 50,000)
__(5) On a farm
__(6) In the country but not on a farm

SQ6 What is your academic standing in your class?
__(1) Within the top 20%

__(2) Between the 21st and 40th percentile
__(3) Between the 41st and 60th percentile
__(4) Between the 61st and 80th percentile
__(5) Within the bottom 20%

SQ7 What race do you consider yourself?
__(1) White
__(2) Black or African American
__(3) Spanish or Latino
__(4) American Indian or Native American
__(5) Asian or Pacific Islander
__(6) Other

※ The following questions deal with your parents and your relationship with them.

Q1 Who are you living with in your home right now? (Check all the choices that apply to you. Additionally, write the number of siblings and relatives, etc. that you have.)

__(1) Biological father
__(2) Biological mother
__(3) Stepfather
__(4) Stepmother
__(5) Grandfather (father's side)
__(6) Grandmother (father's side)
__(7) Grandfather (mother's side)
__(8) Grandmother (mother's side)
__(9) Brothers (how many? ___)
__(10) Sisters (how many? ___)
__(11) Relatives (how many? ___)
__(12) Others (how many? ___)

Q2-1 What is the highest education level that your father has attain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fa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father.)

__(1) No formal education
__(2) Incomplete elementary school
__(3) Complete elementary school
__(4) Incomplete middle school
__(5) Complete middle school
__(6) Incomplete high school
__(7) Complete high school

__(8) Some university-level education, w/out a degree
__(9) University-level education, with a degree
__(10) Graduate school or higher
__(11) I don't know

Q2-2 What is the highest education level that your mother has attain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mo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mother.)

__(1) No formal education
__(2) Incomplete elementary school
__(3) Complete elementary school
__(4) Incomplete middle school
__(5) Complete middle school
__(6) Incomplete high school
__(7) Complete high school
__(8) Some university-level education, w/out a degree
__(9) University-level education, with a degree
__(10) Graduate school or higher
__(11) I don't know

Q3 Is your father currently employ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fa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father.)
(1) Yes (go to Q3-1) (2) No (go to Q4)

Q3-1 What is your father's occupation? Please write the specific job title within the parentheses.
__(1) Professor ( )
__(2) Teacher ( )
__(3) Company employee ( )
__(4) Government employee ( )
__(5) Businessman ( )
__(6) Medical professional ( )
__(7) Researcher ( )
__(8) Police officer ( )
__(10) Clergy member ( )

__(9) Military service ( )
__(11) Legal professional ( )
__(12) Broadcaster ( )
__(13) Artist ( )
__(14) Athlete ( )
__(15) Entertainer ( )
__(16) Technician/Laborer ( )
__(17) Self-employed ( )
__(18) Other ( )

Q3-2 Is your father employed part-time or full-time?
(1) Part-time (2) Full-time

Q4 Is your mother currently employ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mo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mother.)
(1) Yes (go to Q4-1) (2) No (go to Q5)

Q4-1 What is your mother's occupation? Check the occupation and indicate specifically inside the parenthesis.

__(1) Professor ( )
__(2) Teacher ( )
__(3) Company employee ( )
__(4) Government employee ( )
__(5) Businessman ( )
__(6) Medical professional ( )
__(7) Researcher ( )
__(8) Police officer ( )
__(9) Military service ( )
__(10) Clergy member ( )
__(9) Military service ( )
__(11) Legal professional ( )
__(12) Broadcaster ( )
__(13) Artist ( )
__(14) Athlete ( )
__(15) Entertainer ( )
__(16) Technician/Laborer ( )

__(17) Self-employed ( )
__(18) Other ( )

Q4-2 Is your mother employed part-time or full-time?
(1) Part-time (2) Full-time

Q5 How do your parents contribute financially to your househol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give a response about your stepparents.)
(1) Mother earns all (4) Father earns more
(2) Mother earns more than father (5) Father earns all
(3) Mother and Father earn equally (6) I don't know

Q6 Who usually does the housework?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give responses about your stepparents.)

	All by mother	Mostly by mother	Mother and father equally	Mostly by father	All by father	Mostly by someone else
(1) Cooking	①	②	③	④	⑤	⑥
(2) Washing dishes	①	②	③	④	⑤	⑥
(3) Cleaning	①	②	③	④	⑤	⑥
(4) Laundry	①	②	③	④	⑤	⑥

Q7 How do your parents usually solve their differences in opinion?
__(1) They calmly talk it over with each other
__(2) They become emotional
__(3) They do no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__(4) Mother usually follows father's opinion
__(5) Father usually follows mother's opinion
__(6) One side ignores the other
__(7) It usually ends up in physical abuse

Q8 How often do you spend time with your parents in the following activities?

	With Father				With Mother			
	Never	Barely	Sometimes	Often	Never	Barely	Sometimes	Often
(1) Outdoor activities (e.g. sport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Trave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Attending concerts or going to museums or the movi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Watching T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9 Please indicate how much you feel your parents care about the following items in your life.

	Father				Mother			
	Doesn't care at all	Doesn't care much	Cares somewhat	Cares strongly	Doesn't care at all	Doesn't care much	Cares somewhat	Cares strongly
(1) Grad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Friendship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Boyfriends / Girl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Hobbies and leisu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Entering college or my future career path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0 Read each of the following and check the one that your parents tell you the most often. (Please check only one answer.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__(1) "Study hard"

__(2) “Stop playing video games”
__(3) Any comparisons or comments between yourself and others
__(4) “Do not bother others”
__(5) “Do not lie”
__(6) “Save money”
__(7) “Be diligent”
__(8) Other ( )

Q11 Of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check the one that you least want to hear from your parents. (Please check only one answer.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__(1) “Study hard”
__(2) “Stop playing video games”
__(3) Any comparisons or comments between yourself and others
__(4) “Do not bother others”
__(5) “Do not lie”
__(6) “Save money”
__(7) “Be diligent”
__(8) Other ( )

Q12 Here are som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Check the number that best fits you.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Tries to spend time with me as much as possibl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Treats me with respec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Understands me and my problem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Discusses a variety of topics with 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Discusses things with me rather frequentl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Discusses things with me when I need advice or have concern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7) Is usually aware of where I am and whom I am with when I am away from ho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Is usually aware of what I am up to when I am away from ho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Compliments me about my abilities and effort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Offers me advice and suggestion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Swears at me oft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Sometimes becomes violen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Uses physical punishment when I make mistakes or misbehav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Gets mad at me without good rea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Makes insulting remarks to 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Does not easily forgive my mistakes and misbehavio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Imposes his/her opinions and thoughts on 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I feel happy when I am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I often lie to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I feel grateful to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I have consulted with him/her about physical changes I experienced during pubert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I have consulted with him/her about sexual matter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He/She includes me in important family-related decision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I discuss school and my grades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I discuss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I discuss my relationships with boyfriends/girlfriends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I talk with him/her when I have problems with teachers at schoo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I have pointed out his/her mistak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He/She is willing to sacrifice everything for 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3 These are some of the issues that could occur between you and your parents. Check the number that best fits you.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He/She tries to control my hair-style and clothin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He/She tries to control my spending habit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He/She tries to control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He/She tries to control my relationships with boyfriends/girl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He/She tries to control my studying at cram schools/institutes, including the amount of time I spend studyin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He/She tries to control my time management (e.g. going out, curfew).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because of my grad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because of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because of my boyfriend/girlfrien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due to my personality and attitud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due to my behavior in genera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He/She tries to remain calm and bear with me when we clash or have a disagreemen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He/She scolds me without hearing my side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I usually prevail over him/her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I communicate well with him/her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He/She tries to avoid discussion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4 The following questions ask you about the expectations your parents have of you.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do well in schoo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get a good job in the futu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become successfully sociall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go to a prestigious universit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become a self-reliant per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become a mature per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am health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am happ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find a spouse with a good family backgroun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5 Which two of the choices from Q14 are most important to your father/mother? (Please enter a number in each answer box.)

	Father	Mother
First	No. _____	No. _____
Second	No. _____	No. _____

Q16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Middle school/ Junior high	High school	Community or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higher
(1)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wish to attain?	①	②	③	④	⑤
(2)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r parents want you to attain?	①	②	③	④	⑤

Q17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Yes	No
(1) I admire my father and would like to follow his example.	①	②
(2) I admire my mother and would like to follow her example.	①	②
(3) I do not like my father.	①	②
(4) I do not like my mother.	①	②

*** The next few questions ask about your current daily life.**

Q18 Who has the **biggest impact** in your life? (Rank the highest two in order. If you do not have an answer, please write "11" in the first column.)

First highest: _____ Next highest: _____

(1) Father
(2) Mother
(3) Siblings
(4) Grandfather
(5) Grandmother
(6) Other relatives
(7) Teacher
(8) Friends
(9) Boyfriend / Girlfriend
(10) Someone I look up to (famous historical figures, politicians, celebrities, etc.)
(11) None
(12) Other ( )

Q19 These are the questions about you and your parents' **volunteer work**.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and check the numbers accordingly.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1) My father is active in volunteer work.	①	②	③	④
(2) My mother is active in volunteer work.	①	②	③	④
(3) I am active in volunteer work.	①	②	③	④

Q20 If you are active in volunteer work, what is the biggest reason why you do it?

__(1) Because I want to
__(2) Because my parents want me to do
__(3) Because of friends' or others' advice
__(4) As part of a club activity
__(5) As part of a religious organization's activity
__(6) To get credit/points for my efforts
__(7) Other ( )

Q2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Read each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t's okay for people to be financial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until they get married.	①	②	③	④
(2) Parents should provide their children with tuition and living expenses until they graduate from college.	①	②	③	④

Q22-1 When do you feel that you have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your parents?
__(1) After middle school/junior high
__(2) After high school
__(3) After college or graduate school
__(4) After I get a job
__(5) After marriage
__(6) I can continue to be dependent for as long as I want to
__(7) Other ( )

Q22-2 When do you feel that you have to move out of your parents' home?
__(1) After middle school/junior high
__(2) After high school
__(3) After college or graduate school
__(4) After I get a job
__(5) After marriage

__(6) I can continue to be dependent for as long as I want to
__(7) Other ( )

Q23 What are your **biggest concerns/worries** right now? (Pick the two most pressing concerns and write their numbers in the blanks accordingly. If you do not currently have a particularly serious concern, write "9" in the first column, and if you picked 10, please describe the specific concern inside the parentheses.)

First concern: _____ Second concern: _____

(1) Getting good grades
(2) Friendships
(3) Going on to a good university
(4) Family relationships
(5) Appearance
(6) Personality
(7) Boyfriend / Girlfriend
(8) Family financial situation
(9) Not overly concerned about anything
(10) Other ( )

Q24 **With whom** do you usually consult when you have problems/worries? (Rank the two that you consult with most often and spend the most time with. If you do not consult with anyone, please write "11" in the first column. If you picked "other," please indicate with whom you consult inside the parentheses.)

First: _____ Second: _____

(1) Father
(2) Mother
(3) Siblings
(4) Friends
(5) Grandfather
(6) Grandmother
(7) Relatives
(8) Teachers
(9) Counseling agency
(10) School counselor
(11) Don't consult with anyone
(12) Other ( )

Q25 How often are you engaged in the following activities **per day (during the week)**?

(1) Sending and receiving text messaging (Send: ____ messages; Receive: ____ messages)
(2) Surfing the Internet or playing video/online games (____ hours) (____ minutes)
(3) Watching TV (____ hours) (____ minutes)
(4) Studying on my own (____ hours) (____ minutes)
(5) Being tutored (____ hours) (____ minutes)

Q26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home after school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Please **choose only one.**)

__(1) Before 4 pm __(5) Around 8 pm __(9) After 12 pm
__(2) Around 5 pm __(6) Around 9 pm __(10) Depends on daily schedule
__(3) Around 6 pm __(7) Around 10 pm
__(4) Around 7 pm __(8) Around 11 pm

Q27 With whom do you spend time with the most after returning home from school and before going to bed in the evening? (Please choose only one.)

__(1) Nobody (Alone)
__(2) Siblings
__(3) Father (Stepfather)
__(4) Mother (Stepmother)
__(5) Grandfather
__(6) Grandmother
__(7) All of my family members
__(8) I have no free time after school and before going to bed

Q28 How often do you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1) Housework (e.g. cleaning, cooking, laundry)	①	②	③	④
(2) Leisure activities or hobbies (e.g. going to concerts, movies, or museums)	①	②	③	④
(3) Sports	①	②	③	④
(4) Travel or going to camps	①	②	③	④

Q29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you when choosing a **job in the future**? (Please rank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and write their numbers in order.)

First: _____ Second: _____

(1) A job that I want to do
(2) A job that is interesting
(3) A job that requires creativity
(4) Job flexibility (Schedule/Time-wise)
(5) Opportunities for valuable experiences
(6) High wages
(7) Fame or honor
(8) Job stability

Q30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My parents and teachers know what the best job for me is better than I do.	①	②	③	④
(2) I can decide my own future and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my decisions.	①	②	③	④
(3) My father/mother wants me to choose the same job that he/she has.	①	②	③	④
(4) I want to have the same job that one of my parents has.	①	②	③	④

Q31 Have you had a part-time job during the past year?
(1) Yes (Go to Q31-1) (2) No (Go to Q32)

Q31-1 Where have you **worked part-time** in the past or where are you working currently? (Please **check all that apply** to you.)
__(1) Handing out brochures/Putting up flier
__(2) Fast-food restaurant

__(3) Convenience store
__(4) Shop assistant
__(5) Newspaper or magazine delivery
__(6) Gas station
__(7) Office helper/assistant
__(8) Construction site worker
__(9) Promotional event worker
__(10) Restaurant waiter/server
__(11) Food delivery (pizza, chicken, etc.)
__(12) Baby sitting (child care)
__(13) Other ( )

Q31-2 Why do you have a **part-time job** right now? (Please rank the two most important reasons and write their numbers in order.)

First: _____ Second: _____

(1) To earn pocket money
(2) Because my friends also work
(3) Parents' suggestion
(4) To contribute to my household
(5) To experience society in general
(6) For work experience for my future career
(7) To have a sense of independence
(8) Other ( )

Q32 What is your opinion about part-time work for young people of your age?
(1) It is an invaluable experience.
(2) Doing one or two part-time jobs is okay.
(3) It is better to avoid working as much as possible.
(4) People of our age should not do part-time jobs.
(5) I have no opinion about this.

Q33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Men should earn money out in the workforce while women should stay at home to take care of household affairs and housework.	①	②	③	④
(2) Social achievement is more important to men than women.	①	②	③	④
(3) Men are mainly responsible for household income.	①	②	③	④
(4) Women should usually agree with their husbands' opinions.	①	②	③	④
(5) A happy marriage is more important to women than social achievement.	①	②	③	④
(6) Women are mainly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①	②	③	④
(7) Men should take part in household affairs and chores.	①	②	③	④
(8) Women are also responsible for household income.	①	②	③	④
(9) Social achievement is also important to women.	①	②	③	④
(10) Men do not necessarily have the upper hand in their family's decision-making process.	①	②	③	④

Q34 What is your take on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read each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n America, everyone is treated equally regardless of how much money they make.	①	②	③	④
(2) In America, one's ability and talent are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3) In America, on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place of study is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4) In America, personal and social networks (e.g. graduates of the same school) are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5) In America, one's bloodline and family background are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6) Overall, people in America are usually treated fairly.	①	②	③	④
(7) Individuals improve when the nation improves.	①	②	③	④
(8) I can sacrifice my interests for the good of the nation.	①	②	③	④

Q35 Please read the following sentence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 feel that I am a good person.	①	②	③	④
(2) I feel that I am a capable person.	①	②	③	④
(3) I feel that I am a valuable person.	①	②	③	④
(4) I can trust myself and take responsibility for my decisions.	①	②	③	④
(5) I believe I can handle my problems on my own.	①	②	③	④
(6) I feel that I am in charge of my life.	①	②	③	④
(7) I feel useless at times.	①	②	③	④
(8) I feel that I am a bad person at times.	①	②	③	④
(9) I feel that I am a failure at times.	①	②	③	④
(10) I believe that I am a trouble maker.	①	②	③	④
(11) People around me believe that I am a trouble maker.	①	②	③	④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142, Woomyung-dong, Seocho-ku, Seoul, Korea
Tel: *82-2-2188-8824 Fax: *82-2-2188-8839

Berlin, 22. Juni 2006

Liebe deutsche Jugendliche,

'Jugend ist unsere Zukunft" – das ist das Motto der meisten Länder der Welt. Als ein sich rasch entwickelndes Land bemüht sich Süd-Korea, eine sinnvolle und effektive Jugendpolitik zu gestalten, um die Jugendlichen bestens aufdie Zukunft vorzubereiten. In diesem Jahr versucht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eine Momentaufnahme der Jugendpolitik der USA, Japans, Schwedens und Deutschlands zu erstellen und so die Jugendlichen in diesen Ländern besser zu verstehen.

Im Auftrag der süd-koreanischen Regierung führen wir zur Zeit ein Forschungsprojekt über die Jugendlichen in Deutschland durch. Hierbei steht die Rolle der Familie während des Erwachsenwerdens im Vordergrund. Für das Projekt haben wir einen 10-seitigen Fragebogen vorbereitet und möchten Sie auf diese Weise befragen. Wir würden uns über Ihre Unterstützung freuen, da wir auf ein zufriedenstellendes Feedback von Ihnen angewiesen sind. Wir versichern Ihnen, dass diese Umfragen anonym bleiben und allein dieser 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 dienen sowie keinesfalls für andere Zwecke benutzt werden und werden dürfen.

Wir danken Ihnen herzlich für Ihr Verständnis und Ihre Unterstützung!
Mit freundlichen Grüßen,

Prof. Dr. Mark B.M. Suh
Dr. Hyun-Cheol Kim
Ms. Eun-Jung Kim

Kontakt-Adresse in Berlin: Schlieperstr. 12, 13507 Berlin.
Tel: (030) 4340-0460; Fax: 4340-0461; E-mail: mark@suh-mail.de

Umfrage über das Familienleben und Familienbewusstsein von deutschen Jugendlichen

SQ1. Ihr Geschlecht? __① männlich __② weiblich

SQ2. Wann wurden Sie geboren? 19 _____

SQ3. Welche Schule besuchen Sie zur Zeit?

__① Hauptschule
__② Realschule
__③ Gesamtschule
__④ Gymnasium
__⑤ Andere:.....

SQ4. In welcher Klasse sind Sie?

__① 7
__② 8
__③ 9
__④ 10
__⑤ 11
__⑥ 12
__⑦ 13 oder andere:.....

SQ5. Wo wohnen Sie?

__① Großstadt __② Kleinstadt __③ auf dem Land

SQ6. Wie gut sind Ihre Leistungen?

__① bestens
__② überdurchschnittlich
__③ durchschnittlich
__④ unterdurchschnittlich
__⑤ schlecht

Einige Bitten an Sie beim Ausfüllen:

1. Bitte beantworten Sie nacheinander alle Fragen.
2. Je nach Antwort werden Sie manchmal zu verschiedenen

weiterführenden Fragen geführt, wie zum Beispiel „Gehen Sie zur Frage 2.1“.

3. Falls Sie keine Eltern haben, antworten Sie bitte so, als ob Ihre Stiefeltern bzw. Erziehungsberechtigten Ihre Eltern wären.
4. Bitte beachten Sie, dass bei manchen Fragen mehr als eine Antwort erwartet wird.
5. Bei einigen Fragen werden in Klammern ( ) oder Kästchen ☐ genauere Informationen erbeten.
6.

Vielen Dank!

Einige Fragen zu Ihren Eltern

Q1. Mit wem wohnen Sie zusammen? Kreuzen Sie alles Zutreffende an und tragen Sie die Anzahl in die Kästchen ein!

__① Vater
__② Mutter
__③ Stiefvater
__④ Stiefmutter
__⑤ Großvater väterlicherseits
__⑥ Großmutter väterlicherseits
__⑦ Großvater mütterlicherseits
__⑧ Großmutter mütterlicherseits
__⑨ ☐ Bruder/Halbbruder
__⑩ ☐ Schwester/Halbschwester
__⑪ ☐ Verwandte
__⑫ Andere ( ) ☐

Q2. Welche Schulbildung haben Ihre Eltern?

	Hauptschul-Abschluss	Realschul-Abschluss	Gymnasium mit Abitur	Berufsschule	Fachhochschul-Studium	Universitäts-Studium	Promotion	Weiß nicht
Vat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Mut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Q3. Arbeitet Ihr Vater zur Zeit?

__① Ja (weiter mit Q3-1) __② Nein (weiter mit Q4)

Q3-1. Wo arbeitet Ihr Vater?

Bitte etwas Konkretes eintragen; nicht nur Beamter oder Angestellter, sondern wo und in welcher Funktion, wie z.B. Direktor einer Bank, Autohändler, Leiter eines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s. Wenn selbstständig, dann bitte Branche angeben wie Restaurant, Laden, Handwerksbetrieb oder Baufirma.

__① Professor ( )
__② Lehrer ( )
__③ Angestellter ( )
__④ Beamter ( )
__⑤ Geschäftsmann ( )
__⑥ Mediziner ( )
__⑦ Forscher ( )
__⑧ Polizist ( )
__⑨ Soldat ( )
__⑩ Priester/Pfarrer ( )
__⑪ Jurist ( )
__⑫ Journalist ( )
__⑬ Künstler ( )
__⑭ Sportler ( )
__⑮ Schauspieler ( )
__⑯ Bauarbeiter/Ingenieur ( )
__⑰ Selbstständiger ( )
__⑱ Andere ( )

Q3-2. Wie ist das Arbeitsverhältnis Ihres Vaters?

__① Teilzeitbeschäftigung __② Vollzeitbeschäftigung

Q4. Arbeitet Ihre Mutter zur Zeit?

__① Ja (weiter mit Q4-1) __② Nein (weiter mit Q5)

Q4-1. Wo arbeitet Ihre Mutter?

Bitte etwas Konkretes eintragen; nicht nur Beamtin oder Angestellte, sondern wo und in welcher Funktion, wie z.B. Direktorin einer Bank, Leiterin eines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s. Wenn selbstständig, dann bitte Branche angeben wie Restaurant, Laden, Handwerksbetrieb oder Baufirma.

__① Professorin ( )
__② Lehrerin ( )
__③ Angestellte ( )
__④ Beamtin ( )
__⑩ Priester/Pfarrerin ( )
__⑪ Juristin ( )
__⑫ Journalistin ( )
__⑬ Künstlerin ( )

__⑤ Geschäftsfrau ( )
__⑥ Medizinerin ( )
__⑦ Forscherin ( )
__⑧ Polizistin ( )
__⑨ Soldatin ( )
__⑭ Sportlerin ( )
__⑮ Schauspielerin ( )
__⑯ Bauarbeiterin/Ingenieurin( )
__⑰ Selbstständige ( )
__⑱ Andere ( )

Q4-2. Wie ist das Arbeitsverhältnis Ihrer Mutter?

__① Teilzeitbeschäftigung __② Vollzeitbeschäftigumg

Q5. Wie viel machen die jeweiligen Einkommen Ihrer Eltern in der Familienkasse aus?

__① Mutter verdient allein
__② Mutter verdient mehr als Vater
__③ Beide Eltern verdienen gleich, also je 50%
__④ Vater verdient mehr als Mutter
__⑤ Vater verdient allein
__⑥ Weiß nicht

Q6. Wie viel tragen Ihre Eltern zur Hausarbeit bei?

	Mutter macht alles	Mutter macht am meisten	Mutter und Vater gleich	Vater macht am meisten	Vater macht alles	jemand anderes macht alles
(1) Essen kochen	①	②	③	④	⑤	⑥
(2) Geschirr abwaschen	①	②	③	④	⑤	⑥
(3) sauber machen	①	②	③	④	⑤	⑥
(4) Wäsche waschen	①	②	③	④	⑤	⑥

Q7. Was machen Ihre Eltern, wenn sie verschiedener Meinung sind?

	nie	fast nie	oft	immer
(1) Sie hören einander zu und reden vernünftig miteinander.	①	②	③	④

	nie	fast nie	oft	immer
(2) Sie begegnen einander nur emotional.	①	②	③	④
(3) Sie reden nicht miteinander.	①	②	③	④
(4) Mutter befolgt Vaters Meinung.	①	②	③	④
(5) Vater befolgt Mutters Meinung.	①	②	③	④
(6) Eine Seite will nicht auf den anderen hören.	①	②	③	④
(7) Sie wenden Gewalt an.	①	②	③	④

Q8. Wie häufig unternehmen Sie folgende Aktivitäten gemeinsam mit Ihrem Vater und Ihrer Mutter?

	Vater				Mutter			
	nie	fast nie	manch-mal	oft	nie	fast nie	manch-mal	oft
(1) Spor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Reis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Besuche von Museum, Konzert, Kino, usw.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TV seh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9. Wie viel Interesse hat Ihr Vater und Ihre Mutter an folgenden Themen, die Sie betreffen?

	Vater				Mutter			
	kaum	wenig	viel	sehr viel	kaum	wenig	viel	sehr viel
(1) Lern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Freund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Beziehungen zum anderen Geschlech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Freizeit/Hobb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Karrie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0. Worin ermahnen Ihre Eltern Sie am häufigsten? Kreuzen Sie bitte nur einmal an!

__① Zu lernen
__② mit dem Computer oder Spielen aufzuhören
__③ zu sein wie andere Jugendliche
__④ Anderen nicht zur Last zu fallen
__⑤ Nicht zu lügen
__⑥ Sparsam zu sein
__⑦ Fleißig zu sein
__⑧ Anderes:.....

Q11. Welche Ermahnung mögen Sie am wenigsten? Kreuzen Sie nur einmal an!

__① Zu lernen
__② mit dem Computer oder Spielen aufzuhören
__③ Vergleiche mit anderen Jugendliche
__④ Anderen nicht zur Last zu fallen
__⑤ Nicht zu lügen
__⑥ Sparsam zu sein
__⑦ Fleißig zu sein
__⑧ Anderes:.....

Q12. In den folgenden Aussagen geht es um das Verhältnis zwischen Ihnen und Ihren Eltern. Kreuzen Sie jeweils die Nummern bei Vater und Mutter an, die am ehesten zutreffen.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1) Er/sie versucht, viel Zeit mit mir zu verbring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Er/sie behandelt mich vernünft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Er/sie versteht mich gu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Er/sie redet mit mir über all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Er/sie reden oft mit mir über Proble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Er/sie hört meine Sorgen a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Er/sie weiß, wo und mit wem ich weg b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Er/sie weiß, was ich anderswo mach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9) Er/sie schätzt meine Leistung und Streb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Er/sie berät mich.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Er/sie beschimpft mich of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Er/sie verprügelt mich of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Er/sie bestraft mich physisch, wenn ich Fehler mach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Er/sie schimpft mich ohne Grund au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Er/sie beleidigt mich.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Er/sie duldet meine Fehler nich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Er/sie zwingt seine/ihre Meinung auf.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Ich bin glücklich, wenn ich mit ihm/ihr zusammen b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Ich belüge ihn/sie of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Ich bin ihm/ihr dankb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Ich rede mit ihm/ihr über meine Pubertätsproble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Er/sie spricht mit mir über Sex.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Er/sie redet mit mir über Famili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Er/sie redet mit mir über meine Leistung in der Schul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Ich rede mit ihm/ihr über Probleme mit Schulfreund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Ich rede mit ihm/ihr über Probleme mit dem anderen Geschlech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Ich rede mit ihm/ihr über Probleme mit Lehrer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Ich habe ihm/ihr schon mal gesagt, wenn er/sie Fehler mach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Er/sie würden alles für mich tu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3. In den folgenden Aussagen geht es wieder um das Verhältnis zwischen Ihnen und Ihrem Vater und Ihrer Mutter. Kreuzen Sie jeweils die betreffenden Nummern an.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1)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s Aussehens und Haar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s Taschengeldes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r Freund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r/es Freundin/Freundes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Mischt sich bei meinen Hausaufgaben bzw. Nachhilf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r Freizeit, wann ich nach Hause komme bzw. raus geh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Ich habe oft Konflikte mit ihm/ih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r Leistung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r Freund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Freund/Freund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s Charakters, Haltung, Gewohnheit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r Aktivität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Wenn ich mit ihm/ihr streite, sind er/sie verständnisvol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14) Wenn ich mit ihm/ihr streite, beschimpfen mich Vater/Mutt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Wenn ich mit ihm/ihr streite, gewinne ich imm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Wenn ich mit ihm/ihr streite, reden wir vernünftig miteinand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Nach einem Streit reden wir nicht miteinander oder vermeiden Begegnung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4. Wie treffen folgende Aussagen hinsichtlich Ihres Verhältnisses zu Ihrem Vater und Ihrer Mutter zu?

	Vater				Mutter			
	niemals	selten	zutreffend	sehr	niemals	selten	zutreffend	sehr
(1) Erwartet viel an Leistung von mi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Erwartet viel von meiner Karrie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Wünscht mir gesellschaftlichen Erfol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Wünscht mir einen Studienplatz.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Erwartet, dass ich weiß, was ich t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Wünscht, dass aus mir ein guter Mensch wir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Wünscht, dass ich gesund b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Wünscht, dass ich glücklich b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Hofft, dass ich einen Partner aus guter Familie heirat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5. Welche Priorität haben die oben genannten Wünsche für ihre Eltern?

Vater	Mutter
1. Priorität.....	1. Priorität.....
2. Priorität.....	2. Priorität.....

Q16. Kreuzen Sie das höchste Ziel an.

	Haupt-/Realschule	Gymnasium	Fachhoch-schule	Universität (Magister)	Universität (Promotion)
(1) Wo möchten Sie lernen?	①	②	③	④	⑤
(2) Was erwarten Ihre Eltern?	①	②	③	④	⑤

Q17. Bitte die zutreffende Aussage ankreuzen.

	Ja	Nein
(1) Ich möchte wie mein Vater leben	①	②
(2) Ich möchte wie meine Mutter leben	①	②
(3) Ich mag meinen Vater nicht.	①	②
(4) Ich mag meine Mutter nicht.	①	②

Die folgenden Fragen betreffen Ihr Leben

Q18. Wer hat den meisten Einfluss auf Ihr Leben?

Wählen Sie die zwei wichtigsten Personen aus den unten genannten 10 Möglichkeiten.

1. Wichtigste.....
2. Wichtigste.....

① Vater
② Mutter
③ Geschwister
④ Großvater
⑦ Lehrer
⑧ Freunde
⑨ enge/r Freund/Freundin
⑩ bekannte Persönlichkeiten (Idol, Vorbild), wie Musiker, Schauspieler, Politiker

⑤ Großmutter ⑪ niemand
⑥ andere Verwandte ⑫ Andere:.....

Q19. Fragen zu ehrenamtlichen Diensten:

	nie	fast nie	manchmal	oft
(1) Vater ist ehrenamtlich tätig.	①	②	③	④
(2) Mutter ist ehrenamtlich tätig.	①	②	③	④
(3) Ich bin ehrenamtlich tätig.	①	②	③	④

Q20. Wenn Sie ehrenamtlich tätig sind, was sind Ihre Gründe?

__① Weil ich das so will.
__② Wegen Bitten und Einfluss von Eltern.
__③ Wegen Bitten von Freunden oder anderen.
__④ Durch Klubs und Foren.
__⑤ Durch Kirchenarbeit
__⑥ Um Punkte/Anerkennung zu erhalten.
__⑦ Andere Gründe:.....

Q21. Gewichten Sie folgende Behauptungen.

	unzutreffend	kaum	beinahe	zutreffend
(1) Bis ich heirate, will/könnte ich finanziell von meinen Eltern abhängig sein.	①	②	③	④
(2) Bis ich mit dem Studium fertig bin, müssen meine Eltern meinen Lebensunterhalt bezahlen.	①	②	③	④

Q22. Wann glauben Sie, von Ihren Eltern unabhängig zu werden?

Finanziell:

__① Nach dem Haupt-/Realschulabschluss.
__② Nach dem Abitur.
__③ Nach Abschluss des Studiums.
__④ Nachdem ich Arbeit gefunden habe.

__⑤ Nachdem ich geheiratet habe.
__⑥ Meinen Eltern versorgen mich immer.
__⑦Anderes:.....

Durch Aus-/Wegziehen:
__① Nach dem Haupt/Realschulabschluss.
__② Nach dem Abitur.
__③ Nach Abschluss des Studiums.
__④ Nachdem ich Arbeit habe.
__⑤ Nachdem ich geheiratet habe.
__⑥ Ich kann immer bei meinen Eltern leben.
__⑦ Anderes:.....

Q23. Was sind Ihre Hauptprobleme?

Wählen Sie die beiden wichtigsten aus den 8 Möglichkeiten. Wenn Sie keine Probleme haben, kreuzen Sie Nummer 9 an. Wenn sie Nummer 10 ankreuzen, tragen Sie bitte den Grund ein.

1. Wichtigste.....
2. Wichtigste.....

① Lernen und Leistung
② Beziehungen zu Freunden
③ Sorgen um die Zukunft
④ Familie
⑤ Das eigene Aussehen
⑥ Der eigene Charakter
⑦ Beziehung mit Freund/in
⑧ Finanzlage der Familie
⑨ Keine besonderen Probleme
⑩ Andere:.....

Q24. Mit wem sprechen Sie über Ihre Probleme?

Tragen Sie die beiden wichtigsten Personen ein. Wenn Sie niemanden konsultieren, kreuzen Sie Nummer 11 an. Wenn Sie Nummer 12 ankreuzen, tragen Sie bitte die Person ein.

1. Wichtigste.....

2. Wichtigste.....

__① Vater
__② Mutter
__③ Geschwister
__④ Freunde
__⑤ Großvater
__⑥ Großmutter
__⑦ andere Verwandte
__⑧ Lehrer
__⑨ Fachberater
__⑩ Schulpsychologe
__⑪ Niemand
__⑫ Sonstige:.....

Q25. Wieviel Stunden verbringen Sie pro Tag mit folgenden Aktivitäten?

(1) SMS	( ) Anzahl schreiben ( ) Anzahl empfangen
(2) Video-/Computerspiele, Internet	( ) Stunden ( ) Minuten
(3) TV sehen	( ) Stunden ( ) Minuten
(4) allein Hausaufgaben machen bzw. lernen	( ) Stunden ( ) Minuten
(5) Nachhilfeunterricht	( ) Stunden ( ) Minuten

Q26. Wann kommen Sie meistens nach der Schule erstmals nach Hause? Kreuzen Sie bitte nur einmal an!

__① Vor 16 Uhr
__② Gegen 17 Uhr
__③ Gegen 18 Uhr
__④ Gegen 19 Uhr
__⑤ Gegen 20 Uhr
__⑥ Gegen 21 Uhr
__⑦ Gegen 22 Uhr
__⑧ Gegen 23 Uhr
__⑨ Nach Mitternacht
__⑩ Immer unregelmäßig

Q27. Mit wem verbringen Sie die meiste Zeit zu Hause? Kreuzen Sie bitte nur einmal an!

__① Alleine
__② Geschwister
__③ Vater (Stiefvater)
__④ Mutter (Stiefmutter)
__⑤ Großvater
__⑥ Großmutter
__⑦ Mit der ganzen Familie
__⑧ Ich entspanne/schlafe meistens

Q28. Wie häufig machen Sie folgende Aufgaben?

	nie	selten	manchmal	oft
(1) Hausarbeiten (Kochen, Saubermachen, Wäsche usw.)	①	②	③	④
(2) Hobby/Kultur (Galerie, Konzert, Kino, usw.)	①	②	③	④
(3) Sportaktivitäten	①	②	③	④
(4) Reisen oder Zelten	①	②	③	④

Q29. Was ist Ihnen wichtig für Ihren zukünftigen Beruf?

Wählen Sie zwei Prioritäten aus der Liste und tragen Sie die Nummer ein.

1. Priorität..... 2. Priorität.....

① Dass er mich interessiert.
② Dass er mir Spaß macht.
③ Dass er zu meinen Charakter passt
④ Dass er mir die meiste Freizeit bietet.
⑤ Dass ich wertvolle Erfahrungen sammeln kann.
⑥ Dass ich viel Geld verdienen kann.
⑦ Dass ich eine höhere Stellung in der Gesellschaft erreichen kann.
⑧ Dass Sicherheit des Arbeitsplatzes (Beamte usw.) besteht.

Q30. Bewerten Sie folgende Aussagen.

	unzutreffend	kaum	beinahe	zutreffend
(1) Eltern oder Lehrer entscheiden über meine Berufsrichtung.	①	②	③	④
(2) Ich entscheide allein über meinen Beruf und trage die Verantwortung.	①	②	③	④
(3) Meine Eltern wünschen, dass ich ihren Beruf weiterführe.	①	②	③	④
(4) Ich wünsche, den Beruf meiner Eltern weiterzuführen.	①	②	③	④

Q31. Haben Sie im letzten Jahr gejobt ?

__① Ja (weiter mit Q31-1) __② Nein (weiter mit Q32)

Q31-1. Welche Arbeit haben Sie gemacht? Bitte alles Zutreffende ankreuzen!

__① Werbung verteilen oder Plakate kleben
__② Fast Food Restaurant
__③ Kiosk
__④ Verkäufer
__⑤ Zeitungen ausliefern
__⑥ Tankstelle
__⑦ Büroassistent
__⑧ Baustelle
__⑨ Eventassistent
__⑩ Restaurant (Bedienung)
__⑪ Restaurant (Liefer-Service)
__⑫ Sonstige.....

Q31-2. Warum haben Sie gearbeitet?

Sie können mehreres ankreuzen. Was waren die beiden wichtigsten Gründe?

1. Grund.....2. Grund.....

① Um Taschengeld zu verdienen.
② Weil meine Freunde es auch tun.
③ Weil meine Eltern es wünschen.
④ Weil die Finanzlage meiner Familie schlecht ist.
⑤ Um Erfahrungen zu sammeln.
⑥ Weil es mit meinem zukünftigen Beruf zu tun hat.
⑦ Um meine Unabhängigkeit zu stärken.
⑧ Anderes:.....

Q32. Was halten Sie von jugendlicher Arbeitserfahrung?

__① Erfahrungen zu machen, ist gut.
__② Ein paar Mal ist in Ordnung.
__③ Besser nicht.
__④ Niemals.
__⑤ Ich weiß nicht.

Q33. Treffen folgende Behauptungen in Ihren Augen zu?

	nein	kaum	zutreffend	sehr
(1) Männer sollen arbeiten und Frauen sollen die Familie hüten.	①	②	③	④
(2) Gesellschaftlicher Erfolg ist wichtiger für Männer als für Frauen.	①	②	③	④
(3) Männer sind für die Finanzen der Familie verantwortlich.	①	②	③	④
(4) Frauen sollen artig und zurückhaltend sein.	①	②	③	④
(5) Für Frauen ist eine glückliche Ehe wichtiger als beruflicher Erfolg.	①	②	③	④
(6) Die Frauen sind verantwortlich für die Kindererziehung.	①	②	③	④
(7) Männer sollen auch Hausarbeit machen.	①	②	③	④
(8) Frauen sollen auch die Finanzen der Familie mitverantworten.	①	②	③	④
(9) Gesellschaftlicher Erfolg ist auch wichtig für Frauen.	①	②	③	④
(10) Männer müssen nicht immer dominieren.	①	②	③	④

Q34. Treffen folgende Aussagen in Ihren Augen zu?

	nein	kaum	zutreffend	sehr
(1) In Deutschland werden alle Menschen unabhägig von Vermögen und Stellung gleich behandelt.	①	②	③	④
(2)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ist Leistung wichtig.	①	②	③	④
(3)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ist ein Studium wichtig.	①	②	③	④
(4)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sind persönliche Kontakte wichtig.	①	②	③	④
(5)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ist Verwandtschaft wichtig.	①	②	③	④
(6) Die deutsche Gesellschaft ist fair.	①	②	③	④
(7) Nur wenn das Land sich entwickelt, geht es dem Einzelnen besser.	①	②	③	④
(8) Ich bin bereit, mich im Interesse meines Landes aufzuopfern	①	②	③	④

Q35. Bitte bewerten Sie folgende Aussagen.

	nein	kaum	zutreffend	sehr
(1) Ich glaube, dass ich einen guten Charakter besitze.	①	②	③	④
(2) Ich vertraue meinen Leistungen.	①	②	③	④
(3) Ich glaube, dass ich ein guter Mensch bin.	①	②	③	④
(4) Ich würde meinen Entscheidungen vertrauen.	①	②	③	④
(5) Ich glaube, dass ich selber meine Probleme lösen kann.	①	②	③	④
(6) Ich lenke mein Leben selbst.	①	②	③	④
(7) Ich denke manchmal, dass ich ein nutzloser Mensch bin.	①	②	③	④
(8) Ich denke manchmal, dass ich ein böser Mensch bin.	①	②	③	④
(9) Manchmal fühle ich mich, als ob ich ein Versager bin.	①	②	③	④
(10) Ich glaube selbst, dass ich ein Problemkind bin.	①	②	③	④
(11) Leute in meinem Umfeld glauben, dass ich ein Problemkind bin.	①	②	③	④

Herzlichen Dank für Ihre Hilfe!

ID

Enkät om ungdomars uppfattning om familj och familjeliv

Hej,

En forskargrupp vid Södertörns högskola bedriver ett internationellt forskningsprojekt som undersöker ungdomars familjeliv i fem länder nämligen Sydkorea, Japan, USA, Tyskland och Sverige. Vårt mål är att med resultat från denna enkät öka förståelsen av ungdomars levnadsförhållanden och publicera rapporter för att skapa oss en bättre ungdomspolicy.

Svaren från denna enkät kommer endast att användas i forskningssyfte. All personlig information kommer att betraktas som konfidentiell och vi uppmanar er därför att svara så ärligt ni kan. Din åsikt är av stor betydelse för oss forskare för att veta hur ungdomar i Sverige har det inom och utanför familjelivet. Till enkätundersökningen är du vald genom ett slumpmässigt urval.

Som belöning skickas en Tia-lott för dem som fyller i enkätformulären och skickar tillbaka dem i det medskickade kuvertet.

Den 20 april 2006

Yonhyok Choe, Docent i statsvetenskap
Forskningsansvarig
Institutionen för statsvetenskap, nationalekonomi och juridik
Södertörns högskola
tel. 08-608 4225, fax. 08-608 4340

Livia Alonso
Forskningsassistent
073-506 7332

Hedvig Jensmar
Forskningsassistent
070-352 5646

Instruktion för enkätsvar

1. _Besvara frågorna i turordning utan undantag
2. En del av frågorna besvaras på anvisad plats. För frågor som har dessa instruktioner (T ex: gå till Fråga 2 - 1) , följ dessa anvisningar och besvara frågorna.
3. För frågor gällande föräldrar, för uppväxtförhållanden utan föräldrar går det bra att ersätta med vårdnadshavare eller förmyndare.
4. Observera att vissa frågor kan besvaras med flera svarsalternativ medan andra frågor endast kräver ett svarsalternativ.
5. För att markera ett svar på en fråga, bocka i rutan med √ . För frågor markerade med ( ) eller övrigt ( ), besvara så utförligt du kan inuti paranteserna.

SQ 1 Kön?
___① Man ___② Kvinna

SQ 2
Födelseår? _____

SQ 3 Vilken skolnivå har du just nu?
___① Grundskola
___② Gymnasium(samhällsvetenskaplig)
___③ Gymnasium(natur/teknikvetenskaplig)
___④ Övrigt ( )

SQ 4 Vilken årskurs går du i?
___① Årskurs 1 ___② Årskurs 2 ___③ Årskurs 3
___④ Annan _____

SQ 5 Vart bor du?
___① Storstad ___② Förort, mindre ort ___③ Landet

SQ 6 Vad har du för medelbetyg?
___① MVG ~ VG ___② VG ~ G ___③ G ~ U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na föräldrar och familjeförhållanden.

Fråga 1 Med vilka personer bor du tillsammans med? (Skriv antal bröder, systrar, släktingar eller övriga inom parenteserna. **Markera alla svar som överensstämmer** med √)

___① Far
___② Mor
___③ Adoptivfar
___④ Adoptivmor
___⑤ Farfar
___⑥ Farmor
___⑦ Morfar
___⑧ Mormor
___⑨ Bröder antal ( )
___⑩ Systrar antal ( )
___⑪ Släktingar antal ( )
___⑫ Övriga antal ( )

Fråga 2 Vad har dina föräldrar för utbildning?

	Ingen skola	Lågstadie-utbildning	Mellan- och högstadie-utbildning	Gymnasie-utbildning	Yrkesskola (2,3 årig)	Universitets-utbildning (4årig)	Akademisk examen och över	Vet inte
Fa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M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Fråga 3

Har din **far** ett jobb? (Om du bor med din adoptivfar, svara på frågan om din adoptivfar)

___① Ja (gå till Fråga 3 - 1) ___② Nej (gå till Fråga 4)

Fråga 3 - 1

Har din **far** ett jobb? Markera först det svar som överensstämmer bäst med √, skriv sedan så utförligt du kan inuti ( ) mer konkret vad för typ av jobb det är.

Till exempel,

Kontorist (bankdirektör, bilhandlare, entreprenör etc.)
Jurist (domare, åklagare eller advokat)
Egenföretagare (restaurangägare, detaljhandel etc.)
Hantverkare (rörmokare, elektriker, murare etc.)

___① Forskare/lärare vid högskolor ( )
___② Lärare ( )
___⑩ Religionsyrke( )
___⑪ Jurist ( )

___③ Kontorist ( )
___④ Kommunalanställd ( )
___⑤ Entreprenör ( )
___⑥ Sjukvårdsanställd ( )
___⑦ Forskare ( )
___⑧ Polis ( )
___⑨ Militär ( )
___⑫ Tvbranschen ( )
___⑬ Konstnär ( )
___⑭ Idrottare ( )
___⑮ Kändis ( )
___⑯ Hantverkare ( )
___⑰ Egenföretagare( )
___⑱ Övrigt ( )

Fråga 3 - 2 Vilket passar bäst in på din **far**?

___① Timanställd (Deltidsjobb eller tillfälligt jobb)
___② Heltidsanställd (Fast anställd)

Fråga 4

Har din **mor** ett jobb? (Om du bor med din adoptivmor, svara på frågan om din adoptivfar)

___① Ja (gå till Fråga 4 - 1) ___② Nej (gå till Fråga 5)

Fråga 4 - 1

Har din **mor** ett jobb? Markera först det svar som överensstämmer bäst med √, skriv sedan så utförligt du kan inuti ( ) mer konkret vad för typ av jobb det är.

Till exempel,
Kontorist (bankdirektör, bilhandlare, entreprenör etc.)
Jurist (domare, åklagare eller advokat)
Egenföretagare (restaurangägare, detaljhandel etc.)
Hantverkare (rörmokare, elektriker, murare etc.)

___① Forskare/lärare vid högskolor ( )
___② Lärare ( )
___③ Kontorist ( )
___④ Kommunalanställd ( )
___⑤ Entreprenör ( )
___⑥ Sjukvårdsanställd ( )
___⑦ Forskare ( )
___⑧ Polis ( )
___⑨ Militär ( )
___⑩ Religionsyrke( )
___⑪ Jurist ( )
___⑫ Tvbranschen ( )
___⑬ Konstnär ( )
___⑭ Idrottare ( )
___⑮ Kändis ( )
___⑯ Hantverkare ( )
___⑰ Egenföretagare( )
___⑱ Övrigt ( )

Fråga 4 - 2 Vilket passar bäst in på din **mor (kvinnlig förmyndare)**?

___① Timanställd (Deltidsjobb eller tillfälligt jobb)
___② Heltidsanställd (Fast anställd)

Fråga 5 Hur är fördelningen i familjens inkomst **mellan far och mor**?

___① Mor tjänar in hela familjens inkomst
___② Mor tjänar mer.
___③ Mor och far tjänar lika mycket
___④ Far tjänar mer
___⑤ Far tjänar in hela familjens inkomst
___⑥ Vet inte

Fråga 6 Hur bidrar dina **föräldrar** till hushållsarbetet?(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Mor sköter allt	Huvudsakligen sköts allt av mor med fars hjälp	Mor och far gör hälften var	Huvudsakligen sköts allt av far med mors hjälp	Far sköter allt	Andra personer förutom far och mor
(1) Laga mat	①	②	③	④	⑤	⑥
(2) Diska	①	②	③	④	⑤	⑥
(3) Städa	①	②	③	④	⑤	⑥
(4) Tvätta	①	②	③	④	⑤	⑥

Fråga 7 Hur gör dina **föräldrar** för att lösa meningsskiljaktighete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Aldrig	Sällan	Brukligt	Alltid
(1) Lyssnar på varandras åsikter och pratar lugnt	①	②	③	④
(2) Emotionellt och impulsivt	①	②	③	④
(3) Pratar inte med varandra	①	②	③	④
(4) Mor följer fars åsikt	①	②	③	④
(5) Far följer mors åsikt	①	②	③	④
(6) Vägrar lyssna på varandras åsikter	①	②	③	④
(7) Tar till våld	①	②	③	④

Fråga 8 Hur ofta spenderar du dessa aktiviteter tillsammans med dina **föräldra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Med far				Med Mor			
	Aldrig	Sällan	Ibland	Ofta	Aldrig	Sällan	Ibland	Ofta
(1) Sport och utomhusaktivitet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Reso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Musikkoncert/gåpå bio/besöka museum etc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Titta på T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9 Hur intresserade är dina **föräldrar** när det gäller dig och dessa angelägenhete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Far är				Mor är			
	Bryr sig inte alls	Verkar inte intresserad	Intresserad	Mycket intresserad	Bryr sig inte alls	Verkar inte intresserad	intresserad	Mycket intresserad
(1) Studi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Vänn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Umgänge medmotsatt kö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Fritidoch intress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Min framti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0 Vad brukar dina **föräldrar** ofta säga åt dig? (**Markera endast ett alternativ**.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___① Plugga mer
___② Sluta spela dataspel
___③ Jämför mig med andra personer
___④ Skapa inte problem som påverkar andra
___⑤ Ljug inte för någon
___⑥ Var sparsam
___⑦ Var flitig
___⑧ Övrigt ( )

Fråga 11 Vad tycker du allra värst om att höra från dina **föräldrar**? (**Markera endast ett alternativ**.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___① Plugga mer
___② Sluta spela dataspel
___③ Jämför mig med andra personer
___④ Skapa inte problem som påverkar andra
___⑤ Ljug inte för någon
___⑥ Var sparsam
___⑦ Var flitig
___⑧ Övrigt ( )

Fråga 12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n relation med dina föräldra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Med far				Med mor			
	Absolut inte	Nej	Ja	Fullständigt	Absolut inte	Nej	Ja	Fullständigt
(1) Försöker spendera tid med m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Vi har en personlig relati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Förstår mig ganska br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Pratar öppet om alltin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Vi pratar ganska oft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Lyssnar på mina bekymmer och problem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Vet vilka jag är med när jag är ut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Vet vad jag har för mig när jag är ut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Uppskattar det jag tycker, tänker och gö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Ger mig rå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Använder många svordomar vid tillta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Slår mig ganska oft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Slår mig i uppfostrande syfte när jag har gjort fe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Riktar sin ilska mot mig helt utan anlednin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Kränker mig personligen med or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Förlåter inte mig när jag har gjort fe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Tvingar sina åsikter på m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Med far				Med mor			
	Absolut inte	Nej	Ja	Fullständigt	Absolut inte	Nej	Ja	Fullständigt
(18) Jag är lycklig när jag är med mina fö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Jag ljuger ofta för mina föräl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Jag är tacksam gentemot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Under tonårsperioden har jag bett mina föräldrar om rå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Vi har pratat om sex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Jag är delaktig i alla beslut som tas i hemme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Vi diskuterar om mina bety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Jag pratar med mina föräldrar när jag har problem med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Jag pratar med mina föräldrar när jag har problem med min kille/tjej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Jag pratar med mina föräldrar när jag har problem med min lära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Jag har påpekat när mina föräldar gjort eller sagt fe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Mina föräldrar är villiga att göra allt för m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3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n relation med dina föräldra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Med far				Med mor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1) Lägger sig i min klädstil eller min hårfrisy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Med far				Med mor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2) Lägger sig i hur jag spenderar mina peng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Lägger sig i mina vänskapsförhålland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Lägger sig i vem jag dejtaroch vem jag umgås me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Lägger sig i mina efterskolan-aktiviteter och den tid jag stude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Lägger sig i när jag är uteoch hur sent jagkommer hem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Jag bråkar ofta med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Vi bråkar ofta på grund avmina bety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Vi bråkar ofta på grund avmina vänn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Vi bråkar ofta på grund avmin kille/tjej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Vi råkar ofta i bråk pågrund av min personlighet, beteende och van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Vi råkar ofta i bråk på grund av minahandling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Mina föräldrar ser mellan fingrarna när vi bråk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Jag får stryk när vi bråk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Mina föräldrar ger sig när vi bråk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Med far				Med mor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16) Vi löser våra konflikter genom att prat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När vi har bråkat pratar jag inte alls eller undviker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4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na föräldrars förväntningar på dig.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Far				Mor			
	Absolut inte	Nej	Ja	Fullständigt	Absolut inte	Nej	Ja	Fullständigt
(1) Har stora förväntningar angående mina studi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Har stora förväntningar angående mitt framtida jobb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Vill att jag ska lyckas i samhälle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Vill att jag ska studera på ett bra universite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Vill att jag ska kunna sköta mig själ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Vill att jag ska bli mogen som per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Är mån om min häls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Vill att jag ska bli lyckl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Vill att jag ska gifta mig med en bra familj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5

Vilka är de 2 största förväntningarna som dina föräldrar har i Fråga 14 utav (1) till (9)?

Far
Nr 1_____
Nr 2_____

Mor
Nr 1_____
Nr 2_____

Fråga 16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Högstadienivå	Gymnasienivå	Yrkesskola	Universitetsnivå	Akademikernivå
(1) Hur mycket tänker du studera?	①	②	③	④	⑤
(2) Hur mycket vill dina föräldrar att du ska studera?	①	②	③	④	⑤

Fråga 17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Ja	Nej
(1) Jag vill leva som min far	①	②
(2) Jag vill leva som min mor	①	②
(3) Jag tycker INTE om min far	①	②
(4) Jag tycker INTE om min mor	①	②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g och dina omgivningar.

Fråga 18

Vem **influerar** dig mest i ditt liv? (Ange 2 alternativ i turordning. Om svaret är ingen, skriv 11 i fältet Nr 1_____)

Nr 1_____ Nr 2_____

___① far
___② mor
___③ bror eller syster
___④ farfar/morfar
___⑤ farmor/mormor
___⑥ släkting
___⑦ lärare
___⑧ vän
___⑨ kille / tjej
___⑩ känd person ex hjälte eller politiker
___⑪ ingen
___⑫ övrigt( )

Fråga 19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g och dina föräldrars **volontärarbete**.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Inte alls	Sällan	Ibland	Mycket aktiv
(1)Minfarär 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①	②	③	④
(2)Minmorär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①	②	③	④
(3) Jag är 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①	②	③	④

Fråga 20

Om du är (har varit) 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vad är (var) dina skäl? (**Markera alla svar som passar in med** √)

___① På grund av mina föräldrar
___② För att jag vill
___③ På grund av mina vänner eller bekanta
___④ På grund av klubbaktiviteter
___⑤ Min religion
___⑥ För att fylla min resumé
___⑦ Övrigt ( )

Fråga 21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och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ndigt
(1) Det är OK att vara ekonomiskt beroende av sina föräldrar tills man gifter sig	①	②	③	④
(2) Det är OK att föräldrarna står för skolavgifter och levnadskostnader tills man har studerat klart	①	②	③	④

Fråga 22 När är det läge att vara ekonomiskt självständigt?När är det läge att flytta ifrån sina föräldrar?

___① Efter högstadiet
___② Efter gymnasiet

___① Efter högstadiet
___② Efter gymnasiet

___③ Efter universitetsexamen
___④ Efter att man skaffat jobb
___⑤ Efter att man gift sig
___⑥ Man kan bo kvar
___⑦ Övrigt ( )

___③ Efter universitetsexamen
___④ Efter att man skaffat jobb
___⑤ Efter att man gift sig
___⑥ Man kan bo kvar
___⑦ Övrigt ( )

Fråga 23

Markera 2 utav nedanstående **bekymmer**. (Markera de 2 mest allvarliga bekymren som du har i turordning. Har du inga speciella bekymmer, markera nr 9. Markerar du nr 10, fyll i ( ).

(Nr 1 _____ Nr 2 _____)

① Studier och betyg
② Vänner
③ Min framtid(studier/jobb)
④ Familjerelation
⑤ Utseende
⑥ Personlighet
⑦ Umgänge med motsatt kön
⑧ Familjens ekonomiska förhållande
⑨ Inga speciella bekymmer
⑩ Övrigt ( )

Fråga 24

Vem vänder du dig till när du har bekymmer? (Markera de 2 personer som du mest vänder dig till i turordning. Om du inte vänder dig till någon, markera nr 11. Markerar du nr 12, fyll i ( ).

(Nr 1 _____ Nr 2 _____)

___① Far
___② Mor
___③ Bror eller syster
___④ Vän
___⑤ Farfar/morfar
___⑥ Farmor/mormor
___⑦ Släkting
___⑧ Lärare
___⑨ Organisation eller förening
___⑩ Studievägledare
___⑪ Ingen
___⑫ Övrigt ( )

Fråga 25

Hur ofta gör du nedanstående aktiviteter per **dag(vardag)?**

(1) Skickar och tar emot SMS	Skickar ca ( ) st Tar emot ca ( ) st
(2) Surfar eller spelar dataspel	ca ( ) tim ( ) min
(3) Tittar på TV	ca ( ) tim ( ) min
(4) Pluggar (pluggar själv)	ca ( ) tim ( ) min
(5) Efterskolan-studier (språk, instrument etc)	ca ( ) tim ( ) min

Fråga 26

När brukar du komma hem efter skolan eller efter alla fritidsaktiviteter (**Markera endast ett alternativ**.)

___① före kl 16:00
___② Ungefär kl 17:00
___③ Ungefär kl 18:00
___④ Ungefär kl 19:00
___⑤ Ungefär kl 20:00
___⑥ Ungefär kl 21:00
___⑦ Ungefär kl 22:00
___⑧ Ungefär kl 23:00
___⑨ Efter kl 24:00
___⑩ Oregelbundet

Fråga 27

Vem spenderar du mest tid med när du kommit hem? (Markera endast ett alternativ med √.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___① Själv
___② Bror eller syster
___③ Far(Adoptivfar, förmyndare)
___④ Mor(Adoptivmor, förmyndare)
___⑤ Farfar/morfar
___⑥ Farmor/mormor
___⑦ Hela familjen
___⑧ Går och lägger mig nästan direkt

Fråga 28

Hur ofta medverkar du i dessa aktiviteter? Markera det svar som passar in med √.

	Medverkar inte alls	Nästan aldrig	Ibland	Ofta
(1) Hushållsarbete (städa, laga mat, tvätta, etc)	①	②	③	④
(2) Intresse/kultur (se på konst, musikkoncert, gå påbio)	①	②	③	④

	Medverkar inte alls	Nästan aldrig	Ibland	Ofta
(3) Sportaktiviteter	①	②	③	④
(4) Skicka SMS	①	②	③	④

Fråga 29

Vad är dina kriterier för ditt **framtida jobb**? Markera de 2 viktigaste alternativen i rangordning.

Nr 1 _____ **Nr 2** _____

① Något som jag vill göra
② Något som jag tycker det är kul
③ Ett arbete där jag kan bestämma arbetstiden
④ Ett arbete som ger mig värdefull erfarenhet
⑤ Något som kan berika livserfarenheter
⑥ Ett arbete där jag blir känd.
⑦ Stabilt jobb (kommunanställd etc)

Fråga 30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Stämmer inte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1) Mina föräldrar eller min lärare vet bättre vad för jobb som passar mig	①	②	③	④
(2) Jag bestämmer själv och tar ansvar för min framtid.	①	②	③	④
(3) Mina föräldrar vill att jag tar efter deras yrken	①	②	③	④
(4) Jag vill ta efter mina föräldrars yrke	①	②	③	④

Fråga 31

Har du eller har du haft ett **deltidsjobb** under det senaste året?

___① Ja (*gå till* Fråga 31 - 1) ___② Nej (*gå till* Fråga 32)

Fråga 31 - 1

Vad har du eller haft för typ av **deltidsjobb**? (Markera alla alternativ som passar in med √.

___① Dela ut reklam ___⑦ Kontorsarbete

___② Snabbmatsrestaurang
___③ Kiosk
___④ Sälja varor
___⑤ Dela ut tidningar
___⑥ Bensinmack
___⑧ Hanterk och Bygg
___⑨ Events och Parties
___⑩ Servitör/Servitris
___⑪ Köra ut mat på beställning
___⑫ Övrigt ( )

Fråga 31 - 2

Varför har du ett **deltidsjobb**? (Markera de 2 viktigaste alternativen i rangordning.)

Nr 1_____ Nr 2_____

___① Tjäna ihop till fickpengar
___② För att mina vänner jobbar
___③ På grund av mina föräldrar
___④ Bidra till familjens ekonomi
___⑤ Skaffa mig livserfarenhet
___⑥ För att det har anknytning till mitt framtida yrke
___⑦ Jag vill inte vara beroende av någon
___⑧ Övrigt ( )

Fråga 32

Vad tycker du om ungdomar i din ålder som deltidsjobbar?
___① Det är en mycket bra erfarenhet
___② Det är OK att pröva någon enstaka gång
___③ Man bör undvika deltidsjobb
___④ Man bör absolut inte deltidsjobba
___⑤ Vet ej

Fråga 33

Vad är din åsikt i följa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ndigt
(1) Män bör arbeta utanför hemmet och kvinnor bör vakta hushållet	①	②	③	④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ndigt
(2) Karriär är viktigare för män än för kvinnor	①	②	③	④
(3) Män bör ansvara för familjens ekonomi	①	②	③	④
(4) Kvinnor bör vara tysta och lydsamma	①	②	③	④
(5) Det är viktigare för kvinnor med ett lyckligt äktenskap än att göra karriär	①	②	③	④
(6) Kvinnor är ansvariga för barns uppfostran	①	②	③	④
(7) Män bör hjälpa till i hushållsarbetet	①	②	③	④
(8) Kvinnor bör bidra till familjens ekonomi	①	②	③	④
(9) Karriär är viktigt för kvinnor	①	②	③	④
(10) Mannen behöver inte bestämma hela tiden	①	②	③	④

Fråga 34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och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ndigt
(1) I Sverige behandlas man på samma sätt oavsett inkomst och förmåga.	①	②	③	④
(2) I Sverige är det viktigt att kunna försörja sig	①	②	③	④
(3) I Sverige är det viktigt med utbildning	①	②	③	④
(4) I Sverige är är det viktigt med kontakter	①	②	③	④
(5) I Sverige är det viktigt med familjeband	①	②	③	④
(6) Sverige är ett ganska rättvist samhälle	①	②	③	④
(7) När det går bra för landet går det också bra för individen	①	②	③	④
(8) För landets bästa är jag villig att ge upp min förtjänst	①	②	③	④

Fråga 35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och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ndigt
(1) Jag tycker att jag är en person med god karaktär	①	②	③	④
(2) Jag tycker att jag har talang och förmågor	①	②	③	④
(3) Jag tycker att jag är en värdig människa	①	②	③	④
(4) Jag kan lita på mina handlingar	①	②	③	④
(5) Jag vet att jag kan lösa mina egna problem	①	②	③	④
(6) Jag har kontroll över mitt eget liv	①	②	③	④
(7) Ibland tycker jag att jag inte duger någonting till	①	②	③	④
(8) Ibland tycker jag att jag är ond	①	②	③	④
(9) Ibland tycker jag att jag är misslyckad	①	②	③	④
(10) Jag tycker inte om min personliget	①	②	③	④
(11) Folk runtomkring mig tycker att jag är ett problem	①	②	③	④

Tack för att du medverkat i denna undersökning!

3. 5개국 주요통계

<표 부록-1>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2년)

나라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일본	20.3	16.2	13.7
독일	18.9	15.7	13.6
한국	31.4	20.7	16.5
스웨덴	12.5	12.2	14.1
미국	15.5	15.5	15.6

자료 : OECD,「Education at a Glance 2005」

<표 부록-2> 한 학급당 학생 수

나라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일본	28.8	34.3
독일	22.2	24.7
한국	35.7	37.1
스웨덴	-	-
미국	21.7	22.6

주 : 영국 자료는 국공립학교뿐임.
자료 : OECD , 「Education at a Glance 2005」

<표 부록-3> 재학률

(단위 : %)

국가명	년차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남	녀	남	녀	남	녀
일 본	01/02	100	100	99	100	53	45
독 일	01/02	82	84	88	88	48	48
한 국	01/02	100	100	88	89	102	61
스웨덴	01/02	100	100	98	99	60	93
미 국	01/02	92	93	85	85	70	94

자료 : 日本総務省統計局,「世界の統計 2005」

<표 부록 -4> 후기 중등학교 진학률

나라	년도	후기중등교육		
		풀타임	파트타임	전수학교 (고등과정)
일본	2004	94.4	3.1	0.3
미국	2000	88.6		
독일	2000	83.8	14.4	
한국	2004	99.3	0.8	

주 : 1) 진학률(%) = 후기중등교육1학년으로의 진학자수 또는 재학자수/의무교육수료자수 및 해당년령인구 X 100
2) 일본의 풀타임은 전일제, 파트타임은 정기제, 통신제(본과)이다.
자료 : 「教育指標の国際比較」(2005)

<표 부록-5> 고등교육 진학률

나라	년도	고등교육		
		풀타임	파트타임	전수학교 (고등과정)
일본	2004	50.7	1.4	23.8
미국	2000	47.7	12.7	
독일	2000	33.2		
한국	2004	98.8	7.4	

주 : 1) 진학률(%) = 고등교육기관입학자수(해당연령이외의입학자 포함)/해당연령인구 X 100
2) 일본 풀타임은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4학년), 파트타임은 통신제·방송대학(정규과정)임.
자료 : 文部科学省,「データからみる日本の教育 2005」

<표 부록-6> OECD 학생 학습발달조사 (PISA)에 의한 15세 학력

* 평균득점의 국제비교 (40개국) 2003년

수학영역		과학영역		문제해결능력		독 해 력	
홍콩	550	핀란드	548	한국	550	핀란드	543
핀란드	544	**일본**	548	홍콩	548	**한국**	534
한국	542	홍콩	539	핀란드	548	캐나다	528
네덜란드	538	**한국**	538	**일본**	547	오스트레일리아	525
리히텐슈타인	536	리히텐슈타인	525	뉴질랜드	533	리히텐슈타인	525
일본	534	오스트레일리아	525	마카오	532	뉴질랜드	522
캐나다	532	마카오	525	오스트레일리아	530	아일랜드	515
벨기에	529	네덜란드	524	리히텐슈타인	529	**스웨덴**	514
마카오	527	체코	523	캐나다	529	네덜란드	513
스위스	527	뉴질랜드	521	벨기에	525	홍콩	510
오스트레일리아	524	캐나다	519	스위스	521	벨기에	507
뉴질랜드	523	스위스	513	네덜란드	520	노르웨이	500
체코	516	프랑스	511	프랑스	519	스위스	499
아이슬란드	515	벨기에	509	덴마크	517	**일본**	498
덴마크	514	**스웨덴**	506	체코	516	마카오	498
프랑스	511	아일랜드	505	**독일**	513	폴란드	497
스웨덴	509	헝가리	503	**스웨덴**	509	프랑스	496
오스트리아	506	**독일**	502	오스트리아	506	**미국**	495
독일	503	폴란드	498	아이슬란드	505	덴마크	492
아일랜드	503	슬로바키아	495	헝가리	501	아이슬란드	492
슬로바키아	498	아이슬란드	495	아일랜드	498	**독일**	491
노르웨이	495	미국	491	룩셈부르크	494	오스트리아	491
룩셈부르크	493	오스트리아	491	슬로바키아	492	라토비아	491
폴란드	490	러시아	489	노르웨이	490	체코	489
헝가리	490	라토비아	489	폴란드	487	헝가리	482
스페인	485	스페인	487	라토비아	483	스페인	481
라토비아	483	이탈리아	486	스페인	482	룩셈부르크	479
미국	483	노르웨이	484	러시아	479	포르투갈	478
러시아	468	룩셈부르크	483	미국	477	이탈리아	476

수학영역		과학영역		문제해결능력		독 해 력	
포르투갈	466	그리스	481	포르투갈	470	그리스	472
이탈리아	466	덴마크	475	이탈리아	469	슬로바키아	469
그리스	445	포르투갈	468	그리스	449	러시아	442
세르비아몬테네그로	437	우루과이	438	태국	425	터키	441
터키	423	세르비아몬테네그로	436	세르비아몬테네그로	420	우루과이	434
우루과이	422		434	우루과이	411	타이	420
타이	417	태국	429	터키	408	세르비아몬테네그로	412
멕시코	385	멕시코	405	멕시코	384	브라질	403
인도네시아	360	인도네시아	395	브라질	371	멕시코	400
튀니지	359	브라질	390	인도네시아	361	인도네시아	382
브라질	356	튀니지	385	튀니지	345	튀니지	375

주 : OECD 가입국의 학생 평균득점이 500점, 약 2/3의 학생이 400점에서 600점 사이에 들어가도록 환산했음(OECD 가명국의 평균이 500점, 표준편차가 100점)
자료 : 文部科学省,「OECD生徒の学習到達度調査(PISA)」

<표 부록-7> 학교생활 이외의 하루 생활시간 비교

나라/지역	하루 평균 시간 (2003)							
	숙제를 한다	TV나 비디오를 시청한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논다	친구와 놀거나 이야기 한다	집안일 을한다	운동을 한다	책을 읽는다	인터넷 을 한다
일 본	1.0	2.7	0.9	1.6	0.6	1.3	0.9	0.6
미 국	1.4	2.2	1.1	2.0	1.2	1.8	0.7	1.8
오스트레일리아	1.3	2.0	0.9	1.7	1.0	1.6	0.7	1.3
스 웨 덴	1.2	2.1	1.1	2.8	1.0	1.6	0.6	1.7
한 국	1.1	1.7	1.5	1.8	0.7	0.7	0.6	1.7
영 국	1.1	2.0	1.1	2.4	0.8	1.4	0.5	1.4
국제평균치	1.7	1.9	1.1	1.9	1.3	1.4	0.9	1.0

자료 : 文部科学省,「国際数学理科教育動向調査の2003年調査」

<표 부록-8>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국가명	조세지원	현금이전	지원총계
	평균생산노동자의 조소득에 대한 비율		
독 일	11.4	—	11.4
일 본	3.6	—	3.6
한 국	0.2	—	0.2
스웨덴	—	9.2	9.2
미 국	10.6	—	10.6

자료 : OECD,「Extending Opportunities :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표 부록-9> 각국의 출산 및 육아수당

나 라	출산, 육아휴가에 대한 수당의 급부 수준	출산 일시금, 수당/ 그 외의 지원	기업지급
			법정 외 급부의 보고를 행하는 자녀를 가진 여성피용자의 비율(%)
일 본	하루당 평균기본임금의 60%. 어머니가 임금 또는 상병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급부감액	30만엔의 일시금	10
독 일	100%		92
스웨덴			7
미 국	6주에 대한 급부 (로드아일랜드는 소득의 75%. 하와이는 66.6%. 뉴져지는 53%. 캘리포니아, 뉴욕, 푸에루토리코는 4반기 또는 년간 소득의 변화하는 비율)		50
한 국	100%		

자료 : OECD,「Extending Opportunities :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표 부록-10> 사회보장급부비의 국제비교 -GDP대비

국가명	급부비율
일 본	17.5
한 국	8.7
미 국	15.2
독 일	28.8
스웨덴	29.5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厚生労働省,「社会保障の受給と負担の見通し」

<표 부록-11> 각국의 주요 종교

세계 총계	기독교 32.7%, (카톨릭 17.3%, 개신교 5.6%, 정교 3.5%, 영국국교 1.3%), 이슬람교 19.7%, 힌두교 13.3%, 불교 5.8%, 시크교 0.4%, 유다교 0.2%, 그 외 종교 13.3%, 무종교 12.4%, 무신론자 2.4%
일 본	불교 84%, 그 외 16% (기독교 0.7%)
한 국	비고정 46%, 기독교 26%, 유교 1%, 그외 1%
독 일	개신교 34%, 카톨릭 34%, 이슬람교 3.7%
미 국	개신교 52%, 카톨릭 24%, 몰몬교 2%, 유다교 1%, 이슬람교 1%, 그외 10%, 무종교 10%

자료 : CIA,「The World Factbook 2004」

<표 부록-12> 남녀, 연령 5세 계급별 인구

연령	일본 (2002 센서스)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총계	62,111	64,815	23,984	23,656	141,661	146,708	4,418	4,507	40,310	42,179
0	600	571	296	270	2,064	1,970	48	46	↓	↓
1~4	2,422	2,310	1,301	1,181	7,962	7,614	188	178	1,976	1,873
5~9	3,083	2,938	1,863	1,638	10,188	9,713	277	265	2,058	1,953
10~14	3,353	3,193	1,722	1,522	10,825	10,312	316	299	2,390	2,267
15~19	3,834	3,654	1,775	1,631	10,471	9,905	270	255	2,390	2,267
20~24	4,307	4,114	2,067	1,945	10,350	9,863	263	254	2,438	2,359
25~29	4,965	4,825	2,092	1,957	9,640	9,332	293	282	2,404	2,310
30~34	4,437	4,340	2,236	2,156	10,563	10,394	313	302	3,209	3,039
35~39	4,096	4,019	2,141	2,032	10,954	10,961	337	321	3,733	3,515
40~44	3,924	3,876	2,155	2,097	11,413	11,589	298	287	3,418	3,267
45~49	4,468	4,448	1,696	1,650	10,492	10,810	297	289	2,954	2,888
50~54	5,210	5,232	1,257	1,241	9,185	9,597	311	305	2,673	2,654
55~59	4,290	4,444	1,012	1,026	7,260	7,730	320	313	2,229	2,239
60~64	3,750	3,986	897	1,011	5,524	6,087	233	234	2,814	2,920
65~69	3,357	3,749	681	852	4,439	5,142	184	198	2,137	2,370
70~74	2,670	3,230	400	629	3,862	4,832	163	194	1,588	2,005
75~79	1,626	2,525	234	423	3,071	4,349	141	185	1,006	1,842
80~84	915	1,699	110	240	2,010	3,305	101	157	535	1,273
85~89	477	1,055	38	114	1,390	3,203	47	94	358	1,138
90~94	149	421	8	34	↑	↑	15	40	↑	↑
95~99	25	93	1	7	↑	↑	2	9	↑	↑
100~	2	10	↑	↑	↑	↑	0	1	↑	↑
연령	148	80	-	-	-	-	-	-	-	-
0~14	9,459	9,013	5,182	4,610	31,038	29,609	829	787	6,424	6,093
15~64	43,281	42,938	17,329	16,746	95,851	96,269	2,935	2,841	28,261	27,458
65~	9,222	12,783	1,473	2,300	14,772	20,830	654	879	5,625	8,628

자료 : 国際連合,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日本総務省統計局,「2000年 酷税調査報告」

<표 부록-13> 인구동태

나라 (지역)	년차	출생률	사망률	자연 증가률	유아 사망률	합계 출산율	혼인률	이혼율
일본	03	8.9	8.0	0.9	3.0	1.29	5.9	2.25
한국	02	10.4	5.2	5.2	5.1	1.300	6.4	3.05
미국	02	13.9	8.5	5.5	7.0	2.032	7.8	4.33
스웨덴	02	10.7	10.6	0.1	3.3	1.650	4.3	2.39
독일	01	8.9	10.1	-1.1	4.3	1.349	4.8	2.40

자료 : 日本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の動向-日本と世界」

<표 부록-14> 남녀,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 인구비율 (%)

연 령	일본(2004)			한국 (2004)			미국 (2004)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총 수	60.4	73.4	48.2	62.1	75.0	49.9	…	…	…
15 ~ 19	16.3	16.3	16.3	9.8	8.6	11.1	j 43.9	j 43.9	j 43.8
20 ~ 24	68.8	68.5	68.9	58.3	52.1	62.8	75.0	79.6	70.5
25 ~ 29	84.3	94.0	74.0	73.3	82.4	63.9	82.0	90.9	73.1
30 ~ 34	79.3	96.6	61.4	72.5	94.0	50.4	83.4	92.9	74.0
35 ~ 39	79.7	96.8	62.4	77.4	95.2	58.9	83.5	92.7	74.5
40 ~ 44	83.8	97.2	70.4	80.3	94.9	65.5	83.8	91.2	76.7
45 ~ 49	84.9	97.0	73.0	77.8	92.6	62.7	83.7	89.3	78.2
50 ~ 54	82.0	95.7	68.4	72.9	89.5	56.2	79.8	85.4	74.5
55 ~ 59	76.3	93.2	59.6	65.1	80.8	49.5	71.1	77.6	65.0
60 ~ 64	54.7	70.7	39.7	53.7	65.0	43.4	50.9	57.0	45.4
65 ~	19.8	29.0	12.9	29.8	41.4	22.2	14.4	19.0	11.1

	스웨덴 (2004)			독일 (2004)		
	계	남	여	계	남	여
총 수	…	…	…	56.7	64.9	48.9
15 ~ 19	j 29.7	j 26.3	j 32.9	28.7	32.2	25.0
20 ~ 24	65.2	68.3	62.2	69.0	73.0	64.7
25 ~ 29	81.8	84.9	78.5	79.5	85.4	73.3
30 ~ 34	87.6	91.6	83.7	85.8	94.5	76.8
35 ~ 39	89.1	92.0	86.0	87.7	95.9	79.1
40 ~ 44	89.3	90.6	87.9	89.0	95.4	82.3
45 ~ 49	88.4	89.2	87.5	88.1	94.3	81.9
50 ~ 54	86.1	87.6	84.2	83.3	90.2	76.4
55 ~ 59	81.6	83.6	79.5	71.1	80.3	61.7
60 ~ 64	61.9	65.3	58.1	28.6	37.7	19.7
65 ~	…	…	…	2.9	4.3	1.8

자료 : 日本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の動向-日本と世界」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이숙현　연세대학교 · 교수
김정규　계명대학교 · 교수
김찬호　한양대학교 · 교수
이광호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정책단장
한도희　국가청소년위원회 · 전문위원
김정석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연구관
문성모　세종대학교 공학교육센터 · 책임연구원
김수영　문학과지성사 · 편집부장

◈ 집 필 진 ◈

손승영　동덕여자대학교 · 교수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박현주　함부르크대학교 · 교수

◈ 연구 보조 ◈

신정민　이화여자대학교 · 석사과정
최현주　숙명여자대학교 · 학사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Ⅳ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김기헌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 · 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 · 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Ⅰ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 · 임지연 · 김상욱 · 박승호 · 유성렬 · 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 · 임지연 · 김상욱 · 박승호 · 유성렬 · 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 · 오승근 · 권두승 · 전명기 · 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 · 박영균 · 김진호 · 임성택 · 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 · 천정웅 · 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 · 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 · 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 · De-Ping Lu · 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 · 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 · 조정문 · 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 · 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 · 조흥식 · 김향초 · 이규미 · 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 · 김지혜 · 류명화 · 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 · 권해수 · 정찬석 · 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Ⅰ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이기재 · 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 · 홍승아 · 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 마츠다 시게끼 · 무꾸오 아사코 · 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온 · 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헌 · 이경상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용역과제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윤숙 · 이혜연 · 이창호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장현 · 신순갑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윤숙 · 오승근 · 양계민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헌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헌 · 임지연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헌 · 장근영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헌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혜정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헌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6.17)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6.21)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 중간발표 워크숍」(6.23)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7.7~8)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Ⅳ · 최종발표 워크숍」(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Ⅱ · 최종발표 워크숍」(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24)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12.6)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1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인 쇄 2006년 12월 12일
발 행 2006년 12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50-4(93330)